第25輯

2020年

京畿鄉土史學

京畿道文化院聯合會

京畿鄉土史學

第25輯

京畿道文化院聯合會

경기향토사학25집을 발간하며

경기도 지역문화를 만드는 기초가

되기를 바라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입니다.

지역향토문화연구서적 〈경기향토사학〉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설〉경기향토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연구소는 지역문화원 지역학(지역향토문화)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토사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애정을 가진 이들의 1년간의 연구 성과를 집적하는 〈경기향토사학〉은 매년 경기도 각 지역연구의 최전선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지역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약 8개월간 문화원 관계자들과 치열한 토론 끝에 중장기 발전방안이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정책과제 중 〈지역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자료의 산실로서의 지방문화원〉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역문화는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흔적이고, 그 속에서 역사적 자취와 현재적 삶이 어울려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선언적 의미는 경기도 지역문화원이 지역을 바라보고, 전통과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의 지평은 "사람무늬(인문)와 터무니(장소, 공간의 무늬)로 삶을 이룬 주민의 흔적이다"라는 인식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역사를 통해 도민들의 현재적 삶을 해석하고, 그 현재적 삶으로 구성된 지역문화가 역사가 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경기향토사학〉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때문에 〈경기향토사학〉은 과거와 현재까지의 지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현재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기향토사학〉을 통해 향후 경기도 각 지역의 역사문화인물, 문화유적, 민담설화, 역사적 사건이 지역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경기도 지역문화를 만드는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봉에서 지치지 않고 지역을 연구하는 향토사학자들의 노력에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지역에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문화원 차원에서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 12. 31.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 상 덕

인사말

‘경기향토사학25집 발간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경기도 문화가족 여러분, 그리고 경기향토문화연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경기향토사학 제25집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간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하절기에 갑자기 몰아닥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이어 금년 초부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며 교육, 문화, 체육행사 등이 모두 취소 또는 연기되어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불안해하고 관계 기관 공무원들과 보건당국이 총동원되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문화가족과 향토사 가족분들께서도 부디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도 제24집 연구주제는『경기 향토문화연구 어디까지 왔는가』였으며 주제의 내용이나 양(量)적인 면으로 볼 때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책 1권에 담기가 어려워 상하(上下) 2권의 발간을 염두에 두고 작년에는 상(上)권을 발간하였고 금년은 하(下)권 발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정이 늦어지고 원고제출이 저조하여 뒤늦게 자유주제로 변경,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권은 차후로 연기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에는 성남의 백남욱 부소장님께서 성남의 인물사 중 금릉 남공철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셨고, 의정부의 최영희 부소장님께서 고려 시대 견주(見州) 도봉산에 위치한 망월사(望月寺)와 영국사(寧國寺)에 거주하던 혜거(慧炬) 국사의 행적에 대해서 연구하셨으며, 부천의 양경직 위원님께서 부천 교육사에서 중요한 소사간이학교(素砂簡易學校)에 대하여 논문을 쓰셨습니다. 동두천의 이명수 전 소장님께서는 지난 70여 년간 주둔해 있다가 이전하는 미군들과 이에 따른 동두천 지원특별법에 대해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시흥의 팽재연 위원님께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소래산 석조 마애보살입상에 관한 연구를 해주셨으며, 안산의 신대광 위원님께서 안산 지역학의 연구 성과와 전망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해 주셨고, 여주의 조성문 위원님께서 여주와 천주교 신앙에 대한 연구로 천주교의 전래과정과 역사, 그리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찰에 대하여 논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파주의 차문성 위원님께서는 박사학위 논문 준비로 바쁘신 중에도 장단 백학산 석각과 난정수계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 관한 논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임진강 주변의 산재 수려한 석벽 등을 배경으로 한 역사적 사료를 아주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서술해 주셨습니다. 김포의 정현채 사무국장님께서는 김포시 조강에 있는 포구 문화를 중심으로 접경지역 김포의 포구 문화에 대하여 지명의 유래와 발전사 등을 상세히 기술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의 큰 비극이며 같은 민족끼리 일으킨 너무도 안타까운 전쟁입니다. 3년이라는 길지도 그렇다고 절대 짧지도 않은 기간 동안 벌어진 내전이자 국제전이었습니다. 이 좁은 한반도 땅덩이에서 세계 3차대전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의 최강대국들끼리 벌인 그야말로 처참하고 참혹하게 치러진 우리 민족 모두가 크나큰 피해자인 가슴 아픈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70주년이 되어가는 이즈음 누구 하나 6·25전쟁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잊힌 전쟁이 되었지만, 누구라도 나서서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에게 전쟁의 참혹성과 이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기 싫은 과거라 하여, 어두운 지난 일을 되살리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하여도 과거와 역사를 망각하고 사는 민족은 앞으로 밝은 미래를 찾지 못하는 희망 없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을 막는 길은 우리의 국력을 키우고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여 강한 힘을 가지는 것임을 일깨워야 합니다. 6·25전쟁의 참혹성도 애써 덮으려는 사람들로 인해 요즘 점점 안보에 관한 교육도 없고 그에 대한 경각심도 사라졌습니다. 이에 이를 깨우치게 하고자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고 지금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곳 연천의 전쟁 상황을 역사적 고증과 생존자들의 증언, 그리고 생생한 자료를 찾아 제가 이번 호에 '한국전쟁 속의 연천'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경기향토사학 제25집 발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회장님과 연구위원님들, 그리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임직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후원과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 12. 31.

경기향토문화연구소장 이 준 용

목 차

금릉(金陵) 남공철(南公轍)에 대한 연구	백남욱	9
소사간이학교(素砂簡易學校)와 부천농업중학원(富川農業中學院)	양경직	29
안산 지역학의 연구 성과와 전망	신대광	77
도봉산 망월사 혜거국사 이야기	최영희	117
소래산 석조 마애보살입상에 관한 고찰	팽재연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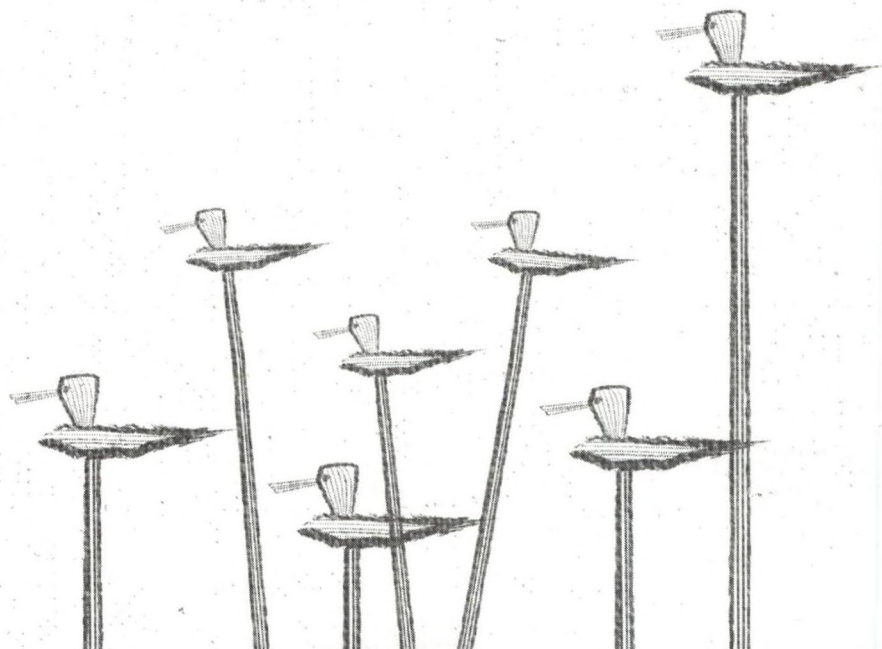
장단 백학산 석각과 난정수계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차문성 155

접경지역 김포의 포구문화 정현채 183
– 김포시 조강에 있는 포구문화를 중심으로 –

여주와 천주교신앙 조성문 199

6 · 25전쟁 70주년과 동두천 지원특별법 문제점 이명수 227

한국전쟁(6 · 25전쟁) 속의 연천 이준용 261



금릉(金陵) 남공철(南公轍)에 대한 연구

백 남 욱 (경기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目 次

1. 머리말

2. 금릉의 가계와 성장

3. 금릉의 학문정치에 대한 이해

4. 금릉의 학문정치와 개혁

5. 맺음말

집필자

백 남 욱 경기도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1. 머리말

성남시에는 문화 전승의 기본 자산인 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고, 백제 시조인 온조왕에서부터 조선 후기까지 많은 역사적 인물이 있다. 특히 성남의 역사적 인물로 금릉(金陵) 남공철(南公轍:1760~1840년)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19세기에 순조와 헌종 연간에 14년 동안 재상을 역임한 대정치가며 문장가로 근대화 과정에서 획을 긋는 정치활동을 한 인물이다.

금릉은 퇴임 후 순조 33년(純祖:1790~1834년)에 성남으로 낙향하여 99칸 규모의 집을 지으면서 성남시와 인연을 갖게 되었다.[1] 그는 당호(堂號)를 '귀은당(歸恩堂)'[2]이라 하고 그곳에서 학문과 문학에 열중하면서 만년을 보냈다. 금릉은 "3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헌종 3년:1836년), 귀은당 뒤편에 있는 도덕봉 양지바른 곳에 장사를 지내고, 그 아랫단 남쪽에 한 자리의 땅을 얻어 내가 세상을 뜬 후의 자리를 삼았다."[3]고한 그의 묘역[4] 때문에 금릉과 성남과의 관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근대의 태동기라 할 19세기는 실학사상이 일어나고 서학이 전래하면서 성리학에 의한 경세지학(經世之學)의 역할이 흔들리고 사회변화에 따른 모순으로 민생이 어려워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붕당 간의 권력 교체가 반복되던 환국정국(還國政局)[5]이 호문호학(好文好學) 하는 영조(英祖:1694～1776년)와 정조(正祖:1752~1800년)의 탕평 정치로 완화되면서 문화 진흥기를 맞이한 시기였다.

특히 정조는 학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 규장각을 설치하고 학문 중흥을 위해 남인에 뿌리를 둔 실학자들을 대거 등용시키고, 노론에 기반을 둔 진취적인 성향의 북학파를 등장시켜 개혁과 학문정치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정조대에 규장각의 초계문신에 선임되면서 정치에 입문한 금릉은 정조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패관문체를 일신하려는 정조의 문체반정 운동에 참여하면서 육경고

---

1) 귀은당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530번지이다. 뒤편에 그의 어머니 묘가 있다고 한 내용과 부합된 곳이라 하겠다.

2) 상명대학교 박물관, 『성남 전귀은당지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금토동 일원에 대한 지표조사는 2002년 12월에 하고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귀은당의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 후 2004년 성남시가 전귀은당지 정밀지표조사를 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530번지 일원이 옥경산장이며, 곧 귀은당지였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당시에 광주부의 치소는 남한산성 안에 있었다. 금릉이란 호도 '금릉'이란 지명에서 따온 것이다. 금릉이 말년에 거주하였던 귀은당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530번지이다.

3) 남공철, 「둔촌제승기」 『금릉집』 12권

4)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530번지 위의 금토동 산 66번지에 금릉의 모친인 정경부인 김씨의 묘와 그의 묘역은 2002년 12월에 성남시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되었다.

5) 정석종, 「肅宗代 甲申換局과 政變參與階層分析」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범조사, 1985.
홍순민, 「肅宗初期의 政治構造와 '換局'」 『韓國史論』 서울대 1986.

문(六經古文)[6]을 깊이 연찬함으로써 당대(當代)에 나온 인재라는 평을 받았다. 이 시기에 금릉은 후일 친우이자 정치적 동지인 김조순(金祖淳)·심상규(沈象奎)와 교분을 쌓았다. 그러나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개혁과 학문정치는 역사 속으로 퇴장되었다.

순조(純祖:1790~1834년)가 즉위하자 서울 중심의 벌열 세력들이 정치·사회·경제를 독점하면서 세도정치가 시작되었다. 이들과 다른 정치세력들은 정계에 진출이 어려워졌고[7] 정치 권력이 몇몇 가문에 집중되는 세도정치가 시작되었다. 결국 안동김씨로 대표되는 소수 가문이 여러 관서(官署)의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흡수한 비변사(備邊司)를 장악하여 국정을 총괄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조선 사회는 세도정치에 경직된 권력 집단들이 자신들의 권익에 집중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수구적인 안정만 추구하는 데 열중하였다. 그 결과 근대지향적인 실학사상이 실현되지 못하고[8] 탐학한 관리들과 향리들이 발호하여 삼정을 문란하게 하여 홍경래의 난(1811년)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금릉은 순조~헌종(憲宗:1827~1849년) 대까지 16차례의 이조판서와 14년 동안이나 재상을 역임하였다. 금릉은 조선왕조실록에서 450여 회나 기술되어 있지만[9] 큰 사건이나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례가 거의 없어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해 선행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10] 뿐만 아니라 금릉이 저술한 방대한 책[11]의 내용을 검토한다는 것은 시간의 부족함을 차치하고라도 본인에겐 능력 밖의 일이다.

이에 한 편의 논문으로 금릉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할 수 없어 이 논문에서는 금릉이 성장하여 경세가로 활동한 내용에 한정하여 정리하려고 한다.

---

6) 중국의 여섯 가지 경서. 곧 『시경(詩經)』·『서경(書經)』·『역경(易經)』·『춘추(春秋)』·『예경(禮經)』·『악경(樂經)』을 이름. 이 중에 『악경』은 진(秦)의 분서갱유 의해 없어지고 오경(五經)만 전하고 있다. 경(經)이란 상(常)을 뜻하며 사람이 항상 좇아야 할 도리를 말한다.

7) 박광용, 「蕩平論의 展開와 政局의 變化」『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범조사 1985.

8) 천관우, 『韓國史의 再發見』 일조각 1975. 참조.

9) 『英祖實錄』·『正祖實錄』·『純祖實錄』·『憲宗實錄』. 참조.

10) 성남문화원 부설향토문화연구소, 「향토인물연구(백헌 이경석과 금릉 남공철)」『향토인물연구』 1999.

11) 『金陵集』 24권 12책·『穎翁續稿』 5권 2책·『穎翁再續稿』 3권 1책·『歸恩當集』 10권 5책·『高麗名臣傳』 12권 6책.

2. 금릉의 가계와 성장

금릉은 1760년(영조 30년)에 서울 명례방[12]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원평(元平), 호는 사영(思穎)·금릉(金陵)이다. 고조부(高祖父)는 호곡(壺谷) 용익(龍翼:1628~1692년)이고, 증조부는 기봉(碁峰) 정중(正重:1653~1704년)이며, 조부는 기옹(寄翁) 한기(漢紀:1675~1748년)이다. 아버지는 뇌연(雷淵) 유용(南有容:1698~1773년)이며, 어머니는 김석태(金錫泰)의 딸이다.

고조부인 호곡은 효종 원년(1650년)에 관직에 임용되어, 효종(孝宗:1619~1659년)·현종(顯宗:1641~1674년)·숙종(肅宗:1661~1720년)대에 걸쳐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는 효종 6년(1655년)에 일본에 종사관으로 파견되어 관백(關白)의 원당에 절하기를 거절[13]하는 당당한 기백을 보이기도 하였다. 현종 대에는 대사간·대사성·전조(全曹)의 참판(공조제외)과 형조판서를 역임하면서 서인 당여(黨與)로 활동하였다. 그는 숙종 대에 이르러 이조판서와 대제학을 역임하면서 소의장씨(昭儀張氏, 張嬉嬪:1659~1701년)의 소생(후일 景宗이됨)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가 "세자책봉은 뜻밖의 일이다"라고 반대하는 글[14]을 썼기에 숙종 15년의 기사환국[15]을 맞아 삭직되어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를 가서 그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호곡은 종이와 붓만 들면 말이 바로 글이 될 정도로 문재(文才)가 뛰어났으며, 시와 술을 즐겨 문명(文名)을 날리고 마음은 진실을 지키는 바가 있었다고 한다. 그의 몸가짐은 소박하여 여러 차례의 변란을 겪으면서도 행동에 흠이 없었으며 지조와 인품이 후일 평가를 받아 관작(官爵)이 복구되고, 시호는 문헌(文憲)이다.[16]

이러한 호곡의 학문과 문학적 기품은 아들인 기봉과 후손들에게 가풍으로 이어졌다. 기봉은 세자의 시강원에서 보덕을 맡아 왕실 교육에 참여하였다.[17] 그리고 홍문관 교리 때 왕에게 일신(日新)·입지(立志)·정심(正心)·래간(來諫)·숭검(崇儉)이라는 다섯 가지의 잠(箴)을 올리자 숙종이 아

---

12) 명례방은 서울의 을지로1·2가·충무로1·2가·남대문로1·2가와 명동1·2동·회현동1·2동·저동 1·2동 등을 말한다.

13) 당시는 德川幕府가 정치를 운영하던 때였으며 5대 장군인 綱吉은 유교 정치를 실행하면서, 의식(儀式)과 전례(典禮)를 중요시하였다. 屈田正俊(1634·1684)을 大老로 삼아 장군친정(將軍親政)을 행하면서 조선과 대등한 의례(儀禮)를 하려고 하였다.

14) 『肅宗實錄』 卷 20, 肅宗 15年 1月 10日(戊寅)·17日(乙酉)條.

15) 송시열(宋時烈)은 제주도로 귀양을 가서 사사(賜死)당하고 서인 민유중(閔維重)의 딸인 인현왕후는 폐위되고 장희빈은 소의왕후로 봉하였다. 서인들은 축출되고 남인들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16) 『肅宗實錄』 卷24 肅宗 18年 2月 2日(壬午)條.

17) 『위의 책』, 卷33, 肅宗 25年 3月10日(己卯)條

름답다[18]고 칭찬하였다. 기봉은 수차례나 대사헌에 임명받았으나, 기사환국 시에 과거를 보았다 하여 사헌부에서 탄핵을 논의했던 일이 있어[19] 거절하고 선묘(先墓)가 있는 양주로 가서 여생을 보내고 『기봉집』 4권을 남겼다.

금릉의 조부인 기옹도 숙종 36년(1710년)에 세자의 사부로 세자익위사익찬을 맡았고 호조좌랑·형조좌랑·한성부서윤·호조정랑과 김제 군수와 같은 외직도 수차례 역임하였다. 그의 인품은 단정하고 청렴하며 글을 좋아하였고 아들인 유용이 세자의 시종인 덕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기옹집』 을 남겼다.[20]

아버지인 뇌연은 성리학의 대가며 문장가인 이재(李縡:1680～1745년)의 문인이며 영조 16년(1740년)에 알성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 해에 정언이 되면서 간관들이 시비를 다투지 않고 요행만 바라는 세태를 지적하는 간관지책[21]과 언로를 넓히라는 상소를 올렸다.[22] 그가 올린 상소의 내용이 영조가 당인들에 자작의리(自作義理)를 배격하라는 대훈에 반대하는 것[23]이어서 해남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는 국시(國是)라 할지라도 의리와 언로가 있는 유교 정치에 배치되면 시비를 가리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다. 3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홍문관의 교리를 비롯한 청요직을 맡았다.

뇌연은 시강원(侍講院)에서 문학을 비롯한 필선과 보덕을 가르치면서 세자의 교육에 참여하였다. 그는 영의정 이천보(李天輔:1698~1761년)의 천거로 영조 30년에 원손(元孫:후일 정조가 됨)의 보양관이란 중책을 맡았다.[24] 영조는 "원손의 학습방법을 다독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나, "보도 방법은 과독에만 전념하는데 있지 않고 관감의 여하에 달렸다."[25]고 하면서 원손을 보도(輔導)하였다. 영조는 원손을 교육한 뇌연에 대해 "왕세손의 덕기(德器)가 성취하였으니, 그 누가 교도

---

18) 『위의 책』, 卷34, 肅宗 26年 1月1日(乙未)條.

19) 부친인 남용익이 기사환국으로 귀양지에서 죽음을 맞이한 해에 출사(出仕)를 위해 과거를 보았다는 것이 후일 사헌부에서 논핵을 하였는데 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가 노모 봉양을 위해 지극한 효심에서 충청도 관찰사의 체차(遞差)를 허락 받았다.

20)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5권, p.519.

21) 『英祖實錄』 卷53, 英祖 17年 1月 16日(壬午)條.

22) 『위의 책』, 卷53, 英祖 17年 10月 23日(甲寅)條.
대훈을 지어 종묘에 고하고 교서를 반포하였는데 '국시가 조금 정해졌다'고 대훈의 권위를 무시한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23) 영조 16년(1970년 ?) 1월의 임인년옥사는 경종원년에 연잉군(영조) 측근인물들의 시해음모를 목호룡이 고변함으로서 노론의 최고지도자인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이건명(李建命)·조태채(趙泰采) 등 4인이 사형당하고 노론정권이 소론과 남인으로 교체된 사건이다. 영조가 죽은 4대신들을 영조의 왕위계승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 죄가 없다고 처분을 내린 후에 4색 당파를 등용하면서 대탕평책이 제창되고 사림정치의 청요직을 혁파하던 때이다.

24) 『위의 책』, 卷81, 英祖 30年 9月2日(戊寅)條.

25) 『위의 책』, 卷90, 英祖 33年 10月 19日(戊寅)條.

하였는가? 바로 남유용과 박성원(朴聖源:1697~1767년)이라."[26]고 하면서 몹시 흡족해하였다. 후일 영조는 뇌연의 원손 보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칭송하고 호피를 하사(下賜)하였다. 영조가 뇌연이 명성왕비(明聖王妃:1642～1683년)의 옥책(玉册)을 잘 지었다고 칭찬을 할[27] 정도로 문장에도 뛰어났다.

정조도 "나가 말을 배울 때부터 뇌연에게 수학(受學)하여, 어(魚)·로(魯)를 면할 수 있었다."하여 고마워하였다. 정조는 뇌연을 문청공으로 증시(贈諡)하고 규장각에서 친히 서문을 짓고 그의 시문(詩文)을 모아 뇌연집(雷淵集)을 발간하였다. 정조는 책이 발간되자 제문까지 지어 각신을 유용의 사당에 보내 서문과 제문을 읽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28] 이처럼 정조가 그의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후일 금릉을 총애하였다. 그의 졸기에 형 유상과 함께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남긴 당대의 문장가였다고 기술하고 있다.[29]

금릉은 어머니 김씨가 상제(上帝)에게 절하는 태몽을 꾸고 잉태하였다고 한다. 그는 1760년 11월 16일(영조 36년)에 명례방(明禮坊)의 집에서 태어났다.[30] 고조 호곡 이후 누대에 걸쳐 학문과 문재가 이어진 명문가에서 태어난 금릉은 4세에 부친으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가 10세 때에 문청공이 나이가 들어 돌볼 수 없게 되자 스스로 공부를 하였다. 금릉은 13세에 한용화(韓用和:1732~1799년)의 딸과 혼인하였다. 14살 되던 해에 부친이 세상을 뜨자 어머니 김씨의 훈육을 받으면서 『논어』와 『맹자』를 배웠다.[31] 그가 선진고문(先秦古文)으로 된 경서를 공부하여 고문(古文)으로도 두각을 나타내, 당시 문장으로 유명한 유한준(兪漢雋:1732～1811년)이 어린 한유(韓愈:768～824년)[32]라고 칭송하였다. 그는 사마천(司馬遷:기원전 145～90?년)과 구양수(歐陽脩:1007～1072년)의 글을 무척 좋아하였다.

그가 19세 때에 문장은 "도를 담는 그릇이라" 하고 "육경에 연유하지 않는 것은 글이 아니라."[33] 할 정도 집중하여 경학을 학문의 바탕으로 삼았다. 그 후 금릉은 당대의 대학자며 제일의 문장가인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1737～1805년)[34]을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을 배우면서 문하생인 이

---

26) 『위의 책』, 卷107, 英祖 42年 8月 22日(己未)條.
27) 『위의 책』, 卷119, 英祖 48年 10月 28日(己丑)條.
28) 『위의 책』, 卷9, 正祖 3年 8 · 12月 條.
『위의 책』, 卷 15, 正祖 7年 5月 條.
29) 『위의 책』, 卷121, 英祖 49年 7月 13日(庚午)條.
30) 남공철, 「宜陽子年譜」『歸恩堂集』 卷10.
31) 남공철, 『앞의 책』 금릉은 세 살 때에 부친에게 수학하였다.
32) 중국 당나라 때의 정치가이며, 사상가다. 동시에 시인과 문장가로도 이름을 떨쳤다. 자는 퇴지(退之)다.
33) 금릉, 『위의 책』
34) 연암 박지원(1737~1684년)은 육경고문(六經古文)의 부흥에 힘썼고, 마침내 그의 고문이 원숙한 경지에 이르러 도덕과 자기문장이 일치한다는 평가 받을 정도로 고문 본래의 정신에 투철한 학자였다. 박지원은 『열하일기(熱河

서구(李書九:1754~1825년)·이덕무(李德懋:1741~1793년)·김조순(金祖淳:1765~1832년) 등과 가까이 지냈다. 특히 김조순과는 후일 정치적인 동지로 각별한 우정을 나눴다.

3. 금릉의 학문정치에 대한 이해

정조는 1775년에 대리청정을 하다가 다음 해 영조가 죽자 25세로 왕위에 올랐는데, 생부인 장헌세자가 당쟁에 희생되었듯이 정조 또한 세손으로 갖은 위험 속에서 홍국영(洪國榮:1748~1781년) 등의 도움을 받아 즉위하였다(1776년).

정조는 그의 즉위를 반대한 정후겸(鄭厚謙:1749~1776년) · 홍인한(洪麟漢:1722~1776년) · 홍상간(洪相簡:1745~1777년) 등을 제거하였다. 그는 총애를 빙자해 세도정치를 자행하던 홍국영마저 축출하고 친정을 하였다. 그 결과 그의 정치노선에 찬성하던 남인과 소론 및 일부 노론이 시파(時派)를 형성하여 참여하였다. 그러나 강고하게 세력을 구축하였던 노론은 끝까지 당론을 고수해 벽파(僻派)로 남았다. 정조대의 정국은 종래의 사색당파에서 시파와 벽파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 되었다. 이러한 정세에서 정조는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였다. 그리고 정조는 장헌세자의 죽음과 관계된 벽파를 견제하면서 시파계열의 여러 당색을 등용하면서 학문을 대의로 삼으면서 학문정치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정조는 즉위한 3월에 기능이 퇴색해버린 홍문관을 대신해 규장각을 문형(文衡)의 상징으로 삼고, 홍문관 · 승정원 · 춘추관 · 종부시 등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부여하면서 학문정치의 핵심기구로 키워나갔다. 그는 '우문지치(右文之治)'와 '작성지화(作成之化)'를 규장각의 2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본격적인 학문정치를 추진해 나갔다. 이 시기 규장각에서 특별 교육과 연구 과정에서 공부를 한 젊은 문신들을 초계문신(抄啓文臣)이라 하였다. 정조는 규장각에서 근무하는 각신(閣臣)들과 젊은 관료들의 재교육에 힘썼다. 그는 이들과 함께 성균관제도를 강화하여 문풍을 진작시켜 학문정치를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았다.[35]

금릉이 20세가 되던 정조 4년(1780년)에 부친이 정조의 사부였던 관계로 음보로 세마를 제수받고, 산청과 임실의 현감을 지냈다. 금릉은 정조 16년(1792년)에 인정전(仁政殿)에서 인일제(人日

日記)』·『연암집(燕巖集)』·『양반전(兩班傳)』 에서 경세치용(經世致用) · 이용후생(利用厚生) ·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주장하여 성리학의 울타리를 벗어나 시대를 앞서 가고 있던 북학파의 거두며 당대의 대학자였다.

35) 박광용, 1997 「정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확립」『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편.

製)와 춘도기강제(春到記講製)를 거행할 때 책문(策文)에서 수석을 하여 전시(殿試)에 직접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36], 곧바로 시행한 인정전 앞의 과거에서 급제를 하였다. 이에 정조는 제문을 직접 써서 검교 직각 서영보를 보내 뇌연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부인에게는 옷과 음식을 내려주고 안부를 물으면서 무척이나 기뻐하였다.[37] 금릉에게는 말과 푸른 일산을 주면서 "문청공의 아들에게 특별한 은전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는가."[38] 앞으로 "가인(家人)의 예(禮)로서 그대를 대하겠다"[39]고 하였다. 이처럼 정조가 금릉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는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극진한 것이었고 그를 병조정랑 겸 춘추에 임명하였다.

이후 금릉은 학문적 재능을 인정받아 홍문관을 거치지 않고 정조의 특별한 배려로 직접 규장각의 초계문신이 되었다. 이 시기에 그는 중희당[40]에 입시하여 정조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치와 학문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정조는 그의 언행과 근신한 태도에 대해 칭찬하고 젊은 학자로 기품을 인정하고 총애하였다. 정조 16년(1792년)에 중국과 왜와의 직교역이 활발하여 은이 부족하게 되었다. 역관(譯官)들이 공무역에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자 그들이 전직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금릉이 은을 결제 수단으로 하는 무역에 대한 외교문서[41]를 패관소품을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이는 정조가 문풍(文風)을 바로 잡아 사풍(士風)을 바로 세우고자 한 문화정책에 반한 것이었다. 정조는 그의 문체가 육경의 고문체를 벗어나 패관소품(稗官小品)의 문체로 전락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조는 문체반정(文體反正)[42]에 관련된 선비들의 타산지석을 삼도록 하기 위하여 가혹할 정도로 금릉을 책망하였다. 정조는 금릉에게 이르길 "…. 문청공의 아들이라는 자가 가훈을 어기고, 임금의 명령도 저버리고 …..,"라고 질책하면서 금릉이 "대궐에 들어와도 경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집에 가서 사당에 절도 드리지 못하도록 하라."[43]고 엄하

---

36) 『위의 책』, 卷 34, 正祖 16年 1月 16日(丙戌)條.

37) 『위의 책』, 卷 34, 正祖 16年 1月17日(丁亥)條.

38) 『위의 책』, 卷 34, 正祖 16年 3月 20日(己丑)條.

39) 금릉 『앞의 책』.

40) 창덕궁 인정전(仁政殿) 동쪽에 있던 건물로 1782(정조 6)년 지어졌는데 왕과 신하들이 경연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41) 『위의 책』, 卷 36, 正祖 16年 10月 6日(辛未)條.

42) 李家源, 1960 「文體波動」 『人文科學』 10, 延世大學校 출판부.
정조는 한문(漢文)문체를 순정고문(醇正古文)으로 환원 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널리 읽혀지고 필기와 소설이 문체 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추세였다. 이를 소품에서 파생된 불순한 잡문체(雜文體) 여기고, 이를 숙청하고 전통고문으로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이 문체반정 혹은, 문체순정운동이라고도 한다. 이에 정조는 박지원과 그의 문하생인 금릉을 비롯하여 이상황(李相璜)·조순(金祖淳)·이덕무(李德懋)·심상규(沈象奎)등에게 자송문(自訟文)을 지어 받치는 견책을 하였다. 이는 정조가 시·벽파·남인 등 모두의 학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여 상호 비방과 공격을 중지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고 하겠다.

43) 『위의 책』, 卷 36, 正祖 16年 10月24(己丑)·25日(庚寅)條.

게 훈계하였다. 금릉이 자송문(自訟文)을 지어 바치고 잘못을 반성하자 곧 복직되어 성균관 대사성으로 임명되었다.[44] 정조가 금릉을 성균관의 대사성에 임명한 것은 규장각에서 초계문신으로서 교육받은 그의 학문을 성균관의 유생들에게 교육하면서 학문에 정진하라는 뜻이 담긴 것이라 하겠다.

금릉이 대사성의 직임을 마치고 승지가 되면서 정조를 측근에서 보필하고 개혁과 학문정치를 직접 배우고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하루는 정조가 갑작스럽게 수군을 열병하고자 할 때 금릉은 그 부당함을 승지의 직임과 각신이란 직함을 면직당하면서까지 주장하였다.[45] 이는 금릉이 원칙에 충실한 꿋꿋한 선비의 자세를 고집스럽게 보여 주는 사례라 하겠다. 그리고 금릉은 국정을 총괄하는 비변사의 부제조로 임명되어[46] 국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쌓았다. 정조 21년(1797년) 6월에 금릉이 비변사 당상관들과 주연을 하면서 정사에 힘쓰지 않고 주색을 평론하고 농을 즐긴다는 홍치영(洪致榮:1749～?)의 상소가 있었다. 정조는 그 상소의 진위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러한 상소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외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맨 것과 같은 혐의가 있다"고 하여 관직을 파직하고 엄하게 금릉을 힐책하였다.[47] 그 후에도 정조는 금릉의 대사성 임면(任免)을 세 차례나 반복하면서 혹독하게 시련을 주었다. 이와같이 정조는 금릉을 혹독한 시련을 주고 지도한 후에 원자 교육이란 중책을 맡겼다. 이는 정조가 금릉의 학문과 인품을 신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정조는 소작농인 무전농민(無田農民)에 깊은 관심을 갖고 토지제도의 개혁[48]과 농법개량을 통해 생산물 증가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채제공(蔡濟恭:1720~1799년)의 농산물은 도성 안에서 원활히 유통되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통공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금난전권이 혁파되고 유상인 즉 난전 상인의 상업활동이 안정되었다. 그 결과 육의전의 특권세력이 장악한 도성 중심의 상권이 약화되고, 시장 공간이 경강·송파 등으로 확대되어 상업이 발전하였다.[49] 정조가 백성들의 경제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개혁을 추진한 것은 학문정치가 애민정신을 담은 왕도정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처럼 정조는 사회경제적인 개혁정치를 시행하면서도 사부(師父)인 뇌연에 대한 각별한 존경과 그리움을 갖고 자주 금릉을 불러 만나곤 하였다.[50]

---

44) 『위의 책』, 卷 40, 正祖 18年 6月 1日(丙辰)條.
45) 『위의 책』, 卷 42, 正祖 19年 3月 17日(戊辰)條.
46) 『위의 책』, 卷 46, 正祖 21年 2月 10日(辛巳)條.
47) 『위의 책』, 卷 46, 正祖 21年 2月 10日(壬申)條.
48) 정약용(丁若鏞)의 '여전론(閭田論)', 박지원(朴趾源)의 '한전론(限田論)' 『課農小抄』 등이 제시 되기도 하였다.
49) 『正祖實錄』, 卷32, 正祖 15年 2月 12日(丁巳)條.
50) 『위의 책』, 卷 6, 正祖 2年 9月 15일(辛丑)條.
임금이 고(故) 봉조하(奉朝賀) 남유용이 감반(甘盤)의 구연(舊緣)이 있다 하며 그의 시문(詩文)을 수집하였다. 그의

정조 23년에 금릉을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하여[51] 목민관의 자세와 애민을 몸소 실천하도록 이끌었다.[52] 정조 24년(1800년)에 금릉이 홍문관 부제학으로 임명받고 귀경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조가 승하(昇遐)하자 스승이며 후견자를 잃었다.

금릉은 정조 16년에 관직에 입문하여 정조 24년까지 정조로부터 육경고문에 바탕을 둔 학문정치 즉, 왕도정치를 배웠다. 후일 금릉이 국정을 운영하는 경상의 위치에 이르러 학문정치, 즉 왕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4. 금릉의 학문정치와 개혁

정조가 갑작스럽게 서거하고, 순조(純祖:1790~1834년)가 11세인 1801년에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영조의 계비(繼妃)인 정순왕후(貞純王后:1745~1805년)가 수렴청정(垂簾聽政:순조 즉위년~3년)을 하였다. 이 시기에 영의정인 심환지(沈煥之:1730년~1802년)를 비롯한 벽파(僻派)가 정국을 주도하고 장헌세자(莊獻世子:1735년~1762년)에 대한 영조의 처분이 옳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 결과 장헌세자의 신원을 주장하고 영남만인소에 동조한 서유린(徐有隣:1738년~1802년) 형제가 탄핵 되고, 시파는 장헌세자를 추숭한 죄를 물어 정계에서 축출되었다.[53] 이 과정에서 이가환(李家煥:1742~1801년)을 비롯한 시파와 정약전(丁若銓:1758~1816년)과 정약용(丁若鏞:1762~1836년) 형제를 비롯한 서학에 관계된 많은 남인계 인사들이 축출되었다.[54] 그들은 장용철을 혁파하여 정조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그의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이 된 시파의 김조순과 그 계열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벽파의 김조순에 대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변사의 제조와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김조순은 순조 2년(1802년) 10월에 정조의 뜻에 따라 그의 딸이 왕비가 되면서 국구(國舅)가 되었다.

정순왕후(貞純王后)가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에 정치권력은 더욱더 비변사로 집중되었다. 그 결과 국왕의 권한이 미약해지고 의정부(議政府)는 의례(儀禮)만 담당하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기능

아들 금릉을 소견(召見)하여 하교하기를, "내가 『大學』과 『論語』를 배울 때부터 이 중신(重臣)에게 수학하였는데, 그의 아들이 나이가 장성했다고 들어 특별히 소견하였다. 마땅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인급(印給)하게 해야 하고,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그리고 정경부인에게는 옷감과 음식물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후하게 제급(題給)하게 하고 예관으로 하여금 존문(存問)하게 하라."고 하였다.

51) 『위의 책』, 卷 51, 正祖 23年 6月 6日(癸巳)條.

52) 『위의 책』, 卷 52, 正祖 23年 12月 29日(壬子)條.

53) 『純祖實錄』 卷 9, 純祖 6年 6月 (辛丑)條.

54) 『위의 책』 卷 4 純祖 元年 2월, 乙卯년 12月 庚申條.

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육조(六曹) 또한 정책을 집행하는 업무가 축소되고 비변사에서 결정한 사안들을 단순히 집행하였고, 삼사(三司)의 비판 기능 또한 비변사에 흡수되어 통치기구는 상호견제를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어린 순조는 정국을 장악할 수 없게 되고 모든 국정이 안동김씨에게 집중되었다.

이처럼 왕조의 통치기구가 무력화되면서 삼정문란으로 민생은 토탄에 빠졌다. 이러한 정국에서 금릉은 대비인 정순왕후가 "지금의 급선무는 주상에게 학문을 권면하는 것보다 지나치는 것이 없다"는 하교를 받고, 제학(提學) 김재찬(金載瓚:1746~ 1827년) 등과 함께 사부의 자격으로 왕에게 학문을 가르쳤다.[55] 금릉은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에 도승지의 직임으로 서학문제에 있어 강경한 의견[56]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금릉은 신유사옥(1801년) 때에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언군 인(恩彦君 裀: 1754~1801년)과 홍낙임(洪樂任:1741~1801년)·윤행임(尹行恁) 등의 처벌을 주장하였다.[57] 이러한 신유사옥이 진행되는 정국에서 금릉이 취한 행동은 서학을 배척하고 있는 당시의 집권층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이는 그가 육경고문과 성리학에 충실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하지만 금릉은 장용청을 폐지하는 중대한 국정 사안임에도 김조순과 관련된 정치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 신중하게 할 것[58]을 주장하였다.

순조 3년 12월의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려고 할 때 심환지를 중심으로 한 벽파가 국구인 김조순과 시파를 견제하여 권력기반을 강화하려고[59] 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조순과 각별한 친분이 있는 금릉도 외직(外職)인 경상도 관찰사로 전출되어[60] 중앙정치를 떠나 있게 되었다.

순조 4년(1804년)에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순조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김조순을 주축으로 한 시파가 강진 현감 이강묵을 탐비(貪鄙)의 죄목으로 유배하면서 벽파가 숙청되었다. 그 결과 김조순은 박준원(朴準源)·조만영(趙萬永:1776~1846년) 등의 벌족 가문의 협력을 얻어 정국을 주도하였다. 정순왕후가 순조 5년(1805년) 정월에 사망하고 7년에는 벽파의 이념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김종수(金種秀:1728~1799년), 김종후(金種厚:1721~1780년) 형제의 관직이 추탈되었다. 그리고 김종수가 정조 묘정(廟廷)의 배향에서 배제되면서 벽파는 몰락하고 김조순이 주도한 시파

---

55) 『위의 책』, 卷 1, 純祖 元年 8月 17日(丁卯)條.
56) 『위의 책』, 卷 1, 純祖 元年 3月 10日(丙戌)條.
57) 『위의 책』, 卷 1, 純祖 元年 4月 25日(辛未)·5月 25日(更子)條.
58) 금릉 『앞의 책』. 참조.
李泰鎭, 1985 『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變遷』, pp. 302~306.
오종록, 1992 「중앙군영의 변동과 정치적 기능」 『조선정치사』 (청년사)
59) 『위의 책』, 卷 5, 純祖 3年 12月(己丑)條.
60) 『위의 책』, 卷 4, 純祖 2年 2月 10日 『위의 책』, 卷 , 純祖 2年 1月 20日(壬辰)條(辛亥)條.

가 정국을 장악하였다.[61]

금릉은 공조판서를 임명받아 처음으로 경상(卿相)의 반열에 서서 국정을 총괄하는 비변사의 제조를 겸임하고[62] 국정의 핵심부에서 국정에 참여하였다. 10월에 판중추부사로 승급되어 동지정사(冬至正使)의 사행 길에 오르면서 "경사(經史)에 관한 서책(書册)을 구해올 수 있게 하고, 정경(正經)·정사(正史) 및 선배 순유(醇儒)의 문집과 서책을 가져 내용은 오도록 하되, 이단(異端)의 잡서(雜書)와 패승소설(稗乘小說)에 대한 금령을 지속하자고 주청하였다."[63] 이는 금릉이 경상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육경고문과 성리학에 대하여 일관된 시각을 갖고 학문을 열심히 하고 있음을 이해케 한다.

순조가 재위 8년(1803년)에 친정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금릉에게 병조판서의 직임을 제수하였다.[64] 곧이어 순조가 궁궐을 호위하는 병력을 늘려 왕권강화를 계획하자 김조순 일파와 갈등이 생겼다. 금릉이 개성유수로 좌천되자 순조가 개경유수는 경직(京職)이니 재임하면서 유선(諭善)을 맡아도 된다는 새로운 전례를 만들어 금릉을 측근에 두었다. 그 후 금릉이 원자의 보도를 책임지는 좌유선(左諭善)을 사직하고자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자의 보도에 더욱더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이처럼 순조는 자신의 사부이기도 한 금릉을 신임하였고 한편으로는 왕권의 안정을 위해 그의 도움을 절실히 받고자 하였다.

순조(純祖) 9년(1809년)에 왕이 인정전에 나가 왕대비전(王大妃殿)·혜경궁(惠慶宮)·가순궁(嘉順宮)에게 치사(致詞)한 전문(箋文)을 올리면서부터 왕과 왕실의 행사에 필요한 치사·전문·교서·비문 등을 금릉에게 짓게 하였다. 이러한 왕실의 의전에 관한 일은 문장력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임과 성리학적인 기준에 의한 학문과 인격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어서[65] 당시 금릉의 위상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사례라 하겠다. 이후 금릉은 시강원(侍講院)에서 좌우빈객(左右賓客)이 되어 원자(元子)의 교육에 담당하여 현실정치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후 세도정치가 진행되면서 과거부정과 매관매직이 성행하여 관리의 인사 문란이 극에 달하고 있었을 때 금릉은 이조판서란 중책을 맡았다. 이후 금릉이 이조판서의 직임을 19번이나 반복하여 전무후무하게 임면이 받는다.[66] 이는 그가 이조판서의 직임을 세도정치 하에서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금릉이 이조판서의 임면을 19차례나 반복하였다는 것은

---

61) 오수창, 「정국의 추이」『위의 책』(상), pp 81~85.
62) 『純祖實錄』 卷 10, 純祖 7年 1月 20日(壬戌)條.
63) 『위의 책』, 卷 10, 純祖 7年 10月 29日(丁酉)條.
64) 『위의 책』, 卷 11, 純祖 8年 8月 甲午, 10年 3月 辛酉 · 4月 癸巳條.
65) 『위의 책』, 卷 12, 純祖 9年 8月15日(癸卯)條.
66) 『위의 책』, 卷 13, 純祖 10年 6月 25日(戊申)~16年 10月 11日(丙戌)條.

과거와 인사를 관리하면서 세도가문들과 심한 갈등으로 업무를 소신대로 할 수 없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금릉은 인품과 정치적 역량으로 시관(試官)과 인사업무를 공평 정대하게 할 수 있었기에 공도를 넓혔다[67]는 평가를 받았다.

이즈음 좌의정 한용귀(韓用龜:1747～1828년)가 "병조 판서 금릉은 일곱 번이나 대정(大政)을 치르다가 병이 또 악화 되었으니, 우선 체직(遞職)을 허락해 주소서." 라고 상소를 하였다. 금릉은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병조 판서에서 체직될 정도로 업무에 열중하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순조 17년(1817년) 1월 초에 금릉은 병조판서의 관직을 다시 제수받고,[68] 4월에 다시 병으로 체직을 허락 받았을 정도로 건강을 돌보지 않고 국정에 전념하였다.

이후 순조 17년(1817년)에 금릉은 의정부 우의정으로 임명받자, 세 번이나 사직상소를 올리나 허락을 받지 못했다.[69] 앞서 이조 판서의 임면이 19차례나 반복되는 예처럼 우의정 또한 그러하였을 것이다. 비록 금릉이 김조순의 지지를 받고 있어도 세도정치 하에서 의정부의 업무수행은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후 금릉이 우의정의 직임을 수행하면서 순조에게 근정(謹正)하고, 학문과 덕성을 치도의 대본으로 삼는 왕도정치의 경세관을 강조하고 관리들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금릉은 매관매직과 과거부정을 개탄하고 이조판서 정상우를 파직시켰다.[70] 당시 문관인사(文官人事)와 과거부정은 세도가들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금릉은 육경고문과 성리학을 근본으로 한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꼭 개혁하고자 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금릉은 "좋은 법도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므로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71]고 하면서 양전의 전례를 분석하여 전정(田政)의 개혁을[72] 주장하였으나 세도가들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는 삼정문란에 따른 백성들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청주 목사 정의(鄭宜)를 비롯한 34명에

---

67) 『앞의 책』, 卷 13, 純祖 10年 1月 7日(辛亥)條.

68) 『위의 책』, 卷 13, 純祖 10年 1月 7日(辛亥)條.

69) 『위의 책』, 卷 20, 純祖 17年 7月 25日(丁卯)條. 우의정으로 임명됨.
純祖 17年 7月 29日(辛未), 8月 7日(戊寅)·12日(癸未)條. 사직을 상소함.

70) 위의 책』, 卷 20, 純祖 17年 8月 19日(庚寅). 卷 21, 18年 9月 10日(乙巳). 卷 26, 23年 5月 25日(癸巳). 卷 27, 24年 10月 15日(甲戌)條.
당시 김조순과 그 가문 일색으로 운영되는 세도정치 상황 속에서 왕의 국정운영권이 미미하다는 점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금릉이 순조와 세자에게 학문의 정진과 더불어 근면·성심·성심과 지행을 꾸준하게 강조하면서 학문정치의 실현을 요구 있다. 이는 군왕의 사부로서의 당시의 정항에 안타까움과 더불어 부친이 가르친 정조와의 비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71) 『위의 책』, 卷 21, 純祖 18年 11月 29日(癸亥)條.
양전(量田)과 같은 국가재정과 민생안정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인정(仁政)은 반드시 경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예와 더불어 선조대의 이항복과 숙종조의 김창집의 예를 제시하고 가장 문란한 고을부터 몇 년을 시한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고 있다.

72) 『위의 책』, 卷 22, 純祖 19年 9月 10日(己巳)條.

달하는 지방의 탐관오리를 파직시켰다. 금릉은 지방관의 파직에 따른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을 임명하고, 지방관을 파직시키는 탁월한 행정 역량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금릉이 지방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한편으로는 지방관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지방행정을 개혁한 것은 왕도정치의 근본인 애민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73] 이즈음 금릉은 직무 수행을 높이 평가받아 국구이며 제일의 세도가인 김조순과 같이[74] 예우할 정도로 인정받았다.

순조 21년(1821년)에 금릉이 병환으로 사직을 상소하자 순조는 "내가 경에게 간절히 마음을 쏟고 있는데 대의를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떠나려고만 하는가."[75]라고 하면서 반려를 할 정도로 신임을 하였다. 이는 당시의 정국에서 금릉의 정치적 위치를 가늠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는 순조가 금릉의 도움을 받아 벽파와 시파의 대립과 같은 세도집단들과의 분란에 조정자의 역할을 자임하며, 국왕으로서 권위를 펴 보이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76] 즉, 순조는 왕도정치의 원칙주의자이며, 김조순과도 긴밀한 유대를 갖고있는 사부인 금릉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후 금릉은 정무에 관계된 업무보다는 대외관계의 의전문제와 왕실의 예법문제를 자문하면서 국정운영에 거리를 두면서 총호사의 직임을 겸임하고 건릉(建陵)을 수원으로 천릉(遷陵)하는 일을 주도하였다. 그는 정조대왕천능비문을 제술[77]하고 왕실의 시책문(諡册文)·애착문(哀册文)·행장(行狀)·천능지문(遷陵誌文)·천능표석(遷陵標石)의 글을 썼다.[78] 이처럼 금릉이 국정을 떠나 문장가로서 한가하게 지내고 있는 것은 순조가 그의 건강을 위해 배려한 것이라 하겠다.

순조 23년(1823년) 2월에 금릉을 영의정으로 임명하고 그 직임을 수행하라는 하유(下諭)에서 "경(卿)이 한직(閒職)에 있는지 몇 해인가 ..... 오늘날 원보(元甫)의 자리와 당세의 일을 보필할 책임을 맡을 사람이 경(卿) 말고 누가 있겠는가? 이는 나의 말을 기다릴 것도 없이 경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다"[79]라고 하였다. 이에 금릉은 "..... 지금의 국사(國事)와 세도(世道)가 마치 물이 새는 만곡(萬斛)의 배가 끝없는 대해(大海)에 떠 있어, 훌륭한 뱃사공이 아니면 구제할 수 없는 것과

---

73) 『위의 책』, 卷 20, 純祖 17年 10月5日(乙亥), 18八年 2月 10日(戊寅), 20年 6月21 日(乙巳)條.
당시는 김조순가문인 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위세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관들은 대다수 권문세도가와 이해관계가 있었다. 순조 8년부터 어사를 전국 각도에 파견하였으나, 부작용만 나타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74) 『위의 책』, 卷 23, 純祖 20年 2月 29日(乙卯)條.

75) 『위의 책』, 卷 23, 純祖 21年 1月 2二日(甲寅) · 19日(辛未)條

76) 순조19년에 신하들과 조득영의 일치된 건의에 반대를 하고 척족정치를 비난하다 축출당한 이서구를 형조판서에 임명하여 중앙정치에 참여토록하고 24년에는 우의정으로 임명한다.

77) 『위의 책』, 卷 54, 正祖 附錄 正祖大王遷陵碑文

78) 『위의 책』, 卷 23~26, 純祖 21年~23年條, 금릉의 관계기사 참조(參照)

79) 『위의 책』, 卷 26, 純祖 23年 2月 23日(甲子)條.

같습니다. 그런데 노폐(老廢)하고 무능한 자를 불러다가 묘당의 우두머리에 앉혀 놓고 ...."라고 상소문[80]을 올려 사의를 표하였다. 그리고 대리청정을 하던 효명세자 또한 "금릉을 영의정으로 거듭 임명한다."고 하면서 출사를 촉구하였다. 효명세자가 금릉의 사직청원을 반려하는 유시문에서 "금릉의 영의정 임명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기뻐한다."고 하면서 "금릉이 조정에 나오지 않으니 아침저녁으로 침식을 하지 못 한다"고 하면서 금릉의 출사를 애타게 독촉하였다. 이처럼 효명세자가 금릉의 출사를 정성을 다 하여 촉구한 것은 그가 군사와 재정을 관장하면서 김조순을 비롯한 집권세력을 견제하고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81] 즉, 왕과 세도가문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부(師父)며 국구 김조순과는 친구인 금릉만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82] 마침내 효명세자는 백성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다급한 국정의 모든 난맥상을 열거하고 '정세(政勢)' 두 글자는 말할 것이 못 된다고 하면서 금릉의 애민정신을 자극하여 출사토록 하였다.

금릉의 애민정신은 "올바른 관원만이 나라의 근본인 백성이 고달픔을 구할 수 있고 .... 인재를 문벌에 기준하지 말고 청렴하고 근신하며 재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야 된다."[83]고 하는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금릉이 앞서 과거제도의 개혁과 탐관오리들을 처벌한 예에서 보듯 인사제도의 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금릉은 세도정치 하에서 과거제와 관리의 부정을 바로 잡는 것을 국정 운영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금릉이 과거와 인사가 애민의 근본이라고 보고 개혁하고자 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세도정치 하에서 과거와 인사문제는 효명세자와 김조순 일문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극히 미묘한 문제다. 이처럼 그가 과거와 인사문제의 개혁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개혁하려고 한 것은 안동김씨의 세도정치 하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금릉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금릉은 "학문이 곧 정사(政事)고, 정사가 곧 학문이라 하면서 성현의 경전을 읽지 않고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학문정치를 강조하고[84] 있다. 그러나 금릉이 강조하는 학문은 앞서 보았듯이 육경고문을 바탕으로 한 성리학이었다. 그의 학문정치가 일관되게 주장한 과거와 인사제도의 개혁이며 곧 민생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국정에 반영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가 주장한 개혁을 실현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은 세도정치 하에서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편 효명세자(孝明世子:1809~1830년)는 김로(金鏴1783년~ ?)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세

---

80) 『위의 책』, 卷 26, 純祖 23年 2月 25日(乙丑)條.
81) 오수창, 「정국의 추이」 『앞의 책』,상 pp 99~100.
82) 『위의 책』, 卷 29, 純祖 27年 9月 15日(丁巳) · 25日(丁卯).
83) 『위의 책』, 卷 29, 純祖 27年 5月 28日(壬申)條.
84) 『위의 책』, 卷 29, 純祖 27年 4月 30日(乙亥).

력과 연대하여 김조순과 그 일문의 세도를 견제하고 정국을 주도하려 하였다. 김조순 계열의 심상규(沈象奎:1766~1838년)의 권세와 사치를 비방하고 공격한 임존상(任存常)을 이조참의에 임명하였다.[85] 그리고 순조 29년(1829년) 7월에 김교근(金敎根:1766~1844년)과 그의 아들 병조(炳朝:1793~1839년)가 권세를 부린 탐학한 권간(權奸)이라 공격을 받고, 김교근이 옹진으로 유배되면서 김조순의 세도가 쇠퇴하게 되었다. 이처럼 효명세자가 김로 등의 새로운 세력집단을 이용하여 김조순과 그 일문을 철저히 견제하고 대립하는 정국이 진행되었다. 금릉은 양대 세력을 조정하여 국정을 개혁하는 데 있어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직상소를 계속 올렸다. 이는 앞서 이조판서를 19번의 임면하는 예처럼 영의정의 직무에서 그의 뜻을 실현하기엔 세도정치라는 큰 벽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금릉은 순조 29년 1월부터 사직을 수차례 청하여 마침내 6월에 영의정에서 물러났다.[86]

효명세자가 1830년 5월에 사망하면서 순조의 친정이 다시 시작되었다. 효명세자를 배경으로 정국을 장악했던 김노를 비롯한 김노경(金魯敬:1766~1837년)과 홍기섭(洪起燮:1776~1831년) 등이 방귀전리(放歸田里)되었다. 그 후 김조순과 그 일문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세도정치가 극에 달하게 되고 순조의 국정 운영은 무력화되었다. 이에 순조는 자신과 김조순 가문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금릉을 영의정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금릉은 앞서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때와는 달리 김노경의 탄핵에 참여하면서[87] 김조순에 동조하였다. 이는 앞서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의 정국운영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 하겠다.

금릉은 순조 31년(1831년) 5월에 병을 칭하고 영의정을 사직하고 정무를 떠나 모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순조 32년 4월에 김조순이 죽자 세도정치의 정국은 김조순의 아들 유근(逌根:1785~1840년)이[88] 조만영(趙萬永:1776~1846년)의 가문과 협력하면서 주도하였다. 그 결과 순조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인 입지는 더욱더 위축되자 금릉에게 수차례에 걸쳐 영의정을 맡도록 청하였다.[89]

마침내 금릉은 영의정의 직임을 맡아 "포도청이 경상(卿相)들의 특권 때문에 법령의 집행과 운영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여 포도청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백성이 전세와 대동미를 상납하는 임선(賃船)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집주선(執籌船)으로

---

85) 『위의 책』, 卷 29, 純祖 27年 3月 乙巳 · 4月 癸丑條.

86) 『위의 책』, 卷 30, 純祖 29年 1月 3日(무술), 2月 21日(乙酉), 5月 5日(戊戌) · 26(己未), 6月 10日(壬申) · 14日(丙子)條.

87) 『위의 책』, 卷31, 純祖 30年 9月 7日(壬戌) · 25日(경진) · 28日(癸未), 11月 條.

88) 『憲宗實錄』 卷 7, 憲宗 6年 12月(癸酉)條.

89) 『純祖實錄』 卷32, 純祖 32年 7月 29日(癸酉), 8月 3日(丁丑) · 6日(庚辰) · 7日(辛巳).

운반하도록 하였다. 금릉은 지방 수령의 교체 기간을 20삭(朔)[90]으로 하여 지방행정의 일관성을 유지케 하고 인재를 널리 발탁하여 쓰도록 하였다.[91] 금릉은 국가재정의 곤궁과 관리들의 부정, 특히 지방 수령들의 탐학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자 어사를 파견하고, 인재를 널리 발탁하고 임용하였다.[92] 이 시기 금릉은 민생에 직결되는 국정을 개혁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처럼 금릉이 민생을 중요하게 여긴 정치활동은 영의정을 사직하기 위하여 올린 마지막 상소에서 "……밀·보리가 풍년이 들었으니 가을 농사도 잘될 것이 내다 보입니다."[93]라고 하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순조 33년(1833년) 5월 16일에 금릉은 봉조하(奉朝賀)가 되면서 그의 마지막인 영상의 직임을 위로는 하는 자리에서 국왕이 왕도정치를 실현할 것을 건의하고 올바른 관리의 인사와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임명하는 방안을 실천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금릉은 정조의 예처럼 학문을 바탕으로 한한 왕도정치를 실행하려는 의지는 곧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리라 인식하고 과거와 관리들의 인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개혁을 하려 하였다.

금릉은 순조 33년(1833년)에 영의정을 사직하고 봉조하가 되면서 현실정치를 성남시 금토동의 청계산 자락에 자리 잡은 '귀은당'에서 학문과 저술 활동을 하면서 말년을 보냈다. 그렇지만 영의정인 심상규(沈象奎)가 포함된 글에서조차 금릉의 이름을 맨 먼저 기술하고 있어 최고의 원로로서 예우를 받고 있었다고 하겠다. 금릉은 순조가 재위 34년 만에(1835년 11월 13일) 승하하자 그의 애책문(哀册文)을 쓰면서 헌종시대를 맞이하였다.

금릉은 헌종(憲宗:1827~1849년)이 8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1835년)하면서 김조순의 딸인 순원왕후(純元王后:1789년~1857년)가 대리청정을 하였다. 당대 최고의 원로인 금릉은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이르듯 헌종에게 "몸을 건강하도록 살피시고 학문을 열심히 하시며 궁위(宮闈)를 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문(倖門)을 막고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시며 재용(財用)을 절약하십시오."[94]라는 충언을 올렸다. 그는 헌종 2년(1836년)에 선원전을 중건하지 않겠다는 순원왕후의 하교를 사첩(史牒)에 기록하여야 할 정도로 빛날 일이다[95]95고 칭찬하는 글을 올리고 현실 정치를 떠났다. 이후 헌종 3년(1837년)까지는 왕실의 의례적인 행사에서도 금릉의 행적은 보이지 않는다. 금릉은 헌종 6년(1840년)에 6월에 유배된 이지연(李止淵:1777년~1841년) 형제를 방축(放逐)

---

90) '朔'은 음력으로 매월 첫날인 초하루를 의미하나 '달=월(月)'로도 쓰고 있다.
91) 『위의 책』 卷32, 純祖 32 9月 5日(戊寅) · 15(戊午), 10月 5日(丁丑), 12月 19日(辛酉)條.
92) 『위의 책』 卷 33, 純祖 33年 1月 19日(辛卯)條.
93) 『위의 책』 卷 33 ,純祖 33年 5月 16일日 병술(丙戌) 조(條).
94) 『憲宗實錄』 卷1 憲宗 元年 12月 16日 (丙午) 條.
95) 『위의 책』 卷 3, 憲宗 2年 11月 14日 (癸巳) 條.

하라는 전교(傳敎)를 천토(天討)하는 마지막 상소[96]를 남기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은 헌종 6년 12월 30일(1840년)에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치사봉조하(議政府領議政 致仕奉朝賀) 금릉이 졸서(卒逝)하니, 나이는 81세고 시호는 문헌(文獻)이다.[97]

일찍이 정조가 금릉을 "맑고 깨끗하여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았다. 옥과 같은 사람이다.[98]라고 하였다. 당시 제일의 세도가며 친구인 김조순이 금릉의 집을 방문하고 가면서 "이판의 집에 있으면 하루종일 한 사람의 객도 보지 못하고 단지 새소리와 산색(山色)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세상이 변하여도 하나의 이치로 꿰뚫는 것이다"고 하여 금릉의 청빈한 인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신(大臣)은 단정하고 성실하며 화락하고 부드러운 모습과 온화하고 순수하며 청렴하고 근신한 절조가 있는 데다 학술이 깊고 순수하며 문장이 바르고 우아하다. 능히 그는 가문의 아름다움을 이어받아 일찍이 정조의 사랑을 받았고, 순조께서 즉위하신 처음부터 나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보도하는 책무를 맡아 그 공로가 컸으니, 묘당(廟堂)에서 도운 노고뿐이 아니다. 더구나 치사(致仕)한 뒤로 나이가 높고 밝아서 우뚝하기가 마치 영광(靈光)이 있었는데, 이제는 끝났다.[99]"라고 한 헌종이 금릉 졸서를 애도하는 말을 하였다.

5. 맺음말

19세기에 이르러 조선 사회는 영·정조의 문화 부흥이 퇴색되고 사회변화에 따른 실학의 등장과 서학이 전래되었다. 하지만 성리학은 경세지학으로 기능을 상실하였고 세도정치로 인해 국정이 혼란되고 삼정이 문란하여 민생은 토탄에 빠진 시기에 금릉 남공철이 있었다.

금릉은 고조부인 호곡 남용익이 효종·현종·숙종 3대에 걸쳐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그의 가문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종이와 붓만 들면 말이 바로 글이 될 정도로 뛰어난 문장가였다. 그의 문재는 정중과 한기에 걸쳐 가풍으로 이어갔다. 금릉의 부친인 유용은 홍문관의 청요직을 수행하면서 시강원에서 후일 정조로 즉위한 세자를 교육하였다. 후일 영조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움을 표하였고 정조 또한 깊은 감명을 받아 스승에 대한 극진한 존경심을 가졌다. 이러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금릉은 육경고문을 깊이 공부하여 어린 한유라고 칭송을 받았다.

---

96) 『위의 책』 卷 7 憲宗 6年 10月 7日(癸亥) 條.
97) 『위의 책』 卷 7 憲宗 6年 12月 30日 (丙戌) 條.
98) 『正祖實錄』. 卷 42, 正祖 19년 乙卯.
99) 『헌종실록 』, 헌종 6년 12월 (丙戌)條.

정조는 금릉이 과거에 합격하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규장각의 초계문신으로 삼았고,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관직을 제수하였다. 정조는 금릉에게 애정을 갖고 가혹하게 학문과 정치를 철저하게 교육하였다. 그 결과 금릉은 육경고문에 바탕을 둔 학문정치를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훌륭한 정치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정조 사후에 순조 대부터 권력이 소수 가문에게 집중되는 세도정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모든 면에서 국정의 난맥상이 표출되고, 특히 과거와 인사의 문란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금릉은 경상(卿相)의 직임을 갖게 되면서 육조와 의정부에서 김조순의 도움을 받아 육경고문에 의한 왕도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조판서를 16차례 역임하면서 과거와 인사폐단을 개혁하고자 하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개혁정치는 안동김씨의 세도정치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성공하지 못했다.

순조 중반이기에 이르러 금릉은 경상들의 특권 때문에 법령의 집행과 운영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자 포도청을 개혁하였다. 금릉은 왕도정치를 실현하는 방편으로 민생을 위한 지방제도의 개혁에 열중하였다. 이에 금릉은 지방관의 임기를 20삭(朔)으로 하고 지방관의 교체에 따른 행정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문제를 개선하였다. 그는 백성이 전세와 대동미의 상납하는 임선(賃船)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집주선(執籌船)으로 운반하도록 하였다. 이는 금릉이 민생안정을 위해 육경고문과 성리학을 바탕으로 왕도정치를 실현한 것이라 하겠다.

19세기 격동기에 금릉이 구현하고자 한 왕도정치와 개혁은 육경고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금릉이 이조와 의정부의 경상직을 수차례나 임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안동김씨가 권력을 독점한 세도정치 하에서 왕도정치와 개혁을 실천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금릉은 19세기 조선의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고, 안동김씨의 세도정치 또한 극복하지 못해 그가 실현하고 한 왕도정치와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다.

여 백

소사간이학교(素砂簡易學校)와 부천농업중학원(富川農業中學院)

양 경 직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1930년 반전농장(半田農場) 야학강습소(夜學講習所) 개소(開所)
3. 반전농장(半田農場)은 어떤 곳인가
4. 1938년 6월 2일 소사북심상소학교 부설 소사간이학교 개교
5. 1946년 12월 3일 부천중학 설립기성회준비위원회 발기(發起)
6. 1949년 10월 1일 2학급으로 사립 부천농업중학원 개원(開院)
7. 1950년 1월 부천농업중학원을 공립농업중학교로 설립 인수 신청
8. 1950년 3월 28일 부천농업중학교(富川農業中學校) 설립 인가 신청
9. 1950년 5월 13일 부천농업중학교(富川農業中學校) 설립 인가
10. 1950년 5월 16일 부천농업중학교 설립 인가 재결(裁決)
11. 1950년 6월 1일 부천농업중학교(富川農業中學校) 개교(開校)
12. 1954년 7월 7일 소사농업고등학교(素砂農業高等學校) 설립 인가
13. 1959년 3월 31일 소사중학교 소래분교(蘇萊分校) 설립 인가
14. 나가는 말

집필자
양 경 직
前 부천향토문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부천문화원 《부천문화》 편집위원

1. 들어가는 말

그림1) 1943년 소사북국민학교 부설 소사간이학교 학생 및 교사와 반전농장 농장원들 모습[1)]

경기도 부천시(富川市)의 교육사를 조명함에 개화기(開化期:1876~1910)에서 일제강점기의 학교 연혁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1900년 이창규(李彰珪)가 부평군 옥산면(玉山面)[2)] 소재 자기 마을에 세운 사립학교(私立學校)[3)]와 1910년 소사사립계남학교(素砂私立桂南學校)[4)]가 그렇다. 따라서 1900년 이창규가 세운 사립학교가 부천 지역에 세운 최초의 근대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사심상소학교(素砂尋常小學校:현, 부천남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913년 5월 15일 소사학교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1913년 6월 4일에 개교했다는 사실 자체가 누락되어 있다. 곧 부천남초등학교 연혁에 1922년에 개교했다고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1945년 8월 30일 일

---

1) 《사진으로 보는 부천의 어제와 오늘》 (최현수,1998)

2) 옥산면 관할 : 소사리, 당하리(現,춘의동), 조종리(現,원미동), 범박동리, 괴안리, 벌응절리(現,역곡동)

3) 국립중앙도서관〉《황성신문》 1900년 11월 1일 〈富平設校〉"富平郡玉山面居李彰珪氏가 該洞에 待立私立學校를 設始ᄒᆞ고 農家俊乂를 募集敎育ᄒᆞᆫ다고 學部에 請願ᄒᆞ얏더라."

4) 국립중앙도서관〉《황성신문》 1910년 1월 14일 〈可謂學父兄〉"富平郡玉山面 素砂私立桂南學校ᄂᆞᆫ 任員과 學徒父兄이 熱心勸奬ᄒᆞᆷ으로 學徒가 日益增進ᄒᆞ야 六十餘名에 達ᄒᆞ얏ᄂᆞᆫᄃᆡ 去月에 學父兄會를 開ᄒᆞ고 該郡守鄭雲儆씨와 校長李命憲氏가 次第로 敎育의 必要ᄒᆞᆷ을 激烈히 說明ᄒᆞᆫ이 該面朝宗里居ᄒᆞᄂᆞᆫ 學父兄李元西氏가 自己耕食ᄒᆞ든 畓五斗落을 特爲附校ᄒᆞ야 曰我雖愚昧ᄒᆞᆫ 農民이나 國民育敎이 如此時急ᄒᆞᆫ즉 엇지 田土를 愛惜ᄒᆞ리오 ᄒᆞ고 一場演說ᄒᆞ얏ᄂᆞᆫᄃᆡ 傍觀諸氏가 該氏의 學界熱心을 莫不稱頌ᄒᆞ얏다더라."

본인 학교를 인수하면서 이전(以前) 32년의 역사를 싹둑 잘라버리고, 그때부터 졸업생을 1회로 삼고 있는 모순도 발견된다.

그리고 중리(中里)의 반전농장(半田農場) 강습소(1930), 원종리(遠宗里) 강습소(1932)[5], 대장리(大壯里) 강습소(1933)[6], 약대리(若大里) 강습소(설립연대 미상)[7]가 그렇다. 이들 강습소는 학교 이름을 달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장리 강습소를 다녔던 박휘양(朴徽陽,1936), 약대리 강습소를 다녔던 박공래(朴公來,1937) 두 분에 의하면 일본어 · 산술 · 체육 · 라디오 체조 · 일본 노래를 배웠다고 한다. 그러나 한글은 해방되고 나서야 겨우 배웠다고 한다.

특히 반전농장 강습소는 1930년 당시 부천군 계남면 중리 3번지 일대에 있었던 반전농장 소작인들의 자녀들을 위해, 반전농장 주임 수등정웅(須藤定雄)이 개설하였다. 이후 8년 뒤인 1938년 6월 2일 언문강습소를 이어받아서, 소사북심상소학교(素砂北尋常小學校:현, 부천북초등학교) 부설 소사간이학교(素砂簡易學校)로 승격하였다. 속성으로 가르치는 2년제 학교였다.

오정면 삼정리(三井里)에 살았던 밀양박씨 규정공파 23世 박욱래(朴旭來,1925-미상)는 바로 소사간이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그는 자신의 일기《旅行記》(1945)[8]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그 두 가지 길이란 상급학교(上級學校)에 갈 길과 자택에서 농사의 원조(援助) 또는 취직할 길이였다. 이렇게 노상(路上)에서 망설이고 있는 차에, 산구장남(山口長男)이란 자가 나타나 상급학교에 갈 길을 안내해 준 것은, 실상(實相) 무상(無上)의 다행이요 고마운 일이였다. 산구(山口)는 금전(金錢)에 관한 것은 쾌(快)히 승낙(承諾)하야 의외로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였다. 내가 자기의 소작인(小作人)의 자식이요, 또 성적이 좋다는 말을 듣고 호의(好意)를 표(表)한 것이다."

이로보아 소작인(小作人) 자녀들이 많이 다녔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닌 게 아니라 반전농장 강습소부터 소사북심상소학교 부설 소사간이학교까지, 중리(中里)에 15년간 존재했던 만큼 학교와 가까운 중리 · 내리 · 약대리 · 삼정리 · 심곡리 · 도당리 아이들이 많이 다녔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부천시사(富川市史)》(1988/2002)나 디지털부천문화대전(2008)이나 소사간

---

5) 《대장동 · 원종동 마을지》(2017) 양경직 책임 집필로 발굴함.

6) 부천문화원 수석연구위원 양경직이 2011년 7월 6일 발굴함.
증언 : 대장리 박휘양(朴徽陽,1936년생) 옹은 대장리 강습소에 1년을 다니다가 간단한 시험을 치고 오정국민학교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강습소 위치는 대장동 206-4번지이다.

7) 증언 : 2020.10.26 - 삼정리 출신 박공래(朴公來,1937년생) 옹은 약대리 강습소에서 일본어, 산술, 체육, 라디오 체조, 일본노래 등을 2년 배우다가 오정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 다시 1학년으로 다녔다고 한다. 한글은 해방이 되고 나서야 배웠다고 한다. 강습소 위치는 약대동 77-4번지 약대중앙교회 부근이라고 한다. 약대리 강습소는 1919년 3.1 만세 운동 때 중심 역할을 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8) 《旅行記》(박욱래,1945) - 자료제공 박노설

이학교는 어디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었다. 하여간에 간이학교(簡易學校)는 일제강점기 때 취학하지 못한 조선인 아동들을 가르치던, 2년제 학교로 전국에 무수하게 설립되었다. 아래에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제는 농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교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1934년 1월 학비(學秘) 제2호로 〈간이(簡易) 초등교육 기관 설치에 관한 건〉을 발표하였다. 일본어를 보급시키고 직업에 대한 관념을 깊게 하는 동시에 일본 정신을 불어 넣으려는 의도에서 설립되었다. 설립 배경은 1930년대에 한국인의 교육열이 크게 고조되어간 반면 교육 시설은 부족하여, 적은 예산으로 초등 교육을 보급시키고자 간이학교제(簡易學校制)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1930년대는 일제의 산미증산(產米增產) 계획의 실패와 세계 경제 공황 등의 여파로 인해 계속적인 수탈을 당한 농촌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소작 쟁의 등 농민 저항 운동이 격화되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32년부터 농촌 진흥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정책의 일환으로 간이학교를 설립하여 농업 교육을 보급시키고 대륙 침략을 위한 동원 체제를 만들어 농촌 사회의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간이학교는 공립 보통학교에 부설되어 있었으나 독립된 교육 기관으로 인정하여, 자체의 교육 과정으로 초등교육을 완성시키도록 하였다. 다만 공립 보통학교의 교장과 훈도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실시 초기에는 주로 농촌에 설립하였으나 점차 도시에도 확산되었다. 수업 연한은 2년제이고 학급은 단급으로 편성하여 평균 10세 정도의 아동들을 입학시켰다. 각 학년마다 40명씩 80명을 정원으로 하였으며, 교과목은 수신 · 일어 · 국어 · 산술 · 직업 등 5과목으로 하였다. 수업 시간은 1주일에 30시간 이내로 하고 보통교과와 직업교과는 2:1의 비율로 시간을 배당하여 직업 과목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또한 농촌 간이학교에서는 학교마다 전답과 우사 · 돈사 · 퇴비장 등의 실습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교원은 한 학교에 한 명씩으로 하되 반드시 학교가 있는 마을에 정주하여 직업도야에 힘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즉, 간이학교의 교원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촌락민을 계몽, 교육해야 하므로 일종의 촌락개학(村落皆學)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도시 간이학교는 상공업을, 농촌 간이학교는 농업을 가르쳤으며 교과서는 도시 간이학교가 보통학교용을 사용한 데 반해 농촌 간이학교는 별도로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대부분 학교의 운영은 관비로 충당되었으나 개량 서당을 간이학교로 개편하고, 서당 설립자로부터 토지를 기증 받아 농촌 실습지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간이학교에 배치할 교원을 보충하기 위해 각 사범학교에 11학급씩을 임시 증설하여 주로 갑종 농업학교 졸업생들에게 1년의 단기 강습을 과한 뒤 간이학교 교원으로 배치하였다. 1934년에는 전국에 384개의 간이학교를 설립하고 학생 1만7669명(男 1만6,393명, 女 1,276명)을 수용, 매년 증설되었으며, 1936년에는 880개로 확장되어 한 군(郡)에 4개교 정도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호응이 적을 뿐 아니라 1930년대 후반부터는 민족 말살 정책이 적극화되어 더 이상 설립

이 추진되지 않았으며 광복 전까지 모두 국민학교로 전환되거나 폐교되었다."[9]

간이학교는 곧 조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립한 학교였다는 것, 1934년 공포(公布) 첫 해에 전국에 384개가 생겼다는 것, 1936년에는 880개로 확장되어 전국 평균 1개 군(郡)에 4개교 정도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이학교 교과서는 공포 당시 보통학교 교과서로 써왔으나, 1935년부터 간이학교용 교과서로 국어독본(國語讀本, 일본어) · 조선어(朝鮮語) · 한문독본(漢文讀本) 등을 개정하여 가르쳤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일본 정신을 강화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각설하고. 어쨌든 소사북심상소학교 부설 소사간이학교는 1945년 해방과 동시에 학교 건물과 부지가 적산가옥(敵産家屋) 및 적산토지(敵産土地)가 되면서 자동 폐교되었다. 이후 중학교 설립을 간절히 추진하던 부천군에서 1946년 12월 3일 부천군에 중학교 설립 기성회준비위원회(期成會準備委員會)를 발기(發起)하고, 학교 설립지는 소사읍으로 결정하고 1천만 원을 목표로 설립기금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금 모집이 부진해지자 이에 강해승(姜海昇, 1896~1958) 부천군수[10]가 앞장서서 나선 이후, 농림부장관[11]을 지낸 박제환(朴濟煥, 1905~1995)을 비롯하여 서울에 거주하지만, 이곳 출신인 나원상(羅元相), 부천군 계양면 전 면장 강한익(姜漢翊) 그리고 계양면 장기리(場基里)에서 음식점을 하던 설숙자(薛淑子, 60)가 1947년 9월에 개교(開校)를 목표로 토지 및 현금을 기부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난항에 부딪혀 1948년에도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부천농업중학원을 공립농업중학교 설립으로 인수방(引受方)의 건 신청〉[12]에 의하면 1946년에 부천농업중학교기성회를 결성하고, 1949년 2월 1일 사립 부천농업중학원을 2학급으로 개원하였다. 부천농업중학원은 곧 폐교된 소사간이학교를 이어받아, 부천중학교와 부천공업고등학교와 시흥시 대야동 소재 소래중학교의 모태(母胎)가 되었다.

전체 연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반전농장 야학강습소(1930) ⇨ 반전농장 주학언문강습소(1932) ⇨ 소사간이학교(1938)를 모태로 하여, 부천농업중학교기성회(1947)가 결성된 이후 사립 부천농업중학원(1949) ⇨ 공립 부천농업중학교(1950) ⇨ 부천중학교(1951) ⇨ 소사중학교(1952)

---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0) 제12대 부천군수로 1948년 10월 1일부터 1950년 5월 12일까지 재임하였다.

11) 역곡동에 거주했던 제17대 농림부장관을 말한다. 재임기간 : 1960년 8월 22일 ~ 1961년 5월 16일

12) 국가기록원 〉 부천농업중학원을 공립농업중학교 설립으로 인수방의 건 신청 〉 생산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생산연도 1950년 관리번호 BA0585146

⇨ 소사농업고등학교(1954) ⇨ 소사중학교 소래분교(1959) ⇨ 소사실업고등학교(1962) ⇨ 소사농공고등학교(1967) ⇨ 부천공업고등학교(1973) ⇨ 부천중학교(1973) 순서로 개명 및 분교가 되었다. 이하 아래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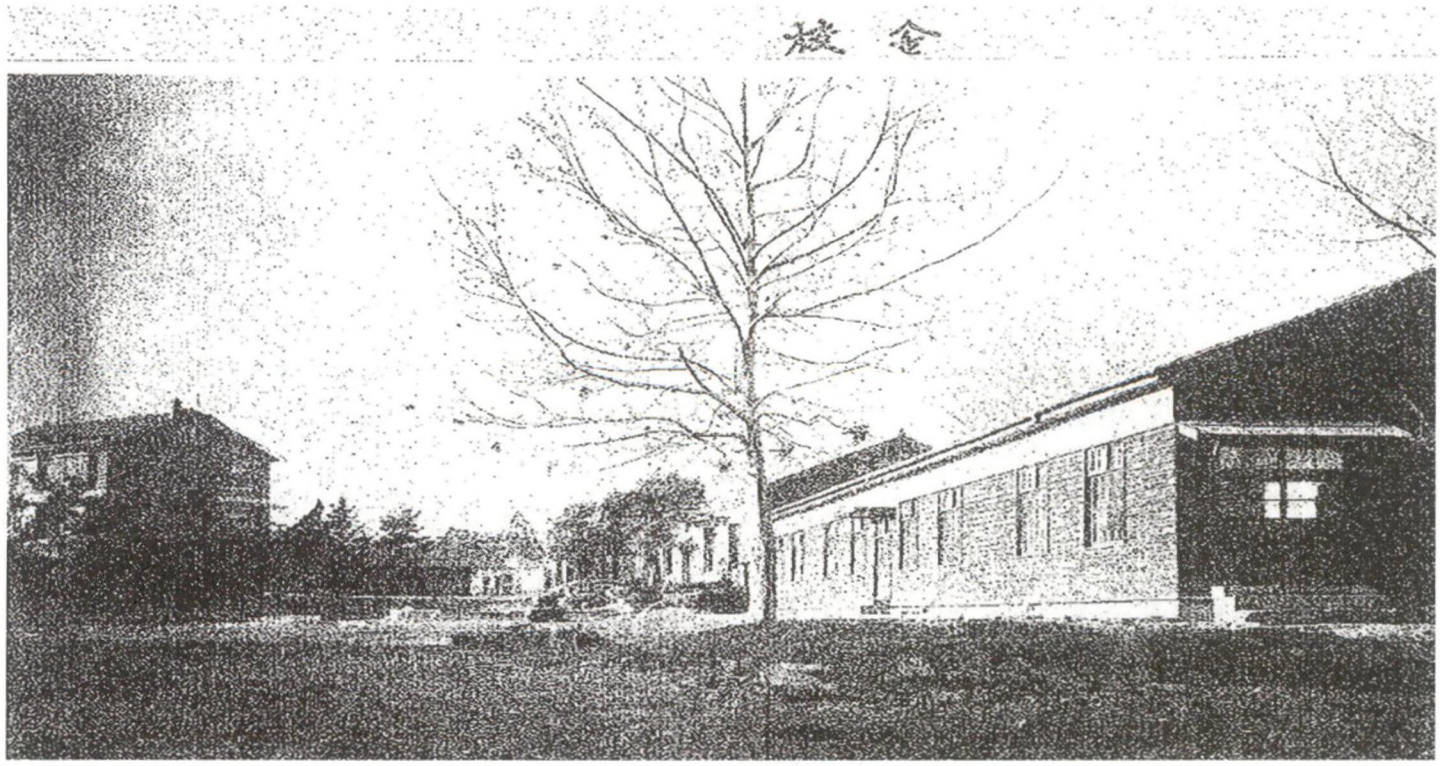


그림2) 부천농업중학원 교사(校舍)[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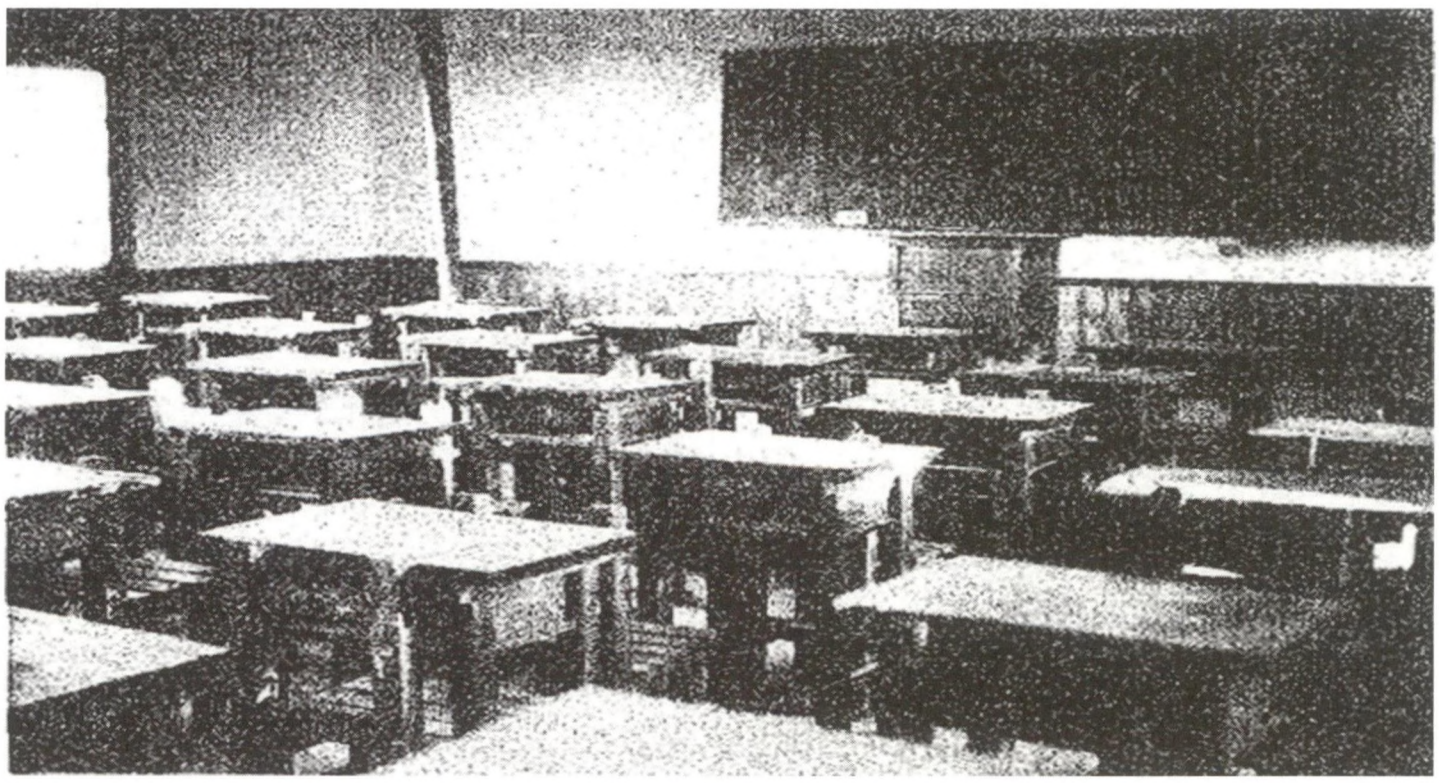


그림3) 부천농업중학원 교실[14]

13) 국가기록원 〉생산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 부천농업중학원(富川農業中學院)을 공립농업중학교 설립 인수방(引受方)의 건 신청생산년도 1950년 〉 관리번호 BA0585146

14) 국가기록원 〉생산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 부천농업중학원(富川農業中學院)을 공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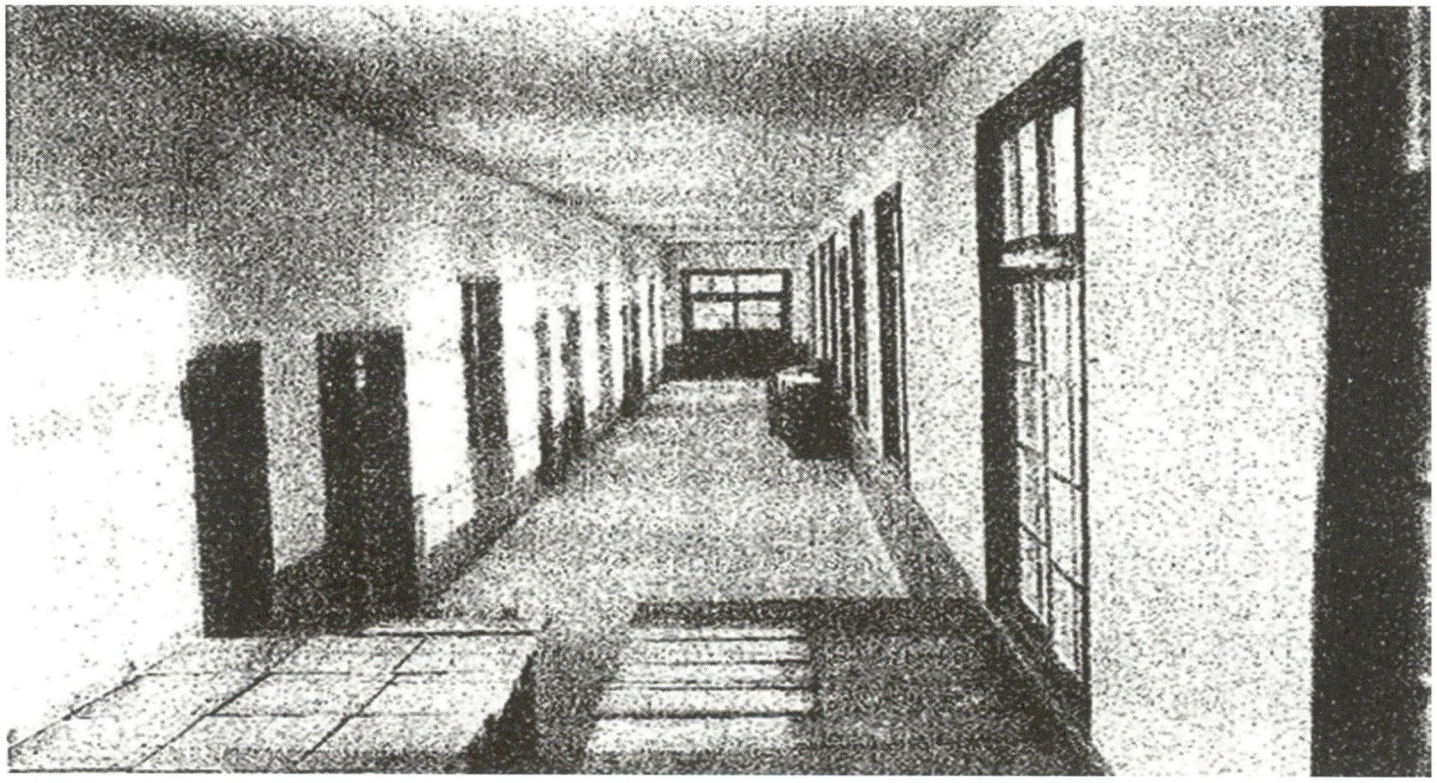


그림4) 부천농업중학원 복도[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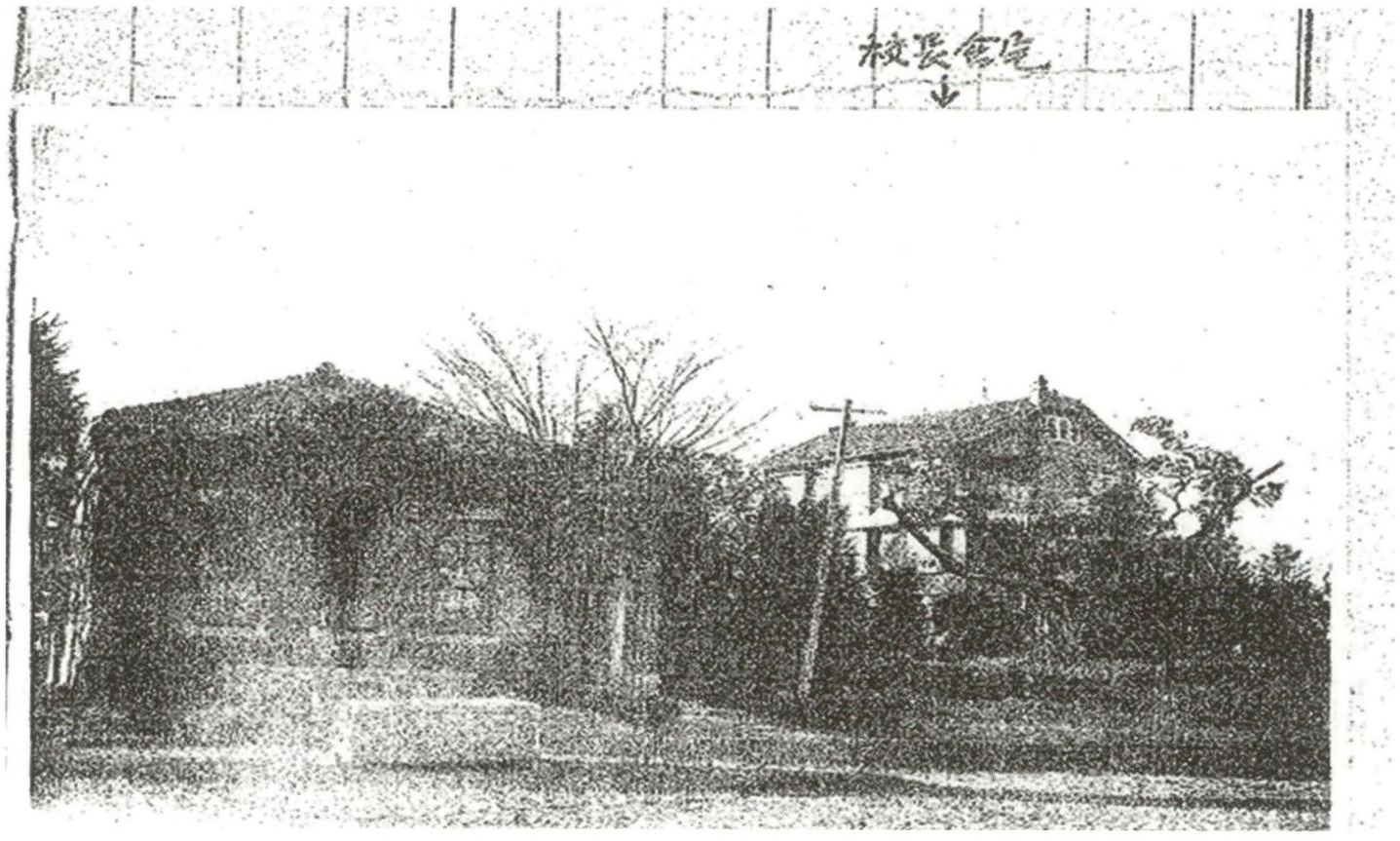


그림5) 부천농업중학원 사택(舍宅)[16]

농업중학교 설립 인수방(引受方)의 건 신청생산년도 1950년 〉 관리번호 BA0585146

15) 국가기록원 〉 생산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 부천농업중학원(富川農業中學院)을 공립 농업중학교 설립 인수방(引受方)의 건 신청생산년도 1950년 〉 관리번호 BA0585146

16) 국가기록원 〉 생산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 부천농업중학원(富川農業中學院)을 공립 농업중학교 설립 인수방(引受方)의 건 신청생산년도 1950년 〉 관리번호 BA0585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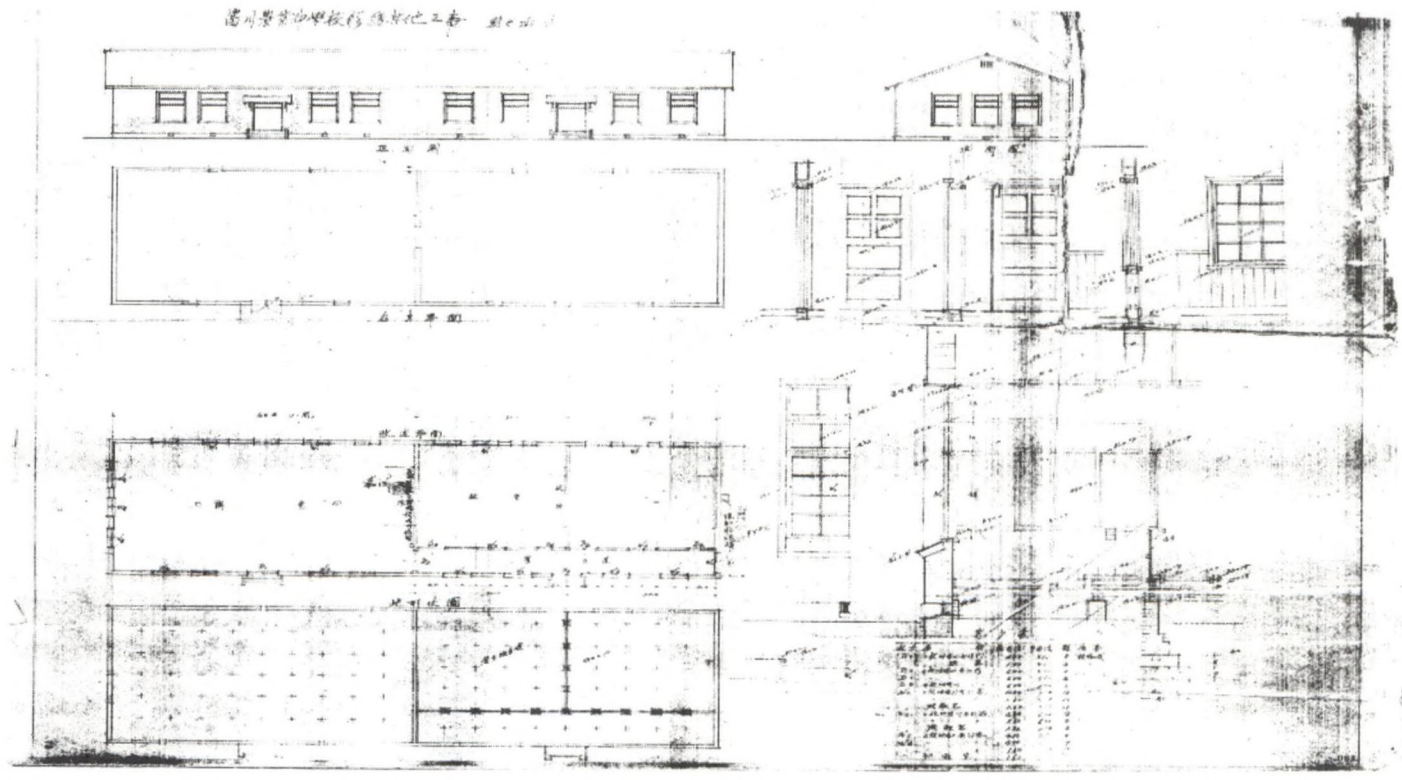


그림6) 부천농업중등학교 교사(校舍) 개축공사(改築工事) 설계도[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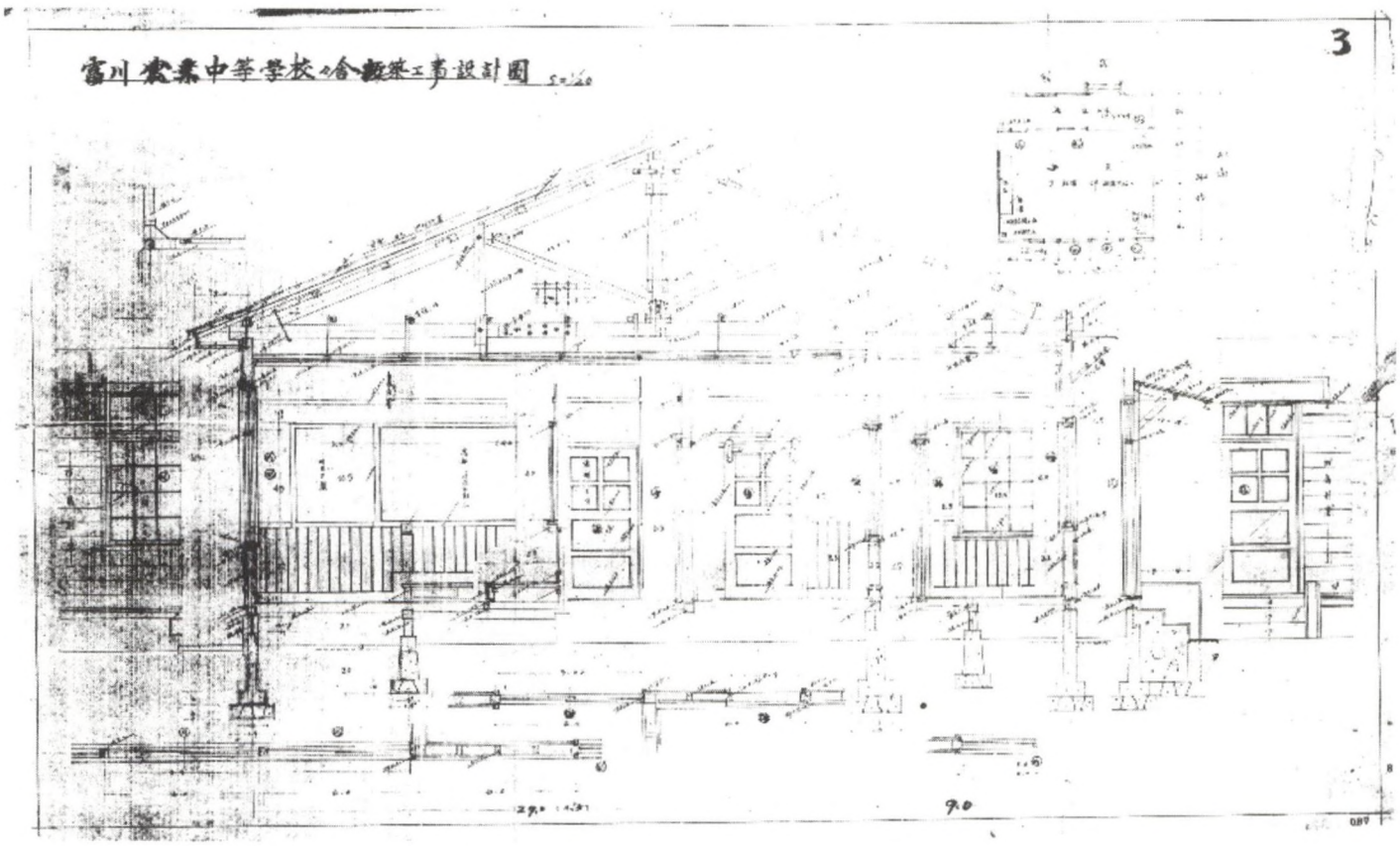


그림7) 부천농업중등학교 교사(校舍) 개축공사(改築工事) 설계도[18]

17) 국가기록원 〉 생산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 부천농업중학원(富川農業中學院)을 공립 농업중학교 설립 인수방(引受方)의 건 신청생산년도 1950년 〉 관리번호 BA0585146

18) 국가기록원 〉 생산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 부천농업중학원(富川農業中學院)을 공립 농업중학교 설립 인수방(引受方)의 건 신청생산년도 1950년 〉 관리번호 BA0585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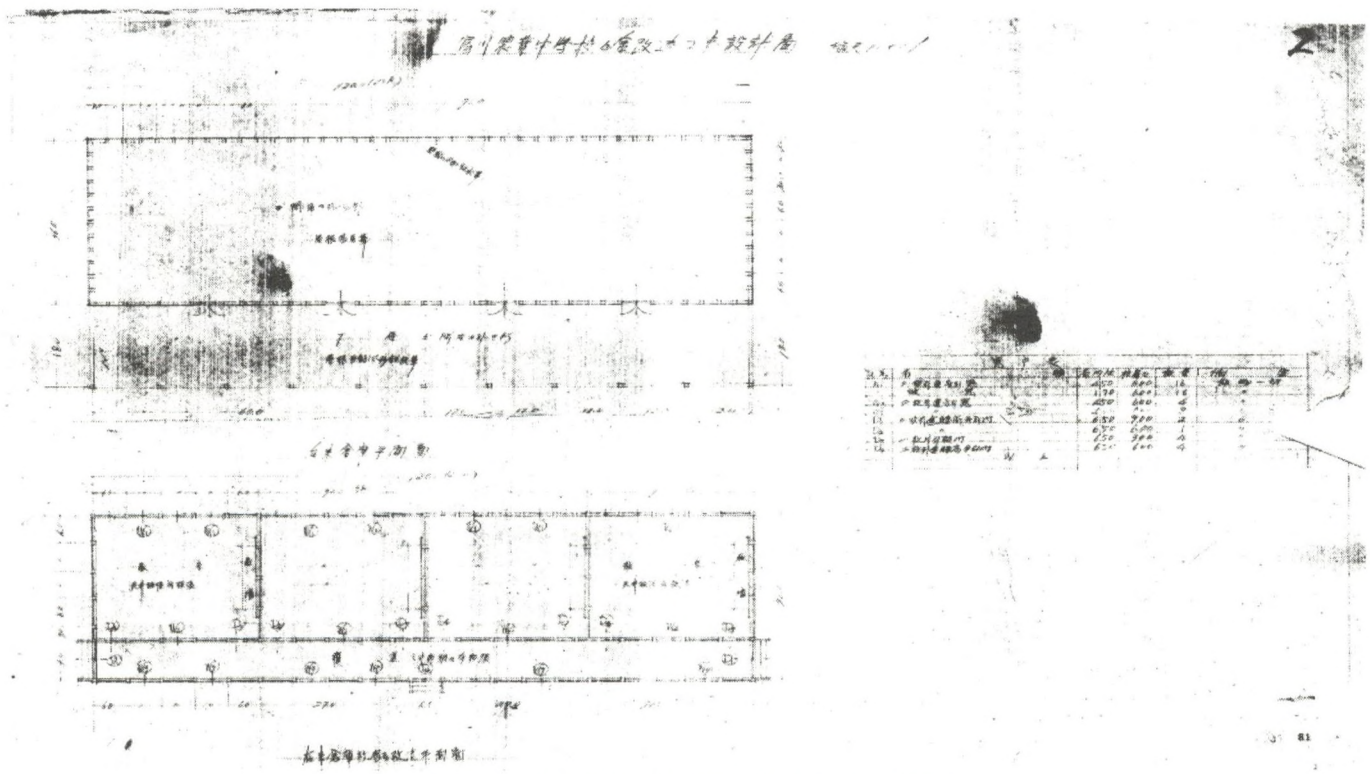


그림8) 부천농업중등학교 수선공사(修繕工事) 기타 공사[19]

그림9) 1951년 12월 24일 반전농장 내에 있었던 부천중학교 2학년 기념사진.
뒤에 보이는 건물은 반전농장을 경영했던 반전선사랑(半田善四郎)이 살았던 집이다.[20]

---

19) 국가기록원 〉 생산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 부천농업중학원(富川農業中學院)을 공립 농업중학교 설립 인수방(引受方)의 건 신청생산년도 1950년 〉 관리번호 BA0585146

20) 《사진으로 보는 부천의 어제와 오늘》 (최현수,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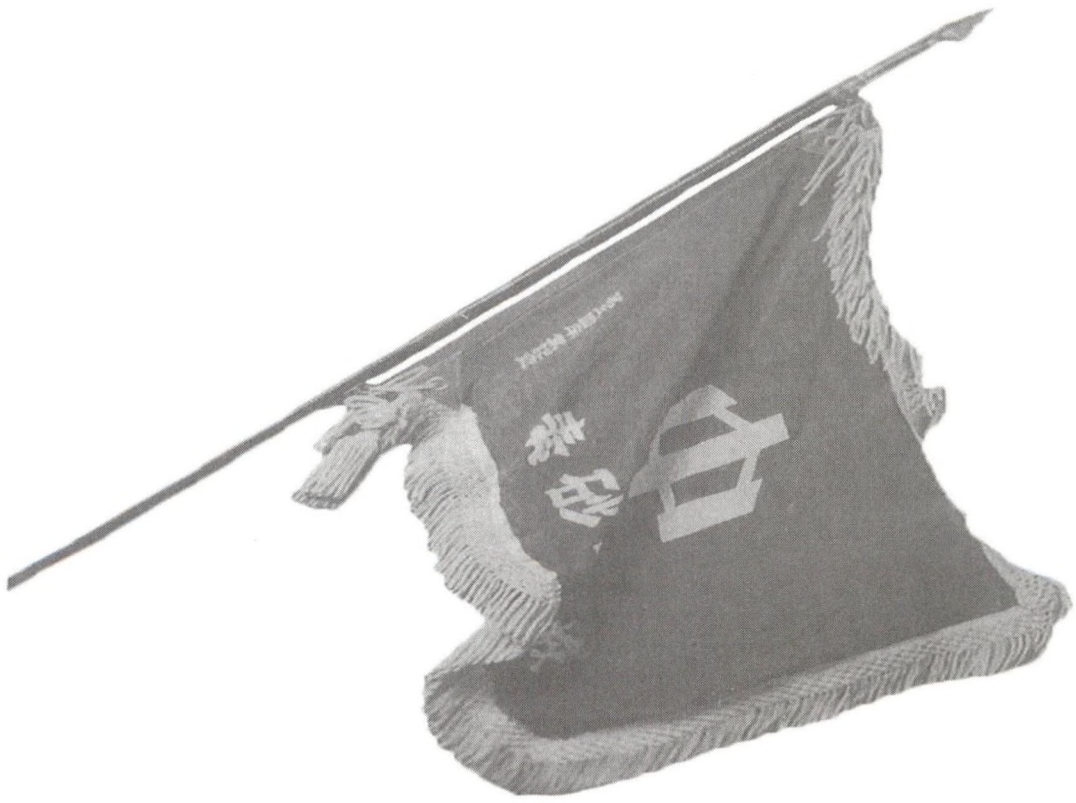


그림10) 당시 소사중학교기(素砂中學校旗)[21]

그림11) 당시 소사중학교 모습[22]

21) 《제10회 소사중학교 졸업기념》 (1961) - 자료제공 구자룡
22) 《제10회 소사중학교 졸업기념》 (1961) - 자료제공 구자룡

그림12) 당시 소사중학교 교문 앞 등교 모습[23]

그림13) 당시 소사중학교 학도호국단 모습[24]

23) 《제10회 소사중학교 졸업기념》(1961) - 자료제공 구자룡
24) 《제10회 소사중학교 졸업기념》(1961) - 자료제공 구자룡

그림14) 당시 소사중학교 조회 모습[25]

그림15) 당시 소사중학교 조회 모습[26]

25) 《제10회 소사중학교 졸업기념》 (1961) - 자료제공 구자룡
26) 《제10회 소사중학교 졸업기념》 (1961) - 자료제공 구자룡

그림16) 당시 소사중학교 훈련조회 모습[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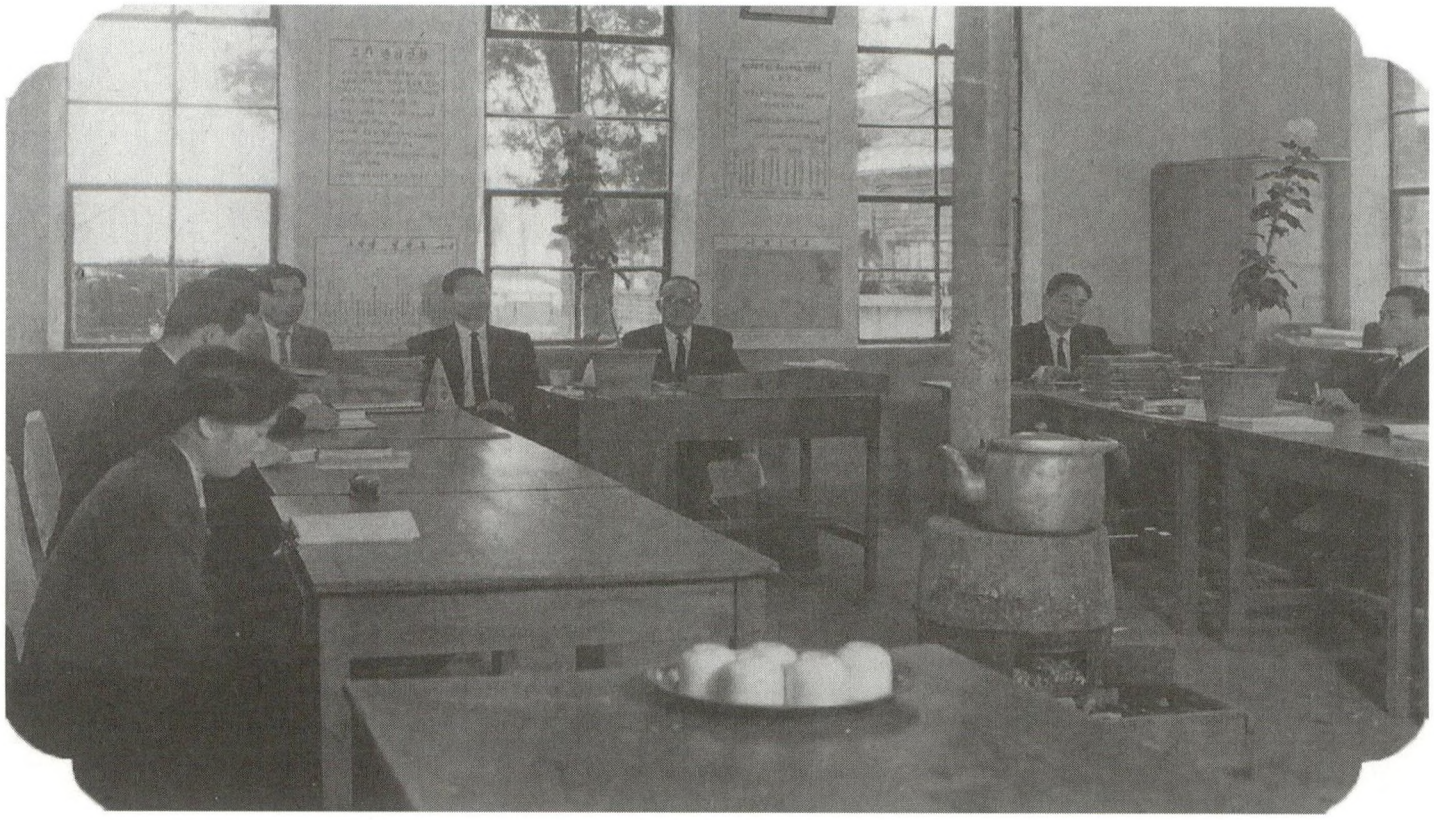


그림17) 당시 소사중학교 직원조회 모습[28]

27) 《제10회 소사중학교 졸업기념》 (1961) - 자료제공 구자룡
28) 《제10회 소사중학교 졸업기념》 (1961) - 자료제공 구자룡

그림18) 당시 소사중학교 수업 모습[29)]

그림19) 당시 소사중학교 교문 앞 하교 모습[30)]

29) 《제10회 소사중학교 졸업기념》 (1961) - 자료제공 구자룡
30) 《제10회 소사중학교 졸업기념》 (1961) - 자료제공 구자룡

그림20) 제10회 소사중학교 졸업식 모습[31]

그림21) 1992년 중동신도시를 개발 직전 반전선사랑(半田善四郎)이 살았던 집 모습[32]

31) 《제10회 소사중학교 졸업기념》 (1961) - 자료제공 구자룡
32) 《사진으로 보는 부천의 어제와 오늘》 (최현수,1998)

2. 1930년 반전농장(半田農場) 야학강습소(夜學講習所) 개소(開所)

일제는 1934년 1월 학비(學秘) 제2호로 〈간이초등교육기관설치(簡易初等教育機關設置)에 관한 건〉을 발표하였다. 조선인들에게 일본어를 보급하고 일본 정신을 불어넣으려는 의도에서 적극 추진된 것이었다.

그런데 1930년 당시 부천군 계남면 중리 3번지 소재 반전농장(半田農場) 주임 수등정웅(須藤定雄)은, 이보다 앞서 반전농장에 소작인 자녀들을 위해 야학강습소를 개소[33]하였다. 이후 1932년 4월에 주학언문강습소(晝學諺文講習所)로 개칭[34]하여 운영하다가 1936년에 무허가로 인하여 폐지[35] 당하였다.

아마도 《동아일보》 1936년 8월 5일 자에 반전농림의 총지배인 수등정웅이 당시 돈 800여 원으로 30평의 교사(教舍)를 짓고, 강사 1명을 채용하여 빈농(貧農)의 자녀들을 교양(教養)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로 인하여 신문 지상에 발표가 되자 당국에서 조사를 한바,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폐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동아일보》 1936년 8월 5일자 기사는 아래와 같다.

> "(上略) …… 동회사(同會社)의 지배인으로 농장총통(農塲總統)인 수등정웅씨(須藤定雄氏)는 37의 청년으로 소성(素性)이 명쾌(明快)한데 농촌 정황에 정통하야 빈약(貧弱)을 죄악시(罪惡視) 하지 안는 종교인이다. 씨(氏)의 철저히 양휘(揚揮)하는 부덕(富德)은 20년간에 효성(曉星) 같이 빛나고 잇으니 어려운 일이다. 1천(千)의 소작인(小作人)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씨(氏)를 찬(讚)한다. 씨(氏)는 8백여 원(圓)을 드려서 30평의 교사(教舍)를 짓고 강사일인(講師一人)을 제공하야 부근 빈가자녀(貧家子女)를 교양(教養)하니 참 희한(稀罕)한 일이다. 일반(一般)은 감하(感賀)가 만타."

곧 학교에 취학(就學)하지 못한 반전농장 1천 명의 소작인 자녀들을 위해 강습소를 개설했다는 기사다. 1천 명의 소작인들 자녀들이 공부했다면 당시 학생들이 부천 지역에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3) 《조선일보》 1938년 6월 4일 자. 〈素砂簡易學校 二日에 開校式〉"一. 昭和五年(1930)末에 半田農場 主任 須藤定雄氏가 朝鮮 文字 普及을 爲하야 夜學을 設置하얏스며"

34) 《조선일보》 1938년 6월 4일 자. 〈素砂簡易學校 二日에 開校式〉"二. 昭和七年(1932) 四月에는 이 學校를 晝學으로 고치고 名稱을 諺文講習所라 하야 農場部長 李萬燮 氏를 教員으로 兼用하얏스며"

35) 《조선일보》 1938년 6월 4일 자. 〈素砂簡易學校 二日에 開校式〉"三. 昭和十一年(1936)에는 許可 업는 講習所라 하여 廢止를 當하엿고"

그러나 반전농장 강습소에 다녔던 분들을 생존 당시에 취재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 어쨌든 강습소가 소사간이학교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아낸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훗날 강습소에 다녔던 학생들의 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여기에서는 이로 마친다.

3. 반전농장(半田農場)은 어떤 곳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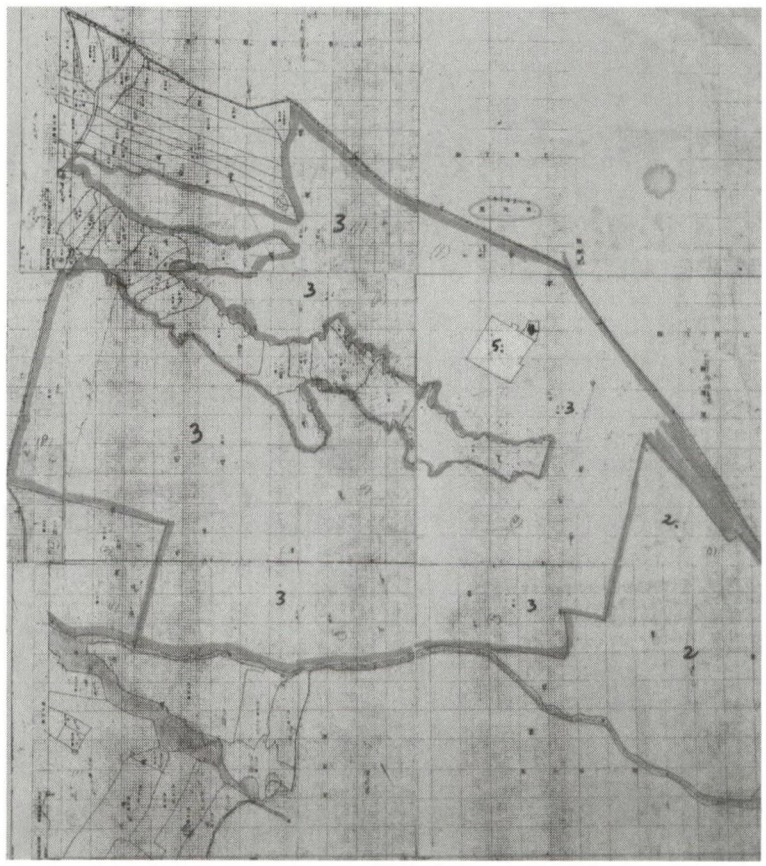


그림22) 필자가 편집한 1910년 부평군 석천면 중리 3번지 일대의 지적원도(地籍原圖)

반전농장은 일본인 반전선사랑(半田善四郎)이 1930년 10월 4일 부천군 계남면 중리 3-1번지에 설립[36]하였다. 곧 반전농림합명회사(半田農林合名會社)를 말한다. 그는 1923년 부평수리조합 창

36)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1년판), 東亞經濟時報社
회사명 : 半田農林(合名)
업종 : 농림업
설립일 : 1930-10-04
대표자 : 半田善四郎
목적 : 농림업의 경영 전항 부대사업
자본금 : 250,000
본점주소 : 경기도 부천군 계남면 중리 3-1
중역 : 半田善四郎(181179), (사원)半田いち, 半田隆一(각20000), 半田榮一(3500), 半田八郎(3500), 中村清次郎(13412), 中村福三郎(3828원), 中村榮次郎(2500), 須藤定雄(1025), 須藤八重(1056)

립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설립 인가를 받은 주요 인물로, 후에 부평수리조합 조합장[37]을 두 번 지냈다. 당시 《동아일보》 1936년 8월 5일자에 반전농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사를 내보냈다.

"**〈농업(農業)〉** 부천군(富川郡)의 경지(耕地) 1만9천 정보(町步)를 갈고 심으고 걷우어 미맥두류(米麥豆類) 잡곡(雜穀)만 산(算)하야 23만여 석(石)을 산출(產出)하는 농업자(農業者)는 11,890호(戶)다. 자작(自作) 1,539호(戶), 경지(耕地) 5,876정(町), 소작(小作) 7,566호(戶), 경지(耕地) 13,236정(町)이니 일호반당(一戶反當)을 보면,

자작일호(自作一戶), 3정8반1묘(三町八反一畝)이며
소작일호(小作一戶), 1정1반2묘(一町一反二畝)이다.

여기에 소위 자작농가(自作農家)가 농촌에 잇어서의 중류계급이다. 3정8반(三町八反)의 자작(自作) 이것이 유지할 길이 없어 점차 소작(小作)으로 전락(轉落)되거든 일정일반(一町一反)의 소작(小作)만으로 일인전(一人前)의 분(分)을 수(守)하지 안흐면 안되게 된 그들의 현재와 장래가 과연 얻떠 타고 할 것이냐. 산반(算盤)을 들고 곡물에 향하야 혹은 비료에 주목하야 자기의 살찌기를 꾀하는 자는 잇다 그러나 공안(公眼)을 갖이고 농촌을 살피어 할 수 없이 받는 그들의 고애(苦哀)를 난호는 자는 위정자(爲政者) 외에는 극히 적다. 이제 지주(地主)로서 혹은 농업자로서 여기에 상응한 역할을 하는 군내(郡內) 몇 분을 써서 세간(世間)에 소개 하려노라. 소작인(小作人)은 한 가족이라는 견지(見地)로 성쇠(盛衰)를 같이 하고저 힘쓰는 반전농림합명회사(半田農林合名會社)는 부천군 소사면의 한 중앙인 부평수리조합사업 구역 내에 일천정(一千町)의 비전옥토(肥田沃土)로 1천(千)의 소작인을 가진 대농장이다. 춘경(春耕)을 위시(爲始)하야 타조동장(打租冬藏)에 일으기까지 15(十五) 농장원(農塲員)이 각자 분담구역에 주재(駐在)하야 철두철미 소작인의 편의와 이익을 도(圖)한다. 동회사(同會社)의 지배인으로 농장총통(農塲總統)인 수등정웅씨(須藤定雄氏)는 37의 청년으로 소성(素性)이 명쾌(明快)한데 농촌 정황에 정통하야 빈약(貧弱)을 죄악시(罪惡視) 하지 안는 종교인이다. 씨(氏)의 철저히 양휘(揚揮)하는 부덕(富德)은 20년간에 효성(曉星) 같이 빛나고 잇으니 어려운 일이다. 1천(千)의 소작인(小作人)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씨(氏)를 찬(讚)한다. 씨(氏)는 8백여 원(圓)을 드려서 30평의 교사(敎舍)를 짓고 강사일인(講師一人)을 제공하야 부근 빈가자녀(貧家子女)를 교양(敎養)하니 참 희한(稀罕)한 일이다. 일반(一般)은 감하(感賀)가 만타."

---

37) 제4대 부평수리조합 조합장 : 1934.12.24.~1938.12.24. - 1942.12.24.~1945.8.19.
○출처 : 《漢江農組六十年史》 (한강농지개량조합,1986)

상기와 같이 대대적으로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농장이었다. 반전농장 중에서 특히 중리 3번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1910년도 토지조사부를 보면 부평군 석천면 중리 3번지 田 105,778평 소유자는 중촌정로(中村正路)였다.

그가 누구인지 자료가 없어 미상이지만 그는 당시 중리 5번지 1,190평의 대지에 살고 있었고 집안의 묘지도 있었다. 어쨌든 이 땅을 반전선사랑(半田善四郎)이 매입한 것이다. 중촌정로는 중리(中里)에만 총 319,861평[38]의 전답을 소유하고 있었다. 부평평야와 김포평야 개발, 곧 부평수리조합(1923)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을 사람이 아니면, 30만 평이 넘는 많은 땅을 살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다.

더욱이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잡종지(雜種地)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것은, 개발 후 큰 차익을 노리겠다는 계산이 있지 않고서는 매입할 수 없는 악조건의 땅들이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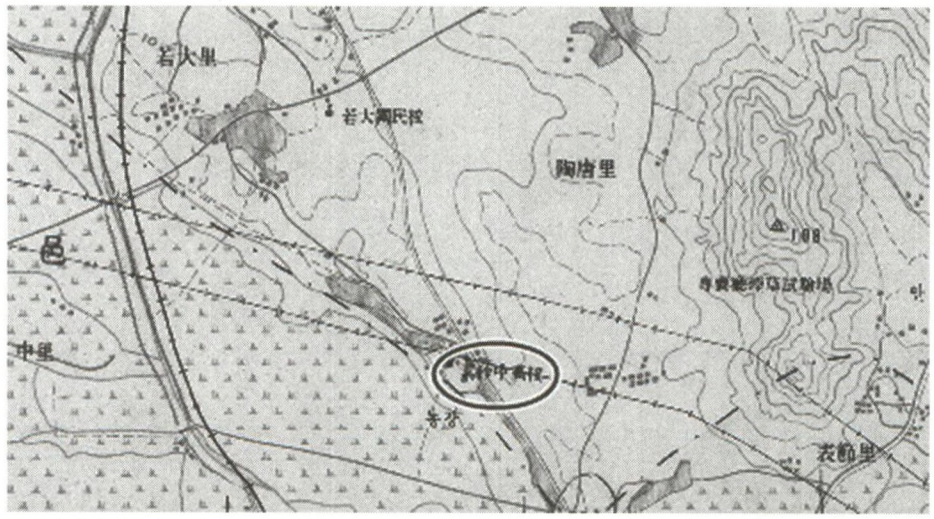


그림23) 1963년 1:25,000 지도의 타원형 표기가 소사중학교 (舊,소사간이학교)이다.

반전농장 내에는 저택 · 정원 · 사무소 · 창고 · 정미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소사북심상소학교 부설 소사간이학교도 있었다. 아울러 반전농장 소작인들이 살던 마을을 '농장말'이라 불렀다. 중동 넘말의 북동쪽에 있었던 마을로 현재 부천중흥중학교 서북쪽 중동 1069-5번지 일대이다

이 외에도 일본인들은 자신의 성을 따서 현재의 부천 지역에 송본농장(松本農場), 수진농장(水津農場), 신부농장(神部農場), 무전농장(武田農場), 영천농장(令泉農場), 산구농장(山口農場), 우가농장(牛可農場), 중촌농장(中村農場) 등의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소사역(現, 부천역)을 통해 일본으로 쌀을 수탈해갔다.

---

38) 국가기록원 〉 1910년도 부평군 석천면 중리 토지조사부

4. 1938년 6월 2일 소사북심상소학교 부설 소사간이학교 개교

소사북심상소학교(素砂北尋常小學校) 부설 소사간이학교(素砂簡易學校)는 당시 부천군 소사면 중리 3번지에 있었던, 반전농장 주학언문강습소(晝學諺文講習所)를 이어받아 개교한 2년제 학교였다. 현재의 중동대림아파트(現,중동 3-207번지) 일대이다.

1930년부터 운영해 오던 반전농장 강습소가 1936년에 무허가로 인하여 폐지 당하였다. 이에 강습소 설립자인 수등정웅(須藤定雄)은 하는 수 없이 1937년 말에 언문강습소의 교사 · 교구 · 실습지 기타 일체를 소사북심상보통학교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부설 소사간이학교로 신청을 하여 승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1938년 4월 1일에 천엽창치(千葉昌治)[39] 교장(校長)과 백태현(白台鉉)[40] 훈도(訓導)가 소사간이학교로 부임하였다. 아래는 당시 《동아일보》 1938년 4월 17일자 기사 내용이다.

"**〈소식(消息)〉** 백태현(白台鉉) 씨 소사간이학교(素砂簡易學校) 훈도(訓導) 부임(赴任) 인사차(人事次) 본보(本報) 소사분국(素砂分局) 내방(來訪)"

곧 개교하기 2개월 전에 부임한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조선일보》 1938년 5월 1일자에서도 기사를 내보냈다.

"**〈소사간이교(素砂簡易校) 신설(新設)〉**【素砂】부천군(富川郡) 당국에서는 문자 보급을 위하야 만히 노력을 하고 잇는 터인데, 소사역(素砂驛)[41] 부근에서는 더욱 교화의 철저를 도모하기 위

---

3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직원록 자료 〉 천엽창치(千葉昌治) 기록
1937 千葉昌治 〉 경기도 〉 공립학교 〉 왕십리보통학교 관직.관등 / 訓導 3(7등대우)
1938 千葉昌治 〉 경기도 〉 공립학교 〉 소사북심상소학교 관직.관등 / 訓導 3(7등대우)
1939 千葉昌治 〉 경기도 〉 공립학교 〉 소사북심상소학교 관직.관등 / 訓導 2(7등대우)
1940 千葉昌治 〉 경기도 〉 공립학교 〉 소사심상소학교 관직.관등 / 訓導 2(6등대우)
1941 千葉昌治 〉 경기도 〉 공립학교 〉 소사북국민학교 관직.관등 / 訓導 2(6등대우)
1942 千葉昌治 〉 경기도 〉 공립학교 〉 주임관 대우 / 소사북국민학교 관직.관등 / 訓導 (6등대우)
1943 千葉昌治 〉 경기도 〉 공립학교 〉 주임관 대우 / 평택성동국민학교 관직.관등 / 訓導(6등대우)

4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직원록 자료 〉 백태현(白台鉉) 기록
1926 白台鉉 〉 전라남도 〉 공립학교 〉 여수보통학교 관직.관등 / 敎員 囑託 (월수당36)
1938 白台鉉 〉 경기도 〉 공립학교 〉 소사북심상소학교 관직.관등 / 訓導 10
1939 白台鉉 〉 경기도 〉 공립학교 〉 소사북심상소학교 관직.관등 / 訓導 10
1940 白台鉉 〉 경기도 〉 공립학교 〉 소사심상소학교 관직.관등 / 訓導 9
1952 白台鉉 〉 경기도 〉 공립학교 〉 부천군 〉 오정국민학교

41) 현재의 부천역

하야 종래의 반전농장(半田農場) 소작인 자제의 교육을 하고 잇던, 야학언문강습소(夜學諺文講習所)를 요지음에 간이학교(簡易學校)로 승격시켯다 한다. 그런데 그 강습소의 내력과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이 학교는 거금 약 7~8년 전에 반전농장(半田農場) 주임 수등정웅(須藤定雄)의 창설로, 당시에 교원 1명을 고빙(雇聘)하야 야학을 시작하얏다가 점점 늘어서 나제도 공부를 하게 되어, 그 성적이 현저하더니 금년에 이르러서 먼저 교원이 가정 형편으로 사임하게 되자, 20여 명 아동은 밤중에 등불을 일은 양으로 갈 바를 모르고 거리에 허매이게 잇섯다. 이 사정을 딱하게 녁인 수등(須藤) 씨는 소사보통학교(素砂普通學校) 교장 토거국환(土居菊丸)[42] 씨와 상의하야 보통학교와의 거리는 매우 갓가우나 이 강습소를 일층 확실하고자 간이학교로 승격시키기에 진력하야 15평의 신축 교사 사택(舍宅)과 밧과 논 각각 일단보(一段步)[43]를 실습지로 기부하야 요지음에 간이학교로 승격하기로 되엿스므로 곳 생도를 모집하얏다. 모집에 당하야서는 일반이 경모하는 소사북심상소학교(素砂北尋常小學校) 교원 각위(各位)와 관계 각 면장(面長), 구장(區長)과 수등(須藤) 씨 등이 직접 출장하야 만 10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35명을 모집하얏는데, 그 중 대부분이 14세라 하며 입학식은 오는 2일 아침 9시에 동교(同校)에서 거행한다고 한다. 그러고 선임 교사로서는 강화군 교동소학(喬洞小學)에 재근(在勤)하든 백태현(白台鉉) 씨라 한다. 이 학교는 부평역전간이교(富平驛前簡易校)와 아울러 경인선(京仁線)에 간이학교가 둘이 되엿다."

소사간이학교에 대한 자료가 희구한데 이렇게 결정적인 귀중한 자료가 남아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대략 14세 아동 35명을 모집하여 1938년 5월 2일에 입학식을 거행한다는 기사이다. 그리고 2개월 뒤인 1938년 6월 2일에 소사간이학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당시 《동아일보》 1938년 6월 5일자에 아래와 같이 기사를 내보냈다.

"**〈소사간이학교(素砂簡易學校) 개교(開校)〉**【素砂】소사간이학교에서는 2일 오전 10시부터 부천군 소사면 중리(中里)[44] 동교(同校) 교정(校庭)에서 관민(官民) 다수가 임석(臨席)한 후 개교식(開校式)을 성대히 거행(擧行) 하엿는데, 동교(同校)는 학교기지(學校基地), 교원주택(教員住宅),

---

4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직원록 자료 〉 토거국환(土居菊丸) 기록
1932 土居菊丸 〉 경기도 〉 공립학교 〉 인창보통학교 訓導 4(△월97)
1933 土居菊丸 〉 경기도 〉 공립학교 〉 소사보통학교 訓導 4
1934 土居菊丸 〉 경기도 〉 공립학교 〉 소사보통학교 訓導 3(8등대우)
1935 土居菊丸 〉 경기도 〉 공립학교 〉 소사보통학교 訓導 3(8등대우)
1936 土居菊丸 〉 경기도 〉 공립학교 〉 소사보통학교 訓導 3(8등대우)
1937 土居菊丸 〉 경기도 〉 공립학교 〉 소사보통학교 訓導 3(7등대우)
1938 土居菊丸 〉 경기도 〉 공립학교 〉 경성방산심상소학교 訓導 3(7등대우)
43) 밭 면적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 1단보는 1평의 300배
44) 신문에는 '중의'로 오기하였다.

도서기구(圖書器具) 등 전부를 반전농장(半田農場) 주임 수등정웅(須藤定雄) 씨가 기부(寄附) 하엿으므로 일반은 동씨(同氏)에게 대하야 깊이 감사의 의(意)를 표한다."

또한《조선일보》1938년 6월 4일자에서도 기사를 내보냈다.

"〈소사간이학교(素砂簡易學校) 二日에 개교식(開校式)〉【富川】소사(素砂)에 간이학교를 설치하야 5월 2일에 입학식을 거행 하얏는데 요사이 정식 인가가 나와서, 2일에 그 학교 교정에서 군수 대리 이하 다수 내빈과 36명 아동 학부형 전부가 참석하야 성대한 개교식을 거행하였는데 모두 감격에 넘치는 얼골이었다. 이제 그 학교 연혁을 드르면 이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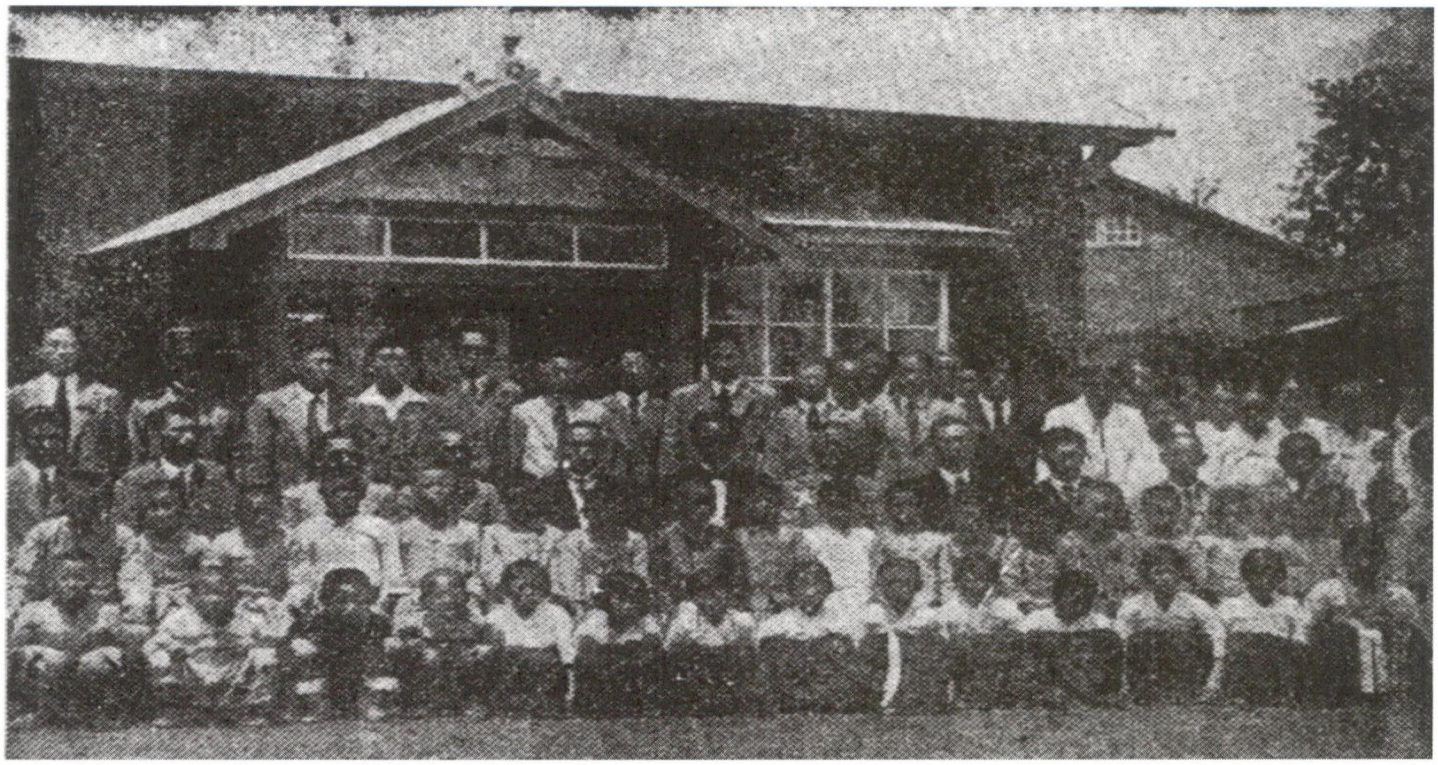


그림24) 소사북심상소학교 부설 소사간이학교 개교식 광경. × 표는 공로자 수등정웅 씨

一. 소화5년(1930) 말에 반전농장 주임 수등정웅(須藤定雄) 씨가 조선 문자 보급을 위하야 야학을 설치하얏스며,

二. 소화7년(1932) 4월에는 이 학교를 주학(晝學)으로 고치고 명칭을 언문강습소(諺文講習所)라 하야 농장부장 이만섭(李萬燮) 씨를 교원으로 겸용하얏스며,

三. 소화11년(1936)에는 허가 업는 강습소라 하여 폐지를 당하엿고,

四. 소화12년(1937) 말에 수등 씨의 교사, 교구, 실습지 기타 비용 일체의 기부로 간이학교 신청을 하얏스며,

五. 소화13년(1938) 4월 1일에 천엽교장(千葉校長), 백훈도(白訓導)가 착임하엿고,

六. 소화13년(1938) 5월 2일에 입학식을 거행하고,

七. 이달 2일에 개교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다."

1938년 5월 2일에 입학식을 거행할 때는 35명이었는데, 6월 2일에 개교할 때는 1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36명이었다. 아래는 관련한 《동아일보》 1938년 6월 8일자 기사이다.

> "**〈부천군(〈富川郡) 초등교육(初等敎育) 확충(擴充)〉**【富川】부천군에서는 조선인 초등교육 보급을 확충할 계획으로 그 계획안을 세우고 잇는데, 그 계획은 임시비 지출 재원으로 금년도 특별부과금 부과액(賦課額)은 소사면의 988원을 위시하야 소화19년(1944)도까지 20개면의 부과 총액은 6,902원에 달한다하며, 1면에 간이학교(簡易學校) 확충에 대하야는 기성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로 되엿고, 금년도에 소사(素砂)·소래(蘇萊) 양면에 간이학교 두 개를 신설하기로 확정하엿다."

이후 《조선일보》 1940년 1월 27일자 3면에 〈우량아(優良兒) 5백여 명 경기도 각 소학교(小學校)에서 표창한다는 기사 내용이다. 우량아는 공부를 빼어나게 잘했던 우수한 학생을 말한다. 이 기사에 오정면 삼정리(三井里)에 사는 소사간이학교 학생 박욱래(朴旭來)가 실려 있다. 곧 부천시 시의원 2대~6대를 역임한 박노설(朴魯卨, 1950)의 부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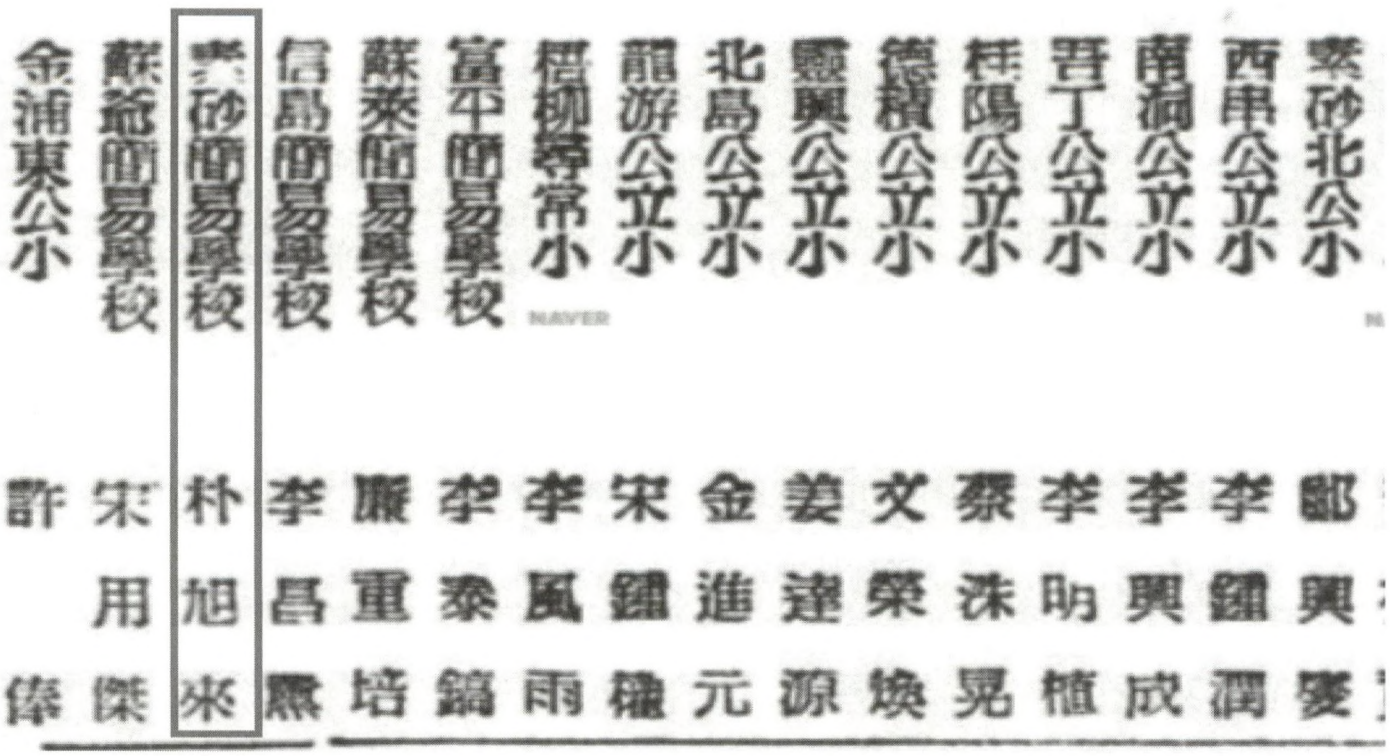

素砂北公小 鄭興憲
西面公立小 李鍾潤
南洞公立小 李興成
晉丁公立小 李明植
桂陽公立小 蔡洙晃
德積公立小 文榮煥
鹽興公立小 姜達源
北島公立小 金進元
龍游公立小 宋鍾穆
楸柳尋常小 李風雨
富平簡易學校 李泰鎬
蘇萊簡易學校 廉重培
信島簡易學校 李昌熙
素砂簡易學校 朴旭來
蘇益簡易學校 宋用傑
金浦東公小 許偉

그림25) 《조선일보》 1940년 1월 27일자에 실린 소사간이학교 박욱래(朴旭來)

박욱래는 삼정동에 수 백 년 세거(世居)하고 있는 밀양박씨 규정공파 23世로 1925년 12월 5일에 태어나, 외조부인 이동수(李東秀)에게 6살 때부터 13살까지 한학(漢學)을 공부하고, 14살 때인 1938년 5월 2일에 2년제 소사북심상소학교 부설 소사간이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조선일보》1938년 5월 1일 자 〈소사간이교(素砂簡易校) 신설(新設)〉에서도 입학생 대부분 14세였다고 했듯이 박욱래도 꼭 14살이었다. 상기 사진 24)의 소사간이학교 개교식 사진에 찍힌 36명의 학생 중에는 박욱래도 들어 있는 것이다.

그림26) 박욱래의 인천 만수국민학교 교사 시절 모습[45]

박욱래(朴旭來)는 공부를 대단히 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일기를 보면 일본어를 쉽게 여기고 있었고 산술(算術)에 비상(非常)한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자신도 소사간이학교와 소사북국민학교를 우등(優等)으로 졸업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가족들도 공부를 무척 잘했다고 증언하였고, 백 선생[46]이란 분한테 굉장히 배려를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47] 특히 문중의 박노천(朴魯天, 1932) 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박욱래, 그 분은 농장강습소였던 소사간이학교를 다녔어. 강습소가 소사간이학교로 된 것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소사간이학교가 소사중학교로 된 거지. 그렇게 된 거지. 하여간에 그 분은 머리가 무척 좋아서 간이학교에 다닐 적에도 공부를 엄청 잘 했고, 소사북국민학교에서도 공부를 워낙 잘했어요. 나는 8살에 오정국민학교에 들어 갈려구 했는데 나이가 어리다구 해서 못 들어가구, 내리(內里) 서당(書堂)에서 천자문을 일 년 동안 배웠어. 서당은 육형제마을[48]에

45)《제16회 만수국민학교 졸업기념》(1949) - 자료제공 박노설
46) 백태현(白台鉉)을 말함.
47) 증언 : 박욱래의 동생인 박공래(朴公來,1937) 옹과 박욱래의 아들 박노설(朴魯卨,1950)
48) 6형제마을 : 삘기동산에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16世 이동우(李東宇,1852~1915)의 아들 6형제가 살았다고 하여

있었는데, 나이가 엄청 많으신 훈장 선생님은 풍신(風身)도 좋고 키도 크니 훤칠하게 잘 생기셨는데, 허연 수염이 어찌나 긴지 30cm도 넘었을 정도로 길었어. 존함은 모르고 이씨(李氏)였어. 내리·삼정리·약대리에서 이 훈장님한테 안 배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지. 나는 천자문을 떼고 동몽선습 첫 장을 막 배우려고 하는데, 이듬해 9살에 오정국민학교에 들어갔어. 학교에 들어갔더니 매월 8일만 되면 거칠고개 위에 있었던 오정신사(吾丁神社)에 가서 참배했어. 8일이 일본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모양이야. 그렇게 공부하다가 졸업하구는 서울에 있는 경성직업학교 기계과에 들어갔는데, 책상도 박욱래 그 분이 쓰던 책상이었어. 책상 위에 '三井 旭來'라고 새겨 놓았더군. 그러니까 나도 박욱래 그 분이 다니던 경성직업학교에 들어간 거지. 우리 문중의 박효래(朴孝來,1929), 그 분도 경성직업학교에 들어갔어. 이게 다 그 분 영향이지 뭐. 박욱래, 그 분은 아주 좋은 분이었어."[49]

이에 대해서 박욱래는 자신의 일기《旅行記》(박욱래,1945)[50] 1945년 4월 1일자에 아래와 같이 회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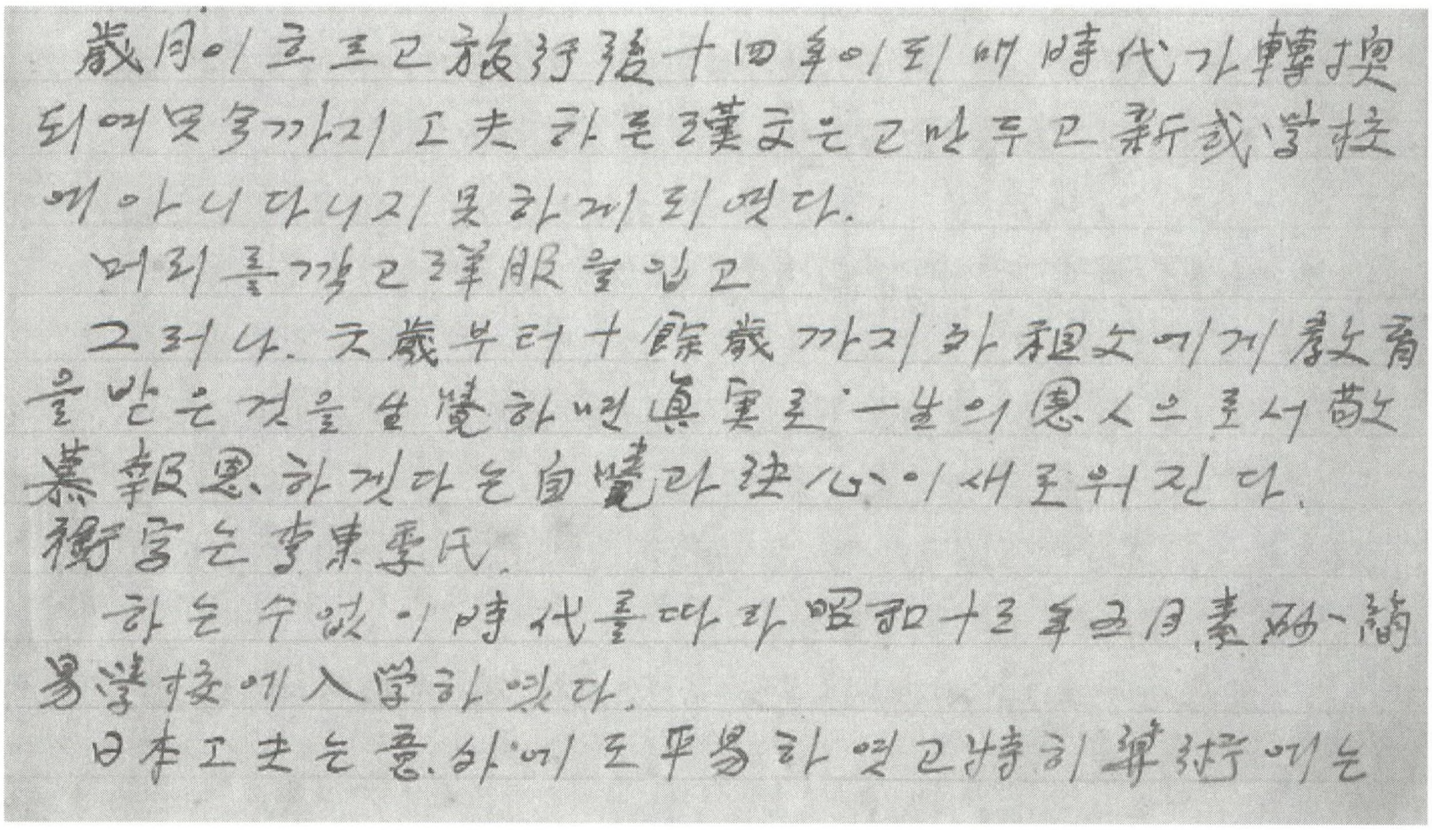

歲月이흐르고旅行記十四年이되매時代가轉換
되여모든것까지工夫하든漢文은그만두고新式學校
에아니다니지못하게되엿다.
머리를깍고洋服을입고
그러나. 六歲부터十餘歲까지外祖父에게漢文教育
을받은것을生覺하면眞實로一生의恩人으로서敬
慕報恩하겟다는自覺과決心이새로워진다.
外家는李東李氏.
하는수없이時代를따라昭和十三年五月素砂簡
易學校에入學하엿다.
日本工夫는흥.하여도平易하엿고特히算術에는

그림27) 박욱래가 20살에 쓴 일기 중에서 발췌

유래함.

49) 증언 - 2020.10.29 / 2020.11.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3동 거주 박노천(朴魯天,1932)으로 1945년 해방 후 오정국민학교 제1회 졸업생이다. 당시 졸업생 사진을 비롯하여 여러 장 받아왔다.

50) 자료제공 박노설

"歲月이 흐르고 旅行後 十四年이 되매 時代가 轉換되여 只今까지 工夫하든 漢文은 고만두고 新式學校에 아니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머리를 깎고 洋服을 입고 그러나 六歲부터 十餘歲까지 外祖父에게 敎育을 받은 것을 生覺하면, 眞實로 一生의 恩人으로서 敬慕報恩하겠다는 自覺과 決心이 새로워진다. 銜字는 李東秀 氏. 하는 수 없이 時代를 따라 **昭和十三年(1938) 五月**[51] **素砂簡易學校에 入學하였다. 日本 工夫는 意外에도 平易하였고 特히 算術에는 非常히 興味를 느꼈다. 二年間 優等으로 卒業. 果然 校名 그대로 簡易하였다. 擔任 白台鉉 先生의 至極한 親切과 好意로 素砂北國民學校 第五學年에 編入되여 亦是 優等으로 無事히 卒業하였다.** 熱心한 敎育, 極盡한 親切을 갖춘 白先生은 勿論의 恩人이므로 報恩感謝之念을 잊지 않을 것이고 國民學校에서 擔任을 하신 栗島研介[52] 先生께도 같은 感念이 必要하다."

이 날의 일기는 자신이 걸어온 지난날을 회상록(回想錄)처럼 썼다. 특히 소사간이학교 담임 백태현(白台鉉)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년제 소사간이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박욱래는, 다시 소사북심상소학교 5학년으로 편입하여 역시 우등으로 졸업하였다. 졸업할 때는 교명이 소사북국민학교로 개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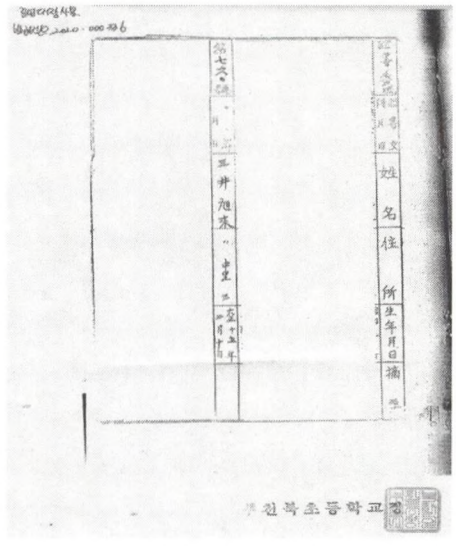


그림28) 소사북국민학교 제11회 졸업대장[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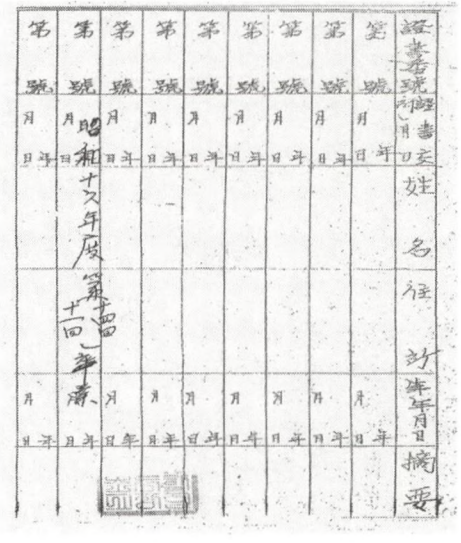


그림29) 소사북국민학교 제11회 졸업대장[54]

51) 1938년 5월 2일에 소사간이학교 입학식 거행.
5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직원록 기록 〉 율도연개(栗島研介) 기록
1935 栗島研介 지방관서 〉 경기도 〉 공립학교 〉 안성심상고등소학교 訓導 (월48)
1936 栗島研介 지방관서 〉 경기도 〉 공립학교 〉 안성심상고등소학교 訓導 9
1937 栗島研介 지방관서 〉 경기도 〉 공립학교 〉 안성심상고등소학교 訓導 9
1938 栗島研介 지방관서 〉 경기도 〉 공립학교 〉 안성심상고등소학교 訓導 8
1939 栗島研介 지방관서 〉 경기도 〉 공립학교 〉 안성심상고등소학교 訓導 8
1941 栗島研介 지방관서 〉 경기도 〉 공립학교 〉 소사북국민학교 訓導 (월60)
53) 소화16년(1941) 박욱래 졸업대장 기록 〉 부천북초등학교 행정실 〉 박욱래의 아들 박노설 〉 2020.11.10
54) 소화16년(1941) 박욱래 졸업대장 기록 〉 부천북초등학교 행정실 〉 박욱래의 아들 박노설 〉 2020.11.10

여기에서 1941년 졸업 대장의 '삼정욱래(三井旭來)'는 박욱래의 창씨명(創氏名)이다. 곧 자기가 사는 마을 지명인 삼정리(三井里)로 창씨한 것이다. 박욱래는 이후 산구장남(山口長男)의 도움으로 서울 아현동의 경성공립직업학교(京城公立職業學校)[55]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박욱래는 징병 대상자가 되어 눈물을 머금고 3년 수료를 하고, 일흥사(日興社)[56]에서 근무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해방 후 박욱래는 부천군 오정면 원종리 247번지 소재 공립 오정국민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오정국민학교 교가(校歌)[57]를 직접 작사 및 작곡하기도 하였다. 이후 인천시 만수동 1074번지 소재 공립 만수국민학교 교사로 재직 중 6 · 25 전쟁이 발발하였는데 이후 생사불명 되었다.[58]

아울러 박욱래의 여동생 박무숙(朴戊淑, 93세), 박금숙(朴金淑, 90세) 자매도 소사간이학교를 졸업하였다. 올해로 90이 넘은 분들인데도 기억력이 또렷하셨다.

그림30) 박무숙(93세)[59]

그림31) 박금숙(90세)[60]

55) 경성직업학교(京城職業學校)
1910년 4월 15일 순종황제의 칙령으로 설립된 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가 모체(母體)이다.
1931년 경성공립직업학교로 개편 / 1944년 경성공립공업학교로 개편
1953년 경기공업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 1963년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교명 변경
1974년 경기공업전문학교로 교명 변경 / 1979년 경기공업전문대학으로 개편
1982년 경기공업개방대학으로 개편 / 1988년 서울산업대학으로 개편
2010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교명 변경

56) 당시 부천군 벌응절리, 현재의 소사본동 134번지 일대에 있었던 착암기(鑿巖機)를 제조하던 공장이다. 태평양전쟁 때는 전시체제가 되면서 대포 탄피와 기차 차륜(車輪) 등을 주조하였다. 1937년에 설립한 일흥사에서 독립운동가 이연형(李連珩,1921~2009)이 1940년 일흥사(日興社)에서 독립자금을 모집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여운철(呂運徹,1917~미상)과 이주상(李胄相, 1915~미상) 등이 남로당 노동운동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57) 1980년대까지 박욱래의 교가를 불렀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박욱래가 6 · 25때 생사불명자라고 하여 졸업식에도 교가를 안 불렀다. 이에 전 시의원 김태현이 작사하고 이병순이 작곡을 하였다. 증언-김태현 2020.11.3

58) 증언 : 2020년 10월 27일 삼정동
박공래(朴公來,1937) - 박욱래의 동생으로 공무원 정년을 하였다.
박노설(朴魯卨,1950) - 박욱래의 아들로 부천시 시의원 2대~6대를 역임하였다.
박형재(朴亨在,1948) - 문중의 회장으로 前 부천문화원 원장을 12년 역임하였다.

59) 증언-2020.11.3 - 자료제공 박노설

60) 증언-2020.11.3 - 자료제공 박노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두 분 모두 소사간이학교 시절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버렸다고 한다. 박무숙 님은 소사간이학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추억하였다.

> "간이학교 다닐 때 아침 9시 쯤 등교하여 3~4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한 교실에서 1학년과 2학년이 같이 배웠어. 교과서는 국어(일본어)·산술(算術)·미술을 가르쳤는데, 일본말을 가르칠 적에는 먼저 한국말로 하고 나중에 일본말로는 이렇게 부른다는 식으로 가르쳤어. 미술 시간에는 일장기를 많이 그렸던 기억이 나. 그리고 수신(修身) 시간이라고 있었는데, 이 책 저 책에서 좋은 말만 골라서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재미가 있었어. 나는 우리 오빠(박욱래) 같이 1등은 못했어도 3등은 했어. 이 정도면 잘 한 거지 뭐. 그런데도 시험만 보면 우리 오빠한테 1등을 못 한다고 맨날 혼나고 그랬어. 하여간 우리 오빠는 대단한 사람이었어. 공부를 무척 잘해서 간이학교에서도 늘 우등을 했고, 소사북국민학교 다닐 적에는 경기도지사상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엄청 잘했어. 졸업하구는 서울에 있는 경성학교에 입학했어. 그리고 우리 오빠랑 친했던 백태현 선생은 아주 좋은 분이셨어."

또한 동생 박금숙 님은 소사간이학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추억하였다.

> "간이학교 다닐 때 한국말을 하면 지하실에 가두고 아주 무서웠어요. 매일 아침마다 조회를 하면서 체조를 했어요. 일본 노래도 배우고 그랬는데 나는 일본말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오빠(박욱래)는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우리 동생들에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가르쳐 주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아주 잘 가르쳐 주었는데 나누기는 안 가르쳐 주었어요. 오빠는 나중에 서울에 있는 경성학교에 들어갔어요. 하여간 우리 오빠는 대단한 분이었어요. 오빠는 백태현 선생님하고 친했어요. 백 선생님은 우리 오빠가 졸업했는데도 학교로 불러서 시험 채점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친했어요. 그래서인가 백 선생님은 우리 집하고도 무척 친했어요. 6·25 전쟁이 나고 어느 날인가는 우리 집으로 백 선생님이 음식을 얻으러 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의 소사간이학교에 대해서는 미상이다. 다만 야학강습소를 개설한 수등정웅(須藤定雄)은 반전농장 주임, 소사재향군인 분회장으로 수양강습회의 강획(講劃)을 맡기도[61]했고, 또한 오정방공단을 결성한 인물이다.[62]

---

61) 《동아일보》 1937년 8월 19일자. "〈素砂靑年團補習會〉【素砂】 素砂靑年團은 十五日 午後 一時부터 同夜 十一時까지와 十六日 午前 五時부터 同 十一時까지 二日間 素砂公普校에서 修養講習會를 開催하엿는데 團長 土居普通學校長의 式辭, 許 富川郡守의 告辭, 來賓 神部正雄 氏의 祝辭로 始作하야 開會 第一日에는 須藤定雄 氏의 講劃, 第二日에는 河野郡視學이 軍屬의 講話가 잇엇다."

62) 《동아일보》 1938년 10월 30일자. "〈吾丁防共團 結成〉【素砂】 素砂에서는 素砂·吾丁防共團 結成式을 二十九日

5. 1946년 12월 3일 부천중학 설립기성회준비위원회 발기(發起)

전국의 간이학교 역사를 보면 1945년 해방 후 일부는 폐지되었지만, 대개는 국민학교로 개명하여 역사를 이어받아 지금까지 학교를 존속하고 있다. 그런데 소사간이학교(素砂簡易學校)의 경우에는 해방과 동시에 폐교되고 말았다. 학교 건물 및 부지가 일본인 소유로 '적산(敵産)' 딱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부천군수를 비롯하여 지역 유지인 박제환(朴濟煥,1905-1995)을 중심으로 중학교 설립운동을 했다. 아마도 폐교된 소사간이학교 교사(校舍)를 염두에 둔 것 같다. 아래는 관련한 《대중일보(大衆日報)》 1946년 12월 3일자 기사이다.

> "〈부천군(富川郡)에 중학교(中學校) 설립(設立) - 기성회준비위원회(期成會準備委員會) 발기(發起)〉【素砂】부천군에서는 姜 군수 부임 이래 민생 교육 문제에 전심 노력하여 그간 각 도서(島嶼) 면의 학교 증설을 도모하여, 자월도(紫月島)·시도(矢島)·신도(信島) 등의 여러 도서에다 국민학교를 설립하였는데, 금번 다시 군내에 중학이 없다는 것은 유감이라 하여 그간 누차 상부와 절충하여 동의를 어더, 금일 상오 10시부터 각 면장을 중심으로 한 중학교설립기성회발기준비위원회(中學校設立期成會發起準備委員會)를 개최하고, 저반의 사항을 토의하기로 뫼였다 하는데 그 계책 의하면, 예산은 8백만 원 중 우선 공립(公立) 초급(初級) 중학(中學)을 소사(素砂)에다 설립할 것이며, 내년 초에 교사 건축을 시작하는 일반 생도를 모집하여 가교사에서 교사를 시작할 것이라 한다."[63]

곧 소사읍에 중학교 설립 기성회발기준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내년 초에 생도를 모집하겠다고 하였다. 1946년 당시 현재의 부천시 지역에는 소사남국민학교(1913), 소사북국민학교(1924), 오정국민학교(1932), 오정국민학교 약대분교(1946) 네 학교가 있었다. 그런데도 지역 내에 중학교가 없었으니 서두를 만도 했다. 아래는 당시 《대중일보(大衆日報)》 1947년 2월 8일자 기사 내용이다.

午後 三時부터 素砂小學校 講堂에서 素砂·吾丁 兩面의 官公署員과 有志 多數 參集하야 嚴肅하게 擧行하고 一同이 素砂神社에 參拜한後, 同 四時半에 散會하엿는데 任員된 役員은 左와 如하다고 한다.
顧問 水有平 神部正雄 大森三郎 柳井傳次郎 須藤定雄 韓基鶴
團長 幡謙芳
副團長 久保小右衛門 小見山淸三郎
幹事 元榮常 卞榮謨 佐藤新一
常任 千葉昌治 外 十六名 團員은 百名"

63) 국립중앙도서관

"〈중학교(中學校) 설치(設置) 소사(素砂)로 결정(決定) - 부천중학기성회(富川中學期成會)서 기금(基金) 모집중(募集中)〉【富川】작년 말 처리된 부천중학교설립기성회(富川中學校設立期成會)에서는 설립 기금 1천만 원 조달에 적극 노력 중인데, 동군 면장회의 식상에서 학교 설립지는 소사읍(素砂邑)으로 결정하고, 늦어도 금년 9월 신학기부터는 개교할 예정으로 앞으로 기금 조달에 가 一층의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는데, 강해승(姜海昇) 군수는 군민의 열성 있는 후원을 요망하고 있다 한다."[64]

곧 1947년 9월 신학기에 맞추어 개교하겠다는 계획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천만 원을 목표로 한 기금 조성이 난항에 부딪히고 말았다. 이에 대하여《대중일보(大衆日報)》1947년 3월 4일자는 아래와 같이 기사를 내보냈다.

"〈기부금(寄附金) 모집(募集) 불량(不良)으로 부천(富川) 중학(中學) 창립(創立) 난항(難航)〉【富川】부천군(富川郡) 중학교 설립은 그간 기성회까지 조직하고 기부금 1천만 원을 모집 착수하였으나, 그 성적이 대단 좋지 못하여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강해승(姜海昇) 군수는 가까히 군민의 궐기를 재촉코저 직접 기부금 모집에 나스기로 되었다 한다."[65]

어려운 시대에 기금 모으기가 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나 이제나 독지가(篤志家)는 있게 마련이다.《대중일보(大衆日報)》1947년 6월 5일자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부천(富川) 중학(中學)에 대금(大金)을 기부(寄附) -박(朴), 나(羅), 강(姜) 삼씨(三氏)의 특지(特志)〉【富川】본보에도 누보한 바 있는 부천(富川) 중학교(中學校) 설립 문제는 그간 소사(素砂)에 장소를 결정하고 前 연마포공장(硏磨布工場)[66]을 가교사로 결정하여, 오늘 9월의 개교기를 앞두고 제반 준비에 분망 중인데, 기금난에 봉착한 동교에 대해 2백만원 가까이 토지 기부가 답지하여, 기성회장 강(姜) 군수를 비롯한 관계 인사는 ▨▨▨▨▨▨▨▨케 하고 있은 즉, 소사에 거주하는 박제환(朴濟煥) 씨는 논 3만 평 시가 1백만 원을, 서울에 거주하는 나원상(羅元相) 씨는 논 1만 평 시가 ▨5만원 , 부천군 계양면 전 면장 강한익(姜漢翊) 씨는 역시 논 1만 평 시가 ▨5만 원을 동교 설립 기금에 희사 하였고, 이 밖에 ▨▨▨▨▨▨ 계양면 장기리(場基里)에 음식점을 하고 있는 설숙자(薛淑子,60) 여사는 남편도 아들도 없는 몸으로서 피와 땀의 결정인

64) 국립중앙도서관
65) 국립중앙도서관
66) 물체의 겉면을 갈아 부드럽게 하거나 녹을 문질러 닦는 데에 쓰는 천이나 종이.

돈 5만 원을 기부하였는데, 설 여사는 앞으로도 여유가 있는 대로 학교 설립 기금에 협력하겠다고 언약하야 군민의 칭송이 높다 한다."[67]

상기 기사 내용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성과를 본 모양이다. 연마포공장(硏磨布工場)을 가교사(假校舍)로 결정하여 9월에 개교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그러나 이후로 기금 조성이 난항에 부딪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6. 1949년 10월 1일 2학급으로 사립 부천농업중학원 개원(開院)

○1949년 01월 27일 : 소사읍 中里 3번지 일대 건물 및 토지 임대 신청
○1949년 02월 01일 : 사립 부천농업중학원(富川農業中學院) 개원(開院). 2학급 편성
○1949년 09월 06일 :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교사(校舍) 개축 시작

상기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박제환이 시가(時價) 1백만 원 상당의 논 3만 평, 나원상과 강한익 역시 논 1만 평, 그리고 설숙자도 5만 원을 학교 설립기금으로 희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박제환이 단독으로 부천농업중학원을 설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곧 지금까지 사립 부천농업중학원은 박제환(朴濟煥, 1905~1995)이 단독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박제환 단독으로 13만 평을 기부채납 하여 부천농업중학교를 설립한 것은 맞다.

그림32) 부천농업중학교 설립자 박제환의 1960년 모습[68]

67) 국립중앙도서관
68) 국가기록원

어쨌든 1947년 9월을 목표로 했던 중학교 개교도 무산되고, 이듬해인 1948년에도 기금 조성이 지지부진[69]했다. 그러나 〈부천농업중학원을 공립농업중학교 설립 인수방(引受方)의 건 신청〉(1950.1.9)[70]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본군 소사읍(素砂邑) 중리(中里)에 소재한 유휴(遊休) 시설 농림부 귀속(歸屬) 농지관리국 재산--(倭人 半田農場 건물 742평, 토지 10,095평)--이 있어 차(此)를 학교 시설로 사용하기로 하고 객년(客年,1949) 1월 27일자로 임대 신청을 하였든 바, 농림부의 절대(絕大)한 호의로 허가되여 9월 6일자로 유상양도(有償讓渡)--별지(別紙) 임대차계약서와 여(如)함--를 받은 일편(一便), 기후(其後) 읍면으로부터 7백여 만 원이 순조로히 납부되어 전액을 투(投)하여 교사(校舍) 개축(改築)과 부대 공사를 시공한 바, 교실 수 6교실과 강당 기타 부속 건물이 기(旣)히 준공됨과 동시에 경(更)히 120여 만 원을 투(投)하여 4학급 용분(用分)의 비품 설비도 거개(擧皆) 완료하여 적절한 시설이 충실 되어 있음."

1949년 1월 27일의 당시 임대차신청서는 없지만, 이후의 1954년도 〈歸屬財産賃貸借契約書〉(1954.10.4)[71]와〈歸屬不動産(住宅店鋪垈地其他)賣買契約書〉(1954.12.7)를 보면 부천농업중학원 건물 및 대지는 아래와 같이 총 5,981평을 임대하고 있다.

○ 素砂邑 中 里	3-29	田	606평
	3-30	田	91평
	3-31	田	585평
	3-32	田	41평
	3-33	田	3,924평
	4	垈地	120평
	5-1	垈地	88평
	5-4	垈地	14평
	5-5	垈地	86평
	5-6	垈地	135평
○ 吾丁面 陶塘里	262-4	田	291평

69) 《대중일보(大衆日報)》 1948년 3월 13일자. "〈難産의 富川中學 - 要望되는 期成會의 活動〉 - 富川郡內 有志들의 發起로 郡內 素砂邑에 富川中學校를 設立키로 되어 지난 年末에는 期成會에서 總 經費 八三五萬圓을 一邑 九個面에 配定하여 受納中에 있는데 그 成績은 三割 밖에 不過해 ▨成績으로 期成會側의 積極推進이 크게 要望된다고 한다."

70) 국가기록원 〉 생산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생산년도 1950년 관리번호 BA0585146

71) 국가기록원 〉 〈歸屬財産拂下關係書類〉(1954)〉 - 경기도교육청 관리국 재무과 〉 관리번호 BA0398375

이 중에서 소사읍 중2리 3-33번지 田 3,924평이 학교 부지로 교사 · 직원실 · 사택 · 창고 등이 있었다. 〈歸屬不動産(住宅 店鋪 垈地 其他)賣買契約書〉(1954.12.7)에도 또 같은 번수에 같은 평수이다. 다만 1949년 임대할 당시보다 절반 밖에 안 되는 평수이기는 하다. 어쨌든 읍면(邑面)의 각 개인으로부터 모집한 기금 7백여만 원으로 1949년 9월 6일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교사(校舍) 개축 시작하였다. 곧 개축한 교사(校舍)가 바로 소사간이학교 교사였음을 이로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문서에 '학원으로 발족한 경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전기(前記)의 시설이 진척됨에 따라 유지(維持) 경영체가 결정되기까지의 임시적 조치로 우선 학원으로 발족하고, 객년(客年,1949) 10월 1일자로 인가를 얻어 원장하(院長下) 우수한 교원(教員) 6인과 기타 2인을 채용한 일편(一便) 학생 70명을 모집하고 교과 내용에 있어서도 농업중학교와 동일한 교과를 채용하는 등 타에 손색이 없는 경영을 시조(施措) 중임."

곧 중리 3번지 일대의 1만여 평을 임대 신청하고, 1949년 2월 1일 2학급으로 사립 부천농업중학원을 개원(開院)한 이후, 학생 70명을 받고 교사 6명을 채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다.

당시 〈교직원 조직표〉[72]를 보면 1950년에는 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7명이었다가, 1951년에는 11명, 1952년에는 14명으로 해마다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행정관 1명, 서기 1명, 고용인 4명을 두고 있었다. 아마도 1950년 이후의 기록은 해마다 학생을 50명씩 뽑으면 이에 준하여 교사를 더 채용하겠다는 계획표로 보인다. 또한 〈학급 편성 및 학생 정원표〉[73]를 보면 아래와 같다.

1950년	1951년	1952년
1학년 50명	1학년 50명	1학년 50명
2학년 50명	2학년 50명	2학년 50명
	3학년 50명	3학년 50명
		4학년 50명

어쨌든 이 기록은 1950년 1월 9일 현재 기록이므로 당시에 학생은 100명이었고, 교사는 7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72) 국가기록원 〉 생산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생산년도 1950년 관리번호 BA0585146
73) 국가기록원 〉 생산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생산년도 1950년 관리번호 BA0585146

7. 1950년 1월 부천농업중학원을 공립농업중학교로 설립 인수 신청

사립 부천농업중학원 학생들은 가난했던 농민들의 자녀들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사립학교 수업료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 박제환은 자신의 회고록 《지봉한담(芝峯閑談)》 (박제환, 1992)에서, 아래와 같이 회상하고 있다.

> "1946년 2월에 도청(道廳)을 사직한 나는 오래간만에 한가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귀향하여 고향의 친구들과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도 하고 옛 마을 동산으로 산책도 하였다. 지금의 부천중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그 경위를 말하자면 당초에는 내가 사립으로 부천중학원(富川中學院)을 세운 것인데, 학부형들이 어떻게든 공립으로 해달라고 졸라대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경기도 학무과장에 이해익(李海翼)[74]씨가 부임해왔다. 이씨는 해방 전에 개성부원(開城府員)을 지낸 분으로 나와도 잘 아는 사이였으므로, 어떻게 공립으로 할 수 없을까 의논하였더니 학교의 재정을 확장하여 경기도에 기부채납(寄附採納)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토지개혁 전에 부천시 원종동, 고강동 등에 있는 12만평을 팔아서 도(道) 학무과(學務課)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학교는 공립으로 된 것이다. 지금도 그 학교 앞을 지날 때면 가끔 옛날 일이 회상된다.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의 공납금을 받아서 우골탑(牛骨塔)을 세운다고들 하였다. 그러나 숨어서 봉사하는 것이 더욱 마음에 흐뭇한 것이었다."

곧 사립 부천농업중학원을 학부형들이 공립으로 해달라고 졸라대자, 이에 박제환은 자신의 전답 12만 평[75]을 기부채납 하고 1949년 9월 6일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부천농업중학교로 사용할 교사(校舍)를 개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관하여 《조선일보》 1949년 8월 17일자에서, 다음과 같이 기사를 내보냈다.

> "**〈박제환씨(朴濟煥氏) 특지(特志)로 부천농중(富川農中)을 설치(設置)〉** 【素砂】한강수리조합장 박제환(朴濟煥) 씨는 자기 전 재산인 토지 13만5천여 평(지가 1천3백5만원)을 희사하여 사단법인으로 소사읍에 부천농업중학교(富川農中)를 설치코저 관계 당국에 교섭 중인데 오는 10월까지는 개교되리라 하며 씨의 특지에 대하야 一반 읍민은 칭송이 자자하다."

박제환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4월 22일 부천의 공덕 인물로 선정되었다.

---

74) 이해익(1905-1984) 개성부윤, 내무부 지방국장, 경기도지사, 농림부장관을 지냈다.
75) 《부천중학교 연혁지》 에는 13만 평으로, 《조선일보》 1949년 8월 17일자에는 13만5천 평으로 기록됨.

박제환(朴濟煥, 1905~1995)은 부평군 옥산면 벌응절리(현,역곡동) 165번지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죽산(竹山), 호는 지봉(芝峰)이고, 본명은 박제찬(朴濟瓚)이다. 1923년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 동지사대학(同志社大學) 예과(豫科)에 입학하였다가, 1926년 경제학부로 다시 진학하여 1929년 졸업하였다.[76] 졸업 후 1945년 경기도청 식량과장, 1947년 한강수리조합장,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1960년 제2공화국 장면(張勉) 내각에서 제17대 농림부장관(1960~1961)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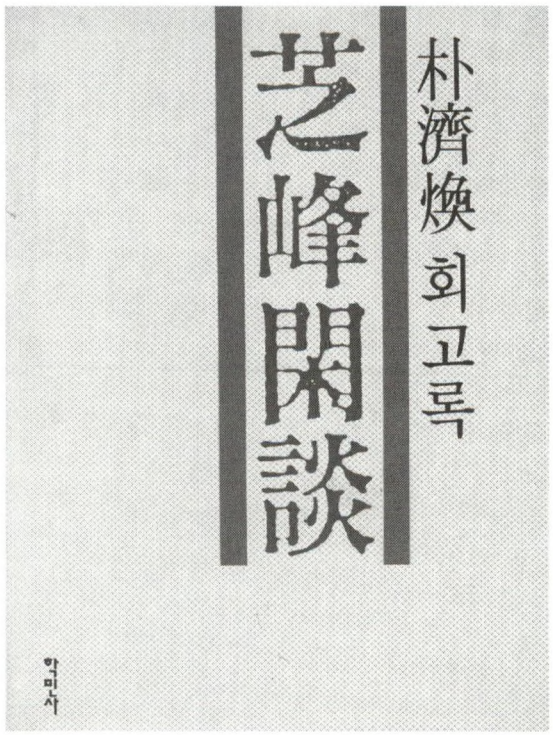


그림33) 《지봉한담(芝峯閑談)》(박제환,1992) 표지

그림34) 1992년 박제환의 말년 모습[77]

박제환이 사립으로 세운 학교를 학부형들의 요구로 공립으로 변경했다는 얘기다. 당시 박제환은 한강수리조합 제6대 조합장[78]을 맡고 있으면서 미군정청과 담판을 잘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 임대지는 곧 한강수리조합 몽리구역(蒙利區域) 내인 소사읍 중2리 3번지에 있었다. 박제환은 1950년 1월 9일 사립 부천농업중학원을 공립 부천농업중학교로 설립하여 인수(引受)하는 신청서를 부천군수를 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보내고 있다. 아래에서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

76) 《교토 유학생 박제환의 삶과 실천》(홍종욱,2016)

77) 《지봉한담(芝峯閑談)》(박제환,1992)

78) 한강수리조합장 : 1948년 10월 27일부터 1952년 10월 27일까지 재임. 사임은 1954년 2월 19일. 출처-《漢江農組60年史》(한강농지개량조합,1986)

〈부천농업중학원을 공립농업중학교 설립으로 인수방(引受方)의 건 신청〉[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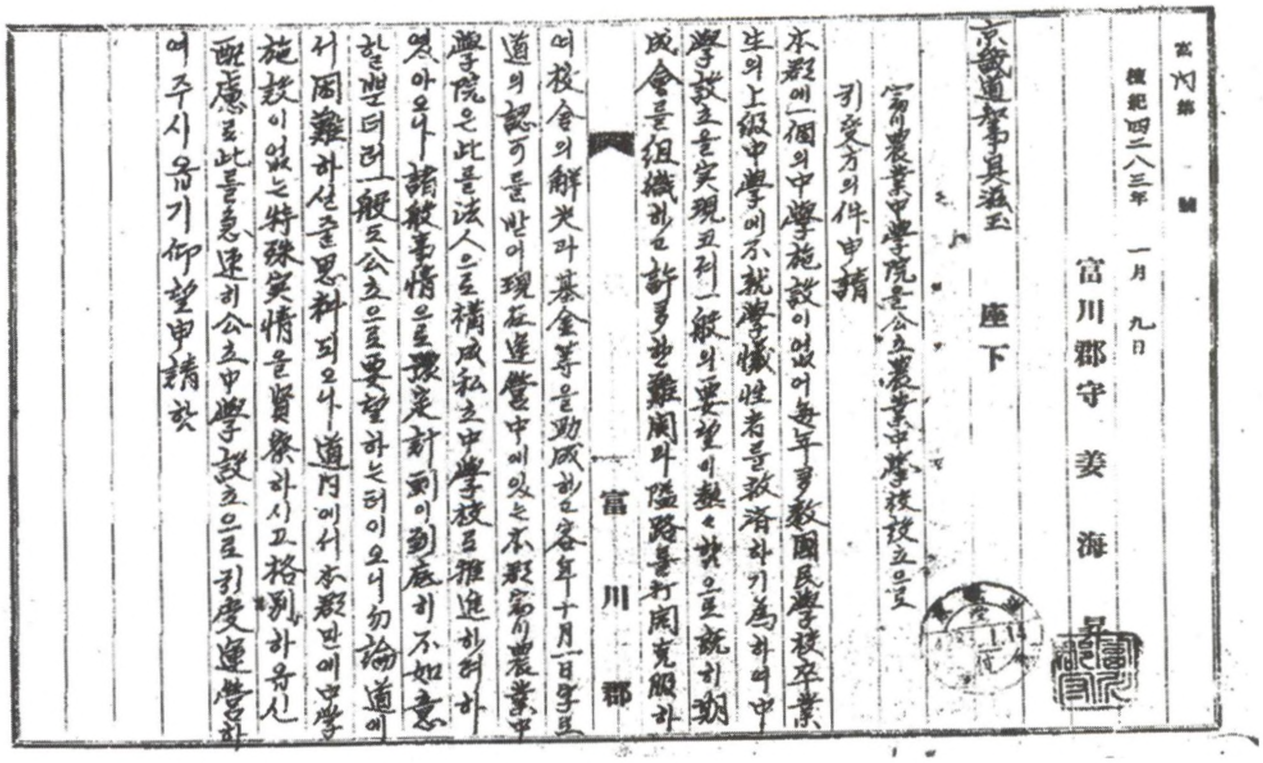

富內第一號
檀紀四二八三年 一月 九日
富川郡守 姜海昇
京畿道知事 具滋玉 座下
富川農業中學院을 公立農業中學校設立으로
引受方의 件 申請
本郡에 一個의 中學施設이 없어 每年 多數國民學校卒業生의 上級中學에 不就學犧牲者를 救濟하기 爲하여 中學設立을 實現코저 一般의 要望이 熱熱함으로 旣히 期成會를 組織하고 許多한 難關과 隘路를 打開克服하여 校舍의 解決과 基金 等을 助成하고 客年 十月 一日字로 道의 認可를 받어 現在 運營中에 있는 本郡 富川農業中學院은 此를 法人으로 構成 私立中學校로 推進하려 하엿아오나 諸般事情으로 豫定計劃이 到底히 不如意할뿐더러 一般도 公立으로 要望하는 터이오니 勿論 道에서 困難하실 줄 思料되오나 道內에서 本郡만에 中學施設이 없는 特殊實情을 賢察하시고 格別하옵신 配慮로 此를 急速히 公立中學校設立으로 引受運營하여 주시옵기 仰望申請함
富川郡

그림35) 〈부천농업중학원을 공립농업중학교 설립으로 인수방(引受方)의 건 신청〉

富內 第一號

檀紀 四二八三年 一月 九日(1950년 1월 9일)

부천군수(富川郡守) 강해승(姜海昇)[80]

경기도지사(京畿道知事) 구자옥(九滋玉)[81] 좌하(座下)

〈부천농업중학원을 공립 농업중학교 설립으로 인수방(引受方)의 건 신청〉

본군(本郡)에 중학 시설이 없어 매년 다수 국민학교 졸업생의 상급 중학에 불취학(不就學)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중학 설립을 실현코저 일반의 요망이 열열 함으로 기(旣)히 기성회(期成會)를 조직하고 허다한 난관과 애로를 타개 극복하여 교사(校舍) 해결과 기금 등을 조성하고 객년(客年,1949) 10월 1일자로 도의 인가(認可)를 받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본군 부천농업중학원은 차(此)를 법인으로 구성 사립중학교로 추진하려 하엿아오나 제반 사정으로 예정 계획이 도저히 불여의(不如意)할뿐더러 일반도 공립으로 요망하는 터이오니, 물론 도에서 곤란하실 줄 사료(思料)되오나 도내에서 본군(本郡) 만에 중학 시설이 없는 특수 실정을 현찰(賢察) 하시고 격별(格別) 하옵신 배려로 차(此)를 급속히 공립중학교 설립으로 인수 운영하여 주시옵기 앙

79) 국가기록원 〉 부천농업중학원을 공립농업중학교 설립으로 인수방의 건 신청 〉 생산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생산년도 1950년 관리번호 BA0585146

80) 제12대 부천군수로 1948년 10월 1일부터 1950년 5월 12일까지 재임하였다.

81) 초대 경기도지사로 1946년 2월 15일부터 1950년 7월까지 재임하였다.

망(仰望) 신청함.

一, 중학 설치가 필요한 이유

해방 후 비등(沸騰)하는 향학열을 기저(基底)로 각지에서 중등학교 창설의 기운이 양성(釀成)되어, 일군일교(一郡一校)가 거개(擧皆) 완성된 현 단계에 있어서 서울, 인천 간에 개재(介在)한 유일한 특수 농업지대와 아울러 중요 상공업지대를 포섭(包攝)한 본군(本郡) 만이 일개의 중학 시설이 무(無)하여, 매년 국민학교 졸업생 1,400여 명이 진학할 길이 막연한 특수 현상에 처하여 있어, 중등학교 설치는 초미(焦眉)의 급무로서 조속히 기(其) 현실이 요청되는 바임.

二, 중학 설치 진척 경과

(가) 시설 진척 상황

전기(前記)의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四二七九年(1946) 12월 30일에 군내 유지(有志) 각계를 망라하여 중학 창립 기성회를 결성하고, 기금 8백여 만 원을 조성키로 결정하고 적극 추진하여 왔든 바, 때마츰 초등 교육 시설 확충 계획과 경합됨과 아울러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준비가 불여의(不如意) 하므로 인하여 지지(遲遲)하게 진척이 되지 못하고, 四二八一(1948)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 100여 만 원에 불과 동시에 기간(其間) 물가의 폭등으로 당초 계획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궁경(窮境)에 처하여 적절한 타개책을 강구(講究)하여 오든 중, 다행히 본군 소사읍(素砂邑) 중리(中里)에 소재한 유휴(遊休) 시설 농림부 귀속(歸屬) 농지관리국 재산--왜인(倭人) 반전농장(半田農場) 건물 742평, 토지 10,095평)--이 있어 차(此)를 학교 시설로 사용하기로 하고 객년(客年,1949) 1월 27일자로 임대 신청을 하였든 바, 농림부의 절대(絕大)한 호의로 허가 되여 9월 6일자로 유상양도(有償讓渡)--별지(別紙) 임대차계약서와 여(如)함--를 받은 일편(一便), 기후(其後) 읍면으로부터 7백여 만 원이 순조로히 납부되어 전액을 투(投)하여 교사(校舍) 개축改築)과 부대 공사를 시공한 바, 교실 수 6교실과 강당 기타 부속 건물이 기(旣)히 준공됨과 동시에 경(更)히 120여 만 원을 투(投)하여 4학급 용분(用分)의 비품 설비도 거개(擧皆) 완료하여 적절한 시설이 충실 되어 있음.

(나) 학원으로 발족한 경위

전기(前記)의 시설이 진척됨에 따라 유지(維持) 경영체가 결정되기까지의 임시적 조치로 우선 학원으로 발족하고, 객년(客年,1949) 10월 1일자로 인가를 얻어 원장하(院長下) 우수한 교원(敎員) 6인과 기타 2인을 채용한 일편(一便) 학생 70명을 모집하고 교과 내용에 있어서도 농업중학교와 동일한 교과를 채용하는 등 타에 손색이 없는 경영을 시조(施措) 중임.

三, 농업중학교로 창설하는 이유

(가) 본군 소사읍을 중심으로 한 광막(廣漠)한 풍옥(豐沃) 평야지대를 토대로 하여 관하 각 읍면은 수밀도(水蜜桃)[82], 장십랑(長十郞)[83] 등 독특한 과수 생산이 풍부함과 아울너 서울, 인천에 공급하는 계절적 고등(高等) 채소를 재배하는 원예지대(園藝地帶)이며, 일편(一便) 한강수리조합, 인안수리조합(仁安水利組合) 지역을 포섭한 근대식 수도미(水稻米) 산지인 특수 농업지대임에 비추어 우수한 농업 기술원의 양성이 긴급 가결(可缺)한 것.

(나) 소사읍 지역에 중앙농업기술원 특히 학교 인접지에 금원(今院) 특수작물연구소(特殊作物硏究所)가 기설(旣設) 되어 상당한 설비와 우수한 고급 기술원이 배치되어 있음으로 주위 환경이 적합 할뿐만 아니라, 차(此) 시설을 과외 이용이 가능하며 또 기간 강사로서 사계(斯界)의 전문 기술가를 구득(求得)할 수 있는 것.

(다) 교지 내에 상당히 광범한 실습지와 돈계사(豚鷄舍)・양잠실(養蠶實)・비료류(肥料溜)・작업실(作業室)・창고(倉庫)・탈곡실(脫穀室)・정미소(精米所), 기타 부속 건물 등 설비가 되어 있어 최소의 경비로서 농업중학 시설 완비가 용이(容易)한 것.

四, 공립 농업중학교 설치 요망 이유

(가) 당초 본군 소사읍 벌응절리(伐應節理)[84]에 거주하는 박제환(朴齊煥)[85]의 토지 약 16만 평을 기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차(此)로 하여곰 유지 경영키로 하는 계획 하에 추진하여 왔든 바, 재산이 근소(僅少)한 차(此) 재단으로서는 유지 경영이 불가능함은 물론 토지 개혁 문제와 일익변동(日益變動)한 경제적 핍박(逼迫)에 봉착한 금일에 지(至)하여서는 부득이 우왕좌왕의 상태를 면할 수 없을 뿐만 않이라, 차(此)를 현상대로 유지할 시, 재정난으로 현재의 학원 운영조차도 불가능하여 폐교(閉校)의 위기를 초래하여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게 됨을 명약관화(明若觀火)의 사실로서 차(此)의 타개책으로는 도비(道費) 농업중학교를 설치하여 기설(旣設)된 시설을 수습(收拾) 경영함이 유일의 방책임.

(나) 농업 중학은 일반 인문 중학과 판이하여 공립이 않이면 우수한 직원 채용과 및 연구 실험 시설 물품을 입수하기가 극난(極難)함.

---

82) 복숭아의 한 품종(品種). 껍질이 얇아 잘 벗겨지며 살과 물이 많고 맛이 닮

83) 1893년 일본에서 우연히 발견한 배(梨)로 1906년 뚝섬에 원예 모범장 설치와 함께 장십랑, 금촌추(今村秋), 만삼길, 태평조생(太平早生), 적룡(赤龍), 바틀렛 6개 품종이, 1908년까지는 40여 품종이 시험장에 도입 재배되었다.

84) 현재의 역곡동.

85) 박제환(朴濟煥,1905~1995) 조선총독부 관리로 경기도 식량과장 등을 지내다 해방 이후 제2대, 제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장면(張勉) 내각에서 농림부장관을 역임했다.

(다) 도비(道費) 농업중학교를 설치에 따르는 3개년 간의 경상비(經常費)로 약 4백만 원 정도의 액(額)은 기부채납(寄附採納)이 가능함."

또 이 문서에는 부천농업중학원을 부천농업중학교 교사(校舍)로 개축 공사한다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조선일보》 26일자에 아래와 같이 기사를 내보냈다.

"〈부천농중교(富川農中校) 수리(修理)〉【素砂】부천농업중학교는 총 공사비 五백四십三만원으로 방금 수리 중에 있는데, 十월말까지에는 완료되리라 하며 동시에 생도 모집도 착수하여 十一월에는 개교를 보게 되리라 한다."

8. 1950년 3월 28일 부천농업중학교(富川農業中學校) 설립 인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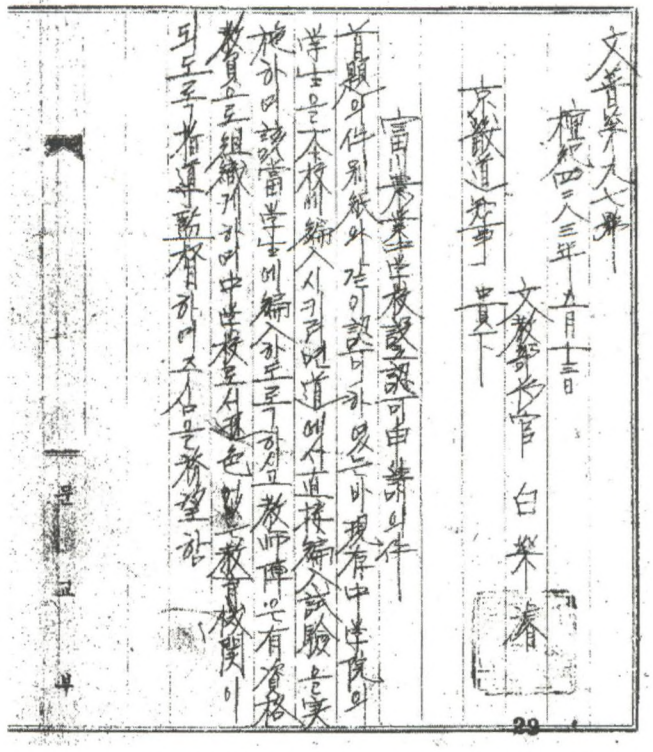


그림36) 부천농업중학교 설립 인가 신청의 건

○ 文普제97호

檀紀 4283년(1950) 5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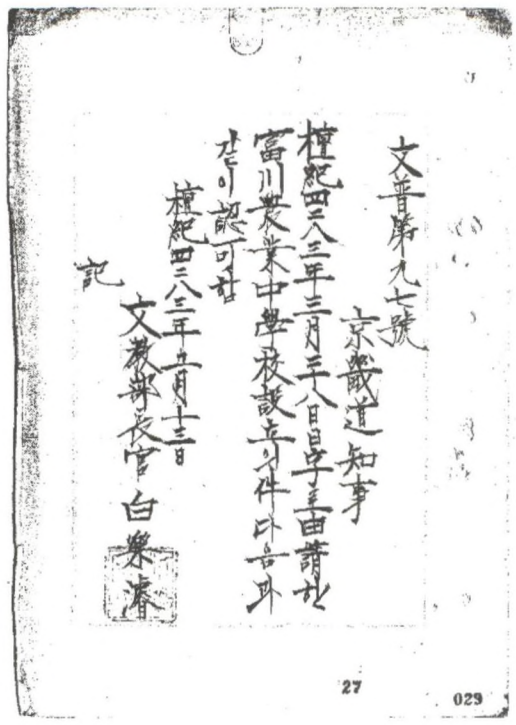
文敎部長官 白樂濬

京畿道知事 貴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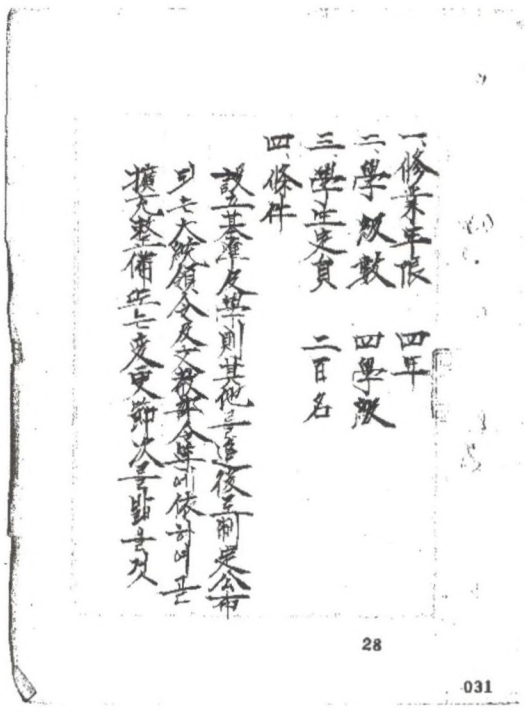
부천농업중학교 설립 인가 신청의 건

수제(首題)의 건 별지(別紙)와 같이 인가 하였는 바, 현재 중학원(中學院)의 학생을 본교에 편입시키려면 도에서 직접 편입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학생에 편입하도록 하시고, 교사진(教師陳)은 유자격(有資格) 교원(教員)으로 조직케 하여 중학교로서 손색없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지도감독하심을 무망(務望)함.[86]

9. 1950년 5월 13일 부천농업중학교(富川農業中學校) 설립 인가



38) 부천농업중학교 설립 인가 1



37) 부천농업중학교 설립 인가 2

○ 文普제97호

京畿道知事

檀紀 4283년(1950) 3월 28일자로 申請한 富川農業中學校 設立의 件 다음과 같이 認可함

檀紀 4283년(1950) 5월 13일

文教部長官 白樂濬 記

1.修業年限 : 4年

86) 국가기록원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생산년도 1950년 관리번호 BA0585146

2.學 級 數 : 4學級

3.學生定員 : 2百名

4.條　　件 : 設立 基準 及 學則 其他를 追後로 制定 公布되는 大統領令 及 文敎部令에 依하여 곧 擴充 整備 또는 變更 節次를 밟을 것.

10. 1950년 5월 16일 부천농업중학교 설립 인가 재결(裁決)

〈富川中學校(農業) 認可의 件〉 4283년(1950) 5월 16일 裁決[87]

富川中學校(農業) 認可의 件

標記 富川農業中學校 設立의 件 別紙 字와 如히 認可되었기 玆에 通知함.

1.名　　稱 : 富川農業中學校

2.位　　置 : 富川郡 素砂邑 中里 3番地

3.設 立 者 : 京畿道

4.修業年限 : 4年

5.學 級 數 : 4學級, 各 學年 1學級式

6.學　　科 : 農業科

※ 現有中學院의 學生을 本校에 編入시키려면 道에서 直接 編入試驗을 實施하여 ▨▨ 編入케 하며 敎師陳을 有資格者를 採用할 것.

곧 설립인가에 대하여 보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있는 부천농업중학원의 학생들에게 편입시험을 치르게 하고,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채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곧 이전에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선생들이 가르쳤다는 말이다.

87) 국가기록원 〉 부천중학교(농업)설립 인가의 건 〉 생산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생산년도 1950년 관리번호 BA0585146

11. 1950년 6월 1일 부천농업중학교(富川農業中學校) 개교(開校)

1945년 해방 후 폐교된 소사간이학교 건물 및 부지를 미군청으로부터 임대하여 사립 부천농업중학원을 개원하면서 부천 최초의 중학교가 되었다. 이후 긴 여정의 우역곡절 끝에 마침내 공립 부천농업중학교가 개교하였는데, 6 · 25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24일 전이었다.

1953년 3월 23일 소사중학교 제1회 졸업생 15명[88] 배출을 하였다. 그런데 《조선일보》 3월 3일자 기사에서는 "〈素砂中學校 卒業式〉【素砂】 부천군(富川郡) 소사중학교 금년도 졸업식(38명)은 23일 상오 11시 동교 강당에서 내빈 다수 참석 하에 성대히 거행하였다 한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1960년 제10회 졸업 기념 앨범을 보면 당시 학생들은 현재의 부천시 전역에서 다니고 있었다. 중학교가 오로지 이 학교밖에 없었으니 멀거나 가까우나 다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웃한 인천시 일신동 · 서운동, 김포군 송정리에서도 다녔고, 멀리 서울시 영등포와 소래면 계수리에서도 다녔다.

부천농업중학교(1950.6.1)는 개교 이후 교명을 부천중학교(1951.8.31) ⇨ 소사중학교(1952.5.9) ⇨ 부천중학교(1973.10.18)로 개명하였다. 다만 학교는 중리 3번지에 있다가 1963년 12월 2일 소사읍 구지리 51번지로 이전하였다가, 1976년 12월 20일 현재 위치인 중동 969번지(현, 777번지)로 다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2. 1954년 7월 7일 소사농업고등학교(素砂農業高等學校) 설립 인가

현재 부천공업고등학교는 소사중학교를 모체(母體)로 하여, 1954년 7월 7일 소사농업고등학교(素砂農業高等學校)로 설립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그런데 《조선일보》 7월 21일자 기사는 "〈各地 中高校 認可〉【素砂】 소사중학교를 모체(母體)로 하여 소사농업고등학교가 문교부로부터 지난 10일 자로 인가되었다."라고 하였다.

어쨌든 두 학교는 부천농업중학원(富川農業中學院) 한 몸에서 탄생한 형제이다. 그래서 두 학교 교가(校歌)가 동일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1977년 당시 부천공업고등학교 교장 박철규는 〈富

88) 《부천중학교 연혁지》

川工高 發展의 발자취〉[89]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1950년 6월 1일 조그만 농촌(부천군 중리 3번지)에 이 지역 최초의 중등 교육기관으로써 효시인 6년제 부천농업중학교로 고고(呱呱)의 소리를 울리며 문을 열었다. 변천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살림을 차려준 학교가 2개이니 그 하나는 중동 3번지(舊 소사읍 중2리) 소사중학교(素砂中學校) 시절에 현재 시흥군 소래면 소재 소래중학교가 소사중 소래분교(蘇萊分校)로 1960년 2월 10일 독립 분교(分校) 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1963년 12월 2일 이곳 송내동 51번지(素砂邑 九芝里) 언덕에 함께 자리를 옮겨 · · · (中略) · · · 고락(苦樂)을 같이한 병설 부천중학교가 중동 969번지로 광활한 대지 위에 현대적 시설을 갖춘 새 교사(校舍)로 1976년 3월 1일 독립 분리되어, 4월에 일부 이전, 1976년 말이면 완전히 이전되어 두 번째 살림을 차리게 된 것이다.

草創期 : 1950~1963

가. 부천중학원(富川中學院) 개원(開院)

1947년 4월 부천중학원(富川中學院) 설립을 위한 기성회(期成會)가 결성되어 박제환(朴濟煥)씨 소유 부동산 13만 평 기부 승낙으로 1949년 10월 1일 부천농업중학원(富川農業中學院)을 개원하였다. 이듬해 6월 1일 현재의 중동 3번지(舊 중2리) 삼호섬유공업사 자리가 본교의 처음 터전이었다. 초대 구백서(具百書) 교장을 모시고 본교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다. 1951년 3월 7일 교육법 개정으로 중학3년, 고등3년으로 된 6 · 3 · 3 4학제로 확정 개편됨에 따라 1951년 8월 31일 부천중학교(富川中學校)로 교명(校名)을 변경되고. 다시 그 이듬해 5월 9일 소사중학교(素砂中學校)로 교명(校名)이 개칭되었다.

나. 소사농업고등학교(素砂農業高等學校) 설립 인가

1954년 7월 7일 소사농업고등학교(素砂農業高等學校)가 설립 인가되어 농과(農科) 20여 명이 농업 기술을 연수(研修)하여 1957년 3월 2일 제1회 졸업생 20명이 처음으로 교문을 나서게 된 것이다. 이후 상과(商科)를 증설하여 1962년 1월 27일 소사실업고등학교(素砂實業高等學校)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63년 제7회 졸업생 35명을 포함 10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舊 중리 3번지에서 1963년 12월 소사중학교(素砂中學校) 및 소사실업고등학교(素砂實業高等學校)의 간판이 송내동 51번지 현 위치로 옮겼다.

---

89) 《부천예총(예총 부천지구회, 1977)

擴充期 : 1963~1973

가. 송내동(松內洞) 언덕 새 교사(校舍)로 이사(移徙)하다

1963년 7월 5일 당시의 기성회장인 원인상(元仁常)[90]씨의 희사금(喜捨金) 26만원으로 벌뫼산 및 복사꽃 향기 그윽하고 한 눈에 부천시가 내려다보이는 송내동 51번지(舊 소사읍 구지리) 언덕에 부지를 매입, 그 해 8월 10일 미군 부천사령부 원조로 부지를 정리하여 삼익건설주식회사가 공사 부담금 500만원으로 2층 13교실을 신축하여 1963년 12월 2일 이사를 하였다.

나. 소사농공고등학교(素砂農工高等學校)로 교명 변경

1962년 소사실업고등학교(素砂實業高等學校)로 교명이 변경된 이래 입학한 상과(商科)가 1965년 1월 29일 제1회 졸업생 27명을 배출하였다. 1967년 상과(商科)를 폐과(廢科)하고 전자과(電子科)로 변경 인가. 당국의 농공병진(農工竝進) 정책에 따라 소사농공고등학교(素砂農工高等學校)로 교명이 개칭되었다."

부천공업고등학교는 이 자료로 대신한다.

13. 1959년 3월 31일 소사중학교 소래분교(蘇萊分校) 설립 인가

거리상 멀기는 하지만 현재의 시흥시 대야동 소재 소래중학교는 본래, 1959년 3월 31일 소사중학교 소래분교(蘇萊分校)로 설립 인가된 학교로, 1959년 4월 12일 소사중학교 소래분교(1학급)로 개교하였다.

이후 이듬해인 1960년 2월 10일 소래중학교 6학급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소사중학교에서 독립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로 보면 대야리(大也里)에서 중리(中里)까지 약 9km의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소래면 대야리에 분교(分校)가 인가된 것을 보면 인근 학생들이 많이 다닌 것으로 여겨진다.

---

90) 원인상(元仁常,1901~1965) : 본관은 원주원씨로 당시 표절리(현, 춘의동)에 거주하던 인물이다. 원인상은 인천상업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소사에서 정미소(精米所)를 경영했다. 부천군을 대표해서 1942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도의원(道議員)에 해당하는 경기도 평의원(評議員)을 지냈다. 광복 후에는 1947년부터 한강수리조합 김포 · 부천조합장을 지냈고, 50년대 지방의원 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14. 나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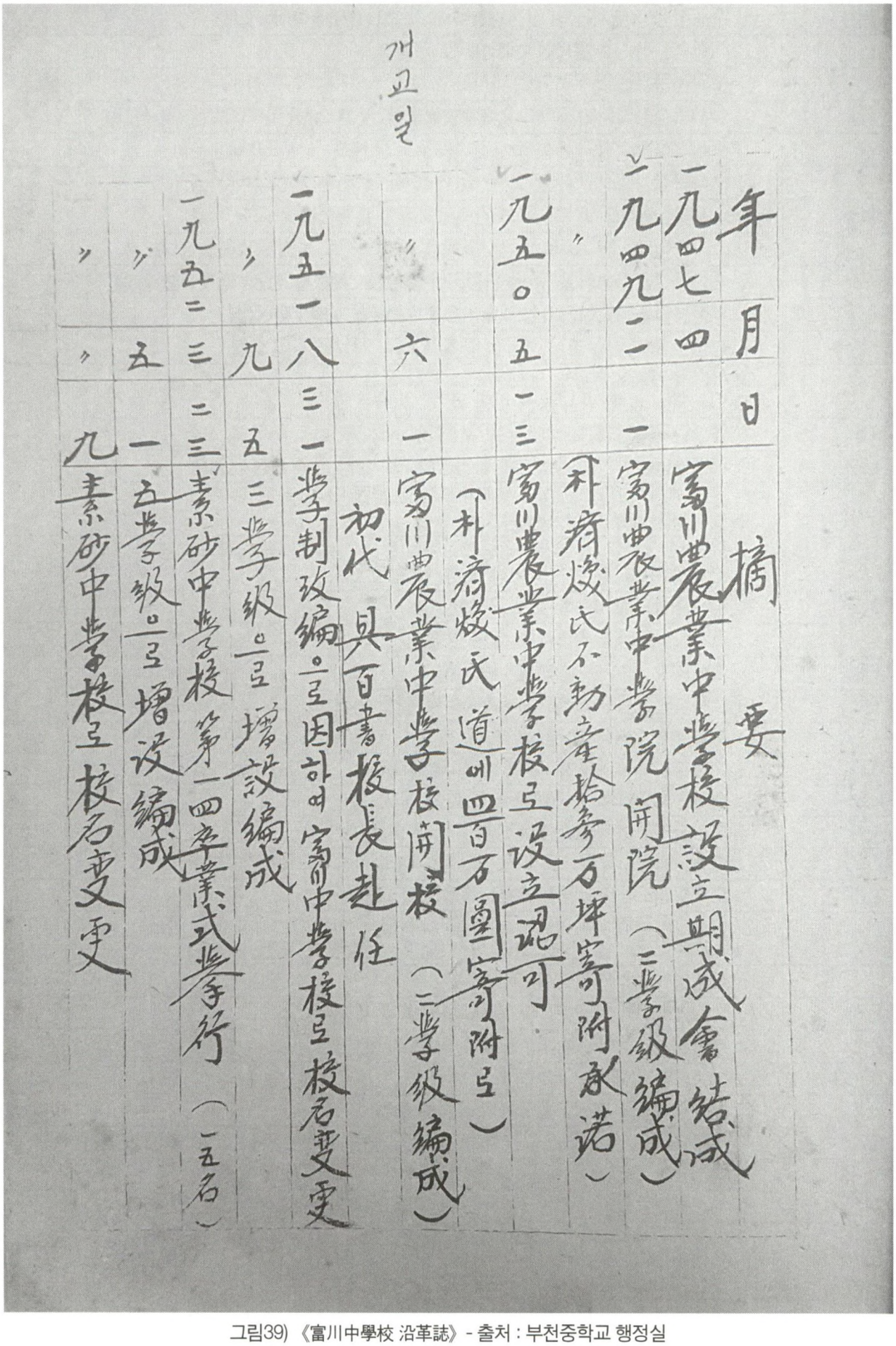


그림39) 《富川中學校 沿革誌》 - 출처 : 부천중학교 행정실

소사간이학교(素砂簡易學校)의 후신 부천농업중학원(富川農業中學院) 연혁	
1930.10.4	○ 반전선사랑(半田善四郎) 중2리 3-1번지에 반전농장(半田農場) 설립.
1930년말	○ 수등정웅(須藤定雄)이 반전농장 야학강습소(夜學講習所) 개소.
1932.4	○ 주학언문강습소(晝學諺文講習所)로 개칭.
1936	○ 주학언문강습소 무허가로 폐지.
1937년말	○ 소사북심상보통학교(素砂北尋常普通學校) 부설 소사간이학교로 승격 신청.
1938.4.1	○ 소사북심상소학교 부설 소사간이학교 교장(校長) 및 훈도(訓導) 부임.
1938.5.2	○ 소사북심상소학교 부설 소사간이학교(素砂簡易學校) 입학식(35명)
1938.6.2	○ 소사북심상소학교 부설 소사간이학교(素砂簡易學校) 개교식(36명)
1945	○ 소사간이학교는 1945년, 적산가옥 및 적산토지로 농림부에 환수 귀속.
1946.12.3	○ 중학교설립기성회발기준비위원회(中學校設立期成會發起準備委員會) 개최.
1947.4	○ 부천농업중학교설립기성회(富川農業中學校設立期成會) 결성.
1949.1.27	○ 농림부 귀속 반전농장 건물 및 토지를 학교 시설로 임대 신청.
1949.2.1	○ 사립 부천농업중학원 개원(開院). 2학급 편성. ▶박제환(朴濟煥) 씨 부동산 13만 평[91)92)] 기부.
1949.9.6	○ 유상양도(有償讓渡) 임대차계약서 작성. 교사(校舍) 개축(改築) 시작.
1950.1.9	○ 부천농업중학원을 공립 부천농업중학교로 설립 인수 신청서 제출.
1950.5.13	○ 공립 부천농업중학교(富川農業中學校)로 설립 인가 받음. ▶박제환(朴濟煥) 씨 4백만 원 기부.
1950.6.1	○ 중2리 3-33번지에 부천농업중학교(富川農業中學校) 개교. 2학급 편성. ▶소사읍 중2리 舊 반전농장 내 소사간이학교
1951.8.31	○ 부천중학교(富川中學校)로 교명 변경.
1952.5.9	○ 소사중학교(素砂中學校)로 교명 변경.
1953.3.23	○ 소사중학교 제1회 졸업생 15명 배출.
1954.7.7	○ 소사농업고등학교(素砂農業高等學校) 설립 인가.
1954.12.7	○ 학교 부지 2백4십만환에 매입.
1957.3.2	○ 소사농업고등학교 제1회 졸업생 20명 배출.
1959.3.31	○ 소사중학교 소래분교(蘇萊分校) 설립 인가.
1959.4.12	○ 소사중학교 소래분교(蘇萊分校) 개교. 1학급 편성.
1960.2.10	○ 소래중학교 6학급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소사중학교에서 독립 분리.
1962.1.27	○ 소사실업고등학교(素砂實業高等學校)로 교명 변경.
1963.12.2	○ 소사중학교와 소사실업고등학교를 소사읍 구지리 51번지로 신축 이전. ▶1963년 7월 5일 당시의 기성회장 원인상(元仁常)씨 26만원 기부.
1966	○ 삼호섬유공업사(삼호직물)에 매각.
1967.7.24	○ 소사농공고등학교(素砂農工高等學校)로 교명 변경.
1973.9.1	○ 부천공업고등학교(富川工業高等學校)로 교명 변경.
1973.10.18	○ 부천중학교(富川中學校)로 교명 변경.
1975.3.1	○ 부천중학교와 부천공업고등학교 독립 분리.
1976.2.29	○ 부천중학교 11개 교실 준공하여 1학년만 중동 969번지(現,777)로 이전.
1976.12.20	○ 부천중학교 21개 교실 준공하여 중동 969번지(現,777)로 완전 이전.
2020 현재	○ 부천농업중학교 부지는 現, 중동대림아파트(現,중동 3-207번지) 단지이다.

91) 12만 평으로 기록됨.

92) 〈부천농업중학원을 공립농업중학교 설립으로 인수방(引受方)의 건 신청〉(1950)에는 16만 평으로 기록됨.

반전농장 강습소로부터 소사북심상소학교 소사간이학교(素砂簡易學校) 그리고 부천농업중학원을 모태로 하여 부천농업중학교와 소사농업고등학교의 연혁을 표로 만들어 보았다. 다소 의외의 강습소와 소사간이학교가 불쑥(?) 등장하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학교가 폐교되었다고 역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땅은 그대로 있고 그 땅 위에 역사가 고스란히 포개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간편하고 쉬운 것들만 기록하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알고 지내왔다. 이전의 것, 특히 부천에서는 일제강점기 것이라면 애써 단절(斷絶)시켜 버렸다. 올해로 107년이나 된 장구(長久)한 학교 역사를 75년으로 쪼그라들게 한, 부천남초등학교가 그 대표적인 예다.

또한 부천 최초의 중등학교인 부천농업중학교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 전신이 올바르게 전해오지 못했다. 어떤 기록이든지 전신(前身)이 있다는 것은 역사의 폭이 넓혀지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풍요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역사는 혼인식(婚姻式)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가슴 설레고, 만나고 금방 돌아섰으면서도 보고 싶어 안달이 나는 연애 과정 모두가 두 분 역사의 시작이다. 따라서 전신(前身)인 1930년 강습소로부터 치면 부천중학교나 부천공업고등학교는 90년이나 되는 긴 역사를 가진 학교들이다.

반전농장 야학강습소(1930), 반전농장 주학언문강습소(1932), 소사간이학교(1938), 사립 부천농업중학원(1949), 공립 부천농업중학교(1950), 소사농업고등학교(1954)는 연대만 달리하고 있을 뿐, 모두가 같은 번지 같은 땅 위에 나름의 역사를 오롯이 그려왔다.

이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들인가. 그런데 부천북초등학교에 가서 《부천북초등학교 연혁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씁쓸하게 돌아왔다. 행정실에서도 교무실에서도 연혁지가 없다는 것이다. 분명 있는 것을 알고 갔는데 찾아는 보고 없다는 것인지 정말 너무나 형편없다는 생각이다. 그만 연구할 맛이 싹 사라지고 말았다.

앞으로 부천 교육사에 상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로 재정립되기를 바란다. 미흡하지만 이것으로 마친다. 자료를 저렇게 제공을 해주지 않으니 당연히 미흡하다. 부족한 점은 차후 보완하도록 하겠다. 부천중학교 출신 인물로는 현 제22대 부천시장 장덕천(張德天, 1965년생)을 비롯하여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낸 오병권(吳秉權, 1971년생) 등이 있다.

여 백

안산 지역학 연구 성과와 전망

신 대 광 (안산향토사연구소 소장)

目 次

1. 머리말

2. 지역학과 지역학 연구

3. 안산의 역사와 지역적 특성

4. 안산의 지역학 연구

5. 안산 지역학 연구 전망

집필자

신 대 광 안산향토사연구소 소장

1. 머리말

안산은 고려시대부터 '안산(安山)'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여 조선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안산군으로 존재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잠시 시흥군에 속했지만 1986년 시(市)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안산시의 가장 큰 변화는 1970년대 후반 공단이 조성되어 공업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급속한 도시의 성장과 함께 인구의 과밀, 교통의 변화,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 등 실로 그 변화 속도는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도에 안산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시로 승격이 되었지만,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이 함께 출발하기 어려웠고, 시민들 또한 정주의식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지역적 환경은 안산 지역학이 뿌리내리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역 연구자를 배출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대략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구자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문화 · 예술 분야에서도 이즈음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자들은 우선 공단이 조성되기 훨씬 전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안산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였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새롭게 이주해 온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 창출과 화합에 대한 기대와 전망으로 꿈틀거렸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도시가 점차 안정되면서 역사, 문화, 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일반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오랫동안 삶을 영위하였던 사람들에 의해 전통이 계승되고 이어져 오는 반면 안산은 공단 조성으로 많은 사람이 지역을 떠나야 했고,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에 의해 지역이 형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역 문화를 계승하기 어려웠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기도 어려웠다.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초창기 도시의 거칠었던 문화풍토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새로운 문화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각 지역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문화 찾기에 열을 올렸다. 그래서 지역을 공부하고, 지역 인물을 찾는 한편, 지역마다 축제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안산도 이러한 큰 흐름에 함께하여 지역 답사, 지역의 대표 인물 선정, 지역 축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국가(중앙)에 편중된 정치와 경제로 지역은 차별을 받아왔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도 한몫을 하였다고 본다.

그동안 '지역'성을 찾기 위해 애를 써왔던 시기라고 본다면 이제는 호흡을 다시 가다듬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살피고, 현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시 내디딜 미래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 된 듯하다.

본 글은 약 20년에 가까운 안산 지역의 연구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물론 필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은 널리 양해 바란다. 글은 먼저 지역학에 관한 연구 성과와 현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어 안산의 역사와 각 기관, 연구 단체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향후 안산 지역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겠다.

2. 지역학과 지역학 연구

가. 지역학

지역학 연구의 시작은 대략 1980년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약 20여 년의 짧은 연구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지역학의 출발, 바라보는 관점, 연구 방향 등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논의는 연구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충환은 지역학에 대한 시원과 연구 경향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지역학의 학문적 딜레마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처음 출현하게 된 역사적 맥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초창기 지역학의 지적 전통은 18~19세기 서구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지 개척 시대에 형성되었다. 초기의 지역학적 지식 추구는 서구인들이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조우하게 된 '문화적 타자(cultural others)', 즉 비서구인들의 언어, 문화, 종교, 사회 · 정치 · 경제조직에 대한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중략) 따라서 지역학은 "성립 과정에서부터 가치와 실천의 문제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측면과 아울러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지향"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학적 전통은 그 태동기부터 유럽 제국 식민권력의 경제적 · 정치적 이해관계, 식민모국과 식민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서구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확증편향에 의해 심각하게 굴절되어 있었다.

1990년대는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폭압적 확산에 맞서 "로컬 운동, 혹은 로컬 사회를 구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운동이 지배에 대한 저항의 주요한 표현으로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한국에서도 예외 없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과정이 흥미롭게도 지방자치와 맞물려 더욱 복잡하면서도 강력한 경향성을 보여주게 된다. 한국의 지역학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싹을 틔웠다. 즉 한편으로는 세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한국이 조우한 다른 사회와 타문화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고, 동시에 글로벌화로 인해 물밀듯이 들어오는 서구와 중앙의 헤게모니 문화의 물결에 대응해서 지방과 지역사회의 대응이 필요했다. 이런 연유로 한국에서는 타문화 연구 지역학과 자문화 연구 지역학이 거의 동시에 출발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지역학에 대한 개념 정리도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 같다. 한국에서 지역학, 지역연구, 지방학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되는 학문은 영어의 area studies, regional studies, regional sciences 등의 번역어로서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채 혼용되고 있다.[1] 그는 지역학 연구의 시작은 서구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연구 방법을 가지지 못한 채 아직 개념이 불분명하다고 하였다.

지역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특정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리, 환경에 대한 총체적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으로서 연구 주체와 연구대상 간의 관계에 따라 크게 두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전형적인 지역학으로 인식되어 온 범주로서, 연구 주체가 특정 지역을 외부자로서 접근하는 '타지역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비교적 최근에 부상한 지역학으로 연구 주체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자기 지역연구'이다. 문화인류학에서는 전자를 '타문화 연구', 후자를 '자문화 연구'로 구분한다. (중략)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지역학은 서울학, 경기학, 인천학, 부산학, 영남학, 대구학, 경북학, 대구경북학, 호남학, 전주학, 광주학, 목포학, 강원학, 춘천학, 군산학, 경주학, 충청학, 대전학, 청주학, 상주학 등 이루 나열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최근 한국의 지역학 중에서도 특히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자문화 연구 지역학은 단순히 전성기라는 표현만으로 담아내기 힘든 '열풍' 혹은 '범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2]라고 보았다. 또한 지역학은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로 인해 지역학의 일차적인 특성은 학문적 범위와 경계가 불명확하다고 보기도 하였다. 그는 지역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특정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리, 환경에 대한 총체적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으로서 연구 주체와 연구대상 간의 관계에 따라 특정 지역을 외부자로서 접근하는 '타지역연구'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자기 지역연구'라는 인류학적 이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김정은은 각 지역에서 지역학이 진행되고 있는 강좌 내용을 분석하여 지역학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역학은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로 인해 지역학의 일차적

---

1) 박충환, 글로컬 문화지형과 지역학으로서 '영남학'의 위치, 영남학 제73호, 2020. p. 9
2) 박충환, pp.16~21

인 특성은 학문적 범위와 경계가 불명확하다. 공간적 특성, 고유성, 관계성, 정체성, 다양성이 지역학의 주요 속성이며 이러한 속성을 지닌 연구는 지역학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지역학은 다른 분야의 학문과 내용 면에서 중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역적 시각과 관점과 가치관으로 기존의 분과별 학문을 하는 것을 지역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연구자의 관심과 의도에 따라 지역학의 방향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이는 결국 지역학의 학문적 성격을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만든다. 이러한 지역학의 학문적 불명확성은 지역학 강좌가 교육적 체계를 갖출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3] 이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각 지역의 지역학 관련 강좌를 통해 바라본 견해이다. 아직도 지역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고, 학문적으로 모호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최근 지역학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학의 출발과 한국에서의 적용, 학문적 견해들을 제시한 연구자들의 주장은 다양하다. 이는 지역학이 활발하게 논의되고는 있지만, 아직 학문으로 온전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나. 지역학 연구

지역학 연구자들은 지역학 연구에 있어서 어떤 학문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지역학이 아직 제대로 된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학문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김석준은 지역학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인문사회과학계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높아졌다. 실제로 1985년 대구에서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지방사회연구회가 결성된 이래 지방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지역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연구회(1988, 부산), 호남사회연구회(1988, 전주), 전남사회연구회(1988, 광주) 등의 연구회가 잇달아 결성되었다. 이들 연구회에 결집한 연구자들은 전공과 관심 영역은 서로 다르더라도, 각각의 지역사회가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해 깊이 있게 천착하면서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배태된 지역적 불균등 발전의 맥락에서 규명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당시에도 지역 연구자들은 지역 연구에 있어서 총체적 분석 틀이나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 연구는 개별 고립적으로 진행되었다. 따

3) 김정은, 시민교육으로의 지역학 강좌 내용 요소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3-6호, 2017. pp.584~585

라서 연구자의 전공이나 관심 영역에 따라 연구의 내용이나 접근 방식에서 많은 편차를 드러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구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 나름의 정체성을 갖는 '지역학'- 예컨대 부산학 또는 서울학-을 정립하려는 문제의식보다는, 우선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체되어온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양적으로라도 풍부하게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4)]

지역학 연구 초창기 때부터 연구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총체적 분석 틀과 학제적 접근에 대한 것인데, 당시로서도 지역학이 가진 한계를 알았고 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이후 연구가 넓어지고 심화하여 가면서 이러한 고민의 깊이는 더해졌다. 그래서 여러 제안이 등장하였는데, 학문으로서 과학적 연구 방법의 정립, 지역문화에 대한 종합적 인식, 지역학 연구의 공간적 단위를 현시점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탈피, 다양한 연구주체를 수렴할 방안 모색 등이 거론되면서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학제적 연구는 지역 연구에 있어서는 분과학문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설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는 대안으로 거론된 것이다. 학제적 접근이란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분과학문적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여 그 성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높이는 접근법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지역학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지역학이 학문적 토대와 교육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먼저, 학문으로서 과학적 연구 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 지역학과 관련된 기존 분과학문의 연구 방법론을 기초로 지역학만의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내야만 독립된 학문 분야가 될 수 있다. 둘째, 지역문화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전제해야 한다. 최근의 지역학 연구는 매우 전문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지역문화는 시간과 공간과 주체가 축적된 종합체이므로 지역학 연구는 전공 영역별로 분화될 것이 아니라 융합과 협업을 통해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연구해야 한다. 셋째, 지역학 연구의 공간적 단위를 현 시점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탈피해야 한다.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인한 행정업무와 예산집행의 현실적 이유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연구의 공간적 단위는 범 문화권 연구가 이루어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연구 주체를 수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같은 지역을 연구하는데 여러 연구 주체들이 지역 내의 역학관계에 의해 각각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학문에 비해 지역학은 현장성이 중요하며 연구대상 지역에서의 상호협조가 필요한 학문이다. 그러므로 지역민이나 향토사학자, 다른 연구자들과 교감하며 연구 주체의 수렴과 함께 연구 결과의 수렴으로 이어져 지역학이 단순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4) 김석준, 지역학으로서 부산학, pp.14~15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적 학문이 되어야 한다.[5)]

한편 오영교는 지역학의 다양한 학문적 경향을 토대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지역에서 이루어진 삶의 총체성이라는 문제를 인식한 지역학은 이제 어떤 단일학문 분야의 종속물이 아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대안이 이른바 학제적(interdisciplinary)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학제적이라는 것은 분과학문의 존재를 인정한 위에서 분과학문 간의 협력을 다짐하는 것일 뿐이지 현상 자체를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자는 인식론은 아니기 때문이다. 총체적인 삶에 대한 접근은 분과 학문적이어서도 안 되고 학제적 방식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면 궁극적으로 통합 과학적이어야 한다. 의도적인 분절성을 배제해야 한다. '모든 것은 모든 다른 것들과 얽혀있다'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 사고(systemic thinking)의 인식을 기초로 하는 통합과학(unity of science)의 이념이 삶의 총체성이라는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지역학은 '경계선상의' 학문이기도 하다. 순수한 학문을 지향하면서도 실용적인 성과를 산출해 내야한다. 따라서 지역학의 작업은 학문적 순수성을 전제로 한 기초 작업과 실용성을 담보한 장 · 단기 과제로 계기적인 작업 과정을 설정할 수 있다. 지역학의 우선적인 관건은 필요한 정보(역사, 인물, 문화 등)를 충분히 축적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깨닫고 그 내용을 지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객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주관적인 만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역사, 문화, 인물 등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축적하는데 인문학은 일차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기왕에 내적인 축적이 없다면 이러한 작업만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학이 해당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성이란 실용적으로 해석하면 지역의 거주민들에게 문화적,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실용적인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정보의 축적과 배급, 홍보 및 관리의 전 측면에서의 전략적 고려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지역학의 초기 토대 구축 단계에서 인문학적 연구의 중요성, 지방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6)] 그는 총체적인 삶에 대한 접근은 분과 학문적이어서도 안 되고 학제적 방식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면 궁극적으로 통합 과학적이어야 하고, 지역학이 '경계선상의' 학문이기 때문에 순수한 학문을 지향하면서도 실용적인 성과를 산출해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윤갑은 지역학의 과학적 접근을 주장하였다.

지역을 삶의 현장인 생활세계로 연구하고자 할 때 지역연구는 더는 어느 단일 학문 분야의 득점물이 될 수 없다. 생태지리적 지역과 인문학적 지역, 사회과학적 지역, 예술적 지역이 각각 별개로

---

5) 김정은, pp.584~585

6) 오영교, 한국학과 국내 지역학 - 연구방법론의 모방과 변주 -, 지방사와 지방문화 22(2), 2019. pp.163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 그리고 생활은 총체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지역연구에는 자연과학적 연구, 생태지리학적 연구, 인문학적 연구, 사회과학적 연구, 예술과학적 연구 등등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연구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결합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보다 구체적으로는 한 지역을 연구하기 위해 전체 세계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특정한 방법으로서의 학문 분야가 아니라, 서로 다른 학문 분야들 간의 협동이며,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특정 문명의 특수한 환경을 밝히고, (지역 특징적인) 경험이라고 말하는 전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학문 분야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세계와 삶의 문제를 해명한다는 지역 연구의 문제의식에 합치하도록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등의 여러 분과학문을 서로 연결하고 각 분과학문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노력이 필수적이다.[7] 아울러 지역연구의 방법론적 과제는 이른바 미시적 연구 속에 거시사를 포괄하는 구체적 총체성의 확보가 필요하고, 그 지역에서 표출되는 구체적인 사회문제와 연관해 그 문제를 발생시킨 그 생활세계의 특정한 생활방식을 연구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과학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는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으로 분리된 학문의 편의적 분할 구도를 지역연구라는 관점 속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통합해 인식한 것이다.

이처럼 여러 연구자는 지역학 연구의 방법적 측면에 대한 고민과 학문적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아직은 체계적이지 않았음을 밝혔다.

3. 안산의 역사와 지역적 특성

가. 안산의 역사

안산은 일찍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이다. 신석기시대인들은 생존에 필요한 식량이 떨어지고,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해 바닷가로 와서 주로 어패류를 섭취하며 살았다. 별망, 오이도, 대부도 등 안산 인근 해안가의 곳곳에는 이들이 남긴 수많은 조개무덤이 산재해 있다. 이후 기원전 약 2,500년부터 3,500년 사이, 신석기시대가 중기로 접어들 무렵 안산은 대규모 주거지가 발견된 신길동, 대부도, 시흥시 능곡동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지역은 경기 서남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규모가 큰 집단 거주 지역으로 확인되어 학계에 새롭게 주목을 받은

7) 이윤갑, 지역학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 동방한문학 제26집, pp.27~29

지역이다. 이렇게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안산은 청동기 시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많은 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즉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청동기시대의 흔적들은 안산을 포함한 인근지역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신길동 인근 지역 선부동에서는 11기가 넘는 대규모 고인돌군이 발견되었고, 월피동, 성포동 지역에서도 11기가 넘는 고인돌이 발견되었으며, 인근 시흥시의 조남동, 도일 등에서도 여러 고인돌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안산, 시흥지역에 청동기 시대 많은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역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초기 백제의 영토였던 안산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 확장 전쟁을 치르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강의 남서쪽에 있으면서 서해와 접해 있는 안산은 대중국 교통로서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삼국이 모두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애를 썼다. 고구려가 안산지역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고사야홀차'라는 지명을 사용하였는데, 잿머리 성황당 지역에 성곡산성에서 발견된 삼국시대의 토기편과 와편이 이를 증명해 준다. 아울러 안산시 일동에 있는 성태산성의 축성 방식을 보면 신라식 성곽으로 신라가 이곳을 차지하면서 해안 방어의 전진기지로 축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대부도 육곡 고려 고분군에서 대규모의 무덤군이 발견되어 대중국 교통로로서 항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상인 집단이 이 지역에 존재하였으며, 이들은 대규모 상단을 꾸려 중국과의 교역에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잿머리성황제에 등장하는 '서희 설화'를 통해 안산이 항구의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몽골의 침략을 받았던 시기에는 대부별초군이 몽골군을 물리친 일도 있었다.

조선 개국 시기 안산은 개국 공신들에 의해 지역의 존재를 알렸고, 이후 한양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이점과 평온한 지형으로 인해 많은 사대부의 묘터로 자리 잡았다. 서해 바닷가에 위치한 지역의 특징으로 어염업이 발달하여 소금을 생산하여 공급하였고, 사옹원 안산분원[漁所]이 위치할 정도로 어업 또한 발달하였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안산은 기호 남인의 정신과 학문이 발전한 곳으로 성호 이익선생의 실학이 꽃을 피웠던 곳이다. 또한, 표암 강세황이 안산에 거주하면서 많은 문인과 화가들이 안산을 다녀갔으며 그의 제자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이 살아 숨 쉬며 안산은 학문과 예술의 꽃이 활짝 폈다.

한편 개항기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 갈 무렵 지역의 유지들은 일제의 침탈에 맞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맞이하여서는 최용신 선생의 교육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곳으로 그의 상록수 정신은 지금까지도 안산의 중요한 정신적 힘이 되고 있다.

1919년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전 국민이 일어났던 3·1만세 운동에도 안산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월 30일 일어난 비석거리 만세운동은 약 2,000명이 참가한 대규모 만

세시위였다. 당시 이 운동을 주도한 6명의 애국지사는 일경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다.

일제에 저항한 이러한 전통은 안산 곳곳에 남아있는데, 안산을 관통하는 대로인 '삼일로'는 3·1만세운동 당시 만세를 외치러 주민들이 걸어간 길에서 유래하였다. 아울러 삼일초등학교는 3·1만세운동 당시 주민들이 집결한 곳에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를 담아 교명으로 삼았다.

해방 이후 평온했던 안산은 6·25전쟁을 겪으며 또 한 번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쟁 초기에는 피해를 보지 않았으나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진할 무렵 수리산 전투 당시 폭격으로 인해 많은 지역이 초토화되었다. 수리산과 관악산을 축으로 하는 방어망을 밀어 올려 수도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큰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전쟁 이후에는 많은 피란민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섬 지역까지 널리 퍼져 살기 시작하였다. 별망포구와 사리포구는 그들에 의해 조성될 정도로 많이 거주하였다. 이후 화랑 농원에는 부천 상이용사들, 태백 탄광의 광부들, 섬진강 수몰민들은 고잔저수지 주변에 거주하며 많은 이주민이 안산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안산은 고려시대 초 '안산'이라는 지역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까지 그 이름을 사용해 왔다. 그러다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안산이 시흥군에 편입이 되면서 '안산'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후 시흥군에 소속되어 있다가 1986년 반월출장소에서 안산시로 승격이 되면서 천년의 긴 역사를 되찾게 되었다.

지역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지만, 안산은 옛 모습을 잃게 되었다.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안산지역에 조성된 반월공단과 시흥지역에 조성된 시화공단은 지역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공단이 조성되면서 공단 배후도시로 약 2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베드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던 안산은 호주 캔버라의 모델을 기반으로 도시조성 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나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그 계획은 초기부터 차질을 빚기 시작하여 30만 명으로 수정되었지만, 그마저도 곧 필요 없게 될 지경이 되었다. 시의 인구가 70만이 될 때까지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도로, 상하수도, 주택, 교육 등 많은 문제를 낳게 되었다.

한편 공단에 조성된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서울에서 기피하는 업종인 염색, 피혁, 도금 같은 환경오염 유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지역의 환경문제 또한 커다란 문제였다. 아울러 시화방조제 공사로 인해 애초 담수호로 사용하려던 시화호는 공단과 생활 오·폐수의 유입으로 썩은 호수가 되어 대한민국 환경오염의 대명사가 되었다.

20세기 초에 안산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약 2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이래 인구의 큰

변화 없이 반농반어의 생활을 이어오던 안산이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들어 대규모 공단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안산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공단이 조성되면서 안산지역은 새로운 지역으로 변하게 되었다. 공단이 조성된 지역의 전통 마을은 사라지게 되었고, 기존의 지역도 대규모 택지개발로 지역이 변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주민이 발생하였으며, 전통도 사라지게 되었다.

안산의 반월공단은 대기업이 입주한 곳이 아니고 대부분 중소기업이 입주한 곳이다. 그러다 보니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안산으로 모이게 되었다.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곳으로 이주해 오는 이들의 상당수는 서울로 직접 들어가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고, 도시 생활의 적응을 위해 비교적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일자리가 있는 곳을 선호하였는데 바로 안산이 적격이었다. 그래서 도시가 형성될 무렵인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의 인구증가율은 폭발적이었다.

한국의 공업 성장 특징을 '압축성장'이라고 한다. 그러한 압축성장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안산으로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고,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안산은 어쩌면 '압축성장 도시'로 대표할 만하다.

그러한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특정 지역 출신이 다소 많은 면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안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중국 동포를 비롯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노동자들,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카레이츠)들이 땟골을 중심으로 부쩍 늘어나고 있다. 안산시의 통계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5만 명이 넘지만 실제로는 약 10만 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안산은 다문화 도시로서 새로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은 도시로서 안산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지역의 학생들에게 세계 시민으로서 공감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개항기 한인 디아스포라로 인해 멀리 만주와 연해주로 떠났던 동포들이 많이 한국으로 돌아와 사는 곳이 안산이다. 이들은 각각 중국과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의 정체성을 가진 한인으로서 이중정체성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 다문화와 외국인 노동자에 머물러 있다. 향후 우리는 이들을 같은 동포와 이웃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 안산의 지역적 특성

역사에서는 크게 시기를 구분할 때 흔히 전근대와 근현대를 나눈다. 대략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항기이다. 안산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기준을 안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국가사(중앙사)의 관점이다. 안산은 적어도 1976년 안산에 공단이 들어설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전근대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았다고 볼 수 있다. 공업도시로 개발이 된 이후는 안산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도시로 변했기 때문이다.

전근대 안산의 모습은 여느 농어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중앙에 예속된 변방의 한 지역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공업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안산은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우선 인구의 팽창이다. 공단에 취업하기 위해, 지방에서 곧바로 서울로 진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중간에 거쳐 가는 곳 등 여러 사연을 가지고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폭발적 인구 증가를 보였다. 이는 지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원주민은 공단 개발로 인해 지역을 떠나야 했고, 새로이 조성된 택지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지역 문화의 전통은 사라지고 새로운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기에는 일상이 너무 힘들고 바쁘게 살았던 시기였다.

안산지역이 공단과 그 배후도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무렵 많은 사회 현안들이 터져 나왔다. 먼저 1990년대 중반 시화호 오염 문제는 환경문제로 인식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후 지속된 논란이 이어져 결국 시화방조제 중간에 조력발전소를 짓고 나서야 잠잠해졌다.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안산도 피해갈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입주한 공단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업과 공장이 문을 닫았고, 많은 노동자는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략 그 무렵 안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른바 외국인노동자들이다. 초기에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으나 이후 몽골, 중국, 아프리카 등 전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결혼이주민, 중도입국 등 이전에 보지 못했던 외국인들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다.

또한 외국인 이주민들 중에는 동포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 동포(흔히 조선족이라 부른다)와 고려인 동포들의 비중이 내국인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다. 최근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입국이 부쩍 늘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와 안산 지역사회에 많은 이슈를 남겼다. 전 세계 80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 중 한국으로 입국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포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을 바라보

는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고, 같은 한민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으며, 다문화, 외국인노동자로 바라보기도 한다.

다문화 국제도시로 선정된 안산은 다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국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많은 외국 국적 학생들이 안산 지역의 학교에 입학(중도입국 포함)하여 안산은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안산의 지역학 연구

가. 연구 성과

1) 안산문화원[8)]

안산문화원은 1984년 설립되어 이듬해 향토지 '내 고장 전통문화'를 발간하였다. 이후 1988년 사단법인으로 문화공보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1990년 향토지 '내 고장 안산'을 발간하여 처음으로 안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같은 해 계간지 '안산문화'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지방문화원법에 의해 1994년 안산문화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듬해 안산시사편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후 1999년 '안산시사' 3권을 발행하여 안산의 역사와 문화를 담았다. 이후 대부도 향리지(2002년), 반월동향리지(2005년), 안산시사(전8권, 2011년), 안산시의 역사와 문화(2012년), 안산지역비지정문화재조사 I (2013년), 안산지역비지정문화재조사 II (2015년), 안산지역비지정문화재조사III(2016년), 위대한 전통의 시작-안산생활사박물관 I (2017년), 안산지역비지정문화재조사IV(2017년), 안산의 땅이름 이야기(2018년), 국역 안산군읍지(2018년), 청소년을 위한 안산의 독립운동 이야기(2019년)를 발행하였다.

안산문화원은 그동안 안산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 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2008년 안산문화원 내에 안산향토사박물관(1종 전문)을 등록 개관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산역사문화탐방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명유래 표지석 세우기를 2014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안산천년역사아카데미도 진행하고 있다.

---

8) 안산문화원 https://www.ansanculture.or.kr/

2) 안산문화재단[9)]

안산문화재단은 1994년 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4년에서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으로 개관하였다. 이후 수많은 문화예술공연을 열어 안산의 문화예술의 전당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개관 첫해부터 열었던 '여르미오 축제'를 비롯하여 2005년 시작한 '안산국제거리극 축제'는 안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 축제는 2012년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3년에는 (재)안산문화재단으로 출범하여 문화재단의 위상을 갖게 되었으며, 단원미술관을 개관하였다. 한편 같은 해 안산 출신의 작가 신성희 초대전이 열렸는데 그는 누아주(Nouage, 엮음)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이다.

안산문화재단은 이후 국내 · 외를 넘나드는 공연 및 전시회를 열어 2016년 경기도문화예술진흥 유공 표장을 수상하였고, 이듬해에는 경기도 박물관 · 미술관 활성화 유공 표창을 받았다.

지난 2019년에는 '2019 단원미술제 단원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김홍도 · 강세황 한국화 진본을 전시하기도 하였다.

안산문화재단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단원미술관외에 도심 속에서 만나는 문화예술의 공간 안산문화광장과 연극 · 댄스 · 연주 등 예술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작은 연습 공간인 아뜨시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 예술 분야의 아카데미를 열어 운영 중이다.

3) 안산학연구원[10)]

안산학연구원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민간 연구소이다. 안산에 관한 학제적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 안산학을 정립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 · 교육함으로써 안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7년 5월 참안산사람들 부설 안산학연구소로 개소되었다. 개소와 함께 초대 이사장에 이필상, 초대 소장에 전은경 박사가 각각 추대되었다. 2009년 5월 사단법인 안산학연구원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는 안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안산학 관련 논문집 및 학술서의 발간과 보급, 심포지엄 및 세미나 등 제반 학술 행사의 주관, 안산학 관련 강좌의 개발과 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 활동내용은 시민들의 안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

9) 안산문화재단 https://www.ansanart.com/main/foundation/index.do
10) 안산학연구원 http://www.ansanhak.com/index.php

안산학시민대학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안산과 관련된 제반 분야에 대한 연구 용역을 각 분야 전문가 및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2009년부터 '이것이 안산이다, 안산학 리포트 안산 톺아보기' 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 이 시리즈에서는 안산의 역사, 인물, 지리, 환경, 노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하여 안산학연구원의 학술 사업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안산학연구(제10호)로 제호를 바꾸어 발간하고 있다.

4) 안산지역사연구소

안산지역사연구소는 안산지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역을 연구해 온 여러 사람에 의해 2005년 만들어졌다.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정진각 소장으로 일찍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민족문화대백과'사업을 추진한 경험과 한양대 사학과 강사와 경기도사편찬위원회 및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면서 경기도사와 안산지역사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 외에 부소장으로 신대광(지역사교육연구소), 홍영의(국민대 사학과 교수, 이우석(안산문화원 팀장), 김진호(원곡고등학교 역사교사) 등 여러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안산지역사연구소는 그동안 지역 답사를 오랫동안 진행하였고, 국사편찬위원회 근현대사 사료 수집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안산시가 함께 추진한 '디지털안산문화대전' 사업에 참여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감학원과 아동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5) 박물관과 미술관 등

가) 성호박물관[11)]

2002년 개관한 성호박물관은 조선 후기 실학의 호수로 불리는 성호 이익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성호기념관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성호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호 선생의 대표적 저서인 성호사설을 DB화하여 박물관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성호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성호학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성호학보를 통해 정리하여 2005년 1호를 시작으로 학보를 발행하여 21호(2019년)까지 발행하였다. 성호학보는 그동안 성호 이익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다양한 저작에 대한 각 분야 전공자들의 논문을

11) 성호박물관 https://seongho.ansan.go.kr/

실었으며, 가학, 제자, 관련 인물 등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넓혀 학문적 연구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나) 최용신기념관[12)]

최용신기념관은 소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 애국 계몽 독립운동가 최용신(1909~1935,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선생을 기리고자 안산시가 2007년 건립한 공립박물관(경기도 08-박-08호)이며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 시설(13-1-23)이다. 최용신기념관은 최용신 선생이 샘골마을 사람들과 함께 세운 '샘골강습소'가 있던 곳에 건립되었으며 지상의 외형은 샘골강습소를 복원한 형태로 하고 내부는 체험전시실과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다. 최용신 선생의 삶과 상록수 정신을 알리기 위해 지층에 상설전시실과 교육 영상실이 마련되어 있다. 주요 전시 유물은 최용신 선생의 건국훈장, 최용신 선생의 유언장, 상록수 초판본(1936년) 등이 있으며, 관련 사진 및 생존 제자의 영상 에세이, 영화 상록수가 담긴 영상물을 관람하실 수 있다. 기념관에서는 개관 이후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 운영하여 선생의 애국 계몽 정신을 계승하며, 선생의 상록수 정신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상록수문화제 개최, 학술 심포지움 개최 등 기념사업 및 올바른 선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용신 선생 관련 연구자료는 제1회 최용신 학술 심포지엄(2013. 11. 29), 제2회 최용신 학술 심포지엄(2014. 11. 28), 제3회 최용신 학술 심포지엄(2015. 12. 15), 제4회 최용신 학술 심포지엄(2016. 12. 9), 제5회 최용신 학술 심포지엄(2017. 12. 22), 최용신 동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2011)가 있으며, 최용신 학술대회 자료로는 최용신 탄생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학술대회 등 여러 연구 자료가 발행되었다.

다) 단원미술관[13)]

단원미술관(檀園美術館)은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미술관이다. 안산 문화 재단에서 설립한 미술관으로 우리 고유의 유산 속에 담겨 있는 문화적 가치를 계승 및 발전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이 고향인 조선 후기 풍속화가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1745~?]의 예술혼을 기리는 한편 안산시를 전국적인 문화 예술의 도시로 부각하고 지역 미술 문화의 중심이 되어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려는 목적으로 건립하여 2013년 4월 5일 개관하였다.

---

12) 최용신 기념관 https://choiyongshin.ansan.go.kr/

13) 단원미술관 https://www.ansanart.com/main/danwon/index.do

단원미술관은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학술행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미술관 아카데미 미술관 인문학, 용기는 파도를 넘어, 200년 만의 외출 단원콘텐츠전(단원아회) 등이 열렸다.

○ 단원미술제

안산은 단원 김홍도가 20대 초반까지 그림을 배우고 성장한 곳으로 1991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단원의 도시'로 명명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안산을 단원의 도시이자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단원미술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단원미술제는 전국 규모의 권위 있고 차별화된 미술 공모전으로,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모는 크게 서예문인화부문과 시각예술 전 부문으로 나뉘고, 확대된 작가지원프로그램과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소통과 공감이 있는 미술제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단원심포지엄 '조선후기 문화예술 중심 시 안산'이라는 주제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고, 2019년에는 단원미술제 단원세미나가 '단원 김홍도 예술세계와 현대적 확장성'이라는 주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라) 안산어촌민속박물관[14)]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있으며 안산 어촌 지역의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 민속과 어업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안산 지역의 새로운 관광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관하였다.

안산시가 경기도 어촌관광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2006년 3월 11일 안산시립어촌민속전시관으로 개관하여, 2007년 2월 16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었다. 2007년 6월 1일 안산도시공사가 위탁 운영을 시행하였으며, 2008년 1월 22일 안산어촌민속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어촌민속박물관은 안산의 도서 및 경기만의 다양한 어업과 관련한 민속자료를 수집, 전시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 풍도에서 수집한 다양한 고문서 등 사료도 소장하고 있다. 2019년에는 풍도와 관련하여 청 · 일전쟁 발발 125년 특별기획전을 열기도 하였다. 이 전시회에서는 풍도해전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 유물, 일본 역사교과서 등을 전시하였으며 안산의 풍도에서 이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안산시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

14) 안산어촌민속박물관 http://www.ansanuc.net/home/10106/40052/contents.do

마)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우리나라 최초로 산업 관련 박물관이 안산에 세워질 예정이다. 2013년에 박물관 건립에 관한 행정 절차가 시작되어 2021년 개관을 앞두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박물관은 한국의 산업 관련 자료를 수집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다양한 기록물들을 확보하기 위해 안산 공단 설립 과정과 관련한 다양한 구술 자료를 기록으로 남겼다. 박물관 건립 전부터 상당한 유물을 구입하였으며, 반월, 시화 공단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구술 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다. 박물관 관련한 자료로는 다음과 같다. 안산시, 『반월 · 시화 국가산업단지 건설의 주역들 구술채록』, 안산시(2016);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전시주제 기초자료 조사 연구 결과보고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등이 있다.

바) 선감역사박물관

선감역사박물관은 경기만 에코뮤지엄[15] 사업을 통해 아픈 역사를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온 사례이다. 선감학원의 숨겨진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운영되어 온 선감학원의 아픈 기억과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를 담은 도보 길과 역사박물관이 2017년 1월 21일 개관하였다.

경기도의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으로 경기창작센터는 안산시의 대부 해솔길 6코스 구간을 일부 조정해 선감도 선착장에서 선감학원이 자리 잡고 있던 경기창작센터에 이르는 약 2km의 길을 '선감이야기길'로 조성하고 선감학원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였다. 더불어 선감학원의 아픈 역사를 담은 유물과 영상기록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선감역사박물관을 컨테이너 3개 동의 건축물로 조성하였다. 2017년 개관 기념전으로 선감학원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출신자의 이야기를 담은 '김춘근, 22년의 시간' 전시를 개최한 바 있다.

선감역사박물관은 선감도에서 40여 년간 존재했던 소년수용소 '선감학원'의 진실을 공유하고 반인권적인 상황에서 수용되었던 출신자들의 삶의 여정을 되짚어 그 아픔을 기억하고자 했으며, 더불어 경기만 일대에 존재했던 현대사 한 페이지를 후대에 전해 다시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현장인 선감역사박물관과 선감이야기 길을 에코뮤지엄으로 열고 보존하고자 하였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감화원 시설로 조선총독부가 선감학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 인원 15가구 70여 명만을 남겨 놓고 선감도에 거주하던 주민 400여 명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킨 후, 선감학원을 설치했으며, 1942년 4월에 200명의 소년을 처음 수용하였다. 1942년 태평양 전쟁의 발

15) 경기만 에코뮤지엄 http://www.ecomuseum.kr/bbs/board.php?bo_table=center&wr_id=5

발로 선감학원은 사회 반역아 등을 보호 육성하여 일제 침략전쟁의 전사로 일사 순국할 인적 자원을 늘리는 취지로 변모되어 인권유린과 혹독한 생활이 계속되었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망하거나 구타로 인하여 또 영양실조 등으로 수많은 어린 소년들이 희생되었다.

해방 이후 선감학원은 혼란을 틈타 국유지를 무단 점거한 주민들도 퇴거시키지도 못한 채 "사회와 격리시킨다"라는 목표도 이루지 못한 채 일제강점기 때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군이 섬에 주둔하면서 41동의 건물을 신축하고 1300만 환의 원조금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방법이 저열하여 원생들의 생활은 극히 열악하고 군대식 규율, 굶주림,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1960년대에도 부랑아 일제 단속이 지속해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였다.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선감학원은 1970년대 말까지 존속되다가 1982년 완전히 폐쇄되었다. 선감학원은 최근 오마이뉴스 등 여러 언론사의 취재가 있었고, KBS, MBC, SBS, JTBC 등 여러 방송사에서 자주 조명이 되었다.

선감학원과 관련된 자료는 『아, 선감도』 (이하라 히로미츠, 행림출판, 1995), 『뭉치』 (최건수, 생각나눔, 2012), 『소년들의 섬』 (이민선, 생각나눔, 2018), 『아무도 내게 꿈을 묻지 않았다』 (하금철 외, 오월의봄, 2019), 감춰진 아이들(선감학원 자료집 Ⅰ, 안산지역사연구소, 2017), 자취감춘 부랑아(안산지역사연구소, 2018) 등이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고서(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697-01, 2018) 등이 있다.

사) 사동 마을공동체 및 마을박물관

안산은 여러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마을은 사동 마을숲, 일동, 수암동 온새미로, 반월, 고잔동, 와동, 신길동 등으로 각 마을에서 마을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활동의 동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 안산이 '안산(安山)'이라는 지명을 사용한 지 천년이 넘는 오래된 곳이기는 하지만, 1970년대 공업도시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전형적인 반농반어의 고장이었다. 공단 개발계획 이후 수많은 이주민이 들어와 살다 보니 소위 '토박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팔도의 이주민들이 어우러져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역색(?)이 없다. 아울러 함께 살아가야 하므로, 마을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므로 마을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 물론 모든 마을에 마을공동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상록구 사동은 전형적인 택지개발로 조성된 마을이다. 특히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사동(예전 사1동)은 마을공동체가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다. 마을 커뮤니티 공간인 '마을숲'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지난 2015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마을의 역사를 공부하고, 탐방하고,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사동실록(2017년)'을 만들어 출판하였다. 이 일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지속적인 작업을 진행하여 '사동 별책부록(2019년)'을 출판하였고, 2020년에도 새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 과거 사동 마을에 존재했던 사리포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자료 수집, 사리포구 사람들 구술, 현장 답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사동에 마을박물관을 겸한 공간 '1℃'가 세워졌다. 현재 수백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지역사 연구, 지역사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련 자료는 사동지역사연구모임, 『사동에 살다』, 상상화디자인공작소(2017), 사동지역사연구모임 『사동에 살다, 별책부록』 (2019) 등이 있다.

아) 수암 마을 전시관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은 수많은 역사를 품고 있는 안산의 역사 마을 1번지이다. 지난 2011년 조선시대 안산 관아가 있던 곳 바로 아래 수암경로당이 새로이 신축 이전해 가면서 구 경로당 건물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애초에는 관아 유적과 어울리지 않아 철거도 고려했지만, 새롭게 공간을 구성하기로 민관이 협력하여 2018년 수암 마을 전시관으로 새롭게 거듭난 공간이 되었다. 1층에는 체험전시실 및 시민 휴식공간, 2층에는 상설 전시실 및 기획전시실이 있으며 옥상은 전망이 좋은 이점을 활용하여 쉼터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상설전시관에 마을의 역사를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으며, 기획전시실에서는 3 · 1운동과 관련하여 비석거리 만세운동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6) 한양대학교[16] 문화재연구소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1978년 반월분교로 설치 승인(문교부 교육 1040-1593)을 받아 이듬해 서울캠퍼스에서 개교하여 출발하였다. 1980년 안산에서 개교식을 시작으로 안산에 소재한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문화인류학과와 박물관은 안산지역의 발굴과 지역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동안 발굴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안산읍성 지표조사보고서
2000년 안산성태산성 지표조사보고서
2002년 안산 대부도 육곡 고려고분군(1차)

16)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https://www.hanyang.ac.kr/web/www/erica_history_1970s 및 한양대학교 박물관 https://museumuf.hanyang.ac.kr/

2002년 안산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4년 안산 대부도 육곡 고려고분군(2차)
2007년 안산읍성 및 관아지(1차)
2011년 안산읍성 및 관아지(2차)
2012년 안산읍성 및 관아지(3차)
2013년 안산읍성 및 관아지(4차)
2015년 안산읍성 및 관아지(5차)
2017년 안산읍성 및 관아지(6차)
2018년 안산 향교
2019년 안산향교지 인접지 시굴조사

가) 대부도 육곡 고려고분군 발굴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217-1번지 육곡에 있다.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육곡 주민들과 향토사학자들이 산의 경사면에 파괴된 채로 노출된 석곽묘들을 일부 확인하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2002년 1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1차 발굴조사를 하였고, 2004년 3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제2차 발굴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11~14세기 고려시대 서해안의 상인, 하급 관리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석곽묘 · 토광묘 · 가묘 시설을 확인하였다.

1차 발굴에서 석곽묘 8기, 토광묘 17기, 가묘 시설로 추정되는 유구 1기 등 총 26기의 유구를 확인하고, 그중에서 석곽묘 6기와 토광묘 7기를 조사 완료 하였다. 그리고 2차 발굴에서는 석곽묘 2기와 토광묘 20기, 방형석렬유구 1기를 확인하였다. 옥(玉) · 청동수저 · 청자 · 백자편 · 동전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대부도 육곡 고려 고분군은 고려시대 안산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집단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안산이 정치적 · 경제적 ·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안산읍성 및 관아지 발굴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의 읍성 및 관아 터이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는 1989년 안산동장 장혁순과 시흥시청의 이승언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1990년 6월부터 8월까지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지표 조사를 하여 규모와 성격이 확인되었다. 이후 1999년 7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수원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 조사하였고, 2007년 8월 22일부터 2008년 4월

13일까지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연장 발굴 · 조사하였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는 1991년 10월 19일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로 지정되었다. 2009년 현재 소유자는 국유이고, 관리자는 안산시이다. 곳곳에서 주춧돌과 기와 조각들이 발견되고 있다. 안산시에서는 안산읍성 종합 정비 계획을 세워 안산읍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사업과 유적의 보존 및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차적인 발굴 · 조사를 하기로 하고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발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산시는 안산읍성 관아지 성곽 복원 사업을 시작[17]하였다. 안산시가 천년 도시 안산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을 복원하기로 하였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는 왜구침입에 대비해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수암봉 능선을 이용해 쌓은 평산성(平山城 · 구릉지와 평지를 각각 일부씩 포함한 성곽)으로, 시흥시 관할 시기인 1991년 10월 19일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로 지정됐고, 1995년 4월 20일 안산시로 편입되었다.

안산시는 읍성복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객사 복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성곽복원을 위한 사업비 55억 원(특별교부세 6억 원, 도비 24억5천만 원, 시비 24억5천만 원)을 확보하였다. 2020년까지 안산읍성 400m 및 집수지 복원, 산책로 정비가 진행된다. 특히 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2021년부터 관아지(동헌, 아사, 옥사 등 조선시대 건물)를 복원할 예정이다.

다) 안산향교 발굴

조선시대 '안산향교' 발굴조사로 전모를 확인[18]하였다.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진행하는 '안산향교 발굴조사'에서 일부 흔적만 남아있던 향토유적 제27호 안산향교의 전모가 확인되었다. 안산향교(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352 일원)는 조선 시대 안산지역 유일의 교육기관으로, 1569년(선조 2년) 조성된 이후 1950년대 후반까지 일부 건물이 존속되어 오다 현재는 터만 일부 남아있었다. 한양대 박물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안산향교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단부는 제향 공간 · 중단부는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강학 공간, 하단부는 출입부 시설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문헌 기록과 일부 흔적만 남아있던 안산향교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 지역은 조선시대 관아가 있던 곳으로 전근대시대 안산의 중심지였다. 그런데 반월출장소 시절 공단이 조성이 끝나가면서 시 승격이 논의될 때 반월시가 될 뻔하였다. 하지만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안산'의 옛 지명을 살려야 한다고

17) 경인일보, 2018.12 20 기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219010006328
18) 연합뉴스 2018.09.05. https://www.yna.co.kr/view/AKR20180905101700061

하여 안산시가 되었다. 이후 시의 중심지가 시내로 이동하면서 안산동은 시의 변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현재 안산 시민 중에는 그 역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지역의 전통과 역사성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안산동 지역의 역사 · 문화자원을 묶어서 '안산동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안산관아, 향교, 안산읍성, 여단, 사직단, 3 · 1운동 유적지 등 지역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7) 안산도시공사[19]

안산도시공사의 출발은 2007년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이듬해 별도의 기관인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009년 도시공사도 업무를 개시하였다. 두 기관은 2010년 통합이 결정되어 이후 안산도시공사로 운영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는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여러 차례 수상을 한 우수 공기업이다.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의 수많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림픽기념관, 화랑유원지, 시민시장 등 생활문화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탄도에 어촌민속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어 안산의 어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한편 안산의 사라진 포구와 관련하여 과거 별망 포구가 있던 곳 근처에 2020년 6월 별망어촌문화관을 개관하였다. 이곳에서는 안산의 어촌문화 변화상을 조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8) 안산의 다문화

원곡동이 다문화 · 국제화 마을이 된 것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동네로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중국과 국교가 수립된 후 조선족 동포가 안산시로 유입되기 시작한 1992년 무렵부터이다. 특히 1994년 산업 연수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빠르게 유입되었다.

처음에는 조선족 동포를 중심으로 집단 주거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거점으로 이주 노동자와 비정규 체류자들의 거점지역으로 성장하며 곧 이주민을 위한 상권이 형성되었다. 그 후 원곡동은 내국인과 합법적 이주민, 비정규 체류자가 함께 모여 사는 다문화 사회로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2002년 불법 외국인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적 신분으로 등록되면서 그 수

---

19) 안산도시공사 http://www.ansanuc.net/home/10604/40092/contents.do

가 많이 늘어났다. 이와 때를 맞추어 그동안은 내국인이 다수이고 외국인은 소수였으나, 점차 마을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후 원곡동은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의 메카로 자리 잡기 시작하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흡입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지속적인 이주민 유입과 조선족에 의해 운영되는 상업 시설이 증가하며 원곡동의 경관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식 간판이 늘어나더니, 이제까지 한국에서 목격되지 않았던 중국식품 재료점, 중국식당 등 조선족 동포와 한족에게 필요한 중국식 생활 문화가 원곡동에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크게 안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1991년부터 지속해서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주 초기에는 대부분 공장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원곡동에 있는 회사 기숙사나 아니면 내국인과 함께 일반 주택에서 생활하며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으로 출퇴근하였다. 이렇게 모여든 노동자들은 거주지가 필요했고, 공단의 특성상 주거 시설이 없는 관계로 노동자들이 공장 기숙사에서 살아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안산시는 도시 설계 당시부터 직주분리(職住分離)의 개념이 도입되어 낮에는 공단인 직장으로 출근하고, 일과 후에는 주거 지역으로 퇴근하는 생활 패턴이 특징인 도시이다. 그리하여 초기 이주민들은 공장 한쪽에 마련된 임시 숙소에 살거나 거리상으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방세가 저렴한 원곡동으로 몰려들었다.

또한 안산시는 건설업에 필요한 경기 서남부 지역의 인력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자 고잔 신도시 개발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건설업 관련 인력 수요가 많았다. 게다가 중소기업이 많은 공단 지역의 성격상 저임금 공장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이중적 인력 시장을 갖고 있었다. 내국인들은 이런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지만, 이주 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되어 주었다.

외국인이 급증하자 원곡동의 상권과 생활 환경은 급속하게 변하였다. 내국인도 발 빠르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방을 빌려 세를 받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업종 변경이 이루어졌다. 상점의 주인도 장사에 필요한 외국어를 익혀야 하고, 부동산의 고객도 외국인이 다수가 되었다.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령 쓰레기는 규격 봉투에 버리고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거나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 마을 미관이 더러워졌고, 기초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동네가 되었다. 가끔 발생하는 엽기적인 범죄는 치안을 맡은 원곡지구대만으로는 너무 벅찬 문제가 되었다.

주변 환경이 자라나는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집이 많아 원곡

동에서는 내국인 아이들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여러 곳에 있던 어린이놀이터는 어른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결국 지금의 원곡동 경관과 사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다문화 · 국제화 마을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만 한다. 원곡동이 다문화 · 국제화 마을이 되었다는 것을 가장 실감 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같은 마을 안에 있는 2개의 주민관련 기관으로 원곡동행정복지센터와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그곳이다. 즉 행정조직 측면에서 원곡동 국경없는마을의 행정 처리는 내국인은 원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은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2월에 안산시의 26번째 주민센터로 문을 연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원곡동을 다문화가 공존하는 삶터로 바꾸는 중추 기관이다.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원래 '다문화교류센터'로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외국인도 한국 사회의 주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안산시 공무원이 일하는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지원 관련 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안산다문화마을 특구지정 운영, 안산시 외국이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운영, 안산시 거주 외국인민간협의회 구성 운영,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환경 개선, 외국인 주민공동체 대표자 회의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안산시가 외국이주민 인권 증진 교류협정을 맺고,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운영, 다문화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외국인 주민 모니터단 운영, 보건소의 무료 진료,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공동체 소식지와 생활가이드 북을 통한 생활 정보 제공, 한국문화 탐방, 태권도,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 체육 지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를 통하여 한국어, 아동양육 서비스 등 방문교육사업과 취업, 가족교육, 상담지원, 자녀 학습 지원, 다문화 축제, 국가공동체 페스티벌, 거주외국인 문화체육활동, 세계인의 날, 국가별 문화축제, 다문화이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화 · 반월공단을 끼고 있는 원곡동에는 이 밖에도 안산이주민센터를 비롯해 온누리M센터, 안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 중국 동포의 집 등 시민 · 종교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지원 단체가 20여 개에 이른다. 원곡동은 이제 한국의 다문화 · 국제화 마을의 대표가 되었다.[20]

---

20) 김민, '다문화 원곡동' http://ansan.grandculture.net/?local=ansan

외국인주민지원본부[21] 연혁

2003.07 외국인근로자 종합복지건강지원센터 건립계획 수립
2005.05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개소
2007.04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2008.03 원곡특별순찰대 운영
2008.03 외국인주민센터 개소
2008.05 기업은행 외환송금센터 개소
2008.05 인권교류증진 협약 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안산시)
2008.05 다문화 헌장 제정 (행정안전부, 경기도, 안산시)
2008.10 다문화 작은 도서관 개관
2009.03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9.05 다문화마을특구 지정 (지식경제부)
2009.12 대한민국인권상 수상
2010.03 글로벌 아동센터 개소
2012.02 다문화 홍보학습관 개관
2013.05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개관
2014.03 다문화커뮤니티센터 개소
2016.04 다문화지원본부로 조직 개편
    * 1본부 2과 6담당 24명
    - 다문화정책과 : 다문화정책, 외국인인권, 다문화특구지원
    - 다문화지원과 : 다문화복지, 지구촌문화, 다문화교육
2019.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변경
    - 외국인주민정책과: 외국인주민정책팀, 재한동포팀, 다문화특구지원팀
    - 외국인주민지원과: 외국인주민복지팀, 지구촌문화팀, 외국인주민교육팀

안산의 다문화는 대한민국의 다문화와 직결된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은 것은 국가의 정책적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향후 대한민국의 다문화와 관련한 모티브는 모두 안산에서

21)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https://global.ansan.go.kr/Main.jsp

출발할 것으로 본다.

안산의 다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무수히 많다. 일일이 모두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자료만 소개한다.

정연학 외,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 특구(한국 속 작은 세계, 2015 도시민속조사보고서 15)』, 국립민속박물관, 2015

임영상, 림학, 주동완,「경기도의 '귀환'동포사회와 한국살이: 안산시와 시흥시」, 재외한인연구 제50호, 2020

신유경,「다문화지원단체의 형성과정과 역할변화-안산시 원곡동을 사례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3

허권,「변화하는 다문화 거버넌스: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 26, 2020

이춘숙,「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안산시 성인 대상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한정우,「안산시 원곡동 이주민의 영역화 과정」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정명현,「안산시 이주민사회의 축제 연구」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7) 안산의 동포 사회

안산의 다문화 담론을 살펴보면 대체로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다. 안산 다문화 인구는 대략 110개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 약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 인구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사실 외국 국적이라고 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사실 전체 외국 국적자 중 약 50~60% 정도는 중국 동포이고, 최근 이주가 늘고 있는 러시아, 중앙아시아계 고려인들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는 다문화 외국인이 아니고 사실 우리 동포이다.

재외동포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국내로 들어오고 있으나 아직 안정적인 비자를 받지 못해 삶이 매우 팍팍하다. 중국 동포는 그나마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리말을 무난하게 구사할 수 있어서 형편이 좀 나은 편이지만, 고려인 동포는 한국과 거리도 멀고, 비자 받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우리말을 모르기 때문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

고려인에 대한 많은 사람의 인식은 아직 인식 밖에 머물러 있다. '고려인'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질문했을 때 일반적인 대답은 '중국에 사는 고려 사람들' 또는 '코리안' 등이다. 과거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카레이스키'라고 알려진 정도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려인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럼 고

려인들은 누구일까? 그들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863년 함경도에 거주하던 한인(韓人) 13가구가 국경을 넘어 연해주로 이동했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연해주 지역에 정착했다. 이러한 사실이 조선에 알려지자 연해주로 넘어가는 한인의 수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연해주에는 한인 마을이 생겨났다. 한인들의 마을까지 형성되자 한인들의 이주는 계속 늘어갔다. 이들은 주로 새로운 경작지를 찾기 위해 이주한 것이었다. 하지만 1905년 을사늑약 이후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주하는 한인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들은 더욱 적극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연해주로 이주했다. 이러한 이주 형태가 확산함에 따라 어느덧 연해주는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다. 한편 1917년 제정 러시아가 붕괴하고 새로이 소비에트(Soviet) 정부가 출현했다. 그리고 1922년에는 내전이 종결되면서 소비에트연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소련이 탄생했다. 정부 출범 초기 소련은 국가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러시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연해주에 있던 한인들에 대한 소련의 통제는 강화되었고, 한인들은 점차 소련화 되어갔다. 1937년 소련은 한인들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강제 이주는 소련의 철저한 통제하에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지금의 (CIS) 지역에 한인들이 정착하게 되었다. 한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해 나갔고 현재까지도 계속 살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오늘날 '고려인(高麗人, Корёсарам)'으로 불리는 존재들이다.[22]

2019년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구소련지역 고려인 동포 수는 러시아 25,844명, 우즈베키스탄 31,413명, 카자흐스탄 12,049명이다. 그 외에 키르키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기타 지역을 포함하면 약 74,121명이다.[23]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고려한다면 8만 명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안산시에 등록된 고려인은 등록된 숫자 외에 고려인 청소년들이 많이 받는 F-1(방문동거)를 포함하여, 결혼이민, 유학 연수, 영주를 더하고 C-3(단기방문)를 포함하면 2만 명이 훌쩍 넘는다.

현재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은 대부분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일명 '땟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 이곳은 안산에 공단이 조성되던 시기 외지의 노동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들어선 곳이다. 대부분의 건물이 30년을 넘어섰으며, 약 200여 호의 다가구 주택들이 들어선 곳에서 한 호당 11~15개까지 작게 방을 쪼개어 월세촌을 이루고 있다. 처음에는 이곳에서 가까운 원곡동에 거주하다가, 원곡동이 다문화 거리로 재개발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포화상태에 이르자 고려인 동포들은 보증금과 월세가 낮은(평균 보증금 50~200만, 월세

22) 최영일, 「국내 거주 고려인들의 한국사 인식과 교육 방안」,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23) 법무부, 「국적별 고려인 통계」, 2019

30~60만) 이곳 땟골로 모여들게 되어 자연스럽게 고려인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땟골 지역도 고려인이 모두 들어서자 더 들어올 곳이 없어지면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주변으로 고려인들이 모여들면서 또다른 고려인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대학가 주변이라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세가 저렴하고 원룸 상태가 양호하여 고려인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고려인 관련한 연구에서 안산에서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고려인 관련한 연구는 고려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자료를 일부 소개한다.

김호준,『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2016. 주류성

장득진, 김게르만 외,『한국의 역사』2011, 국사편찬위원회

박민영,『만주 · 연해주 독립운동과 민족수난』2016, 선인

박환,『사진으로 보는 러시아지역 한인의 삶과 기억의 공간』2013, 민속원

박환,『러시아지역 한인언론과 민족운동』2008, 경인문화사

김균태, 강현모,『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이주와 삶』2015, 글누림

이송호, 이재훈, 김승준,『연해주와 고려인』2004, 백산서당

이복규,『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생애담 연구』2012, 지식과교양

최영일,「국내 거주 고려인들의 한국사 인식과 교육 방안」2018,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문욱,「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현황과 과제」1999, 정신문화연구 22

이은정,「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귀환이주 - 대구지역 고려인의 사례를 중심으로-」2015, 지방사와 지방문화 18

김게르만,「CIS(독립국연합 : 러시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역사성과 정체성」2009,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엄넬리 니칼라에브니,「러시아 차세대 고려인의 정체성과 민족교육」2005,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성동기,「체제전환기에 나타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독립세대의 정체성 문제와 대응 방안 고찰」, 2012, 역사교육 121

심헌용, 김상철,「고려인 강제이주의 역사」2007,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김지나,「고려인 청소년의 학교 생활을 통한 문화적응 과정 경험연구 - 우즈베키스탄 출신을 중심으로-」2015,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 율리아,「우즈베키스탄 민족정책과 고려인 민족정체성에 대한 연구 - 고려인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2007,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성희,「안산 '땟골 마을' 고려인들의 학습 문화 기술지 연구」, 2016,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인수,「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실태분석과 다문화교육 지원 개선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일,「1937년 연해주 한인의 강제이주 배경과 일본의 對蘇 정보활동」, 2002, 한국독립 운동사연구 19

이정은,「3 · 1 운동을 전후한 연해주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1997,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이상근,「제정러시아의 연해주 경영과 한인 이주」, 2000, 사학연구 60

등이 있다. 이후 조선족, 재일일본인, 하와이 이주 동포, 멕시코 이주 동포 등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의 한민족 디아스포라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역별로 개별적 연구도 필요하지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8) 안산관련 연구

이제까지 안산의 주요 기관과 관련하여 연구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많은 자료가 있어 간단하게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안산 일반
한국사회 지역연구1,『근대 안산의 형성과 발전』, 정건화 외, 2005, 한울아카데미
한국사회 지역연구2,『전환기의 안산(쟁점과 대안) 한울아카데미 1019』, 오경석 외, 2008, 한울아카데미
김헌선 외,『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1-14:경기도 안산시』, 역락, 2017
김영배 외,『한산 이씨 고행록의 어문학적 연구』, 태학사, 1999
이영호,『토지소유의 장기변동-경기도 시흥 석잔둔의 250년 역사-』, 경인문화사, 2018
홍영의,『안산의 옛 풍경』, 책과함께, 2008
안신원, 이정철,「안산읍성 목빙고의 축조와 그 의미」, 지방사와 지방문화 22, 2019
이은석,「안산읍성 빙고」,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2018
이영호,「안산 · 인천 石場屯量案의 토지정보와 성격」, 규장각 35, 2009
우응순,「장유의 양명학적 세계관과 시세계-안산 우거 시절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29집, 2003
이영호,「조선후기 간척지의 소유와 운영-경기도 안산 · 인천 石場屯 사례-」, 한국문화 48, 2009
연안보전네트워크,「시화호 어업과 연안 문화」, 2009

ㅇ 발굴 및 조사보고서
안산 신길동 유적(재)고려문화재연구원, 2007
안산시 대부동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문화유적 시 · 발굴조사 약보고서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2
대부 대부동동 유적(한얼문화유산연구원, 이희준), 2012
안산읍성 및 관아지 발굴조사보고서(2000, 수원대학교)
현덕왕후 폐릉지 발굴조사 보고서(경희대박물관), 1982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 II(경기도박물관), 2001

경기도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청문당(경기도, 안산시, 2011년)
경기도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사세충렬문(경기도, 안산시, 2011년)

○ 고고학보 7집(1979년)
초지리(별망) 패총 발굴조사보고서(서울대학교, 김원룡)
일리, 원시리 고분 발굴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윤세영, 안춘배, 윤덕향)
양상리, 월피리 유적 발굴조사보고서(경희대학교 황용택)
양상리 지석묘 발굴조사보고서(건국대학교, 최무세)
서해안지역의 즐문토기문화-편년을 중심으로-(임효재)
목내리 산성 발굴조사보고서(단국대학교 정영호)
안산 선부동 지석묘발굴조사보고서(명지대박물관, 1991)

○ 대부도 어선 관련
안산 대부도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국립해양유물전시관 수중발굴과), 2008
안산 대부도2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귀영), 2016

○ 안산의 독립운동과 3 · 1운동 관련
안산향토사연구소,「안산지역 3 · 1 독립만세 운동 연구조사보고서」, 2008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경기 남부 독립운동사적지』, 2009
안산문화원,『청소년을 위한 안산의 독립운동 이야기』, 2019
시흥문화원,『시흥의 함성 100년』, 2019
신대광,「안산 비석거리 만세운동의 애국지사 금촌 김병권의 삶」, 2019, 안산문화원(푸른메)

○ 문화예술 분야
김태현,「안산에서 연극하기, 안산의 지역연극 현황」, 공연과 이론, 2020
정명문,「안산의 연극인들, 소통하는 지역 연극을 만드는 안산 연극인들 - 김규남, 김태현, 도창선, 박기태, 최현미」, 공연과 이론, 2020
박용민,「도시관광진흥연구-안산시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변영섭,「스승과 제자, 강세황(姜世晃)이 쓴 김홍도(金弘道) 전기-「檀園記」, ·「檀園記 又一本」, 미술사학연구, 2012
권혜근,「崔北의 花鳥翎毛畵를 통해 본 安山文人들과의 交遊」, 미술사연구 26, 2012
박지현,「烟客許佖 과 18세기 安山의 회화활동」, 미술사학연구, 2006
김기욱, 소현수,「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양상-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을 대상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7권 제1호, 2019
설병환,「안산시 문화예술 정책 연구-단원미술관 단원미술제 운영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미술 ·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박성대,「경기도 화성군 남양지역과 안산시 탄도지역의 퇴적분지 분석」,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홍준서, 우동우,「안산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활성화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춘계학술대회(지역문화정체성과 문화산업), 2015
선한주,「마을계획 수립과정을 통한 주민자치역량 향상에 관한 연구-안산시 마을계획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박준하,「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한 안산시 풍도 지역관광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고려인 및 사할린 등
이성환,「사할린 한인 문제에 관한 서론적 고찰」, 국제학 논총 7, 2003
이재혁,「사할린 한인 이주와 인구형성」,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1
김승력,「안산 고려인 현황과 지원활동」,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대회, 2017
정명현,「안산시 이주민사회의 축제 연구」,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지역 발전
성영조 외,『안산시 지역발전 전략 연구』,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7
한진수,「안산시의 건설업과 정보 통신업 발달사」,
김소연, 김용승,「안산의 생활기반시설 분포와 주거환경에 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7, 2017
정동현,「'안산' 도시의 범죄 발생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정보 제4권 제2호 통권 제8호, 2018
권일,「안산지역 교회사 연구-아름다운 성빛교회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박현미 외,「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방안 연구: 한국노총 안산 금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7
황누리,「지역박물관의 다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안산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장준호 외,「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안산시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논문집 제37권 제1호, 2012

○ 4.16 참사 관련
이용숙 외,「재난 대응 거버넌스에서 지역 NGO의 역할: 안산 세월호 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28권 4호 통권 제66호, 2018
김도훈 외,「재난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 사례」,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22, 2020

김서영, 이혁구,「세월호 참사 후 안산 시민의 갈등 사례 연구-자영어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6, 2020

이상과 같이 안산과 관련한 연구 자료들을 검토해 보았다. 물론 제한된 지면 관계로 더 기록하기도 어렵고, 더 찾지 못한 자료가 많이 있음을 밝히면서 이 정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지역학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기관과 연구자가 없다는 것이다. 향후 이런 기초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필요하다고 보며, 어느 기관이든 연구자이든 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역사를 전공하였으며 중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사료 조사위원,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안산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학 연구의 출발점과 연구의 범위가 역사 분야이다 보니, 이 글도 역사 분야에 치우쳐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글의 한계점이 분명하게 있음을 밝힌다.

안산 지역학 연구는 전국적인 큰 흐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대략 1990년대 중반 이후 안산문화원 향토사연구소와 안산지역사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 1999년 안산시사(전3권)이 발행되면서 지역사 연구가 한번 정리되었고, 이어 2011년 새롭게 안산시사(전8권)가 발행되면서 새롭게 정리되었다. 이는 대략 10년을 주기로 안산 지역학이 정리되었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2011년 시사가 발행되기 전 2008년~2009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안산시가 매칭펀드로 하여 '디지털안산문화대전'이 인터넷상에서 서비스가 되었다. 이때에도 안산의 폭넓은 지역학 연구가 웹상으로 정리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후속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안산시사가 발행된 이후 큰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작은 단위의 연구와 개별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장의 노력으로 선감학원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연구로 이어졌으며, 향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안산이 주는 이미지는 아무래도 전근대 안산보다는 현대 '공업도시 안산'이라는 이미지가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산의 지역학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산업, 노동, 지역경제, 교통, 물류 등 경제와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여러 국책기관, 연구기관, 산업 관련 기관에서 연구하였지만 이를 통합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필자도 관련 연구 자료를 참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안산의 생태, 환경문제는 해묵은 과제를 안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시화호 오염 문제는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이후 공단에서 배출되는 화학 가스 등 공단의 환경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

었다. 아울러 개펄이 사라진 간척사업, 시화방조제 건설로 인한 해양 환경의 변화와 어업의 변화는 안산 지역의 환경문제가 곧 삶의 문제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환경단체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자료의 축적, 수많은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각 기관과의 갈등 속에 해당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안산에 소재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그나마 국책기관이 지역과 함께 환경, 생태 문제를 함께 고민했던 활동도 끝이나 아쉬움이 크다.

아울러 안산은 과거 어촌이었기 때문에 어업과 관련한 자료들이 축적되고, 연구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과거 어업과 관련한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 경기만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만포럼, 연안보전네트워크, 시화호 생명지킴이, 풀뿌리환경센터 등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안산의 어업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거 별망포구, 사리포구뿐만 아니라 조기나루, 성포, 원당포 등 어업과 관련한 지명과 실제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으나 연구가 정리되지 않았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조선 전기 최경, 조선 후기 단원 김홍도, 표암 강세황이 활동한 안산은 가히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안산은 문화예술인이 많이 있으며 그들의 활동 또한 활발하다. 얼마 전 타계한 신성희 작가, 현재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홍성담 화가 등이 있다. 아울러 여러 문학인, 연극인 등이 있다.

앞서 기술한 바처럼 안산에는 다양한 다문화 단체가 있다. 다문화와 관련하여 총괄 역할을 하는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있으며, 안산시의 위탁기관, 순순 민간단체 등 여러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각각 자신들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다문화 외국인들에게 대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큰 아쉬움은 이런 다문화 관련한 연구 단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내 글로벌센터 외에는 찾기 힘들다. 즉 단체는 많이 있지만 주로 실행기관이고 지원기관이다 보니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기록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안산지역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안산지역의 토박이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과 부쩍 늘고 있는 다문화와 동포들의 영향으로 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삶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느라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제법 터를 잡고 정착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자기가 사는 마을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하였다. 공동육아, 좋은 마을 만들기 등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끌어냈고, 이어서 마을의 역사와 문화 학습, 환경 및 생태 운동, 도서관 운

동, 마을 환경 개선 운동 등으로 이어졌으며, 4.16 참사를 겪은 이후에는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한 인권, 평화, 통일 운동 등도 마을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마을 활동 또한 아카이빙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활동들을 묶어 낼 수 있는 공간, 즉 라키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산은 1984년 안산문화원 설립을 기반으로 하여 본격적인 지역학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본다. 이어 여러 기관이 차례로 설립되면서 지역학의 발전이 이어졌는데, 특히 2000년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성호박물관(2002), 안산지역사연구소(2005), 안산학연구원(2007), 최용신기념관(2007), 어촌민속박물관(2007), 단원미술관(2013), 안산신길선사유적공원(2013), 선감역사박물관(2017), 수암마을전시관(2018), 별망어촌문화관(2020),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2021년 준공 예정이다. 향후 안산시는 어린이 박물관과 시립박물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뮤지엄 설립이 지역학 연구의 활성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안산 지역학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을 든다면 전문 인력 부족이다. 각 분야에 걸친 전문 연구자가 있어 꾸준히 자료를 축적하고, 연구 성과를 내야 함에도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 각 뮤지엄에서도 학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다음으로는 각 학문 영역에서 교류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각 분야의 연구자 간 교류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정립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특정 영역에 편중된 연구이다. 안산 지역이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연구, 다문화 도시답게 다문화 연구는 그나마 진행되어 있다. 아쉬운 점은 지역 차원의 연구보다는 국가기관과 경기도 차원의 연구, 관련 단체의 연구가 많다 보니 정작 지역에서의 연구는 미진하다.

5. 안산 지역학 연구 전망

안산의 지역학 연구는 현재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연구의 역량을 높여가는 일이 중요하지만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일도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새롭게 도전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안산지역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안산지역학에 관한 연구 성과와 현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야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 한편으로 지역학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는 모든 지역학 연구자들의 동일한 고민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들 살펴보면 먼저 김석준은 부산학의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부산학적 상상

력'을 주장하였다.

부산지역에 관한 연구를 많이 모아낸다고 해서 지역학으로서 부산학이 저절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양적 축적이 질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부산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나 현상들을 다루는 인문적 · 사회적 · 자연적 및 공학적 연구들이 모두 다 부산학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자체가 부산학의 일부라고 볼 수는 없다. 부산지역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부산학의 한 부분으로 되기 위해서는 부산학적 관점 내지 문제의식을 매개로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산학적 관점 내지 문제의식을 '부산학적 상상력'으로 이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략) 한편 이러한 부산학적 상상력을 구체화하는 연구 방법의 하나로 비교 연구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비교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일찍부터 활용되어 왔지만, 비교의 대상이나 범위, 비교의 방법이나 기술 등과 관련하여 아직도 해결해야 할 쟁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교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부산과 유사한/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다른 도시 내지 지역들과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부산의 정체성(identity)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한편 부산이 가진 일반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24] 그는 지역학이 그저 지역에 관한 다양한 학문 연구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확정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지탱해주는 사상적 · 방법적 기초를 근간으로 하는 독특한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이 필요하며 그것이 정립되어야 비로소 지역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역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 오영교는 학문적 연구에 주목하였다. 지역학 연구자의 저변 확대는 그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하다. 귀중한 자료를 찾아내고, 재해석하여 학문적 결실을 보려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지역학을 담당할 당장의 연구 인력은 지역 소재 대학 연구자들이 나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학, 지방학 연구를 소명으로 하는 전문연구자 그룹이 형성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소재 대학만이 아닌 중앙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역학 분야 지원이 범주화될 필요가 있다. 소장 연구자들이 지속해서 해당 지역학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지역학 연구자의 세대 간 균등한 연구력 배출을 위해 단계적 ·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연구 활동의 활동성 제고 및 연구자 간 교류 활성화가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알찬 지역학 연구가 진행될 때 비로소 지역 내 비전문가들의 연구 수준의 제고도 견인해 낼 수 있으리라 본다.

---

24) 김석준, pp. 31~35

지역학 관련 영역은 광범위하게 걸쳐있다. 그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종교, 생업, 기술, 생태, 환경, 의료 등 다방면에 이른다. 관련 학술 분야로 지리학, 민속학은 물론, 동양, 인류학, 국제 관계학, 인구 통계, 지역 과학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각 전문 분야 내에서의 특정 지역 연구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분야를 초월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분야별 협력 ·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학 관련 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분야별 자료의 연구 성과물뿐만 아니라 연구자 관리, 연구기관, 연구발신기관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 및 성과물에 대한 공유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연구에 있어 대외환경변화에 효율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25] 그는 국내 지역학의 연구 과정에서 그동안의 지역 연구가 분과학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지역 학자는 물론 전국단위의 학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성에 매몰되지 않고 개방적으로 연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의 단위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 지역학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사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타지역과 비교가 가능한 연구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지역학의 연구범위가 행정구역을 넘어 동일 문화권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타지역 및 특성이 유사한 국외 지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지역학 강좌를 통해 지역학의 방향성을 제시한 김정은의 주장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역학 강좌가 단순히 자기 지역에 대한 지식만 배우고 애향심을 갖게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학은 그 자체로 학문의 한 분과를 이룬다기보다 기존의 분과별 학문을 지역의 시각과 가치관에서 발굴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학은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대상 지역의 특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고립적, 배타적, 파편과 연구로 흐르게 된다. 지역민을 위한 지역학 강좌가 지역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 했을 때 이러한 연구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 (중략) 지역학 강좌에서 지역민은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식을 가진 진정한 지역의 주인으로 보아야 한다. 지역민은 강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역학의 주체가 되기도 해야 한다. 지역민이 애향심을 지닌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민주시민의 역량을 가진 시민임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는 지역학 강좌가 되도록 해야 한다.[26] 그는 지역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실천적 지역학'이 되기 위해서 지역학이 이론적 논의나 학문적 연구로만 그치지 않고 지역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였다. 진

25) 오영교, pp.173~176
26) 김정은, pp.578~579

정한 지역학이란 지역민의 공동체 형성에 매개적 작용을 해야 한다며,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민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실천적 지역학이 활발해질 때 고립적 지역학, 폐쇄적 지역학, 배타적 지역학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안산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도 같은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 연구자 육성이다. 영역별로 전문 연구자를 배출해야 하고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지역에 존재하는 대학의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 연구자, 광역자치 단체의 연구자들과 끊임없는 교류도 중요한 인적 자원의 확보라고 생각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을 네트워크화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학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향후 각기 자기 영역에서 활동하기보다는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지역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각자의 영역에서 연구 업적을 축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 토대이다. 문제는 이를 자기 영역으로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문호를 개방하여 각 영역을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인문학 연구에 있어서는 문화 · 예술 분야와의 콜라보레이션은 향후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각 연구 영역에 있어서 아카이빙 작업이 필요하다. 후대의 연구자가 연구할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일은 정말 크나큰 낭비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자들은 반드시 및 기록 작업을 해 두어야 한다. 이는 다른 영역의 연구자들에게 자료의 제공 및 연구 영역의 확대 차원에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참고문헌

안산문화원, 『안산군읍지』, 안산문화원/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8

박충환, 「글로컬 문화지형과 지역학으로서 '영남학'의 위치」, 영남학 제73호, 2020.

김정은, 「시민교육으로의 지역학 강좌 내용요소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3-6호, 2017.

김석준, 「지역학으로서 부산학」, 부산학 총서

오영교, 「한국학과 국내 지역학 - 연구방법론의 모방과 변주 -」, 지방사와 지방문화 22(2), 2019.

이윤갑, 「지역학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 동방한문학 제26집

이현송, 「미국 지역학의 개념과 교육 프로그램」, 국제 · 지역연구 13권 1호, 2004

최수련, 「지역학 문헌의 계량서지학적 연구-1980년대 이후 국내 지역학 문헌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이창식, 「지역학 연구와 구술자료 활용」, 지방사와 지방문화 19권 2호, 2016

조원준, 「'지역학' 접근에 관한 고찰」, 일본어문학 제32집, 2006

최영근, 「지역학을 중심으로 한 지방문화원의 발전 방향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하병주,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모색 Ⅰ」, 지중해지역연구 제9권 제1호, 2007

최영일, 「국내 거주 고려인들의 한국사 인식과 교육 방안」,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안산문화원 https://www.ansanculture.or.kr/

안산학연구원 http://www.ansanhak.com/index.php

성호박물관 https://seongho.ansan.go.kr/

최용신 기념관 https://choiyongshin.ansan.go.kr/

단원미술관 https://www.ansanart.com/main/danwon/index.do

어촌민속박물관 http://www.ansanuc.net/home/10106/40052/contents.do

경기만 에코뮤지엄 http://www.ecomuseum.kr/bbs/board.php?bo_table=center&wr_id=5

한양대학교 박물관 https://museumuf.hanyang.ac.kr/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https://global.ansan.go.kr/Main.jsp

안산문화재단 https://www.ansanart.com/main/foundation/index.do

안산도시공사 http://www.ansanuc.net/home/10604/40092/contents.do

디지털안산문화대전 http://ansan.grandculture.net/?local=ansan

여 백

도봉산 망월사 혜거국사 이야기

최 영 희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目 次

Ⅰ. 머리말

Ⅱ. 망월사 문화재

Ⅲ. 혜거국사 석비

Ⅳ. 법안종

Ⅴ. 맺음말

〈부 록〉

1. 망월사사적기

2. 신수망월사기

3. 천봉선사탑비명

4. 망월사 편액

집필자

최 영 희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1. 머리말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경기도 의정부 · 양주시에 걸쳐있는 도봉산은 대한민국의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명승지인 동시에 고려와 조선 그리고 불교와 유교 문화유산이 공존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도봉서원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512번지에 있는 서원으로 서울 시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조선 시대의 서원이다. 이곳은 이전에 양주(楊州)에 속하였던 영국동(寧國洞)이었다. 도봉서원이 지어지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영국사가 언제 건립되었으며, 언제 무슨 이유로 허물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불교 쪽의 문헌을 조사해보아도 별다른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도봉서원이 지어진 것이 1573년(선조 6)이니 이미 그 이전에 사찰이 없어졌을 것이다. 고려 말 이래 숭유억불 정책을 쓰면서 수많은 사찰들이 폐사되었다. 영국사 역시 그중 하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도봉서원은 수려한 영국동계곡(도봉계곡)을 즐겨 찾았던 정암 조광조(趙光祖, 1482~1519)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자 1573년(선조 6)에 양주목사(楊州牧使) 남언경(南彦經)에 의해 건립된 이후 300여 년간 서울 · 경기 지역 선비들의 주요한 교유처가 되었다. 1775년(영조 51)에는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을 추가 배향하였으며, 많은 문인이 서원과 계곡을 찾았고 시와 글을 남겼다.

도봉서원은 1775년(영조 51)에 영조가'도봉서원(道峯書院)'이라는 현판을 친필로 써서 내리면서 친필 사액 서원이 되었고, 문묘에 배향된 조광조 · 송시열 양현(兩賢)을 모시는 명실상부한 최고 서원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도봉서원은 서울 지역에 남아있는 유일한 서원이기 때문에 전통 교육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 후에 전국의 서원은 여러 전란과 자연재해로 불타거나 쓸려간 건물들이 지속해서 재건되었다.

한편, 도봉서원의 옛터가 위치한 이곳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복원을 위한 발굴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 과정에서 뜻밖에도 국보급 불교 유물들이 대거 출토됨에 따라 서원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고려 시대의 사찰 영국사(寧國寺)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의 문헌 기록에는 영국사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영국사의 창건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신정선사가 900년에 입적한 징효대사의 제자로서 후에 도봉산 영국사에 주석하였고, 혜거(慧炬)국사가 도봉산 신정선사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유학 후 돌아와서 도봉산 영국사의 주지를 맡았다.

971년(광종 22)에는 도봉원이 이미 부동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혜거국사의 탑비가 수습된 절터에서 걸이향로에 '도봉사'라는 명문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도봉사, 도봉원, 영국사는 동일한 사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혜거의 활약으로 사찰이 중창되면서 영국사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전신이 되는 사찰은 적어도 고려 초에는 건립되어 있었을 것이다. 발굴을 통해 이전 시기의 유구가 일부 확인된 점으로 볼 때 신라 말에 창건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발굴 성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필자는 불교 유적 가운데서 의정부 망월사 혜거국사의 비문석편(碑文石片)이 발견된 것에 더 관심이 갔다. 망월사 인근 산자락에는 '혜거탑(慧炬塔)'이라고 쓰인 배례석과 팔각원당형 부도(승탑)가 경기유형문화재 122호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봉산 망월사는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고찰로, 사찰 경내 문화재를 살펴본 후, 도봉서원 터에서 근래에 발견된 혜거(慧炬)국사의 탑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망월사(望月寺, 경기전통사찰 제8호) 문화재

망월사는 현재 도봉산(道峯山) 정상 인근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奉先寺)의 말사이다.

초기 사찰 연혁을 기술하고 있는 『봉은본말사지』에 의하면, 639년(선덕여왕 8) 해호(海浩)가 창건하였다. 선덕여왕이 해호를 존경하여 측근에 머물게 하고자 하였으나, 해호는 이를 사양하고 도봉 산중에 암자를 지어 나라를 위해 홀로 기도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고 한다. 당시 해호가 머물렀던 동대(東臺)의 옛 산성 이름이 망월성(望月城)이었기 때문에 산성 이름을 따서 망월사라 부르게 되었다는 고사(古事)가 전해진다.

신라 말기 경순왕의 태자가 이곳에 은거했다고 하며, 1066년(문종 20) 혜거국사(慧炬國師)가 절을 중창하였다. 그 뒤의 자세한 역사는 전하지 않으나 14차례의 병화와 전란으로 절이 황폐해졌다가 조선 시대인 1691년(숙종 17) 동계 설명(東溪 卨明) 선사가 중건하였다. 그 뒤 영월(暎月)낭규가 수십 년 동안을 이 절에 머물면서 1779년(정조 3) 선월당(先月堂)을 세웠고, 1800년 선월당을 옛 영산전(靈山殿) 터로 이전하였으며, 1818년(순조 18) 칠성각을 신축하고 1827년 절 전체를 중수하였다.

1880년(고종 17) 완송(玩松)이 중건하였고, 1882년 완송이 영산전을 다시 세웠으며, 1884년 인파(仁坡)가 독성각(獨聖閣)을 건립하였다. 1885년 완송이 약사전(藥師殿)을 건립하였고, 1901년(광무 5) 인파가 큰방을 보수하였다. 1906년 회광(晦光)이 선실(禪室)과 설법루(說法樓)를 중수하였고, 1941년 김응운(金應運)이 약사전을 중건하였다.

1969년 주지 춘성(春城)이 퇴락한 선실을 철거하고 2층의 석조건물을 지었다. 1972년 주지 도관(道觀)이 본래 있던 염불당과 낙가암(洛迦庵)을 헐고 현대식 건물의 관음전을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절의 현존하는 전각으로는 관음전 · 천중선원 · 심검당 · 고불원 · 영산전 · 칠성각 · 무위전(지장전) · 범종루 · 요사채 등이 있다.

이곳에는 예부터 수많은 운수납자(雲水納子)가 거쳐 갔는데 고려 시대의 혜거(慧炬) · 영소(靈沼)대사, 조선 시대의 천봉(天峯) · 영월(映月) · 도암(道庵) 등의 명승, 그리고 근대의 도인으로 숭앙받는 만공(滿空) · 한암(漢岩) · 오성월(吳性月) 등 헤아릴 수 없으며, 오늘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립특별선원과 같이 수십 명의 선객(禪客)이 정진하고 있어 명실공히 한수이북 유일의 선원이기도 하다.

문화재로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망월사 혜거국사 부도가 있다. 그 외 1793년에 건립한 태흘(泰屹)의 천봉탑(天峰塔), 1796년에 수관거사(水觀居士)가 명(銘)한 천봉탑비(天峰塔碑)를 비롯하여 망월사 경내 5점도 경기도 유형문화재이다. 따라서 망월사 경내에는 현재 8건의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보물이 있다.

1. 망월사 혜거국사 부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2호]

혜거국사부도

1) 혜거국사 부도의 양식(樣式)해설

망월사 영산전 뒤편의 기슭에는 팔각원당형의 부도(승탑)가 보인다. 부도(浮屠)란 이름난 스님의 사리나 유골을 넣어 두는 돌무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도(승탑)의 양식은 건조물의 기초가 되는 기단부, 중심을 이루는 탑신부, 맨 위쪽 부분을 장식한 상륜부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부도의 기단부는 지대석(地臺石), 하대석(下臺石), 중대석, 상대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대석은 부도 하부에 유골(遺骨)이나 사리(舍

《혜거국사부도》

利)를 봉안하고 그 위에 마련되는 부재로 대부분이 1석이나 2석으로 결구(結構) 되는데, 이 부도는 팔각형 3단이 한 개의 돌로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대석 상면은 각형(角形)이나 호형(弧形)의 괴임단을 두어 하대석을 받치도록 하였다. 특히 고려 말기에 건립되는 회암사 지공선사의 부도와 선각왕사 부도의 하대석은 아무런 문양이 장식되지 않고 모서리에 모각을 주어 팔각의 평면을 유지하도록 마련되어 간략화의 경향이 낮은 단으로 마련된다. 구릉과 같이 경사진 곳에 건립된 부도는 석축을 쌓아 대지를 고르게 한 뒤 여러 매의 판석형 석재를 결구하여 여러 단으로 높게 마련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고려 중·후기에 건립된 부도들의 지대석은 여러 매의 부재를 활용하여 결구하고, 여러 단으로 높게 시설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지대석의 평면은 팔각형과 사각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부도의 탑구(塔區)를 팔각으로 마련한 것은 하대석의 외곽에 여러 매의 석재를 결구하여 석탑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석조부도의 밀림을 방지하고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석조부도가 탑신괴임을 높게 마련한 것은, 석조부도의 탑신부는 목조 건축물을 번안한 부분으로 벽체부(壁體部)와 지붕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석조부도의 탑신괴임은 목조 건축물의 기단부를 번안하는 과정에서 높게 마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탑신괴임은 팔각원당형 건물의 기단부와 외각에 설치된 난간 형식의 구조물을 전이(轉移)하는 과정에서 간략화 내지는 생략되어 번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석조부도 기단부가 선대(先代)나 동시대에 건립된 불상 대좌부, 석등이나 석탑의 기단부 등과 강한 양식적 연관성을 보이는 점은 석조 조형물의 건립 목적이나 기능은 다르지만 상호 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부도의 기단부 양식은 조선 시대 팔각원당형 부도로 계승된다. 한편 왕릉 앞에 건립되는 장명등(長明燈)의 기단부와 동일한 양식을 보이기도 한다.[1] 이것은 조선 시대에 건립된 장명등의 양식적 연원이 부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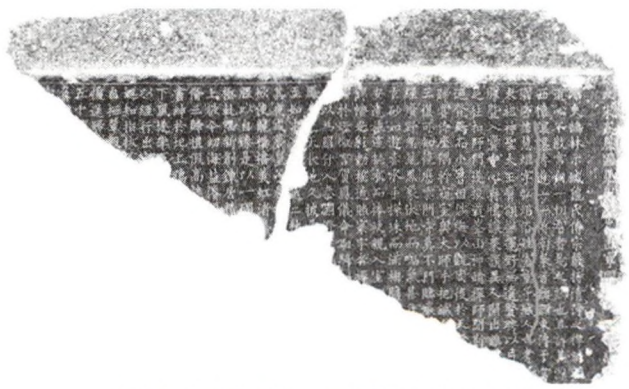
혜거국사 부도의 탑신부인 몸통은 공 모양으로 조성되고, 괴임대 위쪽과 지붕돌 아래쪽에 홈을 파서 부도 전체의 안정감을 꾀했다. 옥개석(지붕돌)은 복발과 보주까지 한 개의 돌로 만들었는데, 낙수면은 목조건물의 지붕 모양이며 귀꽃은 모두 8개이다. 상륜부는 지붕돌과 한 개의 돌이며 복발면에 연꽃무늬를 새긴 것이 특징이다.

---

1) 정명호, 『석등』, 대원사, 1992, P.119.

부도 앞에는 화강암으로 된 사각형의 배례석(拜禮石)이 있는데, 여기에'혜거탑(慧炬塔)'이라고 새겨져 있어 부도의 주인공을 알 수 있다.

2) 기록 속의 혜거국사



혜거국사비문 탁본, (E-BOOK에서 발췌)

혜거국사의 휘는 혜거(慧炬)이고, 자(字)는 홍소(弘炤)이며 속성은 노씨(盧氏)이다. 혜거국사는 현재의 도봉서원 자리에 있었던 영국사(靈國寺)에 머물렀다고 알려져 있다. 고려 문종 때의 승려이며, 제자였던 적연(寂然)국사 영준(英俊)이 지은 혜거국사 비문(碑文)에 의하면, 혜거국사는 도봉원 영국사의 주지를 지냈으며, 일찍이 오월(吳越)로 유학했던 듯하다. 그는 법안종 시조인 청량 문익(淸凉 文益)의 제자였으며, 혜거의 문하에 적연국사 영준을 길러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시대 도봉원(道峯院)은 희양원(晞陽院), 고달원(高達院)과 함께 국왕의 후원을 받고 있던 우수의 사찰이었으며, 혜거는 이곳에서 선종계의 법안종을 진흥시키는데 힘쓴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제자인 영준의 유학은 그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이루어졌던 것임을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다.

혜거는 지종과 함께 법안종의 입장에서 천태학의 체계를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혜거국사의 흔적을 찾아보았으나,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25권에 전하는 몇 구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릉 청량(淸凉) 문익(文益)선사의 문도 30인 기록에 29인은 모두 출신이 중국인인 데 반해 혜거국사만"고려도봉혜거국사(高麗道峯慧炬國師)"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 "고려 도봉산 혜거(慧炬)국사, 처음에 정혜(淨慧)에게 법을 얻었는데 본국의 왕이 사모하여 사신을 보내서 오라고 청하므로 본국으로 돌아갔다. 본국의 왕이 마음의 법문을 듣고 예절로서 대우함이 더욱 두터웠다. 어느 날 왕의 청을 받고 들어가 상당하여 위봉루(威鳳樓)[2]를 가리키면서 대중에게 말했다.

『위봉루가 여러 상좌들을 위해 벌써 다 거량을 마쳤다. 여러분, 알겠는가, 만일 알았다면 어떻

2) 위봉루(威鳳樓) : 경기도 개성에 위치하는 고려시대의 누각(樓閣)이음.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리 있을 때에 이곳에서 임금이 친히 문무백관(文武百官)과 백성들이 조하(朝賀)를 받기도 하고, 과거(科擧)의 방(傍) 내걸어 급제(及第)하사(下賜)하거나 과거의 전시(殿試)를 보는 장소로도 사용되었음.

게 알았는가? 모른다 하면 위봉루를 어째서 모르는가. 안녕.』 대사의 설법은 중국에 퍼지지 못했고, 그의 임종도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짧게 기록되어 있다.[3)]

또한 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발행한 『다보(多寶)』(통권14호) 도봉산 망월사편에 《부(附) 혜거기적(慧炬紀蹟)》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高麗道峯山慧炬國師 始發機於淨慧之室 本國主思慕 遣使來請 逐廻故地 國主修心 禮侍彌厚 一日 請入王付上堂 師脂威鳳樓示衆曰 威鳳樓 爲諸上座 擧揚了 諸上佐 還會麽 儻若會 且 作麽生會 若道不會 威鳳樓 作麽生 不會 珍重云云 景德傳燈錄(卷 25)"

2. 망월사 영산전 목조삼존상 및 십육나한상[유형문화재 제270호]

망월사 영산전은 경내 맨 왼쪽 언덕에 있는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 팔작지붕의 안정감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 하고 그 좌우에 제화갈라(연등)보살과 미륵보살을 협시로 모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의 불국토인 영산회상에서 『법화경』을 설법하고 있는 영산회상도가 후불탱화로 모셔져 있다. 즉, 영산전에는 석가모니불이 영축산에서 제자들에 둘러싸여 법화경을 설법할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본존불상의 크기는 59cm가량으로 크지 않지만, 머리와 상체를 강조하고, 하체에는 결가부좌(結跏趺坐)한 다리 사이로 커다란 부채꼴 모양의 옷 주름을 배치하여 형태상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수인은 보통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무릎 위에 놓는 데 반해 여기서는 반대로 들고 있다. 협시보살은 화염보주로 장엄한 보관을 제외하고는 일절 장식이 없어 여래형에 가깝다. 또한 얼굴 표현에서 마치 양 볼에 바람을 가득 넣은 듯 부풀려 놓은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인 듯하다. 목조삼존상 외에는 모두 소조(塑造, 흙)로 제작되

영산전 목조삼존상

십육나한상 중 일부(右)

3) 『경덕전등록』 3권 역경위원회, 동국대부설 동국역경원, 1987.

었는데, 법당의 정면과 좌우 측면 벽면에 일렬로 대칭되게 늘어서 있다. 높이 58.5cm의 가섭존자 입상은 영산회상도 불화 속의 도상처럼 지권인과 유사한 수인을 결하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아난존자는 마치 석가모니와 예불자를 연결해 주듯이 합장하면서 얼굴과 몸을 약간 비틀어 표현했다. 높이 35cm 내외의 16나한상은 동글동글한 얼굴, 짤막한 체구에서 마치 실제 승려를 보는 듯한 생동감과 개성이 넘치며, 얼굴의 인상이 나한상끼리 서로 매우 유사하여 마치 한 승려가 다양한 표정으로 변신하고 있는듯한 느낌을 들게 한 것이 재미있다. 그러면서도 착의법과 자세에서 많은 변화를 주어 각 상의 개성도 드러내고 있다. 그 외 사자상과 인왕상이 함께 봉안된 것은 명부전 도상의 경우와 비슷한데, 인왕상은 나신(裸身)이 아니고 갑옷을 차려입고 있으며, 동자상은 원래 4구가 짝을 맞췄던 것 같다.

3. 망월사 고불원 목조불 삼존상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71호]

고불원 목조불삼존상

망월사 천중선원 뒤쪽에 있는 고불원 안쪽 수미단 위에 봉안된 목조불 삼존상은 조선 후기 전형적인 불상으로, 석가불을 중심으로 아미타불과 약사불을 배치하였다. 목조불 삼존상은 높이가 93.5cm 정도의 중형불상으로, 불상은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여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머리에는 뾰족한 나발(螺髮)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肉髻)가 있고,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앙계주(中央髻珠)와 정수리 부위에 낮은 원통형의 정상계주를 장식하였다. 타원형의 얼굴에는 가늘게 뜬 눈, 원통형의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 약간 뾰 족한 턱을 표현하였다. 목에는 세 줄기 주름 표현인 삼도[三道=번뇌도(煩惱道), 업도(業道), 고도(苦道)]를 의미한다. 원만하고 광대한 불신(佛身)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불상과 보살상에서 볼 수 있다. 망월사 고불전에 봉안된 목조불 삼존상은 조성발원문이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조성 시기와 봉안사찰을 밝힐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부처란 과연 무엇이기에 그토록 많은 상(像)이 만들어지고 예배 되었을까? 종교예술의 본질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관념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 노력에 따라 그것을 얻게 되듯 종교 관념 역시 부단히 추구하면 궁극적으로는 실현된다.

이 세상에는 종교적인 자질이나 능력[근기(根機)]이 서로 다른 수많은 중생이 있다. 그래서 수많

은 부처가 시대의 부침(浮沈)을 타고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만들어졌다. 중생들은 제각기 다른 바탕과 소원을 지녔으므로 거기에 맞는 무량(無量)한 부처를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그 하나하나의 부처는 우리 자신들을 반영한 것이다. 부처는 마음의 반영이요 거울이다. 이처럼 불상은 관념을 형상화한 것이며, 또 그것이 무한히 만들어진 이유를 알게 될 때, 불상 조각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신의 탐구이자 자아의 발견임을 깨닫게 된다. 결국, 불상을 탐구하는 일은 곧 우리네 인간사를 탐구하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여래가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관계없이 법은 존재한다고 하여, 석가는 법의 절대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불상과 함께 불경(佛經)이 끊임없이 전개되어왔던 것이다. 이처럼 다종다양하게 출현한 불상들은 하나의 관념으로 수렴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곧 법이며, 법신(法身)이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 수없이 만들어진 불상들은 곧 진리라는 법신부처[법신불(法身佛)]의 분신이자 화신(化身)이다. 법과 부처와 불상은 개별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달과 달빛과 물에 비친 달'처럼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4. 망월사 괘불도(괘불함 및 복장낭 포함)[유형문화재 제272호]

망월사 괘불도(掛佛圖)는 1887년[고종 24]에 조성된 아미타괘불화로 영산재 등의 야외법회에 사용되었던 의식용 불화이다. 연하계창을 수화사로 하여 혜산축연, 석옹철유 등 11명의 화승이 그렸다.

망월사 괘불도(망월사 소장)

하정덕혜 등 5명의 상궁과 4명의 여신도가 시주하여 조성한 19세기 대표적인 아미타계 괘불화이다.

망월사 괘불탱[괘불도)은 세로 6.4m, 가로 3.54m의 크기에 비단 바탕에 채색하여 그렸다. 화면 중앙에는 거대한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측에 관음보살(아래)과 가섭존자, 우측에 대세지보살(아래)과 아난존자가 시립(侍立)한 5존도 형식을 취하고 있다. 중앙의 아미타불은 오른손을 가슴 부근으로 올려 손바닥을 위로한 채 손가락을 마주 잡고 있으며 왼손은 배 부근으로 내려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손가락을 마주한 특이한 수인을 취하였다. 괘불도의 좌측에는 보관을 쓴 관음보살이 두 손으로 길게 여의[如意=독경이나 설법 때 법사가 손에 드는 도구(道具)

로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뜻)]를 들고 있으며 우측의 대세지보살은 연꽃 가지를 길게 잡고 있다. 두 보살은 입상(立像)으로 표현되었으면서도 마치 앉아 있는 것처럼 신체가 짧아 어색한 느낌을 준다. 관음보살 위로는 노비구(老比丘) 모습의 가섭존자가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손가락을 곧게 세워 올렸다. 마하 가섭존자는 석가가 성도한 지 3년 뒤에 제자가 되었는데, 그의 청정한 인품 때문에 석가의 신뢰가 두터웠으며 석가 입멸 후 교단의 통솔자가 되었다고 한다. 반대편에는 젊은 승려의 모습인 아난존자가 합장하고 서 있다. 아난존자는 석가의 사촌이며 석가 입멸까지 25년간 늘 스승 곁에서 그 가르침을 받아 다문(多聞) 제일로 손꼽힌다. 더구나 출가하여 수행하는데 미남인 탓으로 유혹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조가 굳어 끝까지 수행을 마무리하였다 한다.

조선 말기 불교 교단은 만일염불회(萬一念佛會)와 수월도량공화불사가 성행하였고, 만일염불회에서는 아미타 염불 신앙이 크게 유행되어 불사를 진작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선 말기 아미타 신앙은 괘불화에서도 아미타불 도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채색은 붉은색, 남색,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였고, 아래쪽 상부에 갈색 구름의 음영법이 강하다. 이외에도 음영법은 인물의 주름이나 옷의 주름에서도 표현되었다. 인물표현의 특징으로는 유난히 상반부가 하반부에 비해 큰 비율이며 손이 크고 손의 표현법도 특이하다. 특히 아미타불의 손은 손 안쪽의 손금까지 표현하였는데 도식화되었다.

이 괘불은 예전 김포공항을 통해 해외로 반출되려다 과엄선사(禪師)에 의해 회수되어 보존 중이라고 한다.

이 괘불의 제작연대는 〈광서십삼년정해년이월십팔일봉안우도봉산망월사(光緖十三年丁亥二月十八日 奉安于道峯山望月寺)〉라 했으니 1887년(고종 24)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작 연대가 확실하여 조선 후기 불교미술 연구의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5. 망월사 건륭51년명 동종[銅鐘,=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73호]

망월사 동종의 명문에 의하면 1786년(정조 10)에 300근의 중량을 들여'낙양북도도봉산망월사'용의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종의 고리는 한 마리의 용으로 형상화했고 음통이 있다. 천판은 낮게 솟아있고 몸체는 종의 입구로 갈수록 살짝 벌어지는 형태이다. 천판 아래에는 범자문 24개가 띠처럼 둘려 있고 하대는 당초문으로 장식되었다. 종의 몸체 중심에는 횡대를 둘러 상하를 구분하였으며, 상단에는 연곽 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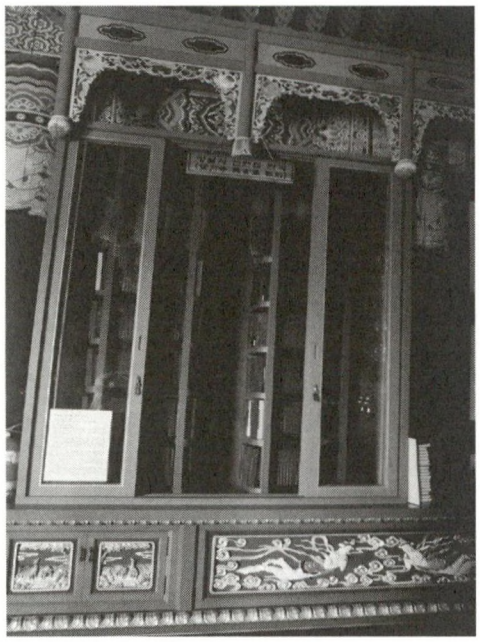
건륭51년명 동종

보살상 2구, 인왕상 2구가 교대로 배치되었다. 보살상은 합장한 모습이며, 인왕상은 양손에 무기를 들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종의 몸체에 인왕상이 부조된 것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변화이다. 종의 하단에는 전패와 명문이 나타난다. 전패는 주상전하, 왕비저하, 세자저하 삼전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축원문이며, 특별한 장식은 없다. 그 옆에 1786년(정조 10)의 제작연대가 있으며, 종을 만드는 데 관여한 삼강, 도감, 별좌, 하주, 편수 등이 선각으로 새겨져 있다.

6. 망월사 간행 진언집 책판관련 목판4종[유형문화재 제276호]

망월사에는 모두 네 종류의 목판 63판이 전해지고 있는데, 《금강경다라니》와 부적판 다라니가 각각 1판씩 있다. 특히 《다라니》 목판은 1878년(고종 15)에 이곳 망월사서 각판했다는 간기(刊記)가 남아있다.

《진언집》 목판은 현재 60판이 보존되어 있는데, 상하 2권으로 나누어서 총 290종의 진언을 수록하였으며, 진언마다 범어와 한자, 한글을 표기해 놓고 있다. 원래 이 《진언집》은 용암(鎔巖)과 그의 제자 백암(白巖)이 함께 전라남도 화순의 만연사에서 편집하고 개판했던 것을 이곳 망월사에 주석하며 절의 면모를 일신했던 영월 낭규(朗奎)가 수정하고 각판하여 1800년(정조 24)에 완성한 것이다. 특히 진언집은 글자 모양이 정교하고 조각 수법이 섬세하여 우리나라 목판 인쇄문화의 발달사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밀교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진언집 목판각장

망월사 간행 진언집 판각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1장 2판이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진언집과 금강경탑다라니 등도 성격상 다량 인출되었을 것이지만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진언집 판각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진이나 책의 원판이다. 따라서 인출된 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특히 본 진언집 등 관련 유물은 진언집 류 사찰 판각의 일습을 갖춘 매우 드문 경우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진언집판각(眞言集板刻, 1800년,조선 정조 24)]

불경 가운데 진언만을 뽑아 목재 판목에 글씨는 양각하였다. 진언이란'만트라(Mantra)'의 옮김으로 주(呪)·명주(銘呪)·신주(神呪) 등으로 옮길 수 있으며 독경이나 참선에 들기 전에 암송하는 일종의 주설(呪說)이다.

원시불교에서는 세속의 주술, 밀법을 행하는 것을 엄금했으나 실제로는 원시불교 경전에 이미 호주(護呪)가 쓰여 있으며 대승불교에서는 부분적으로 진언이 채택되었다. 그러던 것이 4세기경부터 주법(呪法)만을 역설하는 독립된 경전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주구(呪句)를 진언이라 한다. 그 내용은 본존의 범호(梵號), 종자를 나타내는 것, 본존의 탄덕(嘆德), 대(大)로 이루어진 것, 뜻을 알 수 없는 글귀[句]만을 늘어놓은 것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망월사 진언집판각에 수록된 진언의 수는 모두 290가지나 된다. 애초에 용암(龍庵) 선사가 고족·백암과 함께 간행하여 화순 만연사에 소장했는데 소실되자 편자가 원본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이 절 망월사에서 중간하였다.

모든 판마다 17~21행으로, 진언에 따라 범어·한자·한글로 표기했으며 글씨는 홍태운이 썼으며 정윤철이 조각하였는데 자체(字體)가 매우 정교하고 조각의 기법이 섬세하여 목판인쇄문화 연구의 훌륭한 자료가 된다.

진언집 범례 말미에 〈가경경신맹하중간양주도봉산망월사장판(嘉慶庚甲孟夏重刊楊州道峯山望月寺藏板)〉이라 했으니, 중간연대는 1800년 정조 24년이다. 망월사의 진언집과는 별개의 것으로 묘향산의 보현사, 경상남도 고성 운흥사에 소장된 진언집이 또 있다.

7. 망월사 천봉당 태흘탑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6호]

청봉선사 태흘(1710~1793)은 조선시대 승려로서, 16세에 출가하여 명탁의 제자가 되었고, 도원으로부터 승려가 지켜야 할 계율을 받았다. 20세에 호점에게 불경을 배워, 배천의 호국사에서 깨달음에 이르렀으며, 1793년(정조 17) 84세로 목숨을 다하였다.

승탑(부도)은 넓은 바닥 돌 위로 기단을 두고, 탑신을 올린 모습으로 바닥돌을 제외한 각 부분이 8각을 이루고 있다. 기단은 모서리마다 다섯 개의 구슬 무늬를 세로로 두어 장식하였다. 길쭉한 탑신의 몸돌은 아래에 작은 잎의 연꽃을 두르고, 윗부분에는 큼직한 잎을 가진 연꽃을 둘러 새겼

천봉선사 태흘탑과 탑비

다. 가운데 부분에는 탑의 이름과 함께 조성연대를 세로로 기록해 두었다. 지붕돌은 윗면의 여덟 모서리가 꽤 두툼하게 표현되었고, 역시 두꺼워 보이는 처마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다. 꼭대기에는 연꽃을 새긴 둥근 돌 위로 꽃봉오리 모양의 돌이 놓여 머리 장식을 하고 있다. 탑에 새긴 기록으로 보아 1794년(정조 18)에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승탑 옆에는 천봉선사 태흘(1710-1793)의 탑비가 있는데, 네모난 받침돌 위에 비(碑)를 세우고 한식 기와 팔작지붕을 조각한 지붕돌을 얹은 단순한 모양이다. 스님이 입적한 지 4년 후, 탑을 세운 지 3년 후인 1797년(정조 21)에 건립된 것이다. 비문은 이충익(李忠翊)이 글을 짓고 단아한 필체로 글씨를 썼다.

8. 망월사 천봉선사 탑비(塔碑)[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7호]

천봉선사 탑비는 사각형의 안정된 기단부와 탑신석(몸돌)과 옥개석(지붕돌)으로 구성되어 있다. 탑비의 지붕돌은 목조건물의 팔작지붕을 간략하게 모방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지붕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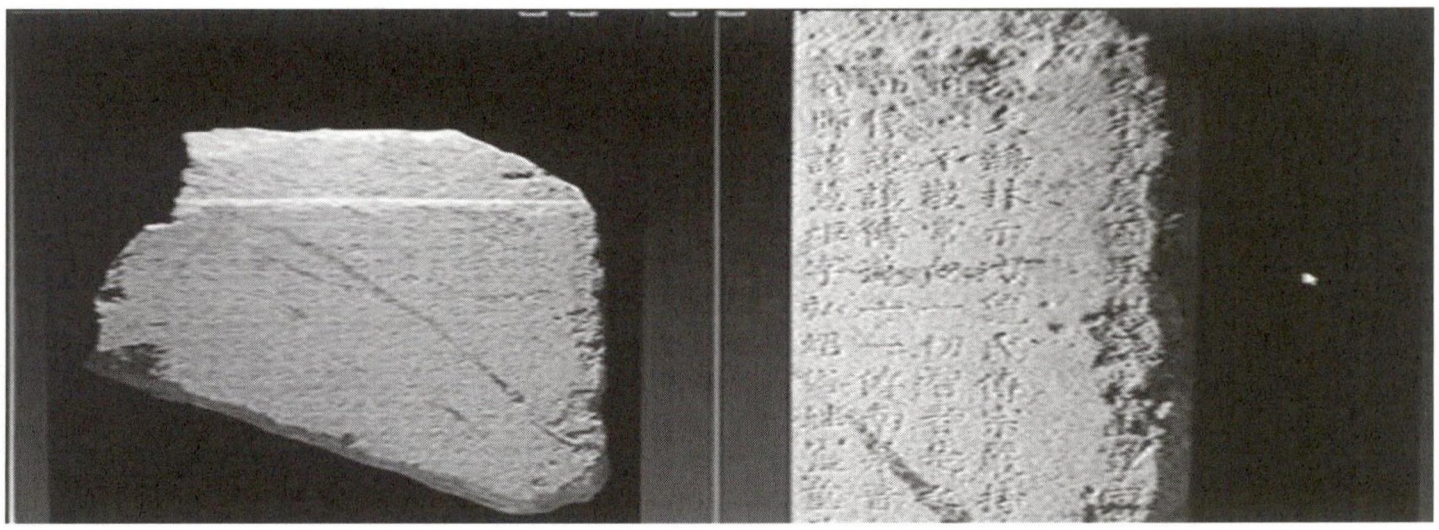
탑신에는 천봉당에 관한 기록이 새겨져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글자가 마모되어 남아있는 일부 글자만 희미하게 보인다. 탑비문은 1797년 수관거사 이충익이 새겼다.

이처럼 부도(승탑)와 세트로 조성된 탑비에는 고승이 입적한 후에 다비식, 유골 안장, 진영 봉안, 부도 건립 등과 같은 모든 장례가 마무리된 후에 최종적으로 세워지는 기념물이었다. 이러한 탑비는 고승 개인뿐만 아니라 사찰과 산문의 위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조형물이었으며, 불법을 계승하고자 하는 호법활동(護法活動)의 일환이었다.

탑비는 누구나 세울 수 있는 조형물이 아니라 국왕의 허락과 탑비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후원 세력이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건립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도와 탑비의 건립은 당시 상당한 노동력과 경제력이 요구되는 대역사(大役事)였다. 이러한 사실은 고승들의 탑 비문(碑文)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부도와 탑비의 건립이 국왕을 비롯한 왕실의 일정한 지원과 협조, 문도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Ⅲ. 혜거국사 석비(石碑)

도봉서원터에서 불교 유물이 출토되자 불교계는 이 유물이 조선시대 숭유억불(崇儒抑佛)의 역사적 증거로 가치가 높아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찰의 역사와 사역(寺域) 등을 추가로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유교계는 도봉서원이 서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원의 복원을 주장하였다. 도봉구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봉서원 일대 유구에 대한 역사성 정립 연구를 선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도봉서원과 영국사, 그리고 영국사 이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2017년부터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도봉서원 하부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2017년 발굴조사 중 비석(碑石) 조각 하나가 출토되었다. 비석 조각은 길이 62cm, 폭 52cm, 두께 20cm의 크기로 비석 전체 중 오른쪽 상



혜거국사 석비편, E-BOOK에서 발췌(한성백제박물관)

단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였으나, 비명(碑銘)의 첫머리"대송고려국견주도봉산영국..."를 비롯한 257자가 판독 가능하였다.

〈도봉산영국사혜거국사비(道峯山寧國寺慧炬國師碑)〉는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에 탁본 일부만이 전해져 오고 있었으나, 영국사의 소재지가 누락되어 있어 이제까지 충북 영동 지륵산에 있는 영국사로 인식되었다. 영국사 혜거국사 또한 『고려사』에 최초로 국사로 기록되어 있는 혜거(惠居)국사와 동일인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비석(碑石)의 실물이 발굴됨으로써 탁본 속의 영국사가 도봉산에 있던 영국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혜거(慧炬)국사는 활동 시기와 불교계에서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고려사』에 나오는 혜거(惠居)와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혜거국사비에 따르면 혜거국사의 휘(諱)는 혜거(慧炬)이고, 자(字)는 홍소(弘炤), 속성(俗姓)은 노씨(盧氏)였다. 도봉산의 신정선사(神靖禪師) 문하에 있다가, 후에 중국 송(宋)으로 유학을 떠났다. 비석의 나머지 부분이 결실되어 이후의 행적은 알 수 없으나,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의하면 혜거국사는 법안 문익(法眼文益)의 제자로 법안종(法眼宗)을 배웠다고 한다. 이후 고려 왕의 요청으로 고국에 돌아와 위봉루에서 설법한 기록이 남아있다.

혜거의 스승이었던 신정선사는 〈영월흥녕사징효대사탑비(寧越興寧寺澄曉大師塔碑)〉에 징효대사의 제자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900년(효공왕 4)에 입적한 징효대사는 선종구산(禪宗九山) 중 하나인 사자산문(獅子山門)의 2대 조사(祖師)로서 사자산문을 개창한 철감(澈鑒)국사 도윤(道允)의 제자이다. 후에 혜거국사의 제자인 적연(寂然)국사 영준(英俊)이 사자사(獅子寺)의 주지를 맡은 기록을 통해서도 이들 선사이 사자산문에 속하는 승려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선종구산 사자산문의 초기 5대 선사의 계보가 밝혀지게 되었다. 징효대사비의 뒷면에는 후원자로 왕요군(王堯君)과 왕소군(王昭君) 등 정종과 광종의 왕자 시절 이름과 그들의 외할아버지인 충주 호족 유긍달(劉兢達) 등이 등장한다. 고려 초 충주 세력은 정종, 광종, 경종 등 역대 국왕을 배출하면서 고려 초의 가장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고, 따라서 그들의 후원을 받는 흥녕선원의 위상과 그곳을 근거지로 하는 징효대사 절중(折中) 문도들의 영향력도 높아졌을 것이다. 징효대사의 문도들과 광종 지안의 관계는 절중-신정-혜거로 이어져 이후 혜거국사와 광종의 긴밀한 관계, 더 나아가 고려 왕실과 영국사[도봉원]의 긴밀한 관계로 계승되었던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혜거는 968년(광종 19) 국사가 되었고, 974년에 입적하였다. 혜거국사비가 만들어진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혜거국사비의 비명에 도봉산이 속한 '견주'라는 지명이 보인다. 도봉산 지역은 남북국시대에는 신라의 내소군에 속했다가 고려 초에 견주로 바뀌었다. 따라서 그 후 1018년 헌종이 견주를 양주에 편입시켰고, 조선 시대까지 계속 양주에 속하였

다. 따라서 혜거국사비는 도봉산 지역이 견주로 불리었던 1018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의 문헌 기록에는 영국사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영국사의 창건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신정선사가 900년에 입적한 징효대사의 제자로서 후에 도봉산에서 주석하였고, 혜거(慧炬)가 도봉산 신정선사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유학 후 돌아와서 도봉산 영국사의 주지를 맡았으며. 971년(광종 22)에는 도봉원이 이미 부동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혜거국사 탑비가 수습된 절터에서 출토된 걸이향로에'도봉사'라는 명문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도봉사, 도봉원, 영국사는 동일한 사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혜거의 활약으로 사찰이 중창되면서 영국사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전신이 되는 사찰은 적어도 고려 초에는 건립되어 있었다. 발굴을 통해 이전 시기의 유구가 일부 확인된 점으로 볼 때는 신라 말에 창건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발굴 성과를 기다린다.[4)]

이때까지 문헌상으로만 전해지던 영국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불교계가 추가 정밀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도봉서원의 복원사업은 잠정 중단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주도하에 영국사에 대한 추가 발굴작업과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발굴현장에서 통일신라 양식의 기와가 출토됨에 따라 영국사의 건립연대를 고려 시대 이전으로 앞당길 수 있었고, 발굴된 유물들 가운데서'계림공'이라는 글자를 판독하여 고려 숙종이 잠저(潛邸)시절 영국사의 시주였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으며, 또한 고려 성종의 이름이 피휘된 〈천자문〉 석각을 발견함으로써 한국의 가장 오래된 〈천자문〉 판본이 조선 시대가 아닌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발굴조사에서 무엇보다도 학자들이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은 바로 탁본으로만 전해져 오던 혜거국사비(碑)의 실물이 발견된 것이었다. 10세기 초에 중국으로 유학하여 선종의 일파인 법안종을 전수받고 고려로 귀국해 광종의 불교통합 운동에 참여했던 혜거(慧炬)는 간략한 중국 측 사료와 결락된 부분이 많아 해독이 어려운 88자의 비문을 제외하고는 그 행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이 때문에 혜거가 주석했던 영국사가 도봉산에 있었던 영국사인지 아니면 충청북도 영동군 지륵산에 소재한 영국사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의견이 엇갈려 왔으며, 학계 일각에서는 광종에 의해 고려 최초의 국사로 임명되었던 혜거국사(惠居國師)를 그와 동일인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의 허가로 도봉구청과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하고 있는'서울 도봉서원'하층

---

4) 『영국사와 도봉서원』, 2018년, 한성백제박물관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특별전], 「영국사와 혜거국사」 p.106~111.

발굴 현장에서 그동안 탁본의 일부(88자)만 전해지던 영국사 혜거국사비(慧炬國師碑)의 비편(길이 62cm, 폭 52cm, 두께 20cm 실물이 발견됐다. 발견된 비편에는 총 281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중 256자의 해독에 성공하면서, 이제까지 학계에서 혼동해왔던 영국사의 정확한 위치와 건립 시기를 분명히 알아냈고, 다른 동명이인이 있어 헷갈리던 혜거(慧炬)국사의 정확한 법명도 알아냈다.

지금은 서울특별시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진행된 발굴 조사 중 도봉서원이 영국사의 일부 건물과 기단을 재활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중심 건물지에서 고려 시대 금속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동제 금강저(金剛杵,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용구)와 금강령(金剛鈴, 금강저에 붙은 방울)을 비롯하여 국보급 청동 불교 용구가 77점이나 출토되면서 복원 사업도 한동안 중지되었다가 지난 6월부터 다시 발굴에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혜거국사비가 발굴된 것이다.

지금까지 88자의 비문만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5](1668)에 탁본으로 전해오면서 실물은 확인되지 않던 혜거국사비의 비편(碑片)을 판독한 결과, 비석에 쓰인 [비명(碑銘)]'견주도봉산영국사見州道峯山寧國寺.....'글자는 지금까지 영동지륵산영국사로 잘못 알려졌던 혜거(慧炬)국사비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고려시대 하층 유구에서 확인되는 통일신라의 기와(중판선문 기와)[6]와 건물지 기단으로 보아 영국사가 통일신라 시대에는 창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영국사 혜거(慧炬)가 갈양사 혜거(惠居, 고려 최초의 국사)와 동일 인물로 혼용되어 왔으나 동시대를 함께한 동명이인인 것도 명확해졌다.

IV. 법안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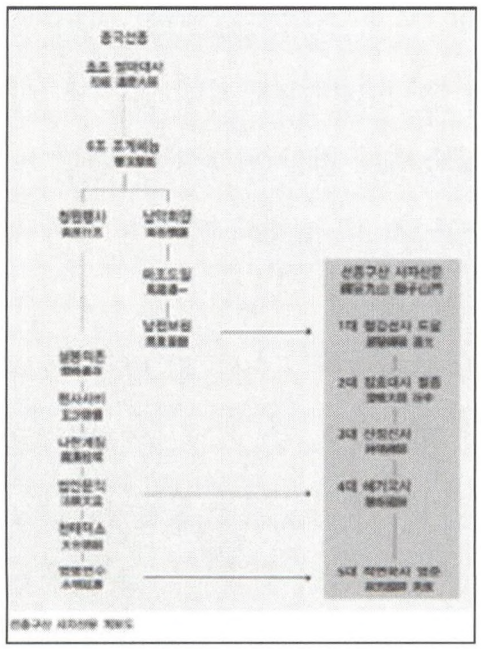
혜거국사(慧炬國師)는 고려 전기 법안(法眼) 종풍(宗風)을 일으킨 10세기 유학승으로 고려 시대 광종(光宗, 재위 949-975)이 불교를 개혁하고 선교 양종(禪敎 兩宗)을 통합하고자 도입했던 법안종(法眼宗)[7]을 고려 처음으로 전파한 승려로 추정된다. 그리고 법안종을 만든 초조(初祖) 법안

---

5)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 : 1668년(현종 9) 선조의 아들이며 서화가인 이우(李俁)가 우리나라 금석문의 탁본을 연대순으로 엮은 첩.

6) 중판선문기와 : 통일신라시대 말까지 사용되던 중판으로 타날(두들긴 무늬)된 기와.

7) 법안종(法眼宗) : 10세기 법안문익이 만든 선종오가(중국 당나라때 만들어진 선종 다섯종파, 6조혜능계의 남종선 법맥. 임제, 위앙, 조동, 운문, 법안)의 한 종파.



사자산문 계보도
(E-BOOK에서 발췌)

문익(法眼文益, 885-958)의 제자이며 적연국사 영준(寂然國師 英俊, 932-1014)의 스승이다.[8]

또한, 송나라의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9]에는 국왕이 유학 중인 혜거(慧炬)에게 사신을 보내어 예로서 맞이하였던 왕사(王師)였으며, 위봉루(威鳳樓)[10]에서 설법한 사실도 전하고 있다.

영국사의 중건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이 전하는데 지난 발굴조사에서 효령대군이 영국사가 중창될 당시 시주한 사실이 기록된 기와가 확인된 바 있다. 세종 때에는 진관사(서울 은평구)의 수륙재[11]를 영국사에서 거행하는 것이 논의되었으며, 세조의 축수재[12]를 봉행할 정도로 사세가 높은 사찰이었다.

법안종은 당나라 때에 크게 발전한 선종으로 제6조(祖) 혜능(慧能)의 남종(南宗)계통에서 오가칠종(五家七宗)[13]이 성립되었는데, 법안종은 송(宋)나라 초기 성저우[昇州:江蘇省]의 청량원(淸凉院)에 머물며 오월왕(吳越王) 전씨(錢氏) 일족의 귀의를 받아 크게 선풍을 불러일으킨 법안(法眼) 선사인 문익(文益)에 의하여 개창되었다. 그는 선(禪)과 화엄(華嚴)을 융합하였고, 안목을 무한으로 넓혀 일체 만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체득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의 문하에서 덕소(德韶)·도항(道恒)·의유(義柔) 등 많은 선승이 배출되어 저장[浙江]·푸젠[福建]을 중심으로 크게 번창하였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의하면, 법안종은 공안염롱(公案拈弄)을 특색으로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제2조 법안의 선법을 이어받은 천태덕소(天台德韶, 891-972)는 천태산에 머물면서 선(禪)과 천태학(天台學)의 융합을 시도하였으며, 제3조 덕소의 제자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와 승천도원(承天道原)이 있는데, 연수(延壽)는 염불정토(念佛淨土)사상과 선(禪)의 일치를 주장하고 《종경록(宗鏡錄)》 100권을 저술하여 선교일치(禪敎一致)의 체계를 세웠다. 선(禪)과 염불을 함께 닦을 것을 권장한 그의 만선동귀집(萬善同歸集)은 송(宋) 이후의 염불선(念佛禪)의 터전을 확립하는 데 기틀이 되었다. 도원의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30권은 중국 선사들의 계보와 전기, 깨달음에 대한 문답을 집대성한 것으로, 조

8) 선종구산 사자산문 계보도 : 한성백제박물관, 『영국사와 도봉서원』, P.107 도표 인용.
9)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 송나라의 고승 도원(桃源)이 1004년에 저술한 역대 부처와 조사들의 어록과 행적을 모은 책.
10) 위봉루(威鳳樓) : 고려 시대 왕부(王府)의 누각, 황제가 문무백관의 조하(朝賀)를 받던 곳.
11) 수륙재(水陸齋) : 물과 육지에 헤매는 외로운 영혼을 달래기 위한 불교의 의식
12) 축수재(祝壽齋) : 임금 등의 장수를 빌기 위해 부처에게 올리는 공양.
13) 오가칠종(五家七宗) : 五家란 중국의 선종 5종인데, 임제종, 위앙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을 말하고, 七宗이란 앞의 5종과 5종중 임제종 계통인 황룡파, 양기파를 합친 것을 말한다.

사들의 말이나 문답의 의문을 좌선의 대상으로 하는 간화선(看話禪)의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 강남(江南) 지방에서 화려하게 전개되었던 법안종도 북송(北宋) 때에 이르러, 운문종(雲門宗)의 대두와 그 융합적 성격으로 급격히 쇠퇴하였으나, 그들의 특징인 공안염롱[14]은 운문종, 나아가 임제종(臨濟宗)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법안종은 법안문익 스님이 창시하여 천태덕소, 영명연수에게 법이 전해졌다. 왕건의 셋째아들이자 4대 왕인 고려 광종이 법안종 3대 조사인 영명연수 스님을 사모하여 학승 36명을 중국에 유학시켰다. 그 중 원공국사 지종이 영명연수로 부터 법을 받아 고려에 전했다. 중국에서는 법안종이 쇠퇴하여 임제종에 흡수되었으나, 고려에서는 크게 발달한다. 당시 법안종 승려로서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들로는 도봉 혜거국사, 적연국사 영준, 진관국사 석초 등이 있다.

Ⅴ. 맺음말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도봉산에 위치한 망월사 영산전 산자락 너머에는 혜거국사(慧炬國師) 부도만 덩그런히 있다. 스님에 대한 자세한 행장은 알 길이 없었으나, 몇 년 전 발굴한 도봉서원 발굴 당시 뜻밖에 발견된 영국사 유물이 발굴되면서 새롭게 발견된 혜거(慧炬)국사에 대한 석비(石碑)로 인해 혜거국사에 대한 기록을 새롭게 접할 수 있어서 반가웠다.

문화재청의 허가로 도봉구청과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하고 있는'서울 도봉서원'하층 발굴 현장에서 그동안 탁본의 일부(88자)만 전해지던 영국사 혜거국사비(慧炬國師碑)의 비편(길이 62cm, 폭 52cm, 두께 20cm 실물이 발견됐다.

발견된 비편(碑片)에는 총 281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중 256자의 해독에 성공하면서, 이제까지 학계에서 혼동해왔던 영국사의 정확한 위치와 건립 시기를 분명히 알아냈고, 다른 혜거(惠居)국사가 있어 헷갈리던 혜거(慧炬)국사의 정확한 법명도 알아냈다.

지금 도봉서원은 서울특별시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진행된 발굴조사 중 도봉서원이 영국사의 일부 건물과 기단을 재활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중심 건물지에서 고려 시대 금속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동제 금강저(金剛杵)와 금강령(金剛鈴)을 비롯하여 국보급 청동 불교 용구가 77점이나 출토되면서 도봉서원 복원사업도 한동안 중지되었다가

14) 공안염롱(公案拈弄) : 법안 문익에 의한 법안종은 宋의 초기 공안염롱집단으로서 《조당집(祖堂集)》 《전등록(傳燈錄)》 을 만들어 낼 정도로 융성하였다. 문익이 그의 저서 《종문십규론(宗門十規論)》 에서 다른 4가의 특색을 기술한 것이 5가의 구별을 제시한 최초의 것이라 한다.

지난 6월부터 다시 발굴에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혜거국사비가 발굴된 것이다.

지금까지 88자의 비문(碑文)만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15](1668)에 탁본으로 전해오면서 실물은 확인되지 않던 혜거국사비의 비편(碑片)을 판독한 결과, 비석에 쓰인 [비명(碑銘)]'견주도 봉산영국사見州道峯山寧國寺.....'글자는 지금까지 영동 지륵산영국사로 잘못 알려졌던 혜거(慧炬)국사비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따라서 궁금해하던 혜거국사 비편(碑片)의 발견으로 혜거국사의 스토리가 다소는 해결된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해독 못 한 나머지 부분도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혜거국사 비편(碑片)의 사본이나, 탁본이라도 우리 의정부 문화원에서 소장하고픈 소망이 간절하다.

〈 끝 〉

15)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 : 1668년(현종 9) 선조의 아들이며 서화가인 이우(李俁)가 우리나라 금석문의 탁본을 연대순으로 엮은 첩.

☞ 부록1

1. 〈 망월사사적기(望月寺事蹟記) 〉

신라 선덕여왕 8년(639) 개산조 해호(海浩) 대사가 스스로 화주(化主)가 되어 이 절을 창건한 이래로 428년 동안의 사적은 고증할 문헌이 없다. 고려 문종 20년(1066) 병오에 중창주 혜거국사가 신통하게도 예전 모습대로 중수하였다. 다시 626년이 지난 조선(숙종 17년, 1691) 신미에 사문(沙門) 설명(卨明) 스님이 뒤를 이어 옛 제도대로 중수를 마쳤다. 그리고 137년이 지난 순조 27년(1827) 정해에 영월(映月) 낭규(朗奎) 선사가 중건하였는데 그 내력은 수관거사 이충익(李忠翊) 기술에서 상세히 나타나 있다. 〈신수망월사기(新修望月寺記)〉 그리고 다시 75년 뒤, 즉 광무 5년(1901) 인파(仁坡) 현(玄) 선사가 금강산으로부터 이곳에 옮겨와 영평군수(永平郡守) 홍태윤(洪泰潤)의 도움을 얻어 큰 방 뒷면이 퇴락한 것을 보수하고, 영산전과 큰방을 단청하였다. 광무 10년(1906) 병오에 회광(晦光) 선선사(璿禪師) 수년 동안 주석하며 천일청(千一淸) 상궁의 보시를 받아 대루(大樓)를 중창하고 선실(禪室)을 개축하고 성상(聖像)을 도금하고 탱화를 조성하고 만일회(萬日會)도 열고 마침내 도량의 미비했던 것을 보수하여 일신하였는데 이러한 전말은 모두 기록되어 전한다. 당나라 정관 30년부터 1913년(계축)까지 통계하여 모두 1275년이니, 이 절이 영사(靈寺)임을 여기에서 상상할 수 있겠다.

아! 부처님은 예로부터 유아독존인 존재요, 인간 세상에 다시없는 낙원이다. 더구나 도봉산은 서울의 주봉(主峯)으로서 세상에 이름난 구역임에랴. 절 뒤의 바위는 바라보기에 인도의 부처님인 양 솟아있고 앞에는 대석(臺石)에는 토끼인 양 꿇어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으로 천태산(天台山)보다도 빼어난 경치요 보타락가산(普陀洛伽山)에 견줄만하다. 게다가 거북바위가 마당에 엎드리고 용바위가 그 대석을 이고 있으니 참으로 금강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를 만하니, 영취산(靈鷲山)이 이 아닌가. 그러므로 신라 태자가 잠저(潛邸) 때에 이곳에 머물렀으며 고려 태조가 회산에서 돌아오던 길에 쳐다보고 기특함을 탄복하였다. 혜거(慧炬)의 부도는 산기슭에 우뚝하고 나옹(懶翁)의 초상은 법당 안에 의젓하다. 천봉(天峯)의 비석과 참모습의 영정은 아득히 천년이 지났건만 지금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사방을 빙 둘러 측량하니 모두 1만4천6백40평이니 마땅히 사법(寺法)에 따라 수호하여야 할 것이다. 선교(禪敎)의 등왕(騰旺,융성함)과 송회(松檜, 소나무의 푸르름)는 대대로 영원토록 천지(天地)와 더불어 시종(始終)을 같이 할 것이다.

도봉산은 의구하고 망월사는 새롭도다.

1913년 1월 10일 보운 석본섭 근식(寶雲 釋本葉 謹識)

2. 신수망월사기(新修望月寺記)

한양 북녘에 이름난 산들이 십여 군데지만 도봉산이 가장 으뜸이며 산들이 아무 데나 삥 둘러섰지만, 그중에도 망월사가 또한 으뜸이다.

망월사는 바위가 빼어나고 봉우리가 우뚝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나타낼만한 것은 당나라 태종 정관 연간에 해호(海浩) 대사가 창건하고 송나라 영종 시절에 혜거(慧炬) 조사가 중건, 그리고 명나라 숭정(崇禎) 기원후 63년에 사문설명(沙門卨銘)이 다시 중창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천여 년이 지나고 보니 그동안 흥폐에 따른 역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연조가 오랠수록 여러 절 중에도 가장 으뜸가게 마련이므로 흥폐의 역사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나 건물과 도량들이 워낙 비좁고 퇴락하여 본래의 모습을 보유하지 못하다가 2백여 년이 지나 영월낭규(映月朗奎) 선사가 중수하므로 절의 규모가 새로워졌다. 낭규선사는 관동 금성현인(金城縣人)으로 14세에 출가하여 각처 명산에 머물며 여러 명사를 찾아 진리를 탐구하는 데 힘썼으며 주로 한성 주변의 여러 사찰을 왕래하다가 건릉(健陵) 무술연에 비로소 본사에 주석하셨다. 그는 망월사의 도량이 황폐되고 한 나라 명산에 기도처가 없음을 개탄한 나머지 큰 서원(誓願) 발원하여 이듬해 선월당(先月堂)을 건립하여 여러 대중을 거처케 하고 다시 이듬해에 대웅전을 중수하여 도금(塗金)불사를 비롯하여 세 영정을 만들었고 또 이듬해에는 퇴락한 법당을 중수했으며 병오년에는 범종(梵鍾)을 주조하고 기유년에는 절 남쪽에 응진전(應眞殿)을 지었고 신해년에는 돌층계를 쌓아 전대(前臺)를 만들고 심지어 주방과 측간까지 두루 보수하였다.

이 절은 길이 불편한 것이 좀 흠이다. 그 뒤 경신년 여름에 선월당을 다시 좌측에, 영산전은 선월당 자리로 옮기고 앞뜰에는 횡각 몇 채를 마련하니 심력과 재력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과연 낭규선사의 큰 서원이 아니고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리하여 절의 금경(金磬)은 찬란하고 건물은 장엄하며 번개(旛蓋)는 마당에 나부끼고 등촉은 언제나 밝혀 있으며 동판과 목어(木魚)는 수시로 소리를 내고 비구 대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으며 시골 아낙들의 공양 올리며 세존 앞에서 합장하니 나라 백성뿐 아니라 산승들까지 한가지 마을인즉슨 금신(金神)의 묵우(默佑)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야말로 옛날 선왕 시절에도 얼마든지 있었다.

지금 낭규선사가 이 절을 장엄하도록 보수 중축한 일은 절의 미관만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이런 훌륭한 기도처럼 그냥 버려둘 수 없다는 신심에서 우러나왔을 뿐이다. 이야말로 마땅히 표창할 일이요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일이다. 지금 낭규선사는 이미 연로하셨다. 이처럼 훌륭한 일을 마치고도 앞으로 바릿대 하나와 호리병 하나를 지니고 멀리 조용한 곳으로 떠나기를 바라고 있다.

낭규선사야말로 불자로서 할 일을 마쳤으므로 이다음의 승사(僧史)에 길이 남아 있을 것이다.

1863년(聖上卽作之元年) 수능(首菱) 수관거사(水觀居士) 지음

역자(譯者) 석엄선사(釋嚴禪師)

3. 조선국 천봉선사 탑비명 병서(朝鮮國 天峯禪師 塔碑銘 幷序)

이른바 대선사(大禪師)란 사람들을 나는 많이 보아왔다. 어깨를 쭈그리고 눈썹을 내리깔고 자리를 펴고 앉았으면 사람들이 보고 묻지 않아도 그가 대선사임을 알 수 있다. 어깨를 쭈그리고 눈썹을 내리깔고 자리를 펴고 앉았으면 역시"나는 대선사이다"라고 자처하기도 하는 것이다. 눈으로는 사람과 하늘을 같이 보고, 마음으로는 범인(凡人)과 성인이 함께 있으며, 사대(四大, 사람) 축생이나 아귀와 함께 살고 죽고, 염려(念慮)는 장벽이나 와력(瓦礫)과 함께 일어났다, 함께 없어지고 하니 1만 2천인이 함께 예경하는 바이지만 그 일덕(一德)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고, 결국에는 1만 2천인이 함께 예경하는 바이지만 조금도 본인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 바로 대선사이고, 이는 천봉대선사가 대선사가 될 수 있었던 연유이기도 하다.

교(敎)란 반만(半滿, 차거나 안 차거나) 대소(大小) 문구(文句)의 뜻과 취지에 대하여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이(理)가 있다 하는 것이고, 선(禪)이란 찧고 흔들고 쥐어박고 차고 죽이고 주고 빼앗음에 대하여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성(性)이 있다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첨곡(諂曲)·우둔(愚鈍)·성실·지혜가 있으나,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자(慈)가 있다고 여기고 유달리 특출나거나 기특하다는 모습도 없고, 해탈하여 남을 깨우치려는 모습도 없는데 그러한 것을 가리켜 불법 중에서 얻은 바가 없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불법 중에는 본래 이러한 상(相)은 없었기 때문이다. 말(言)이 바로 마음(心)이고 마음이 바로 성품이어서 가고 멈추고 앉고 눕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으로 전체가 발현(發現,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남)하고 중간에 일호라도 혹 더하거나 혹 버리는 것이 없는 것이니 모든 행위가 그러한 자는 비록 이는 순수한 부처의 마음(心)이고 성품이라 한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심(佛心)과 불성(佛性)은 본래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선사의 이름은 태흘(泰屹)이요, 자(字)는 무등(無等)이며, 천봉(天峯)은 그의 호이다. 해서(海西) 서흥(端興) 사람 김두필(金斗弼)의 아들로 어머니는 조씨(趙氏)이다. 16세에 유덕사(有德寺)의 명탁장로(明椓長老)에게 머리를 깎고 옷을 바꾸어 입었으며 도원(道圓)스님에게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20세에 은월 우점사(隱月 雨霑師)에게 수업하여, 역내(域內)를 두루 돌아 지식이 있

는 분들에게 두루 묻고 만년에 백천(白川)의 호국사(護國寺)로 돌아와 중인(衆人)을 사절하고 입선(入禪)하여 풍계(楓溪) 해숙(海淑) 스님의 법통을 이으니 해숙 스님은 백월 옥혜 스님의 고제(高弟)로 청허(淸虛)의 5세손이 된다. 속세의 나이 여든하고도 네 살인 건륭(乾隆) 계축년(1793)에 작은 병증(病症)을 보여 어느 스님이 묻기를"선사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생(生)이란 괴롭고 공허하고 무상한 것이라고 하시더니, 역시 생사에 떠밀려 앉아 돌아가시기를 못하는군요."라고 하니, 선사가 대답하기를"앉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앉는 것이 아니고 눕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누운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또 묻기를"선사께서 지금 적멸(寂滅, 열반=죽음)을 보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불멸(不滅)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하니, 선사는 한참을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죽었는데, 얼굴빛이 평일과 다름이 없었고, 입정(入定, 선정에 들어감)할 때 화욕(火浴)을 하였으나 정골(頂骨)에 부서지지 않은 부분 두 조각이 나와 사리(舍利, 화장한 뒤에 나오는 구슬 모양의 것을 일컬음)64매를 만들어 호국사의 문화(文化) 월정사(月精寺) 및 양주(현 의정부)의 망월사 등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도랍(道臘)은 68년이요, 제자로 종지(宗旨, 중심이 되는 가르침)를 얻은 자는 환열(幻悅), 묘일(妙一), 낭규(朗奎) 등 20여 인이며, 계율을 받은 자는 수백 인이다. 내가 처음 선사를 만났을 때 선사의 나이 이미 80을 넘었는데 광대뼈가 높고 입은 모가 졌으며 귀는 크고 눈은 샛별과 같아 두리번거리면 광채가 있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진실하고 꾸밈이 없었으니 복과 지혜를 두루 갖춘 분임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환열 등이 나를 찾아 명(銘)을 부탁하여 내가 선사에게서 보았던 바대로 말을 하니, 환열이 말하기를 "그때는 선입관이 없이 우리 스승을 보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었던 것이요."라고 하였다.

명(銘)하기를,

선사는 덕의 글에 들어가 지성으로 발원을 하더니,
문득 길어 먹던 우물에서 세 가닥으로 물을 높이 퍼 올렸는데,
찬란한 얼음이 얼어 씹어보니 달면서도 차가웠다네.
때는 첫 여름이라 모두들 예전에 없었던 일이라고 놀랐으나,
선사는 묵묵히 못 본 듯했으니 얼음과 물은 둘 다 공허함이라,
얼었을 때나 녹았을 때나 나의 소견은 다름이 없음이라네.
선사에게 양생(養生) 길 물으려 했으나 이제 모두 어디 있던가?
오직 발우(鉢盂)만 남아 밥 담아 예를 올리는데,
다만 발우에 밥 담을 줄만 알고 쌀이 밥이 됨은 모르며,
다만 쌀이 밥이 되는 줄만 알고 그것이 돈이 됨은 모른다네.

하루 아침 밥이 익어 받아먹으면 배가 부르고,
나머지는 주린 사람에게 주면 모두들 좋다고 하는데,
이 법은 불가사의하되 범부의 일에서 벗어나지 안 나니,
만일 범부의 일에서 벗어난다면 이 법은 불가사의가 아니로세.
더럽고 궂은 것 다 버리면 그대로 나타나는 건 바로 범부니
천봉(天峯)의 종지(宗旨) 알려거든 이 뜻을 스스로 깨쳐야 한다네.
- 문도(門徒)들 성명 생략 -

내가 보기에는 천봉선사 평생에 자기 자신을 꾸며 남보다 유표하게 보이려 하지 않았고 임몰(臨歿)에는 또 앉으나 누우나 정법(定法)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어떻게 자신이 죽은 뒤에 사람들이 자기가 있었음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 문도들이 영주(靈珠)로 부르고 받들어 종정(鍾鼎)에 갈무리하고 또 돌에 기록했는데 모든 신사(信士) 신녀(信女)로 이 일을 들은 자는 달려와서 재물을 기울여 돕기를 마치 자기 일처럼 하여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어도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일까? 천봉스님의 유락(遺落)과 문도의 홍호(弘護)와 사녀(士女)의 숭신(崇信), 이 세 가지가 한마음이 되어 진실하고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비의 뒷면에 상세히 기록하여 그들의 추향(趨向, 마음에 끌려 따라감)한 바를 보고 알게끔 하는 바이다.

수관거사(水觀居士) 이충익(李忠翊)은 글을 짓고 아울러 글씨를 쓰고 전액(篆額)을 하다.
가경(嘉慶)2년 정사(丁巳), 1797년 윤 6월 일, 立.

4. 망월사 편액(扁額, 1891),

혜거국사비문 탁본, (E-BOOK에서 발췌)

중국의 원세개(袁世凱, 위안스카이)가 통리조선통상교섭사의(統理朝鮮通商交涉事宜)로 한양에 주둔하고 있을 때, 이곳 망월사에 유행차 들렀다가 그 기념으로 남긴 편액(扁額)이다. 가로 160cm, 세로 40cm인 송판목(松板木) 두 장을 연결하여 〈망월사 광서신묘중추지월 주한사자 원세개(望月寺 光緖辛卯仲秋之月 駐韓使者 袁世凱)〉라 양각하고 폭 8cm의 액틀을 둘렀다. 좌우 상틀 목 끝에는 용의 머리를 목각하였으며 몸체 부분은 단청을 했다.

〈 끝 〉

참고문헌

- 『망월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립선원 망월사, 주지능엄(楞嚴)
- 『한북사학』2집,「도봉산 망월사 일원 석조유물에 관한 고찰」,P315,
최영희, 2005, 녹원문화사.
- 곽철환, [시공불교사전], 2019.2.20, ㈜시공사

인터넷
- 한성백제박물관, E-BOOK『영국사와 도봉서원』, p.106~p.111. 2018.3.29.
- [지식백과] 영국사 [寧國寺]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지식백과] 도봉서원 [道峯書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소래산 석조 마애보살입상에 관한 고찰

팽 재 연 (시흥문화원 전시팀장)

目 次

Ⅰ. 서론

Ⅱ. 마애불의 조성 배경

Ⅲ.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양식의 현황

Ⅳ. 결 론

【참고문헌】

집필자

팽 재 연 시흥문화원 전시팀장

Ⅰ. 서 론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고려시대 시흥은 지형적으로 서해안과 맞닿아 있는데 마애불은 대체로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 고려 수도 개성,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당시 불교문화의 영향을 쉽게 받아들인 것이라 추측된다. 받아들여진 고려불교 영향 중 대표적으로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을 들 수 있다.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은 대불, 보관, 원형 상호, 중심으로 몰린 이목구비 등 전형적인 전기 고려불상양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보관에는 보상당초계통의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아직 국내에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없다.[1)]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수인에 대해서 조차 이양숙『경기지역의 고려시대 불상과 민간신앙 연구』석사 논문에서는 봉보주인, 박윤희『경기지역 고려전기 마애불 연구』에서는 右 구품인, 左 배에서 상향하는 수인을 주장해 엇갈리고 있다.[2)]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의 형식적 파악만 되었을 뿐 깊게 논의는 되지 않아 전제적으로 불분명하다.

본론에서 불상의 유래, 그 당시 마애불 조성 배경,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양식의 현황 등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1) 이양숙,「경기지역의 고려시대 불상과 민간신앙 연구」(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pp.22-23.
2) 이양숙, 앞의 논문, p.23
박윤희,「경기지역 고려전기 마애불 연구」(단국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2016) p.25

1. 불상의 유래

간다라 불상

기원후 1C 되면 무불상시대에 보지 못했던 불상이 출현하게 된다. 처음에는 스투파(塔)의 난간, 문에 새겨진 본생도 · 불전도에서 불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본격적인 불상은 인도 서북쪽 간다라 지역, 인도 중부 마투라지역 이 두 곳에서 시작된다. 간다라 지역은 중동, 중앙아시아, 인도를 연결하는 관문이었으며 헬레니즘 문화 산하 아래에 간다라 불상이 제작되었고 기원 전후에 희랍신상[3] 영향을 받은 희랍풍의 불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불상 제작의 배경에는 대중들의 교화를 목적 즉 불교의 대중화 운동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간다라 불상은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순으로 퍼져 나갔으며 동아시아 문화의 집합체가 되었다.

II. 마애불의 조성 배경

명칭	위치	존명	시대
북한산 구기동 승가사 마애불좌상	서울		11c
서울 삼천사지	서울		고려 초기
하남 태평이년 중수명 마애약사불좌상	경기도 하남시	약사	977 중수
용인 문수산 마애이불보살상	경기도 용인시	우보살	고려초기
	경기도 용인시	좌보살	고려초기
여주 계신리 마애불입상	경기도 여주시		고려 초기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경기도 시흥시		고려 초기

3) 희랍신상 : 그리스 신상

이천 태평흥곡 6년명 마애보살좌상	경기도 이천시		고려 경종 6년
이천 소고리 마애여래좌상	경기도 이천시		고려 초기
이천 영월암 마애조사상	경기도 이천시		고려 초기
안성 석남사 마애불입상	경기도 안성시		고려 전기
양평 상자포리 마애여래입상	경기도 양평시		고려 중기?

표1. 경기도 지역 마애불 현황

표1[4]를 보듯이 대부분 마애불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유행은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고려 창건 당시 통치 이념을 불교로 삼다 보니 모든 계층에게 불교신앙의례가 성행했다. 당시 고려 사회는 불상을 수행적 의미로서가 아니 유신론적 예배의 대상으로 이해하다 보니 자연스레 대불 또는 마애불이 유행하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다.[5]

두 번째는 고려 전기 대불의 유행에 대해 각 지방 호족과 관련을 지을 수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호족 통합을 위해 내세운 혼인정책으로만 봐도 그 당시 호족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북위 때 오제를 의불화할 때도 대불을 조성한 것처럼 고려 전기 대불을 조성한 것 또한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거대한 대불은 신체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수행의 얼굴이 아니라 신체 건장한 당시의 호족상을 느낄 수 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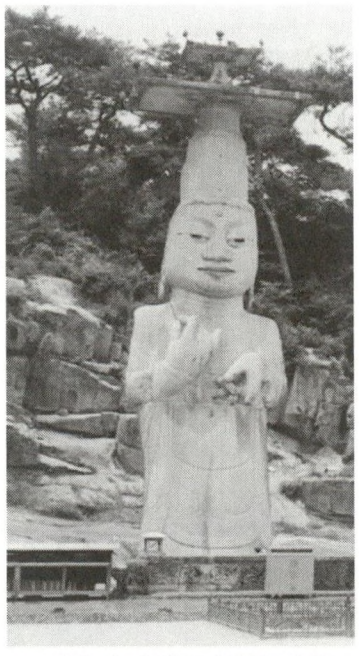
세 번째는 광종의 왕권 강화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광종은 당시 호족세력을 약하시키 위해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과거제 · 노비안검법 실시.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 부르게 한 점, 광종이 직접 면류관을 쓰는 등 다양한 조취를 취했다.[7]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에 의해 고려 전기 불상에서 왕즉불 사상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논산 관촉사 석불입상, 안성 매산리 석불입상 등을 들 수 있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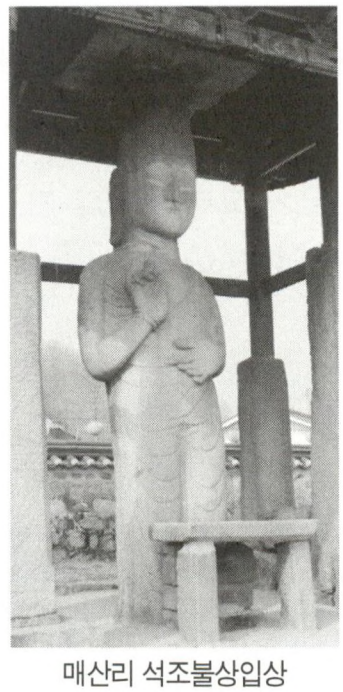
안성 매산리 석조불상입상, 관촉사 석조 보상입상을 살펴보면 이 둘 불상 다 광종 때에 조성 되었으며, 거대한 신체, 높은 보관, 살이 오른 상호, 커다란 손, 면류관형 천개(도6)를 통해 왕즉불 사상을 엿볼 수 있다.[9]

---

4) 박윤희, 앞의 논문, p.25 인용
5) 이양숙, 앞의 논문, p.49
6) 이양숙, 앞의 논문, p.50
7) 정성권, 「고려전기 석불입상 연구」 (단국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pp.26-29
8) 정성권, 앞의 논문 pp.26-29
9) 정성권, 앞의 논문 pp.26-29



관촉사 마애보살입상 신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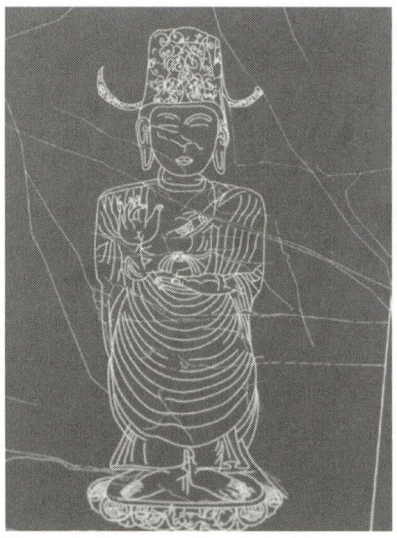


매산리 석조불상입상

고려 전기 대불의 조성 배경들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닌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요인들이 서로 얽혀 고려 전기 전국적으로 대불 조성의 유행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된다.

이러한 조성 배경 요인들은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양식의 현황에서 제대로 다루도록 하겠다.

Ⅲ.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양식의 현황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마애불은 암벽, 구릉, 바위에 새긴 불상이며 인도 · 중국 · 한국 · 일본 등 많이 존재하며 수법은 양각 · 음각 · 선각 등 다양하다. 특히 고려 전기 마애불은 양각, 양각과 선각의 혼합양식, 선각의 양식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을 들 수 있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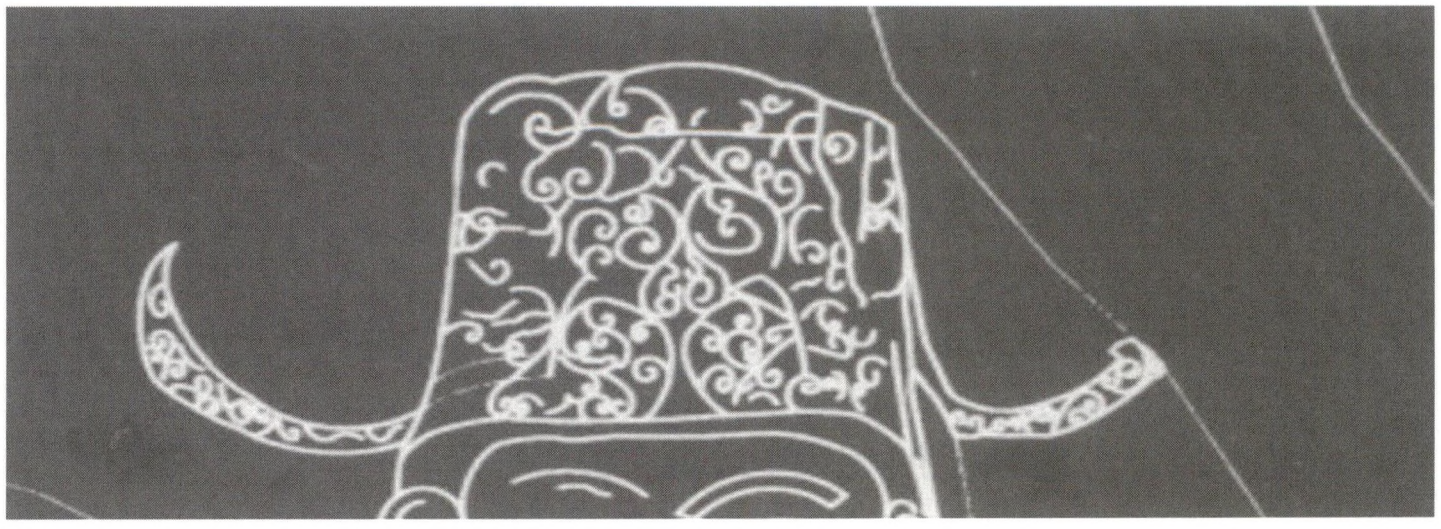
시흥 소래산 중턱 병풍바위에 선각으로 새겨진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은 두부 위에 당초문이 새겨진 원통형 보관을 쓰고 있으며 원형 상호 그리고 원형 상호에 표현된 이목구비는 중심으로 몰려져 있다. 길게 늘어진 양쪽 귀 장대한 육체, 대의에 새겨진 평행의문선 등으로 보아 전형적인 고려 전기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11)]

신라 말기 호족들이 난립하여 고려로 넘어가는 시기에 다양한 형태의 거불들이 등장을 하는데

10) 박윤희, 앞의 논문, p.28
11) 이양숙. 앞의 논문, pp.22-23

기존 신라의 불상 조각의 모습들은 완벽한 신체 비율, 비불비인(非佛非人)의 표전, 석면을 흐르고 있는 생명력, 생동감 넘치는 근육의 표현 등을 통하여 불타의 신비와 재애로 하여금 보는 이를 감싸 주는데, 신라 말기 고려 초기의 거불들은 크고 우락부락하며 거친 표현이 자비로운 보살이 아닌 강한 신비감을 담고 있는 모습이며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그 지역의 향토색을 따라서 조성이 되었다.

- 보관 -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원통형 보관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이 쓴 원통현 보관은 보상당초계통의 문양이 전면에 걸쳐 섬세하게 시문되었으며 관의 좌우로 길게 뻗은 관대는 살짝 위로 향하고 있다.[12)]

원통형 보관은 중국 당 · 오대에서 나타나며 당대 밀교의 융성으로 밀교존상의 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밀교 도상에 나타나던 원통형 보관은 점차 대승불교의 보살상에 영향을 끼쳐 오대 · 송 · 요대 원통형 보관의 보살상의 예를 살펴볼 수 있다. 요나라가 당대 폐불의 피해가 적었던 산동북부, 하남을 위시한 북중국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 그대로 계승했음을 알 수 있다.[13)]

이러한 사실 기반으로 당시 시흥 지역과 산동북부의 교류를 통해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에 영향을 끼쳤음을 추측할 수 있다.

---

12) 시흥시,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일조각, 2015) p.229
13) 최성은, 「딩말오대와 요대의 원통형 고관 보살상에 대한 일고찰」, (한국불교미술사학회 1997), p.62.

- 두부 -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원통형 두부

둥근 상호에 이목구비가 중심으로 몰려 있는 모습은 고려 전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 당시 불상은 얼굴표현에 있어 표현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며, 귀는 길게 늘어져 있다.[14)]

- 법의 -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원통형 법의

14) 이양숙. 앞의 논문, pp.22-23

양어깨를 덮은 통견의 법의는 반원형 주름을 이루며 길게 늘어져 복부 앞에서 여러 조의 의습선을 만들고 있다. 내의 중앙에는 띠 매듭이 있으며 가슴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가사 외연부는 화문으로 장식되어 있다.[15)]

- 신체 -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원통형 신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힌 신체 비례에 조각 상태가 좋은 편이다. 눈두덩까지 세밀히 표현된 불안은 원만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자아내고 있다. 유려한 곡선미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천의 아래에 드러난 두 발은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16)]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아직 통일신라 시대의 양식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15) 시홍시, 앞의 책, p229
16) 이양숙. 앞의 논문, p.23

- 수인 -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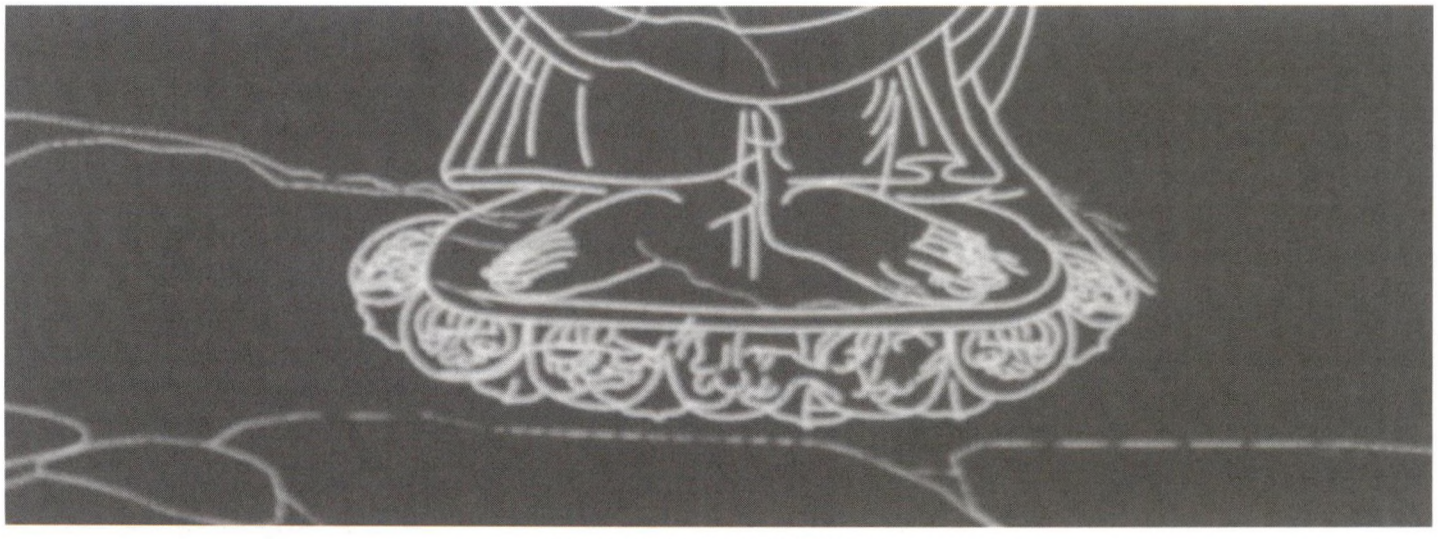
태안마애삼존불 우협시 불상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수인에 관해서는 이양숙 학자는 봉보주인, 박윤희 학자는 右 구품인, 左배에서 상향하는 수인을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봉보주인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마애보살입상 수인은 살펴보면 오른손은 아미타 수인 중 하나 구품인 중품하생인을 취한 근거로 마애보살이 아미타불로 정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17)]

왼손은 배 근처에 대고 무언가 들고 있는 듯이 손바닥은 하늘로 향하고 있다. 아마 보주를 들고 있는 것으로 조심스레 추측된다. 이러한 수인은 삼국시대 백제 태안마애삼존불의 우협시 불상의 특이한 봉보주인 수인과 매우 유사하며 일본에서 봉보주인 수인을 취한 관음보살상의 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은 관음보살로 볼 가능성 또한 있다. 이 마애보살상이 고려전기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도상학적 또는 양식 접근보다는 그 당시 대중들의 신앙 유행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신앙 유행에 따라 불 · 보살상의 존명이 바뀐 사례가 있으므로 참조해야 한다.

17) 이양숙, 앞의 논문, p.23
박윤희, 앞의 논문, p.25

- 대좌 -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원통형 대좌

7엽의 운변으로 구성된 연화대좌로 현재는 6엽만 확인된다. 연판의 사이에는 간변까지 나타내었으며 각 판의 중앙에 보상화문이 새겨 있다.[18)]

IV. 결 론

고려 전기 대불 유행 배경에는 모든 계층의 불교예배성행, 호족의 영향, 왕권 강화 등을 들었지만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조성 배경에는 호족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보살상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면류관 천 개가 없으며 전체적인 양식을 통해 지역의 호족 또는 토착 세력의 후원 관계에서 탄생[19)]과 더불어 고려 전기 양식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상당초계통의 문양이 새겨진 원통현 보관은 이 보살상 이외에 국내에서 살펴볼 수 없고 중국 오대 · 송 · 요 시절 산동북부지역, 하남을 위시한 북중국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며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20)]

수인 부분에 관해서 중품하생인과 유사한 오른손 수인이며, 반대 손은 배 근처에 대고 무언가 들고 있는 듯이 손바닥은 하늘로 향하고 있다. 중품하생인과 유사하다고 해서 아미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보살의 수인은 삼국시대 백제 태안마애삼존불 우협시 보살 봉보주인과 매우

18) 시홍시, 앞의 책, p229
19) 시홍시, 앞의 책, p229
이양숙, 앞의 논문, p.50
20) 최성은, 앞의 논문, p.62

유사하며, 일본에서 봉보주인 수인을 취한 관음보살상의 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은 관음보살로 볼 가능성이 있다. 고려시대의 마애불은 분포지역이 매우 광범위하며 불상들의 표현 또한 제각각 다르게 표현하여 고려시대의 마애불은 표준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대체로 전형적인 신라의 마애불 양식에서 새로운 양식이 탄생 되었는데 중후하고 강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조형미를 갖췄고 통일신라와는 완전히 다른 파격적인 동시대인 고려시대 타 마애불과도 다른 파격과 미적 감각을 담은 독창성 있는 불교조각인 소래산 마애불의 의의는 신앙적 측면, 양식, 조성 위치 등 다양한 방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인데. 그 속에서 고려만의 새로운 색채가 나타났으며, 이런 점에서 바라볼 때, 고려전기 마애불은 고려와 신라를 지방과 수도 문화의 이어주는 것을 나타내는 고려전기 불교문화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조성 세력 등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싶었지만 남은 사료가 없어 아쉬운 점이었다.

이러한 거불에 대하여 태조 왕건은'훈요10조'중에서 4조에 그 해답을 말해준 것 같다."우리 동방은 중국 풍습을 본받아 문물 예악 제도를 모두 그대로 준수했다. 그러나 지역이 다르고 사람의 성품도 각각 같지 않으니 구태여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다."

참고문헌

〈논 문〉

박윤희,「경기지역 고려전기 마애불 연구」(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16)

이양숙,「경기지역의 고려시대 불상과 민간신앙 연구」(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정성권,「고려전기 석불입상 연구」(단국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2001)

최성은,「딩말오대와 요대의 원통형 고관 보살상에 대한 일고찰」, (한국불교미술사학회, 1997)

최성은,「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 연구」, (미술사논단, 2003)

박순상,「충청북도의 마애불상에 대한 고찰」(한국문학사학회, 2006)

이창영,「고려시대 마애불의 조성배경에 관하여」(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16)

진종환,「고려전기 신양식 석물의 전개와 조성배경」(한국미술사학회, 2015)

〈단행본〉

경기문화재단,『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경기출판사, 2000)

문명대,『한국불교미술의 형식』, (한언, 2007)

장단 백학산 석각과 난정수계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차 문 성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目 次

Ⅰ. 머리말

Ⅱ. 왕희지의 난정수계와 상사일

Ⅲ. 우리나라에 미친 난정수계의 영향과 세시풍속

Ⅳ. 장단 백학산 계곡의 석각현황과 난정수계의 모방 · 재현

Ⅴ. 맺음말

집필자

차 문 성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Ⅰ. 머리말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장단 백학산 일대는 고려 때부터 계음(禊飮)의 주요 장소가 됨은 물론 신궁(新宮)이 조성된 바 있고, 조선시대 광해 5년(1613)에는 백학산 아래 장단도호부 관아와 향교를 이전하면서 의주대로와 연계된 유람지가 된다.[1] 파주 민통선지역 조사과정에서 알려진 장단 백학산 석각[2]은 새로운 승경지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백학산 석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장구지소가 후손, 후학 등이 선생을 추모 혹은 기념하기 위해 몇 명의 이름과 시문을 각자 하는데 여기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집단으로 각자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는 유상곡수가 경주의 포석정, 창덕궁 후원의 옥류천 등 인공적인 곡수는 있지만, 자연적인 유상곡수는 몇 군데 남아 있지 않다. 이곳 백학산 바위글씨 중 '구유암'에 '계축 모춘'이란 명문이 있어 왕희지의 「난정서」 재현을 시사하며 인근의 계류는 유상곡수인 것으로 추정되어 인공적 요소가 추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소적 특성이 백학산이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인근의 장단도호부와 향교와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계축년 모춘은 각자된 인물을 고려할 때 17c 초, 1793년, 1853년 삼월삼짇날로 추정하는데 1853년은 영화 9년 353년 3월 3일 상사절에 있었던 난정서를 기점으로 1,500년을 기념하는 날이다. 난정서에는 유상곡수의 놀이를 즐기면서 시와 이름을 연명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석각의 기록은 여러 시대에 걸쳐 이름을 각자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시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선비들의 모임은 일반 서민과는 달리 시사(詩社)인 경우 시회를 주목적으로 하며, 계회(契會)인 경우 명단과 좌목이 중요해 시문과 명단을 연명하게 된다. 고려시대부터 유람의 장소로 명맥을 이어온 백학산 계곡은 이후에도 선비들이 시회와 계회를 즐겨왔다. 조선 후기에 한양의 백악산을 비롯한 각지의 명소에서 계회의 유행과 아회문화의 확산, 지방의 별서정원에서 산수유람, 은일, 강학, 음풍농월 등이 만연하면서 각종 계회와 선현을 추념하는 장구지소가 석각에 새겨진다.[3]

따라서 본고는 민통선 내 백학산에 23개의 석각이 조성된 역사적 유래와 장단지역 문화공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석각과 역사문화경관의 장소적 의미를 구명하고자 한다.

---

1) 『장단읍지』, 1842, p5: "만력41년, 광해 5년(癸丑) 읍치를 현 치소로 옮겼으며, 부사로 승격됨, 광해 13년(1621/천계원년) 겸방어사 설치함. 영조(을유년)-방어사를 파주로 이설했으며, 도광 2년(경자년) 읍호를 현감으로 낮춤."

2) 2019년 2월 파주향토문화연구소의 민통선 조사회의 때 백학산석각의 제보가 있었으며, 2019년 7월 2일 파주향토문화연구소에서 영농인 최견수 부부의 협조로 찾게 됨.

3) 권지영, 2013, 「시문을 통해 본 호남지방 별서정원의 명승적 가치」, 상명대석사, p1

II. 왕희지의 난정수계와 상사일

1. 왕희지의 난정서

왕희지의 〈난정서〉는 동진시대 353년 절강성 회계 산음에서 난정수계를 할 때 지은 서문이다.[4] 난정수계(蘭亭修禊)의 수계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3월 3일 상사절에 하는 액막이의 제사를 일컫는다. '禊'는 당시 질병을 없애는 종교적 의식의 일종이었다.5) 수계행사 후 즐겼던 유상곡수(流觴曲水)는 제사의식에서 점차 유식 공간으로 전환되어 이후 계회 모임의 필수적인 행사로 이용되어 왔다. 즉 당시 술을 냇물에 띄우는 것이 원래는 재앙을 흘러보내는 의미였으나,6) 이것이 하나의 시회(詩會)와 아회(雅會)로 발전을 해 강남지역에서 일대 유행을 했다. 그 유행의 진원지에 해당하는 난정수계에 참석한 문사는 왕희지 본인을 포함하여 42명으로 즉흥적인 서문은 필세와 자형, 장법의 조화와 생동감에 있어 중용의 심미적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참석 문인들의 글을 모은 『난정집(蘭亭集)』 의 서문인 '난정서'는 총 28행, 324자로 이뤄져 있고 이중 중복되지 않고 한번 쓰여진 글자가 154자며 170자는 중복된 글자다. '난정서'의 변화무쌍한 필법과 예술정신은 후대에 사법이 되어 수많은 첩이 완성되고 당태종대의 유명 서예가인 구양순, 저수량, 풍승소 등의 임모본이 등장하게 되어 왕희지는 태종으로부터 서성(書聖)이라 불리게 된다.[7] 동기창은 『선실수필(禪室隨筆)』 에서,

> 우군(왕희지)의 난정서는 장법이 천하제일이며, 그 글자는 모두 띠처럼 비추고(映帶)있다. 혹은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면서 손이 가는 대로 모두 법칙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품이 되었다.

라며 자형의 대소변화와 포치를 찬탄하고 있다.8) 이처럼 왕희지의 난정서의 재현은 모임의 의미와 대가의 법첩으로 인해 일대 유행하게 된다.

---

4) 당시 왕희지는 회계군에서 내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산음은 회계산 북쪽 방향에 있는 산음현을 말한다.
5) 應劭, 「祀典」, 『風俗通儀』 : "周禮女巫掌歲時以祓除疾病,潔也"
6)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2003, 『漢韓大辭典』 6, 단국대학교출판부, p896.
7) 조은서, 2017, 「난정서의 서예미에 관한 연구」, 대전대 서예학과, p iii
8) 조은서, 2017, 「앞글」, p30

2. 난정수계의 주변요소

난정서에는 모임의 때와 장소, 연회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날 향연의 즐거움과 그 감회를 적고 있으며 자연과 인생의 상념을 적는다.

영화 9년 계축년 3월초 회계군 산음현의 난정에 모여 "수계"행사를 열었다. 많은 선비이 모두 이르고 젊은이와 어른들이 다 모였다. 이곳은 높은 산과 고개가 있고 깊은 숲과 울창한 대나무 그리고 맑은 물이 흐르는 여울이 좌우로 띠를 이루었다. 흐르는 물을 끌어 잔을 띄우는 물굽이(유상곡수)를 만들고 순서대로 자리를 잡으니 비록 성대한 풍악은 없어도 술 한 잔에 시 한 수씩 읊으며 또한 그윽한 정회를 펼칠 만하였다.[9)]

여기에는 주변의 경관이 묘사되는데 높은 산, 준령, 무성한 숲, 대나무, 시냇물, 맑은 물이 흐르는 여울은 화면(畵面)의 요소가 되고, 선비들과 청장년이 어우러지는 장소임을 밝힌다. 향연을 즐기는 방식은 순서대로 줄지어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한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 잔을 띄워 보내는 방식을 보여주고, 잔이 도착하기 전 냇가에 앉은 참석자들이 시를 적는 풍류를 나타낸다. 이러한 형태의 난정연회는 당, 송, 원, 명, 청나라 시대에도 40여 차례나 기록에 나타난다.[10)] 이런 점에서 왕희지의 난정수계는 경관과 유식을 즐기는 방식(유상곡수)에 있어 시대를 초월하여 일대 유행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표1〉 난정서의 키워드

난정서	내용	의미
永和九年	영화9년(동진)	연호
歲在癸丑	계축년(353년)	연도
暮春之初	3월초(3월 3일 상사일)	날짜
會於會稽山陰之蘭亭	회계 산음군 난정	장소
修禊事也	수계행사	목적
羣賢畢至	많은 선비들이 모두 이르고	모임

9) 왕희지, 『난정집서』
永和九年, 歲在癸丑, 暮春之初, 會於會稽山陰之蘭亭, 修□事也. 群賢畢至, 少長咸集. 此地有崇山俊嶺, 茂林修竹, 又有清流激湍, 映帶左右. 引以爲流觴曲水, 列坐其次, 雖無絲竹管弦之盛, 一觴一詠, 亦足以暢幽情.

10) 정다움, 2012, 「동아시아의 난정수계도 연구」, 홍익대 미술사학과 석사, p9

少長咸集	젊은이와 어른들이 모두 모였다.	참석자
此地有崇山峻嶺	여기는 큰산과 준령이 있고	장소묘사1
茂林修竹	깊은 숲과 울창한 대나무	장소묘사2
又有淸又有淸流激湍	맑은 물과 세찬 여울이	장소묘사3
引以爲流觴曲水	흐르는 물을 끌어 잔을 띄우는 물굽이를 만들고	유식공간
列坐其次	순서대로 자리를 잡으니	놀이방식
雖無絲竹管絃之盛	비록 성대한 풍악은 없어도	놀이묘사1
亦足以暢敘幽情	역시 그윽한 정회를 펼칠 만 했다	놀이묘사2

난정수계에는 〈표1〉과 같이 날짜와 장소, 목적, 주변 풍광을 간단하지만 밀도있게 묘사하고 있다. 즉 영화 9년에 난정에서 모였으며, 청장년의 구분이 없이 다양한 사인(士人) 계층이 초대되었다. 배산임수의 배경에는 준령이 있으며 깊은 숲과 울창한 죽림이 펼쳐져 있었다. 앞에는 맑은 물이 냇가를 형성하고 있어 유식공간을 갖춘 전형적인 장소였다. 이 같은 장소적 특성과 참석자의 숫자, 시문의 아집은 이후 난정재현의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난정수계는 정형적인 수계의 형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도 있었다. 술이 내려올 때까지 시를 짓지 못하면 큰 잔으로 3되의 벌주를 마시게 된다. 당시 참여한 사람 42인 중 16명이 벌주를 마신 것으로 나타난다.[11] 왕희지, 손작 등 26명은 시를 지었고 16명은 시를 짓지 못해 벌주를 마시게 된다.

3. 유식공간으로의 전승, 유상곡수연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은 비단 난정수계만이 아니다. 유상곡수의 아집(雅集)은 3월 3일 물가에서 거행하던 계발지례에서 비롯되었다. 진나라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의 기록에 의하면, 주공이 흐르는 물에 술을 띄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미 이 풍속은 주대에도 있었던 것 같다. 이후 상사일(3월 3일)에 관민이 동쪽 물가에 가서 묵은 때를 씻어내고 계제를 지내며 길상을 빌었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유상곡수연은 이미 동진시대에 풍속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서진의 석숭은 별서원림 금곡원에 30명을 초청해 아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금곡시서(金谷詩序)』를 지었다. 이 금곡원의 모임을 계승한 것이 바로 왕희지가 회계산 난정에서 가진 삼월삼일

11) 장유, 『계곡만필』 제1권: 永和蘭亭之會四十二人

난정모임이며 유상곡수연이다.[12)]

이러한 난정수계는 이전에 있었던 관행과 더불어 당나라에서 일대 유행을 했는데 이는 왕희지의 명성과 함께 시회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전당시(全唐詩)』에 "상사일 곡강가, 시끌벅적한 시내 거리, 만나러 갔으나 못 만난 사람을 이곳에서 모두 만나네."[13)]라 표현된 것을 볼 때 당시 광범위하게 수계가 유행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대는 3월 3일인 '상사일'이 '청명'(3월 1일), '한식'(3월 2일)과 더불어 삼일간 이어지는 까닭에 점차 이들 풍속이 섞여 민간의 명절로 변화하게 된다. 당나라 시절 문인들에게 상사일은 난정시회의 풍류를 재현할 수 있는 명절로서 시회에 참여하거나 멀리 시를 부치며 상사일 감회를 시에 담아냈다.[14)]

즉 난정수계의 재현은 시대마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청명과 한식, 상사일로 이어지는 까닭에 풍속이 섞여 갖은 놀이가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유상곡수연'이며, '답청'이 있고 조상의 무덤에 '성묘'하는 시기도 삼월이다. 특히 계절의 특성으로 봄놀이를 하며 제비가 강남 갔다가 돌아오는 시기도 삼월삼짇날로 잡고 있다.

따라서 후대에는 유상곡수 놀이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콘텐츠가 필요했다. 첫째, 계(禊)다. 이것은 연중행사의 하나로 일종의 푸닥거리와 같은 것인데 마치고 나면 음복을 한다. 이때 남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다양한 후속 행사가 시작된다. 두 번째로는 술잔을 띄워서 시회를 하는데 이를 위해 소동과 하인들이 술잔을 물에 띄운다. 중국에서는 이를 재현할 때 긴 나무주걱에 술잔을 얹어 물에 담근 후 아래로 주걱을 빼면 술잔만 물에 떠내려간다. 셋째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계류다. 계류의 양옆으로 사람들이 모여 지필묵을 준비한다. 네 번째로는 대나무, 버드나무, 진달래 등 주변 요소다. 다섯째로 주최 측에서 이들을 살피고 평가할 수 있는 대(臺) 혹은 정자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난정지회의 재현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행사를 만들어내어 시와 그림으로 묘사된다. 삼월삼짇날이 모춘(暮春)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

---

12) 권석환, 2005, 「중국 강남지역 아회문화의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 『중국문학연구』 제32집, pp143-145
13) 『전당시』 권 585
14) 강필임, 2017, 「당대 시회의 통시적 변화」, 『중국학보』 81권, 대한중국학회, pp203-205

Ⅲ. 우리나라에 미친 난정수계의 영향과 세시풍속

1. 우리나라에 미친 왕희지의 난정수계 영향

〈그림1〉 작가미상, 난정수계도, 조선 19세기, 지본채색, 각 폭 122.6×60.9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일찍이 신라 때의 무장사지 탑비는 왕희지의 집자로 알려져 중국의 사신이나 문사들이 여러 차례의 탑본을 가져간 적이 있고, 최치원의 『계원필경』에서도 왕희지의 '난정'을 언급[15]한 바 있다. 조선 성종 때의 문신 최부는 1487년에 제주 추쇄경차관으로 부임했다가 이듬해 1월 부친상을 당해 돌아오던 도중, 풍랑을 만나 중국 영파부에 표류했다. 이때 귀환하면서 절강성의 난정수계처를 관람하게 되어 당시 선비들이 흠모하는 대상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인조 때 부원군인 한준겸은 난정수계를 종중 사람과 자주 열어 마을 이름이 난정동이 될 정도로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이처럼 난정수계의 일상일영(一觴一詠)은 사대부들의 계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와 관련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그림은 3점이 알려져 있는데 그 하나는 당인의 작품이 있고, 다른 하나는 타니분초의 19c 작품이 있다. 우리나라 작품으로 알려진 것은 〈그림1〉 19세기 말 8폭 병풍이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만큼 다작이 그려지지는 않았다. 대신 난정수계의 영향을 받아 지역계, 동갑계, 동관계 등 다양한 계회도가 그려진다.

> ⓐ난정(蘭亭)에 계(禊)를 한 것은 사안석(謝安石)과 왕우군(王右軍) 등 42명이었다. 낙양(洛陽)의 기영회(耆英會)는 문언박(文彦博) · 사마홍(可馬公 사마광(可馬光)) 등 12명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계원(契員)은 20여 명이니 낙양의 회보다는 많고 난정보다는 적다. 풍류 · 문장 · 덕업 · 명망은 비록 난정의 여러분과 낙양의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조정과 민간에 아무 일이 없는 시

15) 최치원, 『계원필경집』 제18권, 「謝示延和閣記碑狀」

> 기를 타서 ⓑ경치 좋은 곳에서 고상한 놀음을 가지는 점은 또한 인정된다. 대개 왕(王) · 사(謝) · 문(文) · 사마(司馬) 같은 이들이 당초부터 세상에 초월하려 한 것이 아니요, 모두 당세에 직무를 갖고 있었다. 좋은 경치, 어진 사람들끼리 뜻이 같고 취미가 맞아서 서로 그 좋은 모임을 하고, 이를 후세에까지 전한 것이다. 여기에 모인 ⓒ계중(契中)의 인사도 모두 사방에서 모인 사람이다. 조정에서 벼슬하는 이도 있고, 경상도에 지방관으로 나와서 군(郡)이나 현(縣)에서 높은 이는 목사요, 낮은 이는 문을 지키는 관리도 있으며, 초라한 훈장도 있었다. (중략) 그리하여 ⓓ진양(晉陽)을 낙양(洛陽)으로 생각하고 촉석루(矗石樓)를 난정(蘭亭)으로 생각하면 그 모이는 자체도 역시 일거리이므로, 반드시 정무(政務)의 여가를 이용하여 즐겁게 놀더라도 사무는 감히 사무에 방해되지는 않게 하였다. 태평세월에 여가가 많은 것은 또한 임금의 혜택이다.[16]

이 〈진양수계서〉는 탁영 김일손이 지어 현재 촉석루에 현판으로 걸려 있다. 촉석루에서 금란계를 만들 때 난정지회를 본 따 그 수와 인물, 목적을 만들게 된다. ⓐ에서는 난정에서는 42명, 낙양기영회는 12명이나 금란계 모임의 출발은 20명으로 해 그 숫자를 난정과 비교한다. ⓑ는 난정서에 나오는 경치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과 만남을 의미한다. ⓒ는 모임의 계원은 관직의 높고 낮음, 나이가 젊고 많음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난정모임의 의미를 나타낸다. ⓓ에서는 진양(晉陽)을 낙양(洛陽)으로 생각하고 촉석루를 난정으로 간주하면서 모임의 당위성과 목적을 나타낸다. 이처럼 조선 초부터 난정수계의 모임은 그 본연의 뜻보다는 하나의 아집과 아회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2. 난정수계와 관련된 계회도

고려시대에는 『해동기로회도』와 『연암연집도』가 그려진 바 있고 신종 4년(1201)에 정2품 문하평장사가 된 기홍수(1148~1209)가 음력 3월 3일 상사절과 9월 9일 중양절을 맞이하여 모란정승집(慕蘭亭勝集) 즉 난정의 빼어난 모임을 사모하여 열은 계연에 참석하여 마치 선계에서 노닌 것 같은 풍류를 즐긴 바 있다. 이러한 난정수계는 가절에 청산을 마주해 자리 잡고 종일 술을 마시고 시를 읊으며 정을 나누는 계음지유(禊飮之遊)와 계음풍류(禊飮風流)의 친목회가 확산하였으며 웅천계음(熊川禊飮)은 송도팔경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17] 조선왕조에 와서 계회도와 시회도는 관료와 문인을 중심으로 『동관계회도』와 『독서당계회도』가 있었지만 난정모임의 재현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야외계회도와 함께한다.

---

16) 김일손, 『속동문선』 16권, 「晉陽修禊序」
17) 홍선표, 2013, 「조선 전기의 계회도 유형과 해외소재 작품들」, 『미술사논단』 제36호, pp7-8

난정수계에서 말하는 '禊'와 계회도의 '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앞서 김일손의 『탁영집』에서는 진양수계를 만들면서 진양을 낙양으로 촉석루를 난정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형식상 난정수계를 빌리지만 사실상 이것은 약속으로 맺은 모임을 의미하는 '契'를 나타내어 이를 '금란계(金蘭契)'라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금란계는 『주역』에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니, 그 단단함이 쇠를 끊을 만하도다. 마음이 서로 같은 말은 그 향내가 난초와 같도다."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 라고 한 데서 온 말로, 금란계란 아주 돈독한 우의를 비유한 말이다.[18] 즉 여기서는 '禊'와 '契'는 다르지만, 이는 방식과 목적에서의 차이지 실제 모임의 양상은 난정에서 유래했음을 보여준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이와 같은 '契'가 난정수계의 '禊'와 혼용이 되니 이를 구별하자는 변증설을 보여준다.

> 지봉유설에 이르길 우리나라의 풍속은 향읍이나 방리에서 모두 契를 만들어 규검하는 것을 향토라 한다. 契란 곧 禊로 획이 생략된 것이다. (중략) 경사와 여항에서 쌀로 이자를 불리는 것을 향도미 혹은 향도계라 하는데 이는 상도계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는 단체를 이른바 향도계라 부른다. 이 계는 왕희지가 난정에서 수계할 때에 계가 아니라 마을이 서로 모여 쌀을 거두어 이자놀이라던 계 이를테면 어부계, 회망계, 사촌계등의 명칭을 짓는다. 대저 이것이 蘭亭에서 修禊하던 '禊'를 본따 잘못 '契'를 쓴 것이니 고쳐 契로 써야 한다.[19]

따라서 당시 난정수계의 '禊'와 특정한 목적을 가져 상부상조하는 '契'가 혼용되는 부분을 구분해 본래의 의미를 살리자는 이규경의 변증설이 나올 정도로 당시에는 각종 계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의 세시풍속으로 정착한 상사절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한 후 1788년부터 후원의 옥류천에서 각신을 중심으로 모임을 하게 된다. 시를 대나무조각에 적어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시회를 즐기기도 했다. 정조는 노장의 구분 없이 후원에서 신하들과 함께 꽃을 감상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는데 천장각의 고사 상화조어연(賞花釣漁宴)을 빗대어 만든 모임이 바로 내각상조회(內閣賞釣會)다. 특히 1793년 계축년에는 후원의 택수재를 고쳐 부용정이 새로 건립된 해다. 이때 정조는 내각의 젊은 인재

18) 서거정, 『사가집』, 「迎接都監諸郎禊會圖」 2수 주석, 한국고전번역원 (임정기 주석), 2007
19)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香徒辨證說」

를 중심으로 한 모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진들을 참여케 하여 창덕궁에 모이게 했다. 유상곡수, 좌목, 시회, 모춘일, 소장함집(少長咸集) 등의 난정수계의 중요한 내용은 당시의 모임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 상이 內苑에서 꽃구경을 하려고 시임과 원임의 각신과 아울러 그들의 자제들을 부르고, 또 일찍이 승지나 사관을 지낸 사람 약간 명을 특별히 불러서 39명의 숫자를 채웠는데, 이는 대체로 이 해가 계축년(1793)이고, 이 달이 暮春이라 蘭亭之禊를 모방하는 뜻에서였다. 여러 신료들에게 명하여 내원의 여러 경치를 마음껏 둘러보게 하고 玉流泉이 굽어 도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서 술과 음식을 내리고 각기 물가에 앉아 잔을 기울이고 시를 읊게 하였다. 그리고 상이 晋나라 사람들의 난정 모임에서 지은 詩賦 四言 · 五言 두 편을 여러 신료에게 명하여 자신의 소장에 따라 짓게 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파하였다. 그리하여 한때에 태평 시대의 훌륭한 일이라고 전해졌다.[20]

계축년, 모춘의 계축일을 맞아 왕희지가 난정에서 했던 것을 재현하기 위해 정조가 각신 외 중신을 불러 부족한 인원을 채워 가능한 42인을 맞추려 했지만 39명의 인원으로 옥류천에서 유상곡수를 한 사례다. 『홍재전서』에는 연월과 사람의 숫자가 난정수계의 때와 부합되었다는 것을 볼 때 왕 자신과 측근의 신하 2명[21]을 포함해 42명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난정의 수계시 여섯 구를 모아 두 편을 엮어 만들고,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시부와 사언, 오언시를 짓게 하는 유식의 시간을 가졌다.

4. 조선 후기에 유행한 난정수계의 재현, 속난정회

중국과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난정모임 자체보다 이를 이용한 계회와 시회도가 더욱 유행하게 된다, 다만 '난정'의 이름을 직접 모방한 『임하필기』의 '속난정회'를 보면 난정지회 모방의 의의가 잘 드러난다.

> ⓐ철묘(哲廟) 계축년(1853) 늦봄에 종남산(終南山)의 묵계산장(墨溪山莊)에서 속난정회를 열었는데, 함께 ⓑ모인 사람들은 소정(邵亭) 김영작(金永爵), 두산(斗山) 조영화(趙英和), 난휴(蘭畦)

20) 『정조실록』, 정조 17년 계축(1793) 3월 20일(계축)

21) 『승정원일기』 1727책 정조 18년 3월 15일: 1793년 계축년 모춘 상조회에서는 39명의 인원만 나타나지만 1794년 임인년 모춘 모임에서 채제공(영부사)과 김희(판부사)에게 이 모임을 지시하는 것을 보면 모두 42명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운주(趙雲周), 완계(浣溪) 조문화(趙文和), 초파(蕉坡) 박흥수(朴興壽), 다사(茶史) 서당보(徐堂輔), 종산(鍾山) 이원명(李源命), 화산(華山) 조명하(趙命夏), 추담(秋潭) 조휘림(趙徽林), 호남(鄗南) 조운한(趙雲漢), 호계(扈溪) 정영조(鄭永朝), 석거(石居) 김기찬(金基纘), 성산(星山) 조연창(趙然昌), 단천(丹泉) 조석여(曺錫輿), 주계(周溪) 정기세(鄭基世), 국하(菊下) 조연흥(趙然興), 단농(丹農) 이유응(李裕膺), 석전(石篆) 정기명(鄭基命) 및 나였다. 한결같이 ⓒ계첩(禊帖)의 일에 따라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돌리고 시를 읊었는데, 시는 각자 그 원운(原韻)에 맞추어 차례대로 읊었다. 이어 이 ⓓ모임을 그림으로 그려 동인(同人)들과 더불어 나누어 보관하였다. 중국의 선비 주당(周棠)은 회계(會稽) 사람으로서 난정(蘭亭) 서쪽에 살고 있는데, 나의 이번 모임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영소화속난정도시(詠小華續蘭亭圖詩)를 지어 보내주었다.

아, 이제 우군(右軍 ⓔ왕희지(王羲之))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1,500년이나 되는데 그동안 이 모임을 모방한 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으나, 유독 왕희지가 난정에 모였던 것만이 성대한 일로 전해져 시를 읊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서 그림으로까지 그리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의 필법(筆法)이 천고(千古)에 으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그의 문장과 절의가 강좌(江左)의 제현(諸賢) 중에서 한결 탁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세 사람들이 그를 상상하고 우러러 존경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세에 전해지는 것은 문장과 절의에 있고 놀이에 있지 않은 것이니, 우리들이 어찌 후대에 전하게 하는 방도를 생각하지 않겠는가.[22]

철종 계축년 1853년의 모춘에 묵계산장에서 19명이 모여 난정회를 모방한 〈속난정회〉를 열게 된다. (ⓐ, ⓑ) 유상곡수연에 난정서를 모방해 시문을 적는다. (ⓒ) 계첩을 그림으로 만들어 그 의미를 되새긴다. (ⓓ) 1853년 난정서가 만들어진 지 1,500년을 맞아 당시 사대부와 여항민들도 모방을 즐기는 대중적인 놀이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 끝으로 속난정회의 의미가 놀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희지의 문장과 절의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속난정회'는 이 시기에 앞서 이미 성행하였다. 특히 소론 출신인 조상우(1640-1718)는 성남의 묵사동에서 대규모의 속난정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오도일의 『종남속난정회시서』에 있으며, 이후 그의 손자인 조귀명, 조현명은 대를 이어 속난정회를 열어 난정의 의미를 이어가게 된다.[23] 이를 보면 동회나 지우 외에 소론이나 노론 등 붕당에서 대규모의 난정회를 열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파주에서 조상우의 임진석벽이 2018년 언론에 공개되고[24], 박태보 등 소론계 출신들이 당시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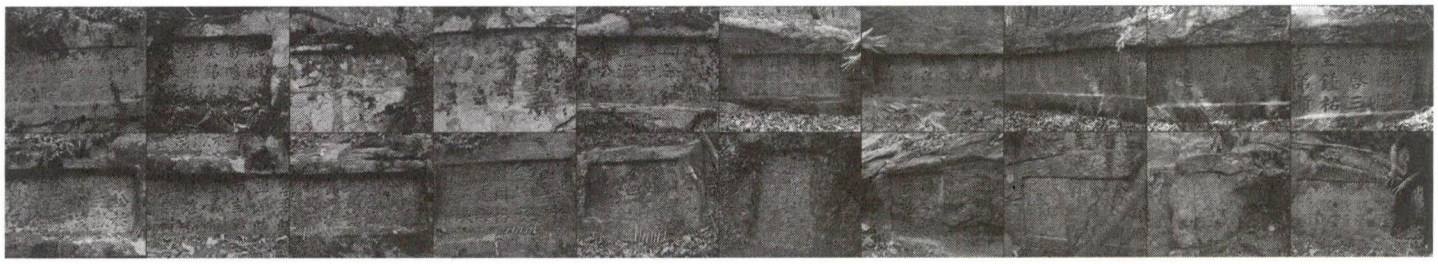
22) 이유원, 1871, 『임하필기』 권25.
23) 박철상, 2012, 「왕희지 난정수계의 수용양상과 시사에 미친 영향」, 『한문학보』 제26집, pp14-15
24) 김요섭, 「파주문화원 임진강석벽 우의정 조상우 4언시 최초 발견」, 경기일보 기사, 2018.06.28

주와 장단에서 활동한 것을 보면, 장단 백학산 석각 역시 문학과 시서화 수집에 열의를 보인 소론계의 모임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시기는 노소의 당쟁이 격심해 현실정치를 멀리한 사대부들은 아회와 은일의 문화에 심취하기도 하며 서화고동의 취미에 몰입해 마음에 드는 것은 반드시 소유해야 풍조가 일었다. 이런 점에서 장단 백학산이 문학과 예술의 취미인 〈속난정회〉의 한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재 시문이나 문장이 발견되지 않아 단언할 수 는 없지만 장단부의 계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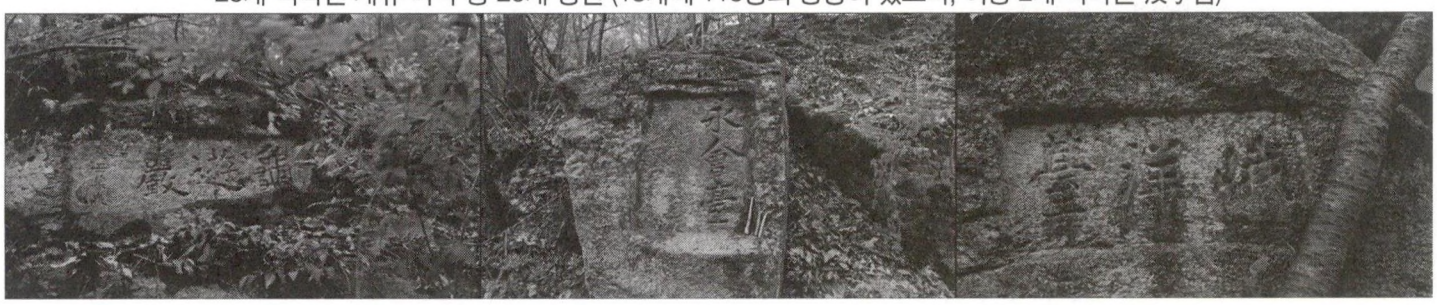
IV. 장단 백학산 계곡의 석각과 난정수계의 모방 · 재현

1. 장단 백학산 석각의 발견과 유래

파주시 장단은 고려 성종 때는 개성부 관할에 속했고 조선 초 속현으로 있다가 세조 때 장단의 치소를 도원역으로 옮기게 된다. 예종 원년(1468)에 장단도호부로 승격하고 거진을 설치한다. 광해군 5년(1613) 계축년에는 치소를 백악산 남쪽 오목리로 옮기고(현 백학산 관아 터), 광해군 13년(1621/신유년)에는 경기방어사를 겸직하게 한다.[25] 현재는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의 일부는 파주시에 편입되었고 나머지 5개면은 북한에 남아 있다.



23개 백학산 계류 석각 중 20개 명단 (18개에 113명의 성명이 있으며, 이중 2개 석각은 沒字임)



23개 백학산 계류 석각 중 3개의 장소명 석각 (구유암, 영회대, 아양대)

〈사진1〉 장단 백학산 계류 석각 23개(2019-07-09 촬영)

25) 『경기읍지』 제3책, 22-100쪽 : 『장단읍지』 (p5)와 『경기읍지』 (p113)의 건치연혁에는 광해5년 1613년 백학산 아래로 이읍하고 부사(류시회)로 승격했다고 하나 실록에는 예종 때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초대 방어사는 1621년 이서 장단부사가 임명되었으며, 영조 41년(1765)에 방어사는 파주목으로 이설된다. 일반적으로 도호부사는 종3품이나 장단부사는 정3품으로 되어 있다. 이는 겸방어사가 원인으로 보인다.

장단부의 백학에 대해서는 "백악(白岳) 임진현 북쪽에 있다. 고려에서 풍덕 백마산을 우소(右蘇)로 삼고 백악산을 좌소(左蘇)[26]로 삼았다."[27]고 되어 있다.[28] 백학산의 지명에 대해서는 조선초기까지 주로 백악산(白岳山)으로 불렀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백악산과 백학산으로 같이 부르게도 했으나 〈대동여지도〉와 1905년 〈구한말지형도〉, 1918년 〈대정7년 지도〉에는 '白岳山'으로 지명이 표기되었다. 1970년대 지도에는 백악과 백학을 병기하게 된다.

현재 백학산 밑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향교 및 관아터가 남아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왕건의 궁궐 유구가 남아 있다고 하나 이는 거란군의 침입 때 고려 성종의 신어를 개국사로 옮기고 새 대궐을 백악에 지었다는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공민왕 때 중건이 되어 신경(新京) 혹은 신궁(新宮)으로 불린다.[29] 이처럼 고려 때 장단의 백학산 일대는 개경의 좌소(左蘇)로서 국란 시 왕의 이궁의 기능을 하게 된 곳이다.

가. 장단 백학산 계류 석각 발견과 확인경위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2019년 파주시의회의 지원으로 민통선 역사문화생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문헌 조사와 제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석각의 존재를 파악해 조사가 활기를 띠었다. 백학산 석각은 발견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석각의 조성 여부를 밝히려 했지만, 필자가 참여한 연구로 석각 조성 경위의 일부가 〈경기일보〉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9년 7월 2일 파주향토문화연구소의 재조사로 석각의 전모가 알려져 파주문화원에 보고된 바 있다.[30]

---

26) 『동사강목』 제9하, 갑오년: (고려)명종 4년 5월: 술사의 말을 듣고 '좌소'의 백악산, '우소'의 백마산, '북소'의 기달산에 연기궁궐조성관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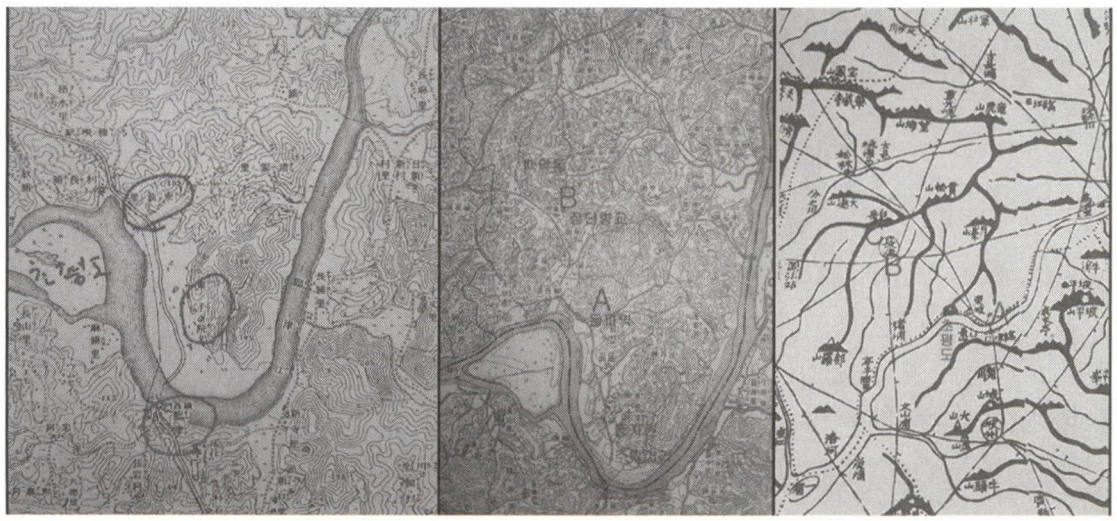
27) 이행 외, 『신증동국여지승람』, 장단도호부

2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三蘇는 좌소(左蘇)·우소(右蘇)·북소(北蘇)를 말하는데, 이병도는 삼소는 삼산(三山)이라고 단정하고 송악(松岳)을 중심으로 한 주위의 삼진산(三鎭山) 혹은 삼신산(三神山)이라고 주장하였다.

29) 『고려사절요』 30권, 신우1 무오년

30) 군부대로 인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2019년 7월 2일 차문성 소장, 조진석 감사, 오순희 위원은 영농인 최견수 부부의 도움으로 백학산 석각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나. 장단 백학산 석각의 위치비정



〈사진2〉 ①1905년 구한말지형도 ②1918년 대정7년지도 ③대동여지도

장단 백학산 석각[31]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기도 하지만 그간 미확인 지뢰지역으로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지도를 볼 때 이곳은 지금 만큼의 오지는 아니었다. 진산(鎭山) 백학산 아래 장단향교가 있어 도원역과 연결되고, 주변 낮은 산들이 안산을 이루고 있어 풍광이 예부터 남다른 지역이다.

〈사진2〉의 ① 1905년 〈구한말한반도지형도〉를 보면 임진나루에서 길을 건너면 '초평도' 위로 '동자원'이 있고, 그 위에 '동파리'가 있다. 이 동파리 표시는 갑오경장 이후 역제가 없어져 우체사가 생김으로써 지역명인 동파리로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 때부터 이어져 오던 역원 중 '院'은 공용여행자의 숙식과 편의를 위해 설립이 되었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상당수는 유명무실해져 자연적으로 주막으로 전용되거나 폐지되어 버리고 지리지, 읍지에 지명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2] ①에는 〈사진2〉처럼 동자원과 동파리가 구분되었지만 ②〈대정7년(1918)지도〉에는 '동파리(동자원)'로 병기되어 이미 '동자원' 지역이 동파리로 편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파역은 ①1905년 지도처럼 동자원에서 위로 올라가 초평도 건너 중간쯤(맨 위 동그라미)이 동파역이 있었던 자리로 판단되며, ②지도의 A처럼 건물이 지도상에 표시된다. 그 아래 동자원은 이미 역원마을이 형성되어 주막거리를 형성했음을 산재된 건물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우측의 ③대동여지도를 살펴보면, 1905년 지도의 '동파리' 표시에 동파역원 표시 '⊘'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길을 따라 군내면으로 들어가면 백학산을 진산으로 하는 관아터가 있다. 관아터 뒷편 개울을

---

31) 군내면 읍내리 산 142-3 : 서문중묘(읍내리 산 141) 주차 후 도보이동
32) 김아름, 2016, 『조선시대 역원의 조사 체계화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사학과 석사, p6

건너면 장단향교가 있고 그 뒷산이 바로 백악산이다. 백악산[33]은 개성에서 파주, 한양으로 향하는 의주대로에 있어서 유식공간으로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된다. 여기서 의주대로의 연결로를 따라 올라가다 백학산의 끝자락으로 빠지면 서문중 묘역을 지나 바로 낮은 구릉에 계곡이 있는 백학동에 이르게 된다. 장단부와 장단향교에서 불과 1~2리 정도 떨어져 있어 관원이나 유생들이 언제든 성의정심을 닦을 수 있는 수양지로서 적합한 곳이었고 개성과 한양의 선비들이 유식하기에 적당한 곳으로 계회가 열린 웅천계음의 일종이었다.

다. 이제현의 송도팔경, 〈웅천계음〉과 〈백악청운〉

고려 말 성리학의 조종격인 이제현은 〈前송도팔경〉과 〈後송도팔경〉을 지으면서 그 중 장단군에 있는 지역 3곳을 넣어 시문을 지었다. 전팔경의 5경인 웅천계음(熊川禊飮)은 오늘날 판문군 관내 사천(沙川)의 지류이며 진봉산에서 발원한다. 후팔경의 2경인 백악청운(白岳晴雲)은 남방한계선인 DMZ 접경에 있는 백학산을 말하며 비 갠 날 하늘에 떠 있는 맑은 구름을 묘사한 것이다. 백악은 현재 통일촌 북쪽에 있으며 옛날부터 많은 사람이 오가던 곳으로 도원역이 있다. 고려시대 백학산은 명당, 길지로 여겨져 고려왕실이 좌소(左蘇)로 삼아 별궁을 지었다.

1460년 장단의 치소를 백악산 남쪽의 도원역으로 옮기게 된다. 『도화원기』에서 나온 도원(桃源)의 이름처럼 이곳은 예부터 위치와 경관이 뛰어난 곳이었다. 당시 경승지에는 동배(同輩)와 사문(斯文)으로서 우의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해에 태어났거나, 같은 해 과거 합격을 했거나 함께 늙어가는 기로의 조건, 학연, 지연을 매개로 친목 모임을 영구히 하기 위해 계회도가 유행한다. 고려 중기 말엽의 의종 연간에 발생한 사문동배의 회음풍류 계회는 조선 후기 이후 사대부의 성장과 확대에 이용되어 웅천계음과 해동기로회, 장미연, 동년회, 용두회, 칠로원암회, 갑계 등 다양한 유형의 친목계를 만들고 이를 기념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참여자의 인적사항인 좌목과 찬시를 곁들이는 회화형식이 대두하게 된다. 이런 계회는 고려 의종 연간에 발생한 것으로 왕희지의 난정수계와 백거이의 낙중(향산)구로회, 문언박의 진솔회(낙양 기영회) 등의 아회고사를 모방한 모임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34] 세종실록에 의하면 유관이 계하길,

고려에서는 당 나라의 법을 본받아 3월 3일, 9월 9일을 영절로 정하고 문무 대소 관원들과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음대로 즐기게 했는데, 3월 3일은 들판에서 놀아 이를 답청이라 했고,

---

33) 조선시대에는 백학산과 백악산으로 불렀는데 대부분 관찬지도에는 백악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1872년 〈장단지방도〉 역시 백악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1970년대 지도에도 백학과 백악은 병기되어 있다.

34) 홍선표, 2013, 「조선전기의 계회도 유형과 해외 소재 작품들」, 『미술사논단』 36권, 미술사학회, p1

9월 9일은 산에 올라 登高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태평성 세의 모습이 당송보다 뛰어나고 태평을 즐겨 하기에 알맞을 때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밝게 살피소서..[35]

따라서 고려에서부터 전해오던 동계가 조선에서는 답청연(3월 3일)으로 성행한 기록이 연산군 일기에 남아 있다. 이후 3월 3일은 '모춘(暮春)'이라 하여 풍년을 지내는 의식을 지내고[36], 정조 때 계축년에는 궁궐 내원에서 왕희지의 난정을 모방한 모임을 하기도 했다. 비단 계축년이 아니더라도 왕희지의 난정을 본 따 모임을 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우리의 세시풍속으로 정착을 해 삼월삼짇날 봄놀이 행사는 유행처럼 번지게 된다.

2. 장단 백학산 석각의 현황

가. 백학산 석각의 형성과정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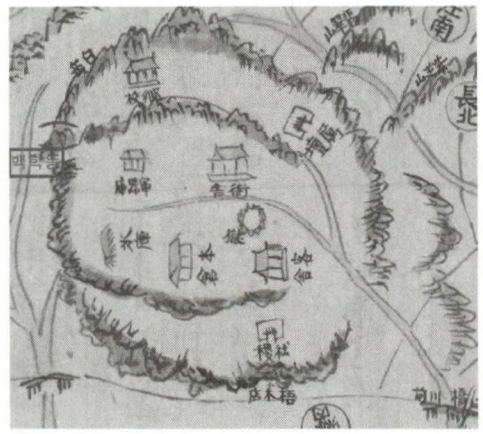
광무 3년 8월 (1899) 편찬된 『장단군읍지』에는 "백악산은 장단부의 서북에 위치하고 부의 진산으로 삼았다. 일명 백학산이라고도 한다."[37]라 적고 있다. 백학산 석각은 서문중 묘역을 지나 구릉으로 들어가므로 지명은 오봉골이다.[38] 지금의 읍치는 광해5년 계축년에 오목리로 읍치를 옮기게 된다. 『장단군읍지』에는 좌목, 지리, 공해 이외 산천이나 행사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소개되지 않았다. 다만 『경기읍지』의 「형승」 조에 이제현의 팔경시 속에 백악청운(白岳晴雲)을 소개하는데 그친다. 팔경시에 나오는 웅천계음(熊川禊飮)의 위치는 개성부의 남쪽 풍덕군의 사천으로 흐르는 지류를 말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웅천은 부의 남쪽 7리에 있는데 그 수원은 셋이 있다. 하나는 진봉산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제릉의 산 북쪽에서 나오며 나머지는 진관사의 동쪽에서 나오는데 동쪽으로 청교역 앞을 지나 풍덕군의 사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제현의 팔영 중에 웅천계음이 이곳이다."[39]

따라서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기 곤란하나 지도를 볼 때 사천지역은 평지가 많아 그 물의 근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판별할 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판적천의 근원이 속현 송림에서 나와 '백악' 이남의 물과 합류하여 사천으로 들어가 바다에 이른다."란 점에서 백악산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지류가 합치될 가능성이 있다.

---

35) 『세종실록』 11년
36) 『성종실록』, 성종24년 3월10일
37) 장단부, 1899, 『장단군읍지』, p11
38) 장단부, 『앞책』 p21: "徐文重墓 津懸內面五鳳谷"
39) 이행 외, 『신증동국여지승람』, 장단부

백학동 오봉곡(五鳳谷)[40]의 전체적인 구성은 숲과 계류, 그리고 아래 구릉에 평지가 있고, 장단부 관아와 향교와 연결이 된다. 현장조사에서 백학계류의 길이는 상당히 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계류 양옆으로 석벽이 형성되어 있어 제법 깊이가 있었다. 현재 석각은 모두 23개며 이 중 장소명은 구유암(龜遊巖), 영회대(永會臺), 아양대(峩洋臺) 3곳이 계류의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각자되어 전체적으로 3~4군데로 나눠져 있었다. 나머지 20곳 각석에는 이름이 각자되었는데 확인 가능한 이름은 113개이다. 이 중 두 군데는 몰자되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41) 이곳에서 발견된 구유암, 영회대, 아양대를 볼 때 정자와 같은 건물이나 조망이 가능한 너럭바위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현재 일부 교란되어 정확한 현장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2〉 장단군읍지지도(1899) : 백학동은 석각이 있는 곳으로 이제현의 팔영 '웅천계음'으로 판단된다.

〈표2〉 왕희지 난정서와 백학산 석각의 비교

	왕희지의 난정서	장단 백학산 석각
① 장소	절강성 산음: 자연적인 유상곡수	장단 백학산 백학동 자연적인 유상곡수
② 참여인원	참여인원을 난정기에 씀(42명)	참여인원을 석각으로 새김.
③ 연대	동진 353년(영화9년) 계축년 모춘	1853(혹은 1793년) 계축년 모춘 3월 3일
④ 계회	난정에서 수계 후 일상일영 즐김	수계는 확인되지 않으나 永會臺는 永和9년 난정의 재현으로 생각됨,
⑤ 참여자	산음의 유명인사를 난정서에 기록	석각에 기록. 장단과 장단 외의 유생 모임으로 판단되며 연대는 1853년과 다른 시기도 보임.
⑥ 정자	난정이란 정자가 존재	영회대, 아양대, 구유암 혹은 별도의 정자존재
⑦ 유상곡수	물의 흐름이 자연적인 곡류	현재도 곡류의 형태 잘 보존되어 있음
⑧ 시문	참여자 42중 26명의 시문이 있음	참여자의 이름은 있으나 시문은 미발견됨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장구지소와 난정의 재현 장소가 있지만 이처럼 자연적인 계류를 이용하여 난정을 재현한 곳은 몇 곳 밖에 알려지지 않다. 이곳이 왕희지 「난정서」를 재현한 장소로 보는 이유는 〈표2〉의 ① 개성과 인근한 곳에 위치해 고려 때부터 좌소로서 왕의 별궁 즉 신궁으로 위치해 많은 관인이나 사인에게 알려진 장소다. ② 동아시아 즉 중국과 일본에서도 난정수계도는 반드시 좌목을 기록한다. 이처럼 참여자의 이름을 영원히 기록하기 위해 돌에 113여 명의 이름을

40) 『장단군읍지』에 서문중 묘역을 오봉곡으로 기록하고 있어 석벽으로 가는 구릉도 오봉곡으로 추정함.

41) 저자는 난정수계의 재현이나 모방행사로 판단하고 경기일보에 기고한 바 있다. (김요섭 기자. 경기일보 「파주서 왕희지 난정기 재현 조선 유생 석판 명단 첫 발견」, 2019.02.21)

새긴 예는 드물다. ③ 난정서의 연대가 동진 353년에 발생한 일인 반면, 백학산 석각은 17c 초부터 시작된 바 1793년 혹은 1853년에 가장 활성화되었다. 이는 왕희지 난정서가 만들어진 지 1,500년이 된 때가 1853년이기 때문이다. ④ 난정수계가 열린 '永和九年之會'를 '永會'로 빗대어 영원한 만남을 의미하는 수계의 형식을 갖추었다.[42] 백학석각은 앞서 진양수계와 같이 수령과 지방의 유력인사를 중심으로 한 밀접한 인적관계가 중심이 된 계회의 결과다. 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관아와 향교가 바로 계류와 근접한 곳에 있다는 특징이 그 사실을 방증한다. 임방(1640~1724)의 화종남수계시(和終南修禊詩)에 의하면, 당시 난정서의 서문 전체를 운자로 삼아 시를 지었음이 나타난다. "왕희지의 〈난정서〉로 운을 나눠 시를 지었는데 '永'부터 시작하여 '含'에서 끝났네. '集'자 아래를 잇지를 못했는데 그대가 시를 지어 채워주지 않겠는가."[43]란 점에서 영회대(永會臺)의 의미가 짐작가능하다. 당시 ⑤ 참여자를 조사해 보면, 1613년부터 시작하여 1793년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그 전후의 사람도 다수 존재한다. 더구나 지역도 장단뿐만이 아닌 점은 어떤 성격의 계회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그러나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승경지로서 지속적으로 이용된 것은 분명하다. ⑥ 또한 정자의 유무에 관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실사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하지만 난정서의 구성이 정자에서 유상곡수연을 즐기며 시회를 평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자 혹은 높은 대는 필수적이다. 현재 '영회대'와 '구유암', '아양대'가 이 기능을 한 건지 아니면 누정과 같이 별도 정자의 형식을 갖추었는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⑦ 유상곡수는 난정수계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술잔을 띄우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가며 양 옆에 있는 선비들이 시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은 군부대로 물이 차단되어 있지만, 계류의 깊이를 볼 때 물의 양도 충분하여 깊은 곳은 약 1M 정도 물이 흘러 인공적인 곡수가 덧붙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버드나무, 대나무, 난초 각종 꽃 등 당시의 난정의 분위기를 재현했는지의 여부는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⑧ 왕희지의 『난정집서』에는 당시 유상곡수연을 하면서 26명은 시문을 적었고 나머지 16명은 시문을 못 적어 벌주를 마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백학산 석각에는 참여자의 이름은 있으나 아직 시문이 발견되지 않아 추후 시문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시문의 유무는 난정서의 재현인지 장구지소로서의 명승지인지 성격을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된다.

---

42) 최영성, 2019.2.11, 《경기일보 인터뷰 내용 6면》 (永會臺)
43) 임방, 『수촌집』 권2, 和終南修禊詩

나. 발견석각의 조성과정 및 참여자의 명단

발견된 석각 중 〈구유암〉, 〈영회대〉, 〈아양대〉는 앞서 언급한바 시회 및 계회를 시사하고 있다. 구유암(龜遊巖)에는 "癸丑 暮春"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어 왕희지의 난정서 재현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계축년은 아주 특별한 해로 1793년 계축 모춘 상조회가 정조의 주관하에 발족된 해라 구유암의 각석도 1793년 전후에 새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3〉의 〈A-1〉영역에 있는 구유암은 석각 중 제일 높은 지역에 있다. 〈A〉지역에 있어 가장 오래된 석각은 17c초, 중반에 조성한 〈A-10〉이다. 이 지역은 〈A〉지역의 하단에 있으며 영회대의 위쪽에 위치한다. 〈A-10〉의 '김수종'과 '이시정'이 17세기 초반 사람임을 볼 때, 전체 석각 중 〈A-10〉의 석각 이후 〈A〉지역의 나머지 석각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왜 17c 초에 석각을 처음 각자했을까. 그 이유는 첫째, 1613년이 계축년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장단도호부가 현 백학산 아래 공해를 옮긴 해가 바로 계축년이다. 둘째, 8년 뒤 장단부사는 겸방어사가 되고(1621) 이것이 초대 겸방어사 이서가 인조반정(1623)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44] 추정컨대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계축년 행사가 난정수계와 연관하여 지속해서 300년 가까이 장단부에서 이어진 원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또한 허목의 『기언』에 따르면, '鄭文亨'(각명에 나옴)의 아들 정희성의 묘가 장단 태장동 소재[45]한다는 기록을 남긴 것을 볼 때 부친 역시 장단 출신임이 확인되므로 17c초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석각은 테두리를 음각으로 파서 연정을 한 후 다시 음각으로 명단을 새겼다. 새길 때 북칠(北漆)을 했는지 수서(手書)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붉은 당주가 번진 것을 볼 때 당시 주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A-10〉의 각석 이후, 계축년을 기념하여 1793년 계축모춘에 〈구유암〉을 새기면서 다수의 각명을 새긴 것으로 생각된다. 연대로 추정해 볼 때 〈A-10〉이후, 1793년을 기점으로 〈A-4〉, 〈A-5〉, 〈A-6〉, 〈A-9〉, 〈A-11〉이 새겨지고 〈A-7〉, 〈A-8〉은 19세기에 들어와 새긴 것으로 판단된다.

〈B-12〉의 영회대(永會臺) 지역은 〈B-12〉에서 〈B-20〉에 해당한다. 이 중 '李松祐'의 명단이 있는 〈B-13〉과 〈B-14〉의 석각을 제외한 나머지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새긴 것으로 판단된다.

〈C〉의 아양대(峩洋臺)는 총 4개의 석각이 있는데 모두 석각의 새김질이 얕아 마멸된 이름이 더

---

44) '이서장군 선정비'는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민통선지역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으나 좌표가 없이 흑백사진으로만 남아 있어 이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2019년 파주민통선 1, 2차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되지 못했지만 2019-06-26일 차문성 파주향토문화연구소장, 감사 조진석, 연구위원 오순희 3명이 최견수 영농인 부부의 도움으로 이서선정비를 현 위치에서 찾게 되었다.
소재지 :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산57-2 서남향끝자락

45) 허목, 「구묘문」 (수양정군묘명), 『기언』 제23권

러 있다. 이 인물들은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인물로 가장 늦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A지역 '구유암'이 가장 먼저 조성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17세기 초, 중반이 가장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1793년, 1853년 계축 모춘일에 많은 인물의 석각이 새겨졌는데 당시 인물의 상당수가 유학(幼學)과 하위직 무과를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이는 경기지역의 겸방어사인 수령과 향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19세기에 유행한 〈속난정회〉를 통해 지역 계회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는 장단부의 이전과 겸방어사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구유암〉, 〈영회대〉, 〈아양대〉의 기준연도는 1793년과 1893년에 다수 각석이 이뤄졌지만 그 이전과 이후에도 지속해서 새겨져 왔음을 명단을 통해 알 수 있다.[46]

〈표3〉 백학산 계류석각: 23개의 석각 중 장소명 3곳, 명단 20곳 113명(이중 1개는 몰자)

	성명	관직	인물, 장소 관련한 기사		비고
구유암	최상단에 위치		인물과의 관계 고려할 때 1853년으로 추정		1500년 기념회
영회대	중단		인물과의 관계 고려할 때 구유암보다 늦음		19세기 후반
아양대	계류 하단		인물과의 관계 고려할 때 영회대보다 늦음		1900년 전후
A-1 석각: 龜遊巖					
A-2석각	李庸謙			未	19세기 중반-말
	李好謙			未	2차조사 확인
	李鎭赫			1885년 생원	
	李啓豊			1871 창덕궁 위장	
	張 暐			未	
	李鉉錫			未	
	全鍾振			未	
A-3	張緝勳			1886년 동지가설직	1870-90
	高鵬翼				
	秦錫萬				
	李根秀			1864 유생 응제 수석 이근수 / 궁내부특진관 진연의궤	
	金振翼				
A-4	李時恒			1823同知單/1850 幼學	
	金寬振				
	金義永			1792감동/1890학생	
	金鍾炆				
	朴□一				

46) 『임하필기』의 〈속난정회〉에 의하면, 1853년에는 난정서 1,500주년 기념으로 전국적으로 난정회를 모방, 재현한 〈속난정회〉가 유행처럼 이어진다. 이는 난정서의 의의와도 일맥상통하여 학연, 지연, 붕당의 계회다. 당시 수계와 좌목, 유상곡수연은 물론이고 이 모임의 그림을 그려 분급하여 나눠 갖는다.

A-5	鄭晩淳			1756 정언	
	金奎壁				
	全仁□				
	朴昊麟				
	千春根				
A-6	李晩柱				
	孔□柱				
	百命錫				
	李時觀			1799 역관	
	李漢柱			연암집 이몽직 아들? / 1892 만호	
	李松晩				
	金中植			1873 승보초시	
A-7	千完駿				1870-90
	朴文植			1882 전시 / 1885 마도만호	
	金奎鉉			1873 오위장 가설직	
	張敎寬				
	李豊集				
	金光淳			1868 경희궁 입직위장	
	韓百源			1880 추증 이조참의	
A-8	李學柱				
	李昌善				
	朴禮淳				
	朴齋桓				
	鄭在豊			1886 관직제수(분감역)	
	徐昌煥			1886 만호	
	李膺柱			1858 고돌산 별장	
A-9	李仁植				
	高德章			정조17년 계축년 동생 고덕손이 죽음	
	河濟萬				
	朴昊衆				
	朴滿亨				
	全學濟			1792 幼學	
	朴昊明				
	全益濟				
	全敏濟				
	朴昊駿				
	金亨權			후암집 1812	
	金完國			1794부지군 / 1823년 죄수기록	
	金枝洪				

A-10	金壽宗	생원	전남 부안	1672년 조부(祖父) 명열(命說) 허여문기(許與文記)/1725 전라도 생원상소?	
	鄭文亨		장단	정희성(1589-1638)의 부친(조부?)	기언 (손자 정희성의 묘가 장단 태장동 소재)
	李義惇				〈A-10〉지역이 가장 오래된 석각으로 판단됨.
	李時正	봉상정(奉常正)		광해군 10년 1618년	
	權逌憲				
	朴漢坤				
A-11	李枝淑			未	
	金德恒	醫治植敎授察訪	전라도	영조 1년 1725 전라도 유학 /1785 웅천의 한량	1793년 계축년 전후
	徐啓三			未	
	全鍾祐			未	
	李悌順			未	
B-12 영회대					
B-13	李松祐			1776 관학유생 진사	
	張□勳				
	李松□				
	金聲□				
	李時□				
	金□王				
B-14	李季皓				
	李善皓				
	南圭錫				
	李義植			1736 유학? / 1868안릉참봉, 1871 수문장	
	庚在和				
	李鍾衡				
	黃處五			1707년 알성시 병과 통덕랑	
B-15	朴忠源			1851년 경복장(무관)	
	金鍾殷				
	咸膺植				
	李貞植			1879입격하여 1880 의령원수봉관	
	黃河淸				
	朴晩華				
	李文皓				

B-16	李鍾哲			1886 전라병영장	
	徐渙興				渙 불확실
	金□夢				
	朴周恪			1886년 경상유생으로 나옴	불확실
	曺允燁				允 불확실
	崔五表				
	林學伊				
B-17	朴命孫			1839년 고성출신으로 나옴	지역이 달라 불확실
	金周孫				
	金三箕				
	鄭宗祜				祜→橋 불확실
	吳在東				
B-18몰자	□□□				
	□□□				
B-19	陳聖哲			1813년 입후관련하여 승정원 기록에 나옴	불확실함
	崔敬哲			1789년 별시	수어청 관무재
B-20	李殷集				
	李熙眞				
	金洙燁				
	金顯國				
	金秀玉				
	李鉉九			1867 수문장	
	鄭德永				
	高中赫				
C-21 아양대					
C-22	金□□				
C-23	李熙哲			1894년 유학 초시	
	金明澤			1901년 6품(영정모사도감)	
	張敎煥			未	
	李熙人			동학농민군으로 세성산전투?	1894(목천)
	全魯益			未	

다. 장소명의 유래

〈구유암〉의 유래는 이백의 『고숙십영(姑熟十詠)』 이란 시 중 "거북이는 연잎 위에서 놀고, 새는 갈대숲 속에 자노라.[47]"에서 인용한 것으로 당시 개울물이 고이는 연(淵)의 명칭과 연계된 장소

47) 윤기, 『무명자집』, 시고 제4책 : 龜遊蓮葉上 鳥宿蘆花裏(거북이는 연잎 위에서 놀고, 새는 갈대숲 속에 자노라.)는 천수를 누리는 삶을 표현한 것이다. (각주정보) 또한 '龜遊'는 '千歲龜遊之曲'의 등가에서도 불린다.

명이라고 판단된다.

〈영회대〉는 난정수계가 열린 영화9년지회(永和九年之會)를 '영회(永會)'로 빗대어 영원한 만남을 의미하는 계회로 추정하는데 측면의 글자 판독이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명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영회대〉 각석의 좌측 편에 희미한 글자가 남아 있다. 조사에서 '癸丑'과 '歲在(戊)년□□□'로 판단되어 19세기 후반경 각석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재(歲在)는 세차(歲次)라고도 하는데 「난정서」 에서 '歲在 癸丑'으로 나타나 구성에 있어 유사한 면이 보인다.[48]

〈아양대〉는 『열자』 에 "백아는 금을 잘 탔고 종자기는 소리를 잘 들었다. 백아가 금을 타면서 뜻이 높은 산에 있으면 종자기가 아아하기가 태산과 같다고 하자 종자기는 양양하기가 강과 같다"는 말에서 비롯한 글이다.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자신을 알아주는 이 없어 다시는 금을 타지 않았다는 일화에서 '아양'이란 말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는 계회를 의미한다. 영남사림의 후예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시회 중 아양음사(峨洋吟社)는 지기지우를 의미하므로 이 역시 끈끈한 형태의 계회로 모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아양대에는 연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변 석각의 인물을 볼 때 가장 늦은 연도인 1900년 전후로 생각된다. 아양대는 다른 석각보다 얕게 파 마멸이 심하지만 붉은 주칠은 여전히 남아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부터 백악청운, 웅천계회 등 명승지로 이름이 높은 이곳에서 모임들이 있어오다가 17세기 초, 중반 이곳에 계회가 있은 후, 조상우의 〈속난정회〉의 직간접적인 영향과 유행의 확산으로 석벽에 이름을 각자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1793년, 1853년 3월 3일 유생들이 난정서의 1,500주년을 기념해 삼월삼짇날에 이곳에 모여 〈구유암〉, 〈영회대〉 등 석각과 이름을 새겼다고 생각된다. 명단을 볼 때, 〈구유암〉이 가장 먼저 조성했고 다음으로 〈영회대〉 마지막에 〈아양대〉를 조성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곳 석각명단 중 다수가 유학(幼學)이며 하위직 무관출신이 많은 것을 보면 장단부 공해(公廨)와 장단향교와 밀접한 관계성을 보인다. 이러한 석각은 장단부의 관원이 중심이 되어 지방 유생과 어우러져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7월에 〈허경 선정비〉가 장단관아터 인근에서 발견되고 〈이서 선정비〉 역시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확인된 바 〈백학산 석각〉은 장단지역의 중요한 계회장소란 점이 강조된다. 이런 점에서 백학산 석각은 특정한 선현과 관련된 장소의 개념보다는 오랜 기간 전승된 명승지며, 계회장소의 일종으로 난정수계의 재현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48) 조선후기 금석문에는 '歲 癸丑年'과 같이 표기해 在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Ⅴ. 맺음말

백학산 석각은 다른 유례에서 찾기 힘든 113명의 인물들이 총 23여 개의 석벽에 새겨져 있다. 백학산 일대는 이제현의 팔영시에도 언급될 만큼 시회, 계음으로 이름이 높았지만, 그동안 난정수계와 웅천계음의 연관성은 제기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석각의 발견을 통해 이 같은 계음이 한 시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유생들이나 선비들이 수계와 놀이를 통해 수백 년간 이어진 계회장소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곳의 석각조성이 장단지역의 유생들과 관원들이 왕희지의 난정수계를 재현한 것이라고 볼만한 단서는 인공적인 요소를 포함한 몇 가지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백악청운〉으로 불린 백학산 일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오가던 곳으로 도원역에서 멀지 않으며 장단관아와 향교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 둘째, 참여자의 좌목을 여러 시대에 걸쳐 3개 장소에 23개의 석각을 새긴 것이다. 현재까지 17세기 초 석각이 가장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1613년 계축년은 장단 치소를 현재 위치로 옮긴 해다. 더욱이 8년 뒤 장단부사 이서가 초대 겸방어사가 되어 인조반정에 큰 공을 세운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전통이 19c 유행한 난정수계 재현과 더불어 〈속난정회〉로 이어지고, 계회와 회화의 전통을 계승한 것을 보면 이곳 백학산 석각에서도 동일한 추정이 가능하다. 아쉬운 것은 난정서처럼 명단과 시문이 함께 새겨진 것이 아니라 이름만 남아 있어 추후 시문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명단의 다수가 유학(幼學)과 하위직 무관 출신임을 볼 때 장단도호부의 이전과 인조반정과의 관계를 고려할 만하다. 셋째 유상곡수가 있어 일상일영을 고려할 때, 구유암, 영회대, 아양대 일대에 인공적인 차경요소와 정자를 조성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것은 주변 식생과 함께 난정의 재현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숲이 우거져 차경요소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사진3〉에서처럼 구유암 바로 위, 물줄기를 2개로 나눠 하나는 인공폭포를 만들고 다른 것은 저속으로 흐르도록 한 인공적인 수법이 있다. 아양대가 끝난 농원이 있는 지점에서는 초석이 발견된바 정자로 추정된다. 추후 차경요소와 일상일영을 가능하게 하도록 설치된 인공적인 부분의 확인이 필요하다. 넷째, 구유암에 있는 "계축 모춘"이란 글씨는 1793년 정조가 상조회를 만들어 노장과 관직을 구분하지 않고 난정모임을 만든 것에서 비롯한다. 이런 의미에서 〈속난정회〉가 유행한 1853년을 계축모춘 석각의 연도와 연계할 수 있다. 즉 1613년 이후 장단향교와 장단도호부 관아터, 그리고 고려 신궁의 위치가 바로 이 일대에 있다는 것은 장단부의 역사성과 승경지와의 연계성이 짐작되는 바며, 시문이 없이 명단만 각자된 것을 볼 때 그 조성목적 역시 시회보다는 계회일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조선 초

에 유행하던 향음주례를 계축년 모춘에 계회를 빗대어 시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백학산 석각은 DMZ 인근에 있어 민간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이 아니다. 군사지역으로 인한 문화재의 보존은 인공적인 훼손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순기능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문화재의 풍화현상과 군사지역으로 인한 방치는 원형경관의 훼손이 염려되는 부분이다. 이를 볼 때 조속히 문화재 전문가들의 조사가 이뤄져 해당 문화재와 주변 지역의 정확한 성격과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구명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문헌

「속난정회」,『임하필기』,

『경기읍지』

『고려사절요』 30권, 신우1 무오년

『동사강목』 제9하, 갑오년

『세종실록』 11년

『익재집』, 송도팔경 중 백악청운 1편

『장단읍지』, 1842

『전당시』 권 585

『정조실록』, 정조 17년 계축(1793) 3월 20일(계축)

김일손,『속동문선』16권

서거정,『사가집』,「迎接都監諸郎禊會圖」2수 주석, 한국고전번역원, 2007

승정원일기 1727책, 정조 18년 3월 15일)

왕희지,『난정집서』

應劭,『風俗通儀』,「祀典」

이규경,『五洲衍文長箋散稿』經史篇

이유원, 1871,『임하필기』 권25

이행 외,『신증동국여지승람』, 장단도호부

이행 외,『신증동국여지승람』, 장단부

임방,『수촌집』 권2

장단부, 1899,『장단군읍지』

장유,『계곡만필』 제1권

논문

강필임,「당대 시회의 통시적 변화 -상사일 시회를 중심으로-,『중국학보』81

龜田和子, 2012,「蘭亭圖の 圖像解釋學」,『Art Research』, Hawaii Pacific University

권석환, 2005,「중국 강남지역 아회문화의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중국문학연구』제32집

권지영, 2013,「시문을 통해 본 호남지방 별서정원의 명승적 가치」, 상명대석사

김아름, 2016,「조선시대 역원의 조사 체계화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사학과 석사

박철상, 2012,「왕희지 난정수계의 수용양상과 시사에 미친 영향」,『한문학보』제26집

정다움, 2012,「동아시아의 난정수계도 연구」, 홍익대 동양미술사학과 석사

조은서, 2017,「난정서의 서예미에 관한 연구」, 대전대 서예학과 석사

최치원,「謝示延和閣記碑」,『계원필경집』제18권

홍선표, 2013,「조선 전기의 계회도 유형과 해외소재 작품들」,『미술사논단』제36호, 미술사학회

단행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아름, 2016,『조선시대 역원의 조사 체계화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편찬, 2003,『漢韓大辭典』6, 단국대학교출판부

徐海荣, 2002,『主编 中国酒事大典』, 华夏出版社

한국관광공사, 2002,『개성파주지역 관광타당성연구』

참고사이트

김요섭,「파주문화원 임진강석벽 우의정 조상우 4언시 최초 발견」, 경기일보 기사

최영성, 2019.2.11,《경기일보 인터뷰 내용 6면》(永會臺),

여 백

접경지역 김포의 포구문화

- 김포시 조강에 있는 포구문화를 중심으로-

정 현 채 (김포문화원 사무국장)

目 次

1. 머리말

2. 김포시 도시명칭 시대별 변천

3. 김포시 11개 포구

4. 접경지역 김포 조강(祖江)

5. 조강의 강녕포구(康寧), 조강포구(祖江), 마근포구(麻近)

6. 신유한의 조강행(祖江行), 조강포구 마을 풍경

7. 조강에 있는 통진현과 북한 풍덕군의 지리

8. 통진현, 풍덕군의 수산물과 조강도(祖江渡)

9. 맺음말

집필자 **정 현 채**

김포문화원 사무국장 / 前 고등학교 교사 / 前 사)지역문화전략연구원 대표
김포시 민속예술 지경다지놀이, 조강치군패 발굴 재연
경기무형문화재 통진두레놀이 계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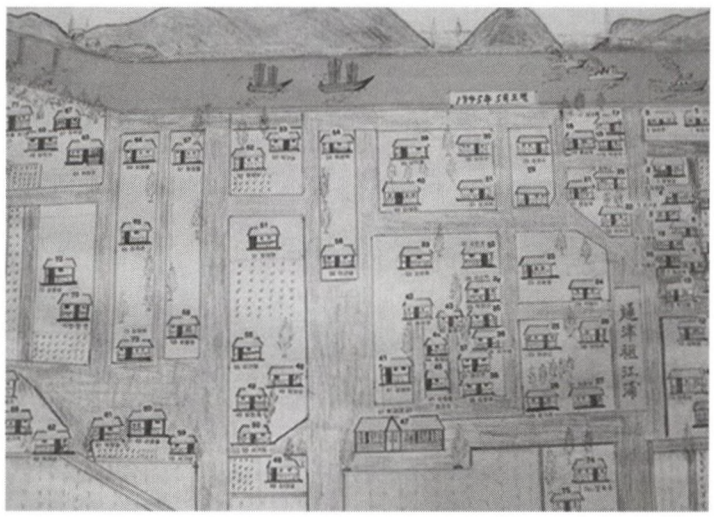
1. 머리말

1914년 4월 1일 일제강점기에 각각의 행정기능을 하고 있던 김포군, 통진군, 양천군이 김포군으로 통폐합되었다. 양천군[1]은 1963년 서울로 편입되어 김포군과 통진군이 김포시의 행정구역이었으나 이 중에 검단이 인천으로 편입되어 현재 행정구역에서 김포(金浦) 포구는 과거 24개에서 11개가 남아 있다.

11개의 포구 중에서 나루터의 기능은 초지대교와 강화대교의 건설과 분단이 되면서 단절되고

전류리포구와 대명항이 현재 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조강에 있었던 포구 중에서 강녕포구와 조강포구, 마근포구마을은 1953년 휴전이 되면서 포구마을 자체도 소개되어 지금은 철책과 논으로 바뀌었다.

집이 있었던 곳(垈地)이 논(畓)으로 바뀌었으며, 집터에 벼농사를 짓고 있는 형국이다.



〈1953년 소개된 조강포구 마을〉

〈11개 포구 중, 강녕, 조강, 마근포구〉

1) 현재 서울 양천구 · 강서구

김포의 포구 중에서 북한과 접경지역으로 남아 있는 조강에 있는 포구를 중심으로 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김포시 도시명칭 시대별 변천[2)]

김포현의 변천 과정

고구려시대 검포현(黔浦縣)이다.

신라시대 757년 경덕왕 16년 때 김포현(김포, 고촌, 검단 지역)으로 고쳐서 장제군(長堤郡 부평)의 속현으로 만들었다.

고려시대 1198년 신종 원년에 어태(御胎)를 매장하고 현령을 두었다.

조선시대 1414년 태종 14년부터 2년간 양천현과 통합하여 금양현(金陽縣)이라 했다.

조선시대 1632년 인조 10년 장릉(章陵 선조의 다섯째 아들 원종(元宗)과 인헌왕후(仁獻王后)의 묘)을 추존하고 김포군(郡)로 승격시켰다.

통진현의 변천과정

고구려시대 평회(平淮) 회(淮)를 유(唯), 압현(押縣), 비사성(比史城), 별사파의(別史波衣)라 했다. 호유압현이다. 신라시대 757년 경덕왕 16년 때 분진현(分津)(통진, 월곶 지역)으로 고쳐서 장제군(長堤郡 부평) 속현으로 만들었다.(2017년 기준 1260년) 동성현(하성지역), 수성현(양촌,대곶 지역), 공암현(서울 강서구)으로 나누었다.

고려시대 940년 태조 23년에 분진현을 통진현으로 변경했다.

고려시대 1391년 공양왕 3년에 동성, 수안 두 현을 합병하였다.

조선시대 1413년 태종 13년에 통진현에 현감을 두었다.

조선시대 1694년 숙종 20년에 통진도호부(都護府[3)])로 승격하였다.

조선시대 1895년 고종 인천부 통진군으로 개편하였다.

---

2) 조선왕조실록 김포현, 통진현 기록에서 요약

3) 도호부는 읍격(邑格)상 목사와 군수의 중간에 해당된다.
1894년에 군으로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고려, 조선시대 지방 행정기구다

조선시대 1896년 고종 경기도 통진군으로 개편하였다.

□ 고구려 금포현 → 신라 김포현[4] → 김포는 지금까지 그대로다
□ 고구려 호유압현 → 신라 분진현 → 고려 통진현 → 김포군으로 통합된다.

3. 김포의 11개 포구[5]

ㅇ섶골나루(김포시 고촌면 풍곡리)

주막이 5개 정도 있었으며 한강을 오르내리던 어선이나 나룻배들이 마을로 식량을 구하러 정박했던 어촌마을. 임진왜란 때는 행주산성 전투에서 왜국 전선(戰船)이 마을 앞강을 지날 때 장작에 불을 붙여 강을 지나는 왜선에 불살랐던 장작마을이라는 뜻에서 섶골이라는 지명이 유래했다.

ㅇ감암나루(감암포 김포시 운양동 산2번지 일원)

고려와 조선시대 강 건너 고양시 이산포나 서울 마포를 오고가던 나룻배들이 정박했던 곳으로 조선시대 중봉 조헌선생이 우국충절을 달래며 낚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ㅇ운양나루[6](김포시 운양동 1245번지 일원)

서울 마포와 고양군 법족리를 왕래하던 나루, 태종5년(1405년) 정도명이 강화도로부터 세곡물을 싣고 가던 중 간조가 되어 운양나루에서 정박하였는데 그날 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 배 밑에 석불이 있으니 절을 짓고 석불을 모셔라"하여 배 밑을 보니 미륵불이 있어 용화사를 창건하였다는 유래가 전해온다. 용화사는 1962년 전통사찰로 제64호로 지정되었으며 당시의 미륵불은 김포시 향토유적 제7호로 지정되어 대웅전에 모셔져 있다.

---

4) 삼국사기 지리(地理 二 新羅)

5) 경기도 발행 물길이야기(2008) 자료 참조

6) 나루는 강이나 내, 좁은 바닷목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일정한 장소를 뜻하고, 나루터는 나룻배가 닿고 떠나는 곳으로 배가 정박하고 출항하는 장소이다. (나루터는 나룻배가 닿고 떠나는 일정한 곳이다. 배가 닿고 떠나는 장소를 뜻한다. 나루는 강이나 내, 좁은 바닷목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일정한 곳이며, 배가 건너다니는 장소를 뜻한다. 나루터는 배가 정박하고 출항하는 장소며, 나루는 강에서 배가 일정한 곳을 건너다니는 곳을 말한다.) 대곶면 대명나루는 김포 대명리에서 강 건너 강화 초지진으로 건너다니는 것을 말하며, 건너다니는 배가 정박하고 출항하는 곳을 대명나루터라 한다. 대명나루터는 현재 대명항이다. 나루터에는 주막, 점막이 있었다.

○전류정나루(김포시 하성면 전류1리)

봉성산의 동쪽 돌출부가 한강과 접해 절벽을 이룬 곳에 있던 나루터로 조선지지에 전류리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마근포(조강에 있는 포구 김포시 하성면 마근포리 124번지 일원)

고려와 조선시대 물화를 실은 배들이 강 건너 북한의 개풍군 임한면 정곡리 사이를 왕래 했던 곳으로 6.25전쟁 이후에는 포구마을이 소개되어 나루터 기능이 상실되었다.

○조강포[7](조강에 있는 포구 김포시 하성면 마근포리 124번지 일원)

이규보의 조강부. 토정 이지함의 조강물참, 백원항. 신유한 등 고려, 조선의 문인들이 글을 남긴 곳이다. 포구에서 유일하게 전승되어온 용왕제와 치군패가 있었으나 현재는 치군패만 복원 되어 전승되고 있다.

○강녕포(조강에 있는 포구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14번지 일원)

1914년 일제가 홍룡리와 강령포를 합하고 두 마을에서 한 글자씩을 취하여 현재의 용강리가 되었다. 이곳에는 용과 연관된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으며 김포에서 포구민속마을로 복원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 남이 있는 곳이다. 이계월 주막과 이계월 묘가 전해져 오고 있다.

○갑곶나루(염하에 있는 포구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263-10번지)

조선 세종(1419) 박신이 13년 동안 통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사재를 들여 축조한 선착장으로 1970년 강화대교가 건설되기 전까지 김포, 강화도 갑곶리를 배로 연결해주던 곳이다.

고려 고종때 몽고가 침입하자 왕이 강화도로 피난을 가기 위해 군사들이 갑옷을 쌓아 놓고 건널 수 있다는 데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정묘호란에 인조가 건넜던 곳이며 병자호란 때에는 봉림대군이 건넜고 병인양요 때에는 프랑스군과 격전을 벌인 곳이다.

---

7) 포구(浦口)는 배가 드나드는 개의 어귀를 말한다. 포(浦 개포)는 조수가 드나드는 곳으로 배가 들어오고(入) 나가는(出) 곳을 말한다. 포는 물가, 바닷가를 말하며 강가에 있는 강상포구와 바닷가에 있는 해상포구로 구분된다. 김포는 강상포구로 볼 수 있다. 김포에서 포구는 조강포구와 강녕포구 대표적이다. 이곳에는 물건을 파는 곳과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배를 수리하는 조선소와 포구마을이 형성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등이 있었다. 바로 그러한 곳이 통진현의 조강에 있었던 포구다. 이곳이 지역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ㅇ원머루나루(염하에 있는 포구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강화도 화도를 오고가던 나루터이며 정월에 용왕제를 지냈다.

ㅇ덕포(염하에 있는 나루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1127번지 일원
대곶면 신안리와 강화도의 광성보 사이를 왕래하던 뱃길

ㅇ대명나루(염하에 있는 나루 김포시 대곶면 대명 4리)
김포 대곶면과 강화도 초지리를 왕래하던 나루터 현재는 대명항이라 한다.
음식을 팔고 유숙하는 점막(店 가게점, 여관, 幕 막막, 군막)이 있었다.

4. 접경지역 김포 조강(祖江)

조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현재의 김포시와 북한의 개풍군의 문화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조강을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는 마을문화를 살펴본다.

70년 동안 남북이 철조망으로 경계를 세우고 왕래가 없어서 세밀하게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 남쪽의 김포시 월곶면과 하성면에 있었던 포구마을도 민통선으로 사라져 당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듣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쪽을 조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남쪽도 마찬가지다. 접경지역(접적지역)의 어려움이다. 70년 동안 단절되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것이 정지되어 조강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포구를 중심으로 문물의 왕래가 빈번했던 곳이다. 임진강과 한강, 염하의 중심지역이 조강 祖江이다. 김포에서는 이곳을 "할아버지 강"이라고 부른다. 조강포구에 살았던 할아버지는 "삼한의 강"이라 하였다. 삼한(三韓)의 江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삼한, 삼국이 번갈어가면서 이 지역을 영토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을에서 불렸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 또한 한강하구의 문화다.

경기도 김포시(金浦市)와 조강(祖江)의 의미

김포는 포구도시다. "金"은 땅(쇠)을 뜻하고 "浦" 는 물을 뜻한다. 김포는 예전부터 김포라는 명

칭 이외에 김포반도라 불렸다. 내륙에서 반도를 사용하는 곳은 경기도에서는 임진강의 장단반도와 한강의 김포반도다. 반도의 명칭을 서해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은 태안반도와 변산반도다. 김포는 서해안과 직접 연결되었고 김포 내(內)의 지명에서도 "월곶(月串)", "대곶(大串)"의 "串"을 사용하고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땅(地)의 문화와 물(水)의 문화가 전해오고 있다.

자연의 이치에서 조강(祖江)의 의미

조강(祖江)은 한반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의 중앙에 있다. 조강은 서해에서 밀려오는 밀물이 合水하여 임진강과 한강으로 나누는 기점이요 한강과 임진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合水하여 다시 서해로 나가는 썰물의 중심이요 기수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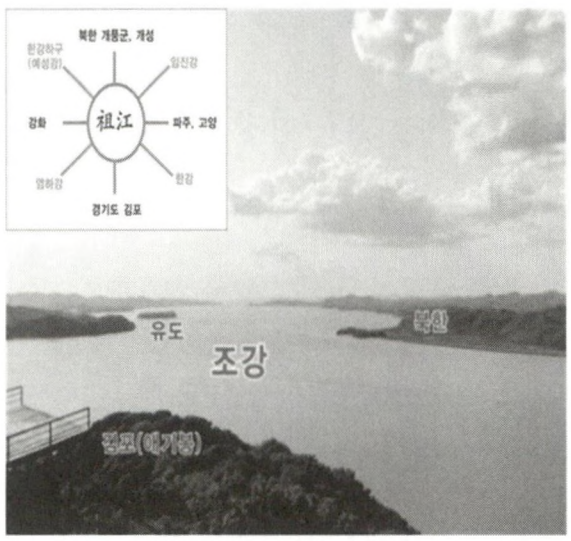
고려문신 이규보의 『축일조석시(逐日潮汐詩)』와 조선시대 토정 이지함이 이곳에서 지은 『조강물참』은 선박운행의 기준이 되었다. 조강의 명칭에서 할아버지 "祖"로 사용하는 이유도 한강에서 조수간만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 한다.

조강(祖江)을 한자로 직역하면 할아버지 강이요 조상의 강이다.

조강은 강의 시작(始)이요 강의 마침(終)이다.

강(江)의 조종(祖宗)은 한강이나 조강은 시종(始終)의 강이다. 밀물 때는 염하와 한강이 조강에서 하나가 되고 썰물 때는 임진강과 한강이 조강에서 하나가 된다.

둘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에서 둘을 낳은 시원의 강이요 중심이며 근원이 되는 江이다.



조강을 통과하는 선박의 이동경로 8)

조강에서 60년 전에 선박을 운영했던 선주들은 6.25 전쟁 당시에 배들이 징집 당해 인천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1953년 이후 지금까지 조강은 선박들의 운행 금지구역으로 정지되어 있다. 강의 터전을 잃으면서 자연적으로 문화도 사라졌다.

8) 마포에서 발행한 마포구지 자료 참고

㉠ 남쪽의 시선배의 이동경로는 인천 → 선돌목(김포 염하 손돌목) → 조강목(김포 조강포구 앞) - 감바위(김포 감박산) → 염창목 → 마포에 이르렀다.
㉡ 북쪽의 시선배의 이동 경로는 백사포 → 청지골(강화 교동 뒤) → 닭머리 → 산이포(강화 철산리) → 조강목(김포 조강포구 앞) → 마포 였다.
㉢ 다른 하나의 이동 경로는 굴레목 → 보름도(강화도) → 선수리(강화도) → 외포리(강화도) → 산이포 → 조강목(김포 조강포구 앞) → 마포에 이르는 항로를 택했다.
㉣ 다른 하나는 큰골(장봉도와 주문도 사이) → 시도 → 진염 → 황산도(김포 염하 앞) → 선돌목(김포 덕포진 앞) → 마포의 항로를 택했다.

모든 선박들이 서해안에서 마포로 가기 위해서는 조강목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특히 선돌목(김포 덕포진 앞. 염하 손돌목)을 통과하는 배들은 선돌목의 수세가 극히 사나워 외지의 배들은 그곳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지세에 밝은 사공을 고용하여 운항하였다고 한다.

5. 조강의 강녕포구(康寧), 조강포구(祖江), 마근포구(麻近)

태백 검룡소에서 발원하여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한강하구에 조강이 있다. 한강은 서해 바다의 이무기가 검룡소까지 올라가 용이 된다는 설화가 있으며 조강에는 여의주를 비롯한 용의 설화가 집중되어 있으며 서해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다.

조강은 김포시 하성면 돌곶이를 지나면서부터 유도 앞까지의 한강하류를 조강이라 부른다. 염하는 짠물이라는 뜻으로 유도 밑에서부터 강화대교를 거쳐 원머루나루와 덕포, 덕포진을 지나 대명항 아래까지를 김포에서는 염하라 한다. 염하는 김포와 강화가 마주하는 강이다. 이곳에 손돌목이 있다. 조강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은 조강리, 조강도, 조강물참, 조강포구, 상조강, 하조강, 조강거리다.

"조강(祖江)은 현(縣) 북쪽에 있다. 【나룻배가 있다. 황대구[黃大魚]가 나는데, 〈이 고기는〉 다른 곳에는 없으므로 선덕(宣德) 때에 명나라 사신이 황제의 명으로 와서 구해 갔다. 】"[9]

9) 조선왕조실록(지리지 / 경기 / 부평 도호부 / 통진현)

조강포구

조강포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모든 세곡선들과 물화를 실은 배들이 개성과 한양으로 가기위해 거쳐 가던 포구다. 서울로 들어가는 어구로 한강과 임진강이 합쳐지는 곳으로 수로 교통의 요충지다. 이곳은 서해안 해산물의 집산지요 고기잡이 포구로 동국여지승람에 조강도로 기록되어 있다.

이곳은 토정 이지함(李之涵)이 조수간만(潮水干滿)의 때를 측정하여 "조강물참"[10]이라는 일화를 남긴 곳이다. 이지함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찾으며 강화와 유도 및 강녕포구를 거쳐 조강포로 오면서 조강포구 뒷산에 있는 큰 우물 둥치에 움막을 짓고 달뜨는 시간과 좀생이별을 보면서 밀물과 썰물의 기준을 잡았다고 한다.

조강포구 마을

조강리 주민들의 2/3는 어업에 종사하고 1/3은 농업에 종사하였다. 조강에서는 여름에는 새우와 복어, 깨나리가 많이 나고 가을에는 뱀장어와 숭어 농어가 많이 나는 곳으로 고기 맛이 좋았다고 한다. 현재 조강리는 조강포에서 살다가 소개 이후 이사를 나온 사람들은 실제 주소와 지번이 다르다고 한다. 이곳도 강녕포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포구에서 살던 집터는 모두 논과 철책이 되었다.

조강포를 오기 위한 중간지점인 조강거리는 현재 통진읍 마송에 있으며 1950년 조강포에는 80호가 살았다. 이곳에 있는 강습소는 일제강점기에 포구마을회관 역할과 학교 역할을 하던 곳으로 인근의 가금리와 개곡리 일대에서 배우러 왔다고 한다. 홍수 시에는 집 마루까지 물이 차기도 하였으며, 화물(나무 등)은 강녕포구를 이용하고 사람들(객선)은 주로 조강포구를 이용했다고 한다.

조강포구 치군패(포구 민속예술)

정월초이레에 시작해서 정월 대보름까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농악놀이를 하였다. 해방이후에

---

10) 고려 이규보의 축일조석시(逐日潮汐詩) '사흘은 토끼때 사흘은 용때 사흘은 뱀때 하루는 말때이며 양때도 세번 잔나비때도 두 번인데 달이 기운후에도 이와 같도다

는 3. 1운동 행사 후에 현 월곶초등학교(일제시대 주재소) 자리에서 밤 11시까지 농악놀이를 하였으며 용강리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을 여(女)복을 입혀서 나가면 꽃밭이 되었다고 한다.

농악놀이 편성은 꽹과리와 북, 장구, 태징, 제금, 호적과 법고놀이 등으로 인근의 다른 마을과 같으나 무동까지 하였던 곳을 보면 포구를 중심으로 농악놀이가 화려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마을과 행사장에서 만나면 운동장에서 각 마을이 동시에 농악놀이를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마을끼리 겨루기가 되고 성패는 구경꾼들이 많이 몰리는 쪽이 이기게 된다고 한다.

6, 25 전쟁 이후에는 조강이 정지되면서 농사를 짓고 살았으며 이때부터는 주로 김매기를 하면서 농악놀이를 하였다.

강녕(康寧)포구와 용강리

용강리는 유도(머무루섬)와 인접해 있으며 강녕포구와 문수산 사이에 들판이 형성되어 있어 1950년 6. 25 전쟁 전 까지는 반농반어 촌으로 수로와 육로의 교통이 발달된 곳이다. 고려시대에는 300여 호의 촌락이 구성될 정도로 조강포와 함께 큰 마을을 형성한 곳이다.

강녕포구는 북한의 영정포와 마포 및 문산포, 조강포와 함께 한강 5포로 불렸다고 한다.

이곳의 할아버지들은 용강리를 "이기울"이라고 부른다. 고려시대 말에 풍류에 능하고 미색인 "이계월"이라는 여성이 개성에서 강녕포구로 이주하여 살면서 고려가 망하며 몰락한 옛 선비를 그리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이계월의 묘는 김포군 지명유래집에 「쇄기부리에 있는 고려 때의 기생 이계월의 묘라 전해오는 고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1953년 휴전 이전에 강녕포구는 50호가 거주하였으나 민통선으로 확정되면서 강녕포구 사람들은 현 용강리 자리로 소개되어 나오게 되었다. 현재 강녕포구 마을은 논으로 변했다.

부엉바위산 마근포(麻近浦)

사날들과 해지기들 인근에 마근포가 있다. 마근포가 있는 부엉바위산에는 부엉이가 깃들던 바위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불렸으며, 용왕제를 지냈던 산으로 당집이 있었다. 용왕제는 조강 주변 각 포구마을에서 공통으로 지냈으며, 조강포구에서는 나흘간에 걸쳐 준비하고 지냈다고 한다.

마근포도 강녕포구와 조강포구와 마찬가지로 6.25 전쟁이후에 마을이 소개를 당하여 마을 전체가 이주를 하였다. 현재는 포구마을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마을의 자취는 문서상에 지번으로

만 남아 있다.

마근포(麻近浦)는 나루터의 기능도 했던 곳으로 조강 건너 북한의 개풍군 임한면 정곶리 사이를 왕래 하던 곳이다. 강녕포구가 주로 화물을 취급하고, 조강포구가 사람과 물자를 북한과 서울의 마포로 오고가는 길목의 역할을 하던 것처럼 이곳도 같은 기능을 했던 곳이다. 조선지지자료에 "마근개 주막"이 등재되어 있다.

애기봉 애기이야기

애기봉은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방문해 봉우리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애기의 한(恨)은 강(江)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가지 못하는 1천만 이산가족의 한과도 같다며, 그동안 154고지로 불리던 이 봉우리를 '애기봉'이라고 이름하고 전망대 밖 오른쪽에 친필휘호로 '애기봉'이라는 비석을 세웠다. 비석의 아랫부분에 있는 시는 故 노산 이은상이 이곳을 둘러보고 느낀 감회를 시로 표현해 부대에 헌시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애기봉은 1636년 청나라의 침략으로 한양을 향해 피난길에 올랐던 평양감사와 사랑하는 여인 "애기"가 조강 건너 개풍군에서 청나라 군인들에게 잡혀간 평양감사를 목메어 기다리다 묻힌 "애기"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다.

백제 낭자이야기 [11)]

"1500여전 전 삼국시대에 고구려가 영토 확장을 위해 백제를 침략 할 때의 일이다. 고구려 병사 한 사람이 백제의 낭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 후 백제군이 전세를 가다듬어 반격에 나서자 고구려군이 한수(漢水) 이북으로 패퇴하게 되자 병사는 낭자에게 다시 오마 굳은 약속을 남긴 채 후퇴하였다. 그 후 낭자는 매일 같이 이 산봉우리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며 낭군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일편담심으로 강을 건너려다 개펄에 빠져 죽었고, 그 자리에서는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났다 하여 연화봉(蓮花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11) 김포시 지명유래집 자료

조강의 용의 설화와 여의주 유도(留島)

강녕포구와 유도 사이에는 바위가 있어서 물살이 세다고 한다. 가을에는 물살이 천둥소리처럼 들릴 정도다. 유도에는 물이 나오는 웅덩이가 있다. 웅덩이에서 나오는 물로 농사를 짓고 식수로 사용하였으나 막걸리 담는 물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유도가 있는 조강은 밀물과 썰물의 합수지점으로 조강에 흐르는 물로는 식수와 농사에 사용할 수가 없다.

유도는 육지에서 500여미터 떨어져 있으며, 이 섬은 홍수에 떠내려 오다가 이곳에서 머물렀다는 전설과 함께 머무루섬이라 불렸다. 섬의 형태는 개가 누운 모양이라고 하며 서쪽이 머리에 해당한다. 입과 코에 비정(比定) 되는 부분에는 동굴이 있고 그 속에는 이무기가 살고 있다고 전해온다. 팔정지하구묘하(八井之下九墓下)라 불렸으며, 유도를 용의 여의주라고 한다. 강녕포구를 중심으로 용연, 용부리. 용허리 등 용의 설화가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육지가 용의 몸체가 되고 유도가 여의주가 된다.

물이 솟아나는 용연(龍淵)과 기우제

용연은 문수산 북쪽에 있다. 영조 37년(1760)에 간행된 『여지도서』의 통진부편에 실린 통진부 지도에 용연이 그림과 함께 표시된 이래 통진부 관계 문헌이나 읍지에 계속 언급될 만큼 유명한 연못이다. 용강리는 문수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용연에서 자체적으로 솟아나는 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지금도 물이 바닥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서 연못을 이루고 있다.

용연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이무기가 뭍에서 천년, 물에서 천년을 살아야 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하늘은 마을 사람들의 심성이 어질어 보배와 같은 연못을 마을에 만들어 주었다. 이곳에서 이무기는 천년 동안 살 수 있었고 마침내 승천하여 용이 되었다고 한다. 용연 주변에는 오리나무를 심었고 조선시대에는 통진 현감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6. 신유한의 조강행(祖江行), 조강포구 마을 풍경 [12)]

17세기 초 신유한이 지은 「조강행(祖江行)」 의 배경이 된 포구마을은 6,26전쟁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선박의 출입이 정지된 옛 조강과 포구 모습을 신유한이 『조강행』 에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김포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통진이 김포를 먹여 살렸다는" 이야기에서도 조강포구가 번성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강행 주요 내용 요약

청전은 봄날에 작은 배를 타고 한강을 유람하던 중에 조강포구에 다다른다. 날은 저물고 조강포구 선착장에 배를 대고 주변의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포구의 촌로로부터 조강이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합수하는 곳임을 듣는다. 해 질 무렵 포구의 거리를 다니면서 베(명주실, 옷), 고기, 소금, 과일, 쌀 등을 산처럼 쌓아 놓고 매매하는 상점들의 풍경과 아름다운 미녀들이 단장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술을 파는 젊은 기생들과 수작하는 뱃사공, 길손들이 주고받는 노랫소리와 날마다 새롭게 흐르는 강물에 빗대어 술잔을 기울이고 팁을 주는 주막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다.

일천 척이 넘는 많은 배들이 강에 띄워져 있거나, 작은 배들이 베틀의 북처럼 일렬로 붙어 있는 선착장의 모습이 대동강도 견주지 못할 정도로 조강이 풍성하고 번성한 항구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7. 조강에 있는 통진현과 북한 풍덕군의 지리 [13)]

조강(祖江)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김포시에 통폐합된 통진현과 개풍군에 통폐합된 풍덕군 지

---

12) 신유한(申維翰 1681－1752)이 지은 조강행(祖江行)이란 시에서는 조강포구 마을의 풍경을 기록하고 있다. 신유한은 숙종과 영조 시대의 문신이다. 본관은 영해(寧海)이며 자는 주백(周伯), 호는 청천(靑泉)이다. 경상도 밀양 출생이다. 1705년(숙종 31) 진사시에 합격하고, 1713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19년 제술관(製述官)으로서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저서로는 『해유록』 과 『청천집』 이 있다. 청천은 서출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관로는 순탄치 못했으나 문장으로 이름을 떨쳐 당대의 문인들과 두루 교분이 있었으며 말년에는 경학의 연구에도 힘써 많은 저술을 남겼다. 조강행은 청천집에 있다.

13) 신증동국여지승람 통진현, 풍덕군 지리

리, 특산물, 산천, 인문 등의 특색을 『신증동국여지승람』 의 기록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그것은 문화가 단절된 조강을 중심으로 공동문화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통진현 지리 [14]

동쪽으로 김포현 경계까지 33리이고,
남쪽으로 부평부 경계까지 33리이며,
서쪽으로 강화부 경계까지 9리이고,
북쪽으로 풍덕군(豐德郡) 경계까지 15리인데,
서울과는 1백 14리 거리이다.』

풍덕군(豐德郡) 지리

동으로 장단부계(長湍府界)까지 39리,
남으로 통진현계(通津縣界)까지 34리,
서로 개성부계(開城府界)까지 17리,
북으로 개성부계까지 15리,
서울과의 거리는 1백 79리이다.』

통진현과 풍덕군의 문학 [15]

『고려 백원항(白元恒)의 시에, "나룻배 떠날 무렵 늦은 조수 밀려 왔는데, 말을 멈추고 나루에 서서 홀로 쓴웃음 짓네. 언덕 위 세상 사정은 어느 날에나 끝 날건가. 앞 사람이 건너기도 전에 뒷 사람이 왔네."』 백원항의 행도조강유작(行到祖江有作)이다

『이규보(李奎報)가 우보궐(右補闕)로부터 탄핵을 받아 계양수(桂陽守)에 제수되어 이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강물이 본래 세찬데다가 마침 폭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건넜으므로 부(賦)를 지어 슬퍼하였다.』 는 이규보의 조강부다.

---

14) 지리 참고자료 © 한국고전번역원 | 홍찬유 (역) | 1969〉
15) 신증동국여지승람 자료

두 사람의 작품은 개성에서 출발하여 통진현으로 건너오는 조강(祖江)에서 지은 시(詩)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이외에도 조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에 이곳(통진현)에서 작품을 남긴 인물은 박제가의 『북학의』, 장만장군, 최명길, 김상헌의 손자 김수항, 무명자 윤기, 목은 이색, 신유한의 조강행(祖江行), 허목의 무술주행기(戊戌舟行記) 등이다.

8. 통진현, 풍덕군의 수산물[16]과 조강도(祖江渡)

『통진현의 해산물은 토화, 숭어, 낙지, 진어(眞魚), 밴댕이[蘇魚], 굴, 황어(黃魚), 붕어, 웅어, 농어, 오징어, 조기, 호독어(好獨魚), 소금, 게, 청해(靑蟹), 중하(中蝦), 쌀새우[白蝦], 곤쟁이[紫蝦]이다.

풍덕군의 해산물은 조기[石首魚], 숭어, 농어[鱸魚], 붕어, 낙지, 굴[石花], 토화(土花), 조개, 게, 쌀새우[白蝦]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통진현의 기록에는 조강도(祖江渡)가 현 동쪽 15리 지점에 있으며, 한강과 임진강이 합쳐져서 이 강이 된다고 했다.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조강진(祖江津)은 현의 북쪽로 10리이고 이곳으로 개성(開城)으로 통한다.

풍덕군의 기록에는 인녕도(引寧渡)는 덕수현에 있으며, 세속에서는 인월곶(引月串)이라고 부른다. 군에서 남쪽으로 40리 떨어졌고 양화도(楊花渡) 하류다. 조강도(祖江渡)는 덕수현에 있다.』

통진현과 풍덕군은 포구가 발달된 곳이다. 북한의 영정포구에서도 조강에서 서해안으로 나가 조기를 잡았으며, 조강의 황어는 조선시대 진상품이다. 조강에서도 어로를 하고 서해안에서 해산물을 직접 잡아서 생활을 했던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통진현과 풍덕군의 기록에도 똑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조강도(祖江渡)』 다. 풍덕군의 "인월곶(引月串)"과 유사한 통진의 지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월곶(月串)"이다. 풍덕군의 "양화도 하류"는 현재 한강하류로서 조강이 이

16) ⓒ 한국고전번역원 | 홍찬유 (역) | 1969

곳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조강의 江 이름이 북한의 개풍군에서는 "상조강", "하조강"이라는 이름으로 표기하고 있다.

9. 맺음말

남북이 함께 사용하는 조강(祖江)

조강에 남아 있는 문화는 김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남북을 사이에 두고 수산업과 교통 중심 역할을 했던 시대에는 조강의 명칭도 함께 공유하고 사용했으나 지금은 남북이 경계하는 군사지역이 되었다. 민속예술에서도 조강포구의 치군패가 있다. 치군패와 마찬가지로 명칭이나 형태는 조금씩 다르나 마포의 용왕제나 강화도, 조강의 용왕제는 넓게는 한강의 문화요 남북의 문화다. 다른 문화도 더 늦기 전에 조사가 필요하다. 유형 문화는 시간이 지나도 가능하지만 무형 문화는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화가 단절된 것은 분단으로 인한 결과다. 물길이 막히니 문화가 사라진 것이다. 조강을 중심으로 생활에서 존재했던 문화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조강의 포구문화를 다시 드러내야 한다. 문화는 생명을 잇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곳의 물고기는 지금도 썰물과 밀물을 따라 왕래한다. 선현들이 담아 놓은 조강의"祖"의 뜻을 사람 살아가는 근본으로 삼아서 막힌 곳을 열어 평화의 강이 되고 형제의 강이 되어 번창하는 남북이 되기 위해서는 조강을 문화로 열어야 한다.

여주와 천주교신앙

조 성 문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강학과 박해 시기

1) 천주교 전파
2) 주어사 강학회
3) 박해 - (1)여주의 순교자들 (2)여주의 복자들과 약전

3. 부엉골성당과 초기 공소 시기

1) 부엉골신학교와 성당
2) 임가밀로 신부와 부엉골성당
3) 원심이 공소
4) 여주의 공소들

4. 여주성당 시기

1) 여주성당 건립
2) 여주성당 현황

5. 나가는 말

집필자

조 성 문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서학을 통해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전해지던 18세기 말엽은 양반의 극심한 분열, 과거와 달라진 새로운 역할로 자리 잡은 중인의 등장, 양인과 천인의 동일화 현상 등으로 신분 질서에 대한 변화가 시작되던 시기였다. 게다가 정권에서 밀려난 남인, 지속적인 생활고에 시달리던 하층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때 천주교가 전해 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그리스도로 인해 열린 천국'은 그야말로 복음이었다.

천주교의 4대 교리는 천주존재(天主存在), 상선벌악(賞善罰惡), 삼위일체(三位一體), 강생구속(降生救贖)이다.

천주존재 : 스스로 존재하며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느님이 있다.
상선벌악 :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삼위일체 : 성부, 성자, 성령 삼위(三位)가 한 분인 하느님이라는 뜻으로, 세 위격이 완전히 서로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한 신성을 이룬다.
강생구속 : 인간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됨(강생)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 보속했으므로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였고 유일하며 삼위일체를 이룬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했기에 아들을 보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했다는 교리는 유학에 익숙한 조선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었다. 이러한 낯섦은 경계심을 일으켰고 곧 배척을 불러왔다.

① 천주교는 석가(극락설)나 묵자(겸애설)와 같은 이단이다.
② 천주교의 사천(事天, 하늘을 섬김)은 유학의 사천과 다르다.
③ 유학은 현세를 위한 학문인데 천주교는 내세를 위한 신앙이다.
④ 천주교의 삼구설(三仇說)은 육신, 세속, 마귀를 원수로 여기는 것인데 육신을 원수로 여기는 것은 부모를 원수로 여기는 것이고 세속을 원수로 여기는 것은 군신의 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패륜이다.

천주교라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신앙에 대한 배척은 회유와 구속, 유배와 죽음이라는 박해[1]의 형태로 나타났다.

1791년(정조 15) 전라도 진산(珍山, 현재의 충남 금산군)에서 윤지충이 조상의 신주를 불태워 땅속에 묻었으며 8월의 어머니 장례 때에도 신주를 세우지 않았고 윤지충의 외사촌 형인 권상연이 집안의 신주를 불태워 무덤 앞에 묻어버린 이른바 '진산사건'[2]을 기점으로 시작된 혹독한 박해도 천국과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라앉힐 수는 없었다.

천주교는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고문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며 양반에서 중인으로, 중인에서 평민으로, 평민에서 천민으로 퍼져나가 때로는 억압에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에 항거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때 관헌의 감시와 주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와 궁벽한 시골로 숨어들었던 천주교는 이제 성당 1,747개, 주교 42명, 신부 5,388명, 수도자 11,737명, 신자 5,866,510명[3]의 교회로 성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천주교가 조선에 전파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여주에서 있었던 주어사[4] 강학회와 여주인들이 겪었던 박해, 그리고 신앙공동체 건설, 여주성당 설립 등의 과정을 찾아보려고 한다. 또한, 이 과정을 강학과 박해 시기, 부엉골성당과 초기 공소 시기, 여주성당 시기로 나누어 그 시기를 살아간 여주인들의 생각과 삶을 들여다보면서 천주교 신앙을 통한 여주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강학과 박해 시기

1) 천주교 전파

천주교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서학이란 명나라 말기와 청나라 초기,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천주교를 전파하고 서양문명을 전수하기 위해 한문으로 번역한 서양 학

---

1)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행위. 교난(敎難), 군난(窘難).
2) 「조선왕조실록」 정조 15년 11월 7일.
3)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통계자료. 2018.
4) 여주시 산북면 주어리 산 106번지에 있던 사찰. 지금은 폐사되었음.

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처음으로 알린 사람은 1592년 임진왜란 때 소서행장을 따라 조선에 건너왔던 포르투갈 신부 세스페데스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세스페데스 신부는 경남 진해에 자리 잡은 일본 군영에만 머물렀을 뿐 일반 조선 백성들과 접촉한 기록은 없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천주교 전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1636년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갔던 소현세자(昭顯世子)5)가 북경에 와 있던 예수회 신부 아담 샬과 교우관계를 맺으면서 천주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므로 그가 최초의 신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견해도 있다. 비록 소현세자가 천주학 서적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귀국할 때 영세받은 환관과 궁녀들, 그리고 천주교 관련 서적과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고는 하나 두 달여 만에 갑자기 병사하여 중국인 신자들이 곧 되돌아갔으므로 천주교 전파에 관한 소현세자의 역할은 없었다고 보인다. 이 밖에도 허균이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올 때 4,000여 권의 다양한 서적을 샀는데 이 가운데 천주교 관련 서적이 있었고 이 책들을 읽은 허균에 의해 천주학을 신봉하는 무리가 생겼으니 허균이 조선 최초의 천주학 창도자라는 주장이 있으나 추정 이외의 확실한 근거가 없다.

학문으로서의 서학은 이수광이 자신의 저서인 「지봉유설」에 이탈리아 신부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를 소개하면서부터 조선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광정, 정두원 등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연행사들이 발달한 서구 문명의 정수가 담긴 서학 서적들을 가져오면서 학자들 간에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18세기에 이르러 조선에서는 위기에 처해있던 조선왕조의 사회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려는 실학사상이 태동하고 있었는데 이익의 경세치용파와 박지원의 이용후생파가 양대 축을 형성하였다. 이 중에서 이익을 비조로 하는 성호학파는 안으로는 노론의 지나친 주자학 지상주의와 존화주의를 배격하고 밖으로는 서학과 청대의 고증학을 수용해 자주적 실학 정신을 개발하는 데 힘썼다. 그의 학문을 이어받은 이들은 18세기 후반, 서학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현실비판과 자의식 고양에 치중한 '성호우파'와 서학과 천주교에 경도된 '성호좌파'로 갈라지게 된다. 이때 이익의 수제자인 권철신을 중심으로 한 녹암계 즉 성호좌파 계열의 신진학자들이 양주와 양평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주어사(走魚寺)와 천진암(天眞庵)[6]에서 강학모임을 가짐으로써 조선의 서학은 비로소 천주교 신앙으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

5) 조선 16대 임금 인조의 큰아들.
6)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앵자봉에 있던 암자.

2) 주어사 강학회

조선 최초의 천주교 강학회가 열린 곳으로 알려진 주어사는 양자산 앵자봉 동쪽에 있던 사찰이다.

절 이름과 관련하여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다.

> 어떤 스님이 절터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던 중 여주의 어느 강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날 밤 꿈속에 한 도인이 나타나 "내일 아침 강가에 나가보아라. 거기 큰 잉어가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니 그 잉어를 따라가 머무는 곳에 절을 짓도록 하여라."라고 말하였다. 다음날 일어나 강가에 나가보니 큰 잉어가 있었다. 잉어는 개울을 지나 산골짜기에 이르러 멈추었다. 스님은 잉어가 머문 골짜기에 절을 짓고 주어사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7]

1779년 겨울 주어사에서 강학회가 있었는데 권철신, 이벽, 정약전 등이 참석했다. 프랑스 신부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 따르면 이들은 강학회에서 ①하늘 · 세상 · 인생 등의 문제를 탐구하였으며 앞선 학자들의 주장들을 검토하였고 ②성현들의 윤리서를 연구하였으며 ③서양선교사들이 한문으로 지은 철학 · 수학 · 종교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선교사의 가르침 없이 천주교 신앙에 도달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약전은 「십계명가」를, 이벽은 「천주공경가」를 짓게 되었다고 이승훈의 「만천유고」에 기록되어있다.

조선 최초의 강학 장소를 두고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사연구소가 발행한 「한국천주교회사」에서는 조선천주교의 모태가 되는 1779년의 강학회가 주어사에서 열렸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강학회 모임은 1779년 겨울 주어사에서 개최된 것이다. 이때 눈이 많이 내린 탓에 한감개에 살던 권철신이 앵자산 너머에 있는 천진암까지 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천진암이 아니라 주어사에서 강학모임을 개최했으리라 여겨진다. 다블뤼 주교의 비망기에는 "이벽이 강학 소식을 듣고 산속의 한 외딴 절을 찾아갔으나 강학 장소가 아닌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그 산 뒤쪽의 산허리에 있는 절'을 찾아가야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벽은 자신이 평소에 잘 알던 '한 외딴 절'인 천진암을 찾아갔다가 산(앵자봉)을 넘어 강학 장소인 '산 뒤쪽의 산허리에 있는 절'인 주어사로 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정약용이 당시의

---

7) 「여주시사」, 2005. 참조.

강학 장소를 '주어사'로 했다가 '천진암 · 주어사'라고 하는 등 혼동을 주고 있지만, 주어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8)]

이 강학회에 이벽은 뒤늦게 참가하였는데 그는 강학을 통해 제일 먼저 천주교를 신봉하게 되었다. 천주교에 눈을 뜬 이벽은 서장관인 아버지를 따라 북경으로 떠나는 이승훈에게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였다. 반드시 북경 천주당에 들러 선교사들을 만나보고, 교의의 참뜻과 교리의 실천 방법을 자세히 살피고, 교리에 관한 중요한 책들을 가지고 오라는 부탁이었다. 이벽으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전해 듣고 고무된 이승훈이 1784년 2월 북경에서 그라몽 신부에게서 영세를 받고 귀국하자마자 곧 이벽과 권일신에게 세례를 주게 되니 이때부터 이들이 조선 천주교회의 창설자로서 그 역할을 시작할 수 있었다.

3) 박해(迫害)

책을 통해 학문으로만 접했던 서학이 점차 천주교 신앙으로 발전하면서 사상적, 정치적, 윤리적 배경이 달랐던 조선 사회와 충돌했던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다. 첫째,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왕권 국가 조선에서 하느님을 절대자로 숭배하는 천주교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둘째, 남존여비, 신분 차별사회인 조선에서 인간 평등,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천주교는 윤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으로 여겨졌다. 셋째, 천주교를 옹호하는 신서파(信西派)와 천주교를 비판하는 공서파(攻西派)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제사를 금지하는 결정은 공서파가 신서파와 천주교를 제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넷째, 폐쇄적인 조선에서 비밀리에 북경을 왕래하며 서학 서적을 들여오고 서양선교사들을 영입하는 천주교를 묵인할 수 없었다. 특히 이가환, 윤지헌, 황사영 등이 북경 교회를 통해 서양의 선교사와 함선을 요청한 사실은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인식되었다.

무엇보다도 박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것은 제사 문제였다. 서학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신자들이 중국의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 들은 로마교황청의 결정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천주교가 이미 중국의 유교적 전례, 그중에서도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미신적 행위로 여겨 금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중국에서 활동을 펴고 있던 선교단체는 예수회와 도미니코회 및 프란치스코회였다.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는 예수회는 적응 주의적 관점에서 조상제사를 유교적 전통으로 여겨 용인했고, 스페인의 지원을 받는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는 조상제사를 미신으로 단정했다. 중국선교

---

8) 「한국천주교 교회사」 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232쪽~233쪽.

초기에 교황청은 문화적 전통을 존중할 것과 현지의 환경에 신축성을 가져야 한다는 훈령을 내렸다. 그러나 예수회의 선교 방법을 놓고 선교회 간의 갈등이 일어나자 1715년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칙서를 통해 공자와 조상제사를 금지하였으며, 1742년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앞의 칙서를 재천명하고 선교사들에게 칙서 준수 서약을 명하면서 제사 금지에 대한 의견을 확고히 하였다.

이에 따라 북경에서 예수회가 축출되고 1785년 프란치스코회의 구베아 주교가 북경에 부임했다. 공교롭게도 1790년 북경을 방문한 윤유일은 구베아 주교로부터 제사 금지에 대한 사목 지침을 받아 귀국하게 된다.

조상에 대한 제사 금지는 문중의 압박을 받은 양반의 이탈을 초래했고 제사에 관해 비교적 자유로웠던 중인, 평민, 천민으로 신자층이 확대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천주교를 임금과 부모도 모르는 패륜 사교집단으로 몰아 탄압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1785년 을사추조적발(乙巳秋曹摘發) 사건과 1787년 정미반회(丁未泮會) 사건에 이어 1791년(신유박해)에 시작된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는 100여 년 동안 이어져 1만 명이 넘는 순교자가 발생하였다.

조선시대 천주교 4대 박해

구분	시기	이유	결과
신유박해 (辛酉)	1801년 (순조 2) 사학 엄금령	무부무군(無父無君), 천국 지옥설로 현혹, 인륜 파괴로 교화에 배치	주문모 신부 등 300여 명 처형 정약용 등 400여 명 유배 오가작통법 강화
기해박해 (己亥)	1839년 (헌종 5) 척사윤음	무부무군, 제사 폐지, 동정순결, 남녀 공동체생활로 인륜파괴, 인류 멸절	앵베르 주교 등 100여 명 처형
병오박해 (丙午)	1846년 (헌종 12)	프랑스 동양함대 세실제독, 수감 중인 천주교 신자 석방요구	김대건 신부 등 10명 처형
병인박해 (丙寅)	1866년 (고종 3) 척사윤음	천국 지옥설로 현혹, 제사 폐지, 남녀 공동체 생활로 인륜파괴	베르뇌 주교 등 8,000여 명 처형

천주교를 사학(邪學)과 사교(邪敎)로 규정하며 박해를 가할 때 순교자들은 목숨을 걸고 천주교가 바른 학문이요 참된 종교임을 당당히 밝혔다.

무부 무군에 대하여 : 순교자들은 대군대주인 하느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부모와 임금에 효를 다한다고 고백했다. 아비도 없고 임금도 모르는 '불효하는 무리'라는 비난에도 십계명의 4계(부모에게 효도하여라)를 들어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천국 현혹에 대하여 : 순교자들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의인들에게 약속된 완전 복락의 으로 천국을 이해하고 있었다. 내세관이 없는 자들이 천주교가 현세를 부정하는 사교라 비난하자 천국은 현세의 삶에 대한 상벌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오히려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현세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통화(通貨)[9]에 대하여 : 순교자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였다. 재산을 낭비하는 '통화 집단'이라고 오해하자 헐벗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어찌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며 만일 재물을 소통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느냐며 되물었다.

통색(通色)[10]에 대하여 : 순교자들은 남녀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교리를 듣고 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를 두고 통색 하는 무리라고 공격하자 전례 중에 남녀가 동석했지만 남녀유별을 철저히 지켰고 십계명 중에 6계와 9계를 엄격히 따르고 있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여자에게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정절을 요구하는 천주교 교리를 제시하였다.

순교자들은 체포되어 신앙과 배교의 택일을 강요받을 때도 동료들을 배반하지 않고 스스로 순교의 길을 선택했다. 순교자들은 십계명 중 1계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와 5계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을 실천했다. 그것은 '하느님을 부인하는 것'과 '동료 신자를 고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고 배교한다는 말 한마디로 목숨을 살릴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었다.[11]

(1) 여주의 순교자들

여러 사료를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여주의 순교자들을 모아보면 17명에 이른다.

여주의 순교자들

성 명	세례명	순교일(양력)	순교 장소	비 고
윤유일	바오로	1795년 6월 28일	한양 포도청	장하 순교

9) 재물을 서로 융통하는 것.
10) 서로 색정을 통하는 것.
11) 강석진, 「19세기 조선교회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 교회사 연구 제 45집, 2014.

조용삼	베드로	1801년 3월 27일	경기 감영	옥중 순교
이중배	마르티노	1801년 4월 25일	여주	참수
원경도	요한	〃	〃	〃
최창주	마르첼리노	〃	〃	〃
정종호	미상	〃	〃	〃
임희영	미상	〃	〃	〃
윤관주	안드레아	1801년		〃
윤유오	야고보	1801년 4월 27일	양평	〃
윤운혜	루치아	1801년 5월 14일	한양 서소문밖	〃
이 현	안토니오	1801년 7월 2일	〃	〃
정순매	바르바라	1801년 7월 4일	여주	〃
윤점혜	아가타	1801년 7월 4일	양평	〃
완산이씨집 과부		1801년		
〃 과부의 친척		1801년		
정광수	바르나바	1802년 1월 29일	여주	참수
최조이	바르바라	1840년 1월 4일	전주	〃

* 수원교회사 연구소 자료 참조

「순조실록」에는 여주의 천주교 신자 11명의 죄목과 처벌과정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경기 감사 이익운이 도내의 사학죄인으로 여주에서 11인, 양근에서 7인을 취초하고 사문한 후에 율에 의거하여 감단할 것을 계청하였다. 이에 이중배 · 임희영 · 유한숙은 신주를 세우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여 사람의 윤리를 폐절하고 형륙도 마음속으로 달갑게 여긴 것으로 결안을 받아 부대시참(不待時斬)하도록 명하였다. 원경도 · 정종호 · 최창주 · 윤유오는 윤리를 멸절시키고 상도를 패몰 시켜 인심을 현혹했으므로 일률에 관계되지만, 모두 의정부가 상세하게 복심 하여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조운형 · 장지의는 형신에 임하여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대었으나 준거하여 믿을 수 없으니, 아울러 도신으로 하여금 엄 중하게 형신하여 취초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원경신 · 정종순 · 정종하 · 정원상 · 정형상 · 이무 · 조해 · 장지인 · 김원숭은 모두 본 읍에

가두어 다시 구핵한 후에 감처하도록 명하였다.[12)]

그동안 여러 사료가 발굴되어 순교자들의 신앙생활이나 체포된 경위, 옥중 생활상이 조금씩 알려졌다.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 에는 기존의 사료가 가지고 있는 내용보다 광범위한 증언들이 실려 있지만 여기서도 체포 경위나 순교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중 이중배와 원경도의 체포 경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여주 읍내에 사는 이중배 마르티노와 그의 사촌 원경도 요한은 매우 친하게 지내던 김건순에 의하여 입교하였으며, 그의 온 가족도 그의 모범을 따라 천주교를 믿고 있었다.
>
> 경신년(1800년) 3월에 이 마르티노와 원 요한은 그들의 친구 정종호의 집으로 부활 축일을 지내러 갔다. 세례명을 알 수 없는 정종호는 모두가 천주교 신자인 자기 집안에 그들을 기꺼이 맞이해 들였다. 개를 잡고 술을 많이 장만하여 부활 축일에는 가족과 손님들이 이웃에 사는 몇몇 교우들과 함께 길가에 모여 모두 큰 소리로 '알렐루야'와 '부활 3종경'을 외우고 나서, 바가지를 두드려 가며 기도문을 노래하였다. 그런 다음에 가지고 간 고기와 술과 음식을 먹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이렇게 신심 행사와 우애적인 잔치로 하루가 지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본 신자가 아닌 이웃들이 여주 관아로 그것을 알렸다. 그런 즉시 여주 목사는 그들을 잡으러 포졸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체포되어 옥으로 끌려갔다.
>
> 길을 가는 동안 원경도 요한이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의 늙은 어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포졸들 앞으로 달려와서 자기 아들을 데려가기 전에 잠깐만 보게 하여 달라고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으며, 붙잡힌 교우들은 가던 길을 계속하였다.
>
> 여주 관아에 이르니, 관장이 그들에게 '너희 공범자와 너희들을 꾄 자들을 대고 천주를 배반하라'고 말하였다. 원 요한이 모든 이를 대신하여 말하였다. '어떤 사람을 밀고하는 것은 엄금되어 있으니, 죽을지라도 저희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천주를 배반하는 일은 더구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관장은 화가 나서 '주리를 틀고, 붉은 몽둥이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중배 마르티노의 용기와 격려의 힘으로 그들은 모두 그 혹독한 형벌 중에도 굳건하였으며, 여러 차례 혹형을 되풀이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옥에 갇혔다.

이중배와 원경도 등이 체포된 장소에 대해 여주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는 남한강의 하중도인 양섬(羊島, 楊島)[13)]이었다고 구전되고 있으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여주 읍내의 순교자들을 처음 천주교에 입교시킨 사람은 김건순이다. 안동 김씨인 김건순은 서

12) 「조선왕조실록」 순조 1년 3월 11일.
13) 여주시 하동 3 일원.

울에서 태어나 종가의 대를 잇기 위해 양자가 되었고 여주에서 살았다. 김건순은 병자호란 때 척화 대신으로 심양에 끌려갔던 김상헌의 후손으로 정조 임금이 귀히 여기던 김양행의 손자이다. 권철신과 교류하면서 천주교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1797년 여름, 주문모 신부를 만난 후 천주교에 귀의할 뜻을 굳혔다. 이희영, 이중배, 원경도 같은 친구들에게 천주교를 권면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1799년 주문모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그는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굳건히 신앙을 지키다가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면서 4월 28일 체포되어 6월 1일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다.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와 「황사영백서」에는 김건순이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관변 자료에는 김건순이 스스로 천주교인이 아니며 세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있다.

(2) 여주의 복자들과 약전

천주교에는 시복(諡福)과 시성(諡聖)의 제도가 있다. 시복은 거룩한 삶을 살았거나 순교한 이들을 복자(福者)로 추대하는 것을 말하며, 복자들 중에서 탁월한 신앙과 성덕을 가진 이를 성인(聖人)으로 추대하는 것을 시성이라고 한다. 성인이 되면 세계의 모든 천주교 신자들이 그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그를 공경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해박해와 병오박해 순교자 중 79명이 1925년 7월 5일 시복되었고 병인박해 순교자 중 24명이 1968년 10월 6일 시복되었다. 이들 103명의 복자들은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 되었다.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윤지충과 동료순교자 123명을 시복하였다. 이날 시복된 복자 중에 여주 출신 9명이 포함되어있다.

여주의 복자들

성 명	세례명	생몰년	순교지	관계
윤유일(尹有一)	바오로	1760 - 1795	한양 포도청	윤유오의 형
최창주(崔昌周)	마르첼리노	1749 - 1801	여주	최조이의 아버지
이중배(李中培)	마르띠노	1752 - 1801	여주	원경도의 사촌
원경도(元景道)	요한	1774 - 1801	여주	최창주의 사위
윤유오(尹有五)	야고보	? - 1801	양근	윤유일의 동생
이 현(李 鉉)	안토니오	? - 1801	한양 서소문밖	정광수와 친분
정순매(鄭順每)	바르바라	1777 - 1801	여주	정광수의 동생

정광수(鄭光受)	바르나바	? - 1802	여주	정순매의 오빠
최조이(崔召史)	바르바라	1790 - 1840	전주	최창주의 딸

* 천주교 수원교구 자료 참조

복자들의 약전

윤유일은 여주 점들(현 금사면 금사2리)에서 태어났다. 윤유오(야고보)가 동생이고, 윤점혜(아가타)와 윤운혜(루치아)는 사촌 동생들이다.

권철신(암브로시오)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던 윤유일은 서적을 통해 천주교 신앙을 접한 후 권일신(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한 후 가족들에게도 교리를 가르쳤다.

1789년 교회 지도층 신자들의 뜻에 따라 구베아 주교를 만나러 두 번이나 북경에 밀사로 다녀왔다. 구베아 주교에게서 '조선에 성직자를 파견하는데 필요한 준비'에 대해 듣고 귀국한 뒤 1794년 말 중국인 주문모(야고보) 신부를 조선에 잠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 일로 체포되어 1795년 6월 28일(음력 5월 12일)에 한양 포도청에서 매를 맞고 순교하였다.

순교 당시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기보다는 차라리 천 번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단언하였다.

최창주는 여주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40대 초반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온 가족을 입교시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나 1791년 신해박해로 체포되었을 때 배교하고 석방됐다.

이후 죄를 깊게 뉘우치고 가족과 이웃 교우들을 힘써 권면했으며, 두 딸을 모두 교우에게 출가시켰다. 한 명은 여주에서 순교한 원경도(요한)의 아내이고, 다른 한 명은 1839년 전주에서 순교한 신태보(베드로)의 며느리인 최조이(바르바라)다.

1800년 부활대축일에 체포되어 경기 감영으로 끌려갔다가 여주로 압송되어 1801년 4월 25일(음력 3월 13일) 원경도(요한), 이중배(마르티노)와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감사가 형벌을 가하며 배교를 강요하자 신자들을 대표하여 "모든 사람의 임금이시며 아버지이신 참 천주를 알고 그분을 섬기는 행복을 받았으니 저희는 그분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중배는 여주 양반 집안 출신으로, 천주교 신앙에 대해 알게 된 것은 1797년이었다. 사촌인 원경도(요한)와 함께 평소 가깝게 지내던 김건순(요사팟)에게서 천주교 교리에 대해 듣고는 즉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 다음 부친과 아내에게 교리를 전했고, 이후 교회의 지시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1800년 부활 대축일에 사촌 원경도와 함께 동료 집으로 가서 부활삼종기도를 바치고, 성가를 부르다가 포졸들에게 체포돼 여주 관청에 끌려갔다. 6개월 동안 옥중 생활을 하면서 의술로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도 했다. 경기감영으로 이송됐다가 1801년 4월 25일(음력 3월 13일) 여주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옥에 갇힌 여러 신도가 냉담하면서 용기를 잃어가자 "우리가 동시에 잡혔으니, 모두 같은 날 천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소."라며 격려하였다.

원경도는 여주 양반 집안 출신으로 1797년 사촌 이중배(마르티노)와 함께 김건순(요사팟)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했다. 그 후 온 가족을 입교시켰으며 최창주(마르첼리노)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1800년 부활 대축일에 동료 집에서 성가를 부르며 하루를 지내다가 여주 관장에게 들켜 체포됐다. 원경도는 여주 관아 옥에서 동료들과 6개월 이상 갇혀 있으면서 여러 차례 형벌을 받았다. 그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가 기적적으로 낫곤 했다고 한다.

경기 감영으로 이송되었다가 고향으로 보내 처형함으로써 그곳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는 판결에 따라 여주로 압송돼 1801년 4월 25일(음력 3월 13일)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배교와 밀고를 강요당하자 "천주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밀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더욱이 천주를 배반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윤유오는 여주 점들(현 금사면 금사2리)에서 태어나 인근에 있는 양근 한 감개(현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로 이주해 살았다.

1795년에 순교한 윤유일(바오로)이 형이다. 일찍부터 형에게서 교리를 배워 입교한 윤유오는 고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에 교리를 전하려고 노력했다. 1795년 초 주문모(야고보) 신부를 양근에서 만나 성사를 받기도 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양근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그곳 관아로 압송됐다. 갖가지 문초와 형벌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저는 형이 가르쳐 준 십계명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실천해야 할 도리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배교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했다.

1801년 4월 27일(음력 3월 15일), 양근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큰 길가로 끌려나가 동료들과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이현은 여주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초기에 교회 서적을 얻어 보고 천주교 신앙을 이해하게 됐다. 그 후 1797년 가을부터 김건순(요사팟)에게 교리를 배우면서 천주교 교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게 됐다.

한양 홍필주(필립보)의 집을 찾아가 교리를 더 공부한 뒤 주문모(야고보)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교우인 홍익만(안토니오)의 딸과 혼인했고, 이로써 홍필주와 동서 사이가 되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료들과 함께 체포됐으며, 곧 포도청으로 끌려가 문초를 받게 됐다. 문초와 형벌이 계속되자 잠시 마음이 약해져 신앙을 버리겠다고 대답했으나 곧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는 신앙을 굳게 지켜 순교하겠다고 다짐했다.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 한양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순교하면서 "이제 아무리 형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최후 진술하였다.

정순매는 여주에서 태어나 18살 때 오빠 정광수(바르나바)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했다. 윤운혜(루치아)가 올케로, 모두 신유박해 순교자들이다.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자마자 열심히 교리를 실천한 정순매는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뒤, 주위에는 '허가와 혼인했다가 과부가 됐다'고 말하면서 과부 행세를 했다. 이후 서울로 올라온 정순매는 오빠 부부를 도와 교회 서적과 성물을 신자들에게 보급하는 일을 하며 윤점혜(아가타)가 회장으로 있던 동정녀 공동체의 일원으로도 활동했다.

1800년 주문모(야고보)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정진하였다. 이듬해 신유박해 때 체포되어 불굴의 용기로 신앙을 증언하다가 1801년 7월 3일(혹은 4일) 여주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포도청에서 모진 형벌을 받고 형조에서 엄한 문초를 당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저는 천주교 신앙을 너무나 좋아하여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최후 진술을 남겼다.

정광수는 여주 부곡(현 금사면 도곡리)의 양반 집에서 태어났다. 일찍부터 천주교에 관해 관심을 가졌으며 권일신(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부인은 윤운혜(루치아)이고 정순매(바르바라)는 그의 여동생이다.

고향 인근에서 교리를 전파하며 비신자들을 입교시키다가 부모가 천주교 신앙을 반대하자 1799년 아내와 함께 한양으로 이주하였다. 자신의 집 한 편에 교회 집회소를 짓고 주문모(야고보) 신부를 모셔다 미사를 봉헌하였으며 교우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였다.

아내가 체포된 후 스스로 자수한 정광수는 배교를 강요하는 형벌에 굴복하지 않다가 1802년 1월 29일(음력 1801년 12월 26일) 여주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저는 양반의 후손으로 나라의 금지령을 무시하고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졌으며 주문모 신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였습니다. 또 교리서와 성물을 만들어 신앙을 전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라고 최후 진술하였다.

최조이는 여주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교리를 배워 천주교 신자가 되었으며 부친 최창주(마르첼리노)가 순교한 뒤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도 천주나 이웃에 대한 열렬한 애덕과 인내는 모든 사람을 탄복시켰다.

장성하여 신태보(베드로)의 아들과 결혼하였으나 얼마 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

1839년 기해박해 때 전라도 광주에서 함께 생활하던 교우들과 같이 체포되어 전주로 이송되었다.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 자신이 최창주의 딸이라는 것과 시아버지 신태보가 전주에서 순교했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혔다. 1840년 1월 4일(음력 1839년 11월 30일) 전주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전라감사가 "너는 죽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자 "죽음은 제가 바라던 것이고 오래전부터 저는 그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3. 부엉골[14]성당과 초기 공소[15] 시기

신유박해 이후 여주지역에 남아있던 천주교 신자들의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병인박해가 끝나고 고종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명성황후와 함께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에 대한 선교가 묵시적으로 허락되어 천주교 신자들은 비로소 박해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 부엉골 신학교와 성당

본래 부엉골은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로 건너가는 나루터가 있는 마을이었는데 박해 이후 하나 둘씩 모여든 신자들이 교우촌을 이루고 있었다. 부엉골은 경상도와 강원도 일대를 담당하던 로베르 신부에 의해 1882년에 공소로 설정되었고 이런 인연으로 이곳에 신학교가 설립되었다.

조선 최초의 신학교인 성요셉2신학교는 1854년 충청도 배론에 설립되었다가 1866년 병인박해 때 폐쇄되었다. 제7대 조선교구장 블랑주교는 1884년에 신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로베르 신부에게 신학교 터를 물색하게 하여 신학교 재건사업에 착수하였다. 부엉골에 신학교가 완공되자 블랑주교는 새로 입국한 마라발 신부를 초대 교장으로 임명하였다. 마라발 신부는 이곳에 부임하여 1885년 10월 28일 소신학교를 개교하고 '예수 성심신학교'라 명명하였다. 신학교 설립 후 마라발 신부가 교장으로 상주하면서 부엉골공소는 신학교성당으로 승격되었다. 하지만 1887년 3월 부엉골신학교가 서울 용산으로 이전되어 부엉골은 공소로 바뀌었다가 1889년 르 비엘 신부가 부임하면서 다시 부엉골성당으로 회복되었다.

2) 임가밀로 신부와 부엉골성당

1894년 4월 14일 미리내에 머물고 있던 임가밀로 신부는 부엉골성당의 주임 신부로 임명되었다. 이틀 뒤, 부엉골에 도착한 임가밀로 신부는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목활동을 시작하였다. 임신부가 부임했을 당시 부엉골에는 92명의 신자가 있었다. 부엉골성당은 원주의 일부지역, 여주 · 죽산 일부지역, 충주 · 청주 · 괴산 등지에 흩어져 있는 22개 공소와 1,200여 명의 신자들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임신부의 노력으로 부임 1년 만에 2개의 공소와 신자 100여 명이 늘어났다.

---

14)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15) 공소(公所) : 성당보다 규모가 작아 주임 신부가 상주하지 않고 순회하는 구역의 천주교 공동체.

임가밀로 신부는 부엉골성당의 주변 경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 부엉골을 들어서면 밭이 나오는데 거기서 북쪽을 바라보면 왼편에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지. 그 향나무 아래 옹달샘이 있거든. 그 물로 밥도 해 먹고 식구들이 세수도 하고 빨래도 했지. 그 옹달샘 하나밖에 없어서 교우들도 그 물로 살았지. 그리고 밭 터 우측에 보면 네모난 흰 바위가 있는데 그것은 신부들이 말 탈 때 딛던 돌이지. 그러니까 옹달샘과 디딤돌 중간에 흙벽돌 양통집(신학교)이 남향으로 있었다고 보면 틀림없지![16]

부엉골은 사람들이 숨어 살기에는 적당하였으나 신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임신부는 부엉골성당을 이전해야 선교와 성당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을 편지에 담아 뮈텔주교에게 보냈다. 1896년 5월 뮈텔주교의 허락을 얻은 임신부는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민응식의 집을 매입하고 9월 17일 부엉골을 떠남으로써 부엉골성당은 다시 공소로 그 역할이 바뀌었다. 부엉골공소는 원심이, 문막공소와 함께 풍수원성당 소속이 되었다. 그러자 신자들도 차츰 마을을 떠났고 부엉골공소는 1912년 무렵에 폐쇄되고 말았다.

임가밀로 신부가 감곡 매괴성당 자리를 구입할 때의 일화가 있다.

> 1894년 봄, 부엉골성당 신부로 부임한 임가밀로는 부엉골성당이 북쪽 끝에 있고 산지 마을이라 적당치 않다고 판단하여 새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다. 사목 방문차 여주를 지나 장호원에 이르렀을 때, 매산(玫山) 언덕에 자리 잡고 있던 한옥을 보고 성당 사목지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한다. 그 즉시 임가밀로 신부는 "성모님! 만일 저 대궐 같은 집과 산을 저의 소유로 주신다면 저는 당신의 비천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보가 매괴 성모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기도하였고, 부엉골로 돌아가서도 매괴 성모님께 끊임없이 청원하였다고 한다.[17]

임가밀로 신부가 성당 사목지로 점찍었던 대궐 같은 집은 명성황후의 인척인 민응식의 집으로 1882년 임오군란 때 명성황후가 피난 왔던 곳이기도 하다. 민응식은 장호원 집(현 매괴고등학교 자리)을 명성황후 피난처로 제공한 덕분에 출세의 길이 열렸고 기존의 집은 109칸으로 크게 개수되었다.

---

16) 여주성당 설립 40주년 기념집 「남한강의 순례자」 23쪽. 1990.
17) 「감곡(매괴의 성모)본당 100년사」 , 2000.

1895년 10월 8일 새벽 명성황후가 경복궁 안에 있는 건청궁 곤녕합에서 일본인에 의해 처참하게 시해당했다. 이 사건은 단발령과 맞물려 반일 감정을 더욱 자극하였고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장호원에는 전화선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일본군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의병들은 일본군 수비대를 습격하여 격퇴한 후 아무도 살지 않는 민응식의 집을 본부로 삼았다. 참패한 일본군은 수비대의 보복을 위해 이곳을 공격하였고, 민응식의 집과 인근에 불을 질러 마을을 초토화시켰다. 이후 1896년 5월 성모성월에 임가밀로 신부는 뮈텔주교의 허락을 얻어 민응식 소유의 대지와 산, 불타버린 폐허를 싼값에 샀다. 비록 역사 속의 우연일지라도 임가밀로 신부가 처음에 기도한 대로 감곡성당을 원하던 자리에 지을 수 있었고 '감곡 매괴성모성당'으로 명명하게 된 것은 예수의 모친 성모 마리아의 도움이었다고 신자들은 믿고 있다.

3) 원심이 공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박해시대 이후 강천면 도전리에도 신자들이 모여들어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로베르 신부가 작성한 교세 통계표에는 부엉골공소와 가섭공소에 이어 1887년부터 원심이공소가 등장한다.

도전리 신자들 사이에서 원심이공소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① 박해(어느 해의 박해인지는 알 수가 없다)가 시작되자 한양 서소문 밖 이조의 관리로 있던 정도마가 동생, 처(임가타리나), 두 아들 등 식솔을 거느리고 피난길에 올라 양동(양평군 양동면)을 거쳐 구제(원주시 지정면 판대리)에 정착했다.

② 화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던 정도마 형제는 어느 날 장에 갔다 오는 길에 천주교도들을 밀고하는 밀정을 만나 부득이 헤어지게 되었다.

③ 어느 해 여름, 나졸들이 정도마를 잡으러 나타나자 정도마는 급히 산으로 피신하였고 임가타리나는 "내가 천주학을 하니 나를 잡아가라."고 나서서 정도마 대신 붙잡혀 순교하였다.

④ 정도마는 작은아들 하나만을 데리고 원심이로 피난하였다. 원심이에서의 첫날 정도마는 바위 위에서 묵주신공을 바쳤는데 훗날 사람들은 이 바위를 줄바위라고 불렀다.

⑤ 정도마의 작은아들 안토니오가 성장하여 아들 3형제를 두었다. 이 3형제 중 인품과 덕망을 갖춘 둘째 재영(아오스딩)이 원심이 초대 공소회장에 추대되었다. 이때 이들은 관원에게 붙잡힐 것이 두려워 성을 이씨로 바꾸었다. 정도마의 외가가 전주 이씨여서 그리하였다.

⑥ 이 아오스딩 회장은 두터운 신심으로 항상 주위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동리 개간과

농사짓는 법을 보급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이회장이 죽자 면에서는 원심이 개발공로자로 인정하고 산을 내어주어 9일장을 치르게 하였다. 이회장 임종 시 허리에 새끼를 두른 것이 발견되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하듯 33마디로 매듭지어진 새끼줄이었다. 이 새끼줄을 평생토록 맨 허리에 두르고 지낸 탓에 반들반들 윤이 나도록 길이 들어있어 보는 이마다 그 신심에 감격하였다고 한다.[18]

4) 여주의 공소들

임가밀로 신부가 장호원 감곡성당으로 옮겨가면서 여주의 신앙공동체들은 비로소 공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각 공소의 설립과 발전과정을 알려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관할 신부들이 작성한 교세 통계표를 통해 짐작할 따름이다.

여주의 초기 공소(1881년 - 1914년)

공소명	최초 기록연도	신자수(최초/최대)	폐쇄연도	현재 지명
부엉골	1881년	22명 / 96명	1912년	강천면 부평리
가 섭	1882년	9명	1883년	대신면 하림리
원심이	1887년	58명 / 155명		강천면 도전리
수롱동	1888년	11명 / 41명	1903년	점동면 현수리
원양이	1894년	33명	1896년	점동면 원부리
못 골	1897년	9명 / 14명	1901년	가남읍 은봉리
학 동	1900년	16명 / 20명	1901년	여주시 오학동
완장리	1902년	29명 / 46명		북내면 중암리
오 감	1909년	70명 / 165명		강천면 가야리
황거리	1909년	22명 / 30명		여주시 삼교동
모도막골	1912년	15명	1914년	강천면 부평리

* 수원교회사 연구소 자료 재구성

1921년~1922년도 서울교구 공소일람표에 의하면 여주군에는 장호원 감곡성당 임가밀로 신부 관할 하에 3개 공소(오감, 황거리, 독바위)와 용문(마내)성당 조제 신부 관할 하에 2개 공소(원심이, 완장리) 등 5개 공소가 있었는데 그중 신자수가 100명 이상인 공소는 원심이(167명)와 오감

18) 김한수(방지거, 도전리 공소 구역장) 증언, 2000. 3. 16.

(200명) 공소였다. 그 후 여주읍 오학리에 장호원에서 도기업을 하던 교우 김승보가 이사 오면서부터 도기업을 생업으로 하는 교우촌이 형성되어 학동공소가 세워졌다고 한다. 여주 읍내에도 몇몇 교우들이 살고 있었으나 그 세가 미미하여 공소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1930년대 들어 원심이, 오감공소가 중심이 되고 독바위, 학동공소 등이 새로 설립되어 꾸준히 신자수를 유지하면서 광복을 맞이하였다. 이 공소들이 1950년 여주성당이 설립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4. 여주성당 시기

공소 시기에는 사제의 부족으로 성당의 관할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사제의 파견이 원활하지 못해서 공소의 관할 성당이 자주 바뀌었으므로 신자들의 불편이 늘어났다. 더불어 여주 지역에 성당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신자들의 염원도 커졌다.

1881년~922년의 교세 통계표에서 여주지역 공소를 관할하는 성당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공소 관할 성당의 변화

공소명	연도별 관할설당
부엉골	부엉골 - 원 산 - 부엉골 - 풍수원 - 부엉골 - 감 곡 - 원 동 (1885) (1887) (1889) (1890) (1892) (1896) (1902)
원심이	원 산 - 부엉골 - 풍수원 - 부엉골 - 원 동 (1887) (1889) (1891) (1894) (1896)
수롱동	풍수원 - 부엉골 - 풍수원 - 부엉골 - 감 곡 (1888) (1889) (1890) (1892) (1896)
원양이	부엉골 - 감 곡 (1894) (1896)
완장리	원 동 - 용 문 (1902) (1914)
오감, 황거리, 독바위	감 곡 (1909)

1) 여주성당 건립

1941년 7월 이천 본당이 설립되면서 오감, 독바위공소가 이천에 편입되었고 뒤이어 학동공소도 편입되었다. 광복 후 여러 해 동안 공소 교우들, 특히 오감공소 교우들의 열심한 활동과 1948년 8월 이천 본당 3대 주임으로 부임한 이계선(레오) 신부의 노력으로 1950년 4월경 여주읍 상리에 한옥 한 채를 마련함으로써 성당설립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 건물은 공소 교우들이 거둔 성금과 성미로 매입하였다. 이 무렵 오감공소의 윤영창, 김학선 등은 교통의 불편을 무릅쓰며 여러 차례 서울교구청을 방문하여 여주에 사제를 파견해 달라고 노기남(바오로) 주교에게 청원하였다. 이해 5월 27일경 윤병희(바오로) 신부가 여주성당 초대 신부로 부임하였으나 29일 만에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윤신부가 급히 피난길에 오르자 주임 신부 없는 여주성당은 다시 이천 본당 관할이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몇 달 뒤인 1953년 10월 3일 최석호(바오로) 신부가 여주 본당 제2대 주임 신부로 부임하면서 지금의 성당 자리를 매입하고 1954년 10월 미군 79공병대의 지원을 받아 소화유치원과 성당 건물을 완공하였다.

여주성당을 지을 때 참여했던 박순형(요한, 당시 72세)의 증언이 여주 본당 40년사 기록에 남아 있다.

> "동두천 미군 부대에서 목수 일을 하다가 모처럼 휴가를 얻어 집(가야리)에 왔더니 성당을 짓고 있었어. 이천 본당 이레오 신부님께서 최신부님께 나를 소개하였는데, '박목수를 꼭 붙잡아 일을 시키라.'는 것이었다더군. 마침 나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미군이 설계한 도면을 볼 수 있었지. 도전리, 오감공소 신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그 먼 길을 도시락 싸 들고 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그때 감리교회도 짓고 있었는데, 감리교회 종각은 도면에 있는 우리 성당 종각보다 훨씬 높았어. 그래서 도면보다 한두 자 더 높여서 우리 성당 종각을 만들어 버렸기에 물자 감독관으로 와 있던 쎈(?)이라는 미군과 옥신각신한 적도 있었어. 지금 마당에 있는 등나무도 그 무렵에 심은 것이고, 큰 느티나무는 그 후에 심었었지."[19]

김학선(안드레아, 당시 88세)의 경험담도 여주성당 초기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마땅한 종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날 박목수(박순형)가 서울 어떤 고물상에 종이 있다

19) 여주성당 설립 40주년 기념집 「남한강의 순례자」, 32쪽, 1990.

는 소문을 듣고 와서 말해 주길래 그 길로 가서 확인해 보니 종은 종인데 얼치기 종이었어. 감곡성당 종소리만 듣고 자라서인지 모양은 종이었지만 워낙 작은 것이었어. 종이란 것은 금·은·동·철이 다 들어가야 좋은 소리가 난다는데…. 감곡성당 종은 임신부가 불란서에다 2개를 주문했는데, 종 공장 사장이 하나 더 기부하여 3개였어. 큰 종은 장정이 떠밀어도 넘어가지 않았어…. 그래도 어쩌겠어, 아쉬운 터라 종각에 매달았지."[20]

2) 여주성당 현황

6·25 발발 직전에 설립된 여주성당은 이제 설립 7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천주교 여주성당 약사

연월일	내 용
1800년 4월 13일	부활대축일에 원경도, 이중배, 최창주 등이 체포되어 순교
1881년	부엉골(강천면 부평리) 공소 설립 - 여주지역 최초 공소
1882년	가섭(대신면 하림리) 공소 설립
1885년 10월 28일	부엉골에 제천(배론)신학교를 이은 예수성심신학교 개교
1887년 3월	예수성심신학교 서울 용산으로 이전
1887년	원심이(강천면 도전리) 공소 설립
1896년 9월 17일	부엉골에서 사목하던 부이용(임가밀로) 신부 장호원(감곡)으로 이동. 여주 지역 공소를 감곡성당에서 관할
1941년 7월 4일	이천성당 설립. 여주지역공소를 이천성당에서 관할
1950년 4월 22일	여주성당 설립. 여주읍 상리에 한옥을 구입하여 성당으로 사용
1950년 5월 하순	초대 본당신부 윤병희(바오로) 부임(서울대교구 소속)
1950년 6월 25일	6.25 발발. 이후 3년간 이천성당에서 관할
1953년 10월 3일	제2대 본당신부 최석호(바오로) 부임. 지금의 본당부지 매입
1954년 10월 7일	소화유치원 건립
1954년 10월 28일	여주성당 건립(주한미군 79공병대 지원). 이 해에 도전리 공소 건립
1964년 7월 2일	수원교구 사제 파견
1967년 9월 2일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파견
1976년 4월 21일	점동면 청안리 공소건물 건립
1979년 12월 15일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철수
1980년 2월 24일	성모성심 수녀회 파견

20) 같은 책, 33쪽. 여주성당에 있던 종은 현재 가야리공소에 있다.

1984년 11월 9일	여주성당 건립(현 성당)
1985년 3월 1일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파견(1993년 2월 18일까지 사목)
1987년 5월 17일	가야리 공소건물 건립
1992년 8월 18일	점동성당 설립
1993년 2월 18일	가남성당 설립
2000년 6월 29일	본당설립 50주년 기념행사
2004년 10월 1일	북여주성당 설립
2009년 6월 9일	순교치명 기념비 건립(여흥로 105번길)
2014년 8월 16일	윤유일 등 9명의 여주순교자 시복
2015년 5월 31일	순교자 기념비 건립(여주시 하동 양섬)
2016년 6월 21일	산북성당 설립

현재의 여주성당은 1984년 11월에 먼저 있던 성당을 헐고 그 자리에 건립하였다. 여주성당은 1992년 8월 18일 점동성당, 1993년 2월 18일 가남성당, 2004년 10월 1일 북여주성당으로 분할된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산북성당은 1983년 천진암본당 녹암공소로 출발하여 2006년 퇴촌본당 산북공소로 되었다가 2006년 산북성당으로 승격하여 광주지구에 소속되어 있다.

여주시 천주교 성당 현황

성당명	설 립 일	주 소	신자수
산북성당	2016년 6월 21일	산북면 상품리 129	541명
북여주성당	2004년 10월 1일	북내면 천송리 322-1	2,084명
가남성당	1993년 2월 18일	가남읍 태평리 191-3	866명
점동성당	1992년 8월 18일	점동면 청안2리 산 17	670명
여주성당	1950년 4월 22일	우암로 5	3,113명
			7,274명

* 천주교 수원교구 홈페이지 참조, 2019년.

최근 3년간 분야별 여주성당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신자수	남자	3,005명	1,294	3,104명	1,341	3,099명	1,350
	여자		1,711		1,763		1,749
주일미사 참례율		899명(29.9%)		902명(29.1%)		860명(27.8%)	
교무금 납부율		40.9%		39.6%		39.1%	

* 여주성당 복음화보고서 참조, 2018.

연령별 신자현황

구 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2016년	147	318	459	426	491	443	332	252	137
2017년	141	315	474	426	513	467	350	266	152
2018년	116	296	473	432	476	477	379	294	156

* 여주성당 복음화보고서 참조, 2018.

여주성당의 최근 통계를 보면 신자 증가율이 정체상태에 있으며 주일미사 참례율은 30%를 넘지 못하고 내림세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자들의 연령대는 지난 3년 동안 0세~19세는 53명이 감소하였고 60세 이상은 108명이 증가하여 노령화되고 있다.

여주성당 신자들의 연령대별 인구 증감은 여주시의 인구변화와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주시 인구현황

구 분	총인구	0세 - 18세	65세 이상
2015년(12월말)	111,033명	19,705명	19,233명
2016년(12월말)	111,563명	19,028명	19,778명
2017년(12월말)	111,984명	18,150명	21,083명

2018년(12월말)	111,525명	17,311명	21,959명
2019년(10월말)	111,060명	16,522명	22,860명

* 여주시청 통계, 2019.

최근 5년 동안 여주시의 인구는 0세~18세가 3,183명이 줄었고 65세 이상은 3,627명이 늘어났다.

5. 나가는 말

200여 년 전 이 땅에 서학과 천주교라는 새로운 문화가 전해졌을 때 우리는 그 문화의 수용에 실패했다. 그것은 문화 전달자의 미숙함과 문화 수용자의 경직성에서 비롯하였다. 당시 조선의 정세가 불안정했던 것도 한몫을 했다. 특히 천주교 신앙의 금지는 다양하고도 혹독한 결과를 초래했다.

먼저 천주교 수용에 앞장섰던 남인 계열의 양반 지도층이 박해로 몰락했다. 이로 인해 노론이 주도하는 세도정치의 서막이 열렸으며 백성들에 대한 가렴주구의 심화로 삶은 피폐해져만 갔다. 전국 각 처에서 민란이 일어났고 서학에 대항하는 시류가 형성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지도층을 잃고 숨을 죽이며 중인, 평민, 천민으로 확산해 나가던 천주교 신자들도 박해의 매서운 서슬을 피할 수 없었다. 신앙을 지키려다 피를 흘리며 죽어간 신자들이 천을 넘고 만을 넘었다. 용케 살아남은 자들도 주변의 눈을 피해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거나 정처 없이 떠돌면서 일상의 평범함을 잃은 채 반사회적 세력으로 치부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한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약해지면 주변 국가가 그냥 두지 않는 법이다. 조선이 세계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자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와 미국이 앞에 서고 유럽의 강국들이 뒤에 서서 이런저런 간섭을 해왔다. 마침내 서양의 탐욕에 반발하고 관리의 학정에 시달리던 동학교도들이 봉기하였다. 이들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출동한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조선 땅에서 전쟁을 벌이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왕비가 시해당하고, 러일 전쟁으로 확대되더니 결국 일본에 의해 조선이 멸망하였다.

이런 나라에서 편하고 안전한 곳은 없었다. 여주의 천주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었기에 호구지책으로 옹기와 도자기를 빚으며 구석진 곳에서 어렵게 목숨을 연

명해야만 했었다. 부엉골이 그랬고 원심이, 오감, 학동이 그러했다.

이렇듯 억압과 가난으로 현실의 삶은 고단했어도 여주의 천주교 신자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몸으로 실천하는 나눔과 위로, 함께 키워가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에 죽음의 시기를 극복하고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

여주의 천주교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신앙의 열정과 갈망은 전과 같지 않다. 사랑이 식어가고 나눔이 줄어들었다. 안으로 위축되어 밖에 있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여주시 인구의 6.6%가 천주교 신자다. 내실도 외양과 비슷하다. 여주성당 신자 3,000여 명 중에서 주일미사 참례자는 30%를 밑돈다. 청소년 신자가 줄고 노인 신자가 늘어나는 비율이 여주시의 인구변동과 일치하고 있다. 2019년 11월 한국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여주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저출산은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여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머물러 살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주는 오래전부터 힘들고 가난하고 아파왔다. 이젠 미래마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보고, 그들의 궁핍을 덜어주도록 노력하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함'에 있다.[21)]

종교의 다름과 신앙의 차이를 떠나서 여주가 한국천주교의 모태가 되는 지역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여주성당이 9명의 순교복자와 더 많은 순교자의 피를 이어받은 교회임을 자각함으로써, 그리고 그 전통과 정신을 오늘, 여기서 다시 실현해 냄으로써 힘겨운 삶을 사는 여주인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고대한다.

기본자료

수원교회사연구소 홈페이지.
시성시복 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조선왕조실록.
천주교 수원교구 홈페이지.

2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참고문헌

여주성당, 여주성당 복음화보고서, 2018.

여주성당, 여주성당 설립 40주년 기념집 남한강의 순례자, 1990.

여주성당, 여주성당 설립 50주년 기념집 남한강의 순례자, 2000.

감곡(매괴의 성모) 본당 100년사, 감곡성당, 2000.

강석진,「19세기 조선교회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 교회사연구 45집, 2015.

강재언,「서양과 조선」, 학고재, 1998.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 36 (조선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탐구당, 2013.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 37 (서세동점과 문호개방)」, 탐구당, 2013.

이석원, 부엉골본당(1885~1896)의 설정과 변화과정 연구, 교회사학 11호, 2014.

이원순,「한국천주교회사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이향만,「서학과 근대의식(서학수용과 근대의식의 단초)」, 동양철학연구 제28집, 2002.

임혜련,「정조말~순조초 김건순의 행보와 신유사옥」, 한국학논총 51호, 2019.

정민,「파란」1, 2권, 천년의 상상, 2019.

한국교회사연구소,「한국천주교회사」1, 2009.

허태용,「정조대 후반 탕평정국과 진산사건의 성격」, 민족문화 35호, 2010.

여 백

6 · 25 전쟁 70주년과 동두천 지원특별법 문제점

이 명 수 (동두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目 次

Ⅰ. 머리말

Ⅱ. 본문

1. 주한미군기지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어떻게 이전시킬 것인가
2. 미군기지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향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4. 실질적인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
5.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의 기지 떠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6. 해외와 국내 사례로 본 동두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Ⅲ. 맺는말

집필자

이 명 수 동두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Ⅰ. 머리말

동두천시에 주한미군이 주둔(駐屯)한 지 7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2003년 주한미군 재배치(再配置)가 추진되면서 2006년「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制定)됐지만 이 특별법은 희생이 컸던 동두천을 특별히 지원해 주지도 못하는 특별법이 됐다.

2006년 상패동의 캠프님불을 시작으로 동두천동 캠프케슬의 상당수의 미군이 평택으로 옮겨갔고 반환 미군기지 개발을 통해 희망 도약(跳躍)의 도시로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두천의 숙원(宿願)에 대한 해법 찾기는 국고(國庫)지원 규모로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아울러 2012년까지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미2사단 미군기지의 이전(移轉)계획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런 이유로 실질적인 미2사단 재배치와 지원 특별법을 다시 제정하여야 한다.

동두천시는 지난 70년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인내해 왔다. 동두천시 면적의 무려 42%를 주한미군기지(基地)가 차지하여 시(市) 발전이 원천적(源泉的)으로 봉쇄(封鎖)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동두천 지원특별법은 실질적인 동두천 지원특별법이 되어야 한다.

국가 안보는 모든 국가에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희생은 당연하며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우리 헌법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라는 공공제의 효용(效用)은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지만 그로 인한 부담(負擔)은 특정 지역인 동두천에 있다. 이에 타 지역과 차별화하여 먼저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다. 따라서 국가는 적법하고 합법적인 국가의 윤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천명(天命)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의 결여(缺如)는 무임승차의 유혹을 발생시켜 종국에는 국방력의 약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동두천은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안보부담을 감수(甘受)해 온 지역이다. 이제 이 지역에 미군이 감축(減縮)된 시점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동두천시와 주민들에게 온전히 부담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은 측면이 있다. 국가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정책의 집행에 있어 동두천시에 합당한 경제지원을 해야 하며 기지 이전 과정과 그 이후의 대책 수립에 있어서 시(市)와 시민들의 의사(意思)를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樹立)해야 한다.

II. 본문

1. 주한미군기지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어떻게 이전시킬 것인가

(1) 70년의 피난 생활

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이 되면서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군부대를 갖추어가며 확장될 때 관계되는 마을은 자기골, 내촌, 개안, 세목, 기촌(턱거리), 걸산동, 너분바위이며, 이 마을의 넓은 들은 광암동(넓은廣 바위岩 마을洞)이 되었다. 이 넓은 들을 미군기지가 차지(借地)하고 있다. 이때 마을의 많은 집과 땅이 징발(徵發)당하면서 땅을 포기하거나 헐값에 넘기고, 그마저도 아예 받지도 못한 주민들은 철거민이 되었다. 주민들은 문전옥답을 빼앗기고 70여 년이 다 되도록 피난 아닌 피난 생활을 해야 했다.

1세대는 벌써 고인(故人)이 되었으며, 2세대도 70세가 넘어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대부분은 조상의 땅을 돌려받을 생각을 못 하고 있다. 당시 징발된 토지 보상금은 현금이 아닌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증권(國債證券)이었으며 무기명(無記名)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2) 문전옥답

주한미군 주둔(駐屯)으로 7개 마을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날벼락을 맞았다. 1953년 7월 27일 휴전(休戰) 후 주민들이 돌아왔지만, 고향은 아니었다. 문전옥답이 사라진 후였다. 미군들은 텐트를 치고 적군의 기지를 점령(占領)이나 한 듯했다. 오순도순 살아온 이웃 마을까지 온데간데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변두리 땅이라도 경작(耕作)하려 했지만, 미군공병대에서 불도저로 밀어버린 땅은 어디가 밭둑인지 논둑인지 지형(地形)마저 바뀌고 말았다. 전쟁의 혼란기(混亂期) 속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지주(地主)의 동의(同義) 없이 무기명 국채증권이란 알지 못하는 증권발행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빼앗았다. 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주한미군 재배치로 반환(返還)하게 되면 지주의 후손들에게 한 맺힌 억울함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미군 재배치의 실효성

우리나라 방위(防衛)를 위해 특별한 피해를 본 동두천시를 근거한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계

획이 2003년 2월 발표되었다. 동두천 지역의 한강 이북 미 2사단 주력부대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시(市) 전체 면적 42.5%에 달하는 40.63km2를 제공해 왔으며 주한 미 지상군 주력부대가 주둔해온 지역이다.

새롭게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란이 심화(深化)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의 중요한 사안들이 제기되었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 없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발표되어 지역 공황(恐慌)에 이르는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었다. 그런데도 동두천지원특별법은 전국적으로 적용 대상 지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동두천시와 같이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 우리가 나서야 한다

동두천시의 지방 발전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정부가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로 지원특별법을 시행하려면, 동두천 발전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구성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이 지원특별법과는 무관하고 지나치게 차분한 자세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 동두천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이어 나가려면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동두천 미군기지를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6 · 25전쟁 혼란 속에 정부가 선택한 것이다. 이제 주한미군기지로 인해 지역발전이 정체(停滯)되고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면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참고 견디어온 동두천시를 국가가 나서서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2.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재정 방향

(1) 지역경제대책

동두천은 주한미군이 이전한다면 대규모의 일자리 상실과 지역경제 공동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정부는 동두천시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지역 경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제정 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거나 직접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한다.

(2) 이전사업 원활히 추진하려면

2004년 2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용산 반환 부지는 녹지로 유지하되 지상 지하를 입체적으로 잘 활용하여 동북아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용산기지 공원화 구상을 개진함으로써 용산 미군 주둔

공여지 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 12월에 정부(건교부) 주도로 용산 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듬해 7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당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용산의 공여 구역 본체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변 산재 부지는 상업업무 주거 문화 등 복합용도 복합시설 조성지구로 조성하게 된다. 용산 반환 기지는 서울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서울시민 대다수가 이용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역사성을 이유로 국가 주도의 막대한 사업비 1조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함에 반해 경기 북부의 지역은 엄청난 면적의 땅을 공여하지만,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용산의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의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4년 12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는 평택시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총 18조 8천억 원, 연간 3천억 원의 국고보조금의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2007년 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비 지원을 명문화하여 지방산업단지의 상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비 전액을 국고보조로 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3) 형평성을 잃은 정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종래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되 평택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지원 수준을 조정하려고 한 특별법이다. 그러나 정부는 처음부터 이 법의 내용을 평택지원 특별법보다는 지원 정도 등의 성격 면에서 낮은 수준으로 만들고 평택 이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시기 및 그 내용 등을 검토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해온 동두천시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을 잃은 처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의 주둔이라는 같은 사안에 대해 국가는 평택에 대하여는 국가 안보에 대해 판단을 하고 동두천에 대하여는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지원 정책의 수준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4) 지역 균형있는 발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대한 손실보상의 측면이 아니라 낙후지역의 개선

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입법을 하였다. 국가안보와 지역 낙후도 개선은 인과 관계가 성립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은 손실보상의 측면에서 입법되지 아니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손실보상의 측면에서 입법목적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즉 전국 어디서나 어딘가에는 공여되어야 할 토지가 해당 지역 지정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는 반드시 공동체가 부담해야 할 특별한 손해이다. 특히 미군 부대의 지원으로 인한 지역 공여는 해당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결정된 만큼 더더욱 손실보상의 폭이 클 것이다. 따라서 행정법상의 손실보상의 법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단순한 토지의 수용사용 환매 등의 원론적인 토지수용법이나 토지 보상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해야 하는 자신의 생존 공간의 일실에서 오는 손실을 생활보상의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5) 생존권 보상법

생존 배려 측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손실보상의 측면 외에도 해당 지역 주민의 생존권 내지는 국가의 생존 배려 의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각종 세제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인 생활공간의 침탈이라는 피해를 준 만큼 계속하여 거주하는 주민에게 최소한 빼앗긴 공간만큼 생존 배려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주한 미군 병력은 감소하나 공여지 반환 시기는 지연됨으로써 지역 낙후 과속과 지역 경제 공황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 동두천은 특별법에 의한 종합사업의 대거 축소와 불투명한 국비 지원 등 실효성이 없는 특별법으로 지역주민의 실망과 국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여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동두천만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법 개정이나 동두천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6) 지속적인 시민 운동 전개

동두천의 시장 및 시의원, 시민은 지속해서 동두천에 대한 국가지원 시책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특히 동두천시 사회단체 협의회가 서명(署名)운동을 전개하기로 2008년 7월 21일에 결의하고 추진한 결과 5만227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미군 주둔지 반환(返還) 및 재개발 계획은 구체화(具體化)한 것이 없는 상태다.

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동두천시의 미래를 위한 지원특별법 제정, 미군 공여지 반환의 활용 방안 마련과 동두천 지역을 묶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국가 지원 산업의 조기 시행과 산업 기반시설의 유치 등 동두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및 청와대에 제출하였지만 1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동두천 지원 특별에 대한 실정법(實定法)이 이행(履行)하지 않고 있다.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1회성 제출로 끝내면 안 된다. 이 법안이 국회 청와대에 실행(實行)될 때까지 줄기차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1년이 지난 지원 특별법 법안(法案)을 다시 발취(拔取)하여 옮겨 적어 본다.

□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2009.1.30. 법률제0936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한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 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 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 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 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 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 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

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지원도시 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7."지방지치단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8."시.도지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하고,"시장.군수.구청장 등 이라 함은 동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여구역 주변 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①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개정2008.2.29.]

②발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지원도시 사업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조직) ①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8.2.29.]

②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한다,[개정2008.2.29.]

③위촉위원은 공여구역과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2008.2.29.]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그 밖의 발전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발전위원회를 둔다.

②지방발전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제4조 제2항에 관한 지역적 사항을 심의한다.

③그 밖에 지방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종합계획 수립) ①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주한 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3.지역 주민의 취업 기회 확대와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4.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군로자 및 사업자 전직.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5.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7.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0.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제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 할 수 있다.[개정2008.2.29.]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8.2.29.]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시.도지사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개정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8.2.29.]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 시행자)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5.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 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시행 승인 등) 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이하"사업승인권자"라 한다)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시.군.구의 구역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야야 한다. ④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변경 승인의 경우를 포함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⑤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1.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3.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사업승인권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가 종합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 협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공여구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반환 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 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 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반환 공여구역을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2008.3.28.]

1.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제5호의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2.국방부장관이 토양 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⑥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개정2008.3.21.]

제13조(반환공여 등의 규제 특례) ①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 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 해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0조의2 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 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2.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 대책 대상자, 이주 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③국가는 반환공여구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 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 지역 및 성장 관리지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 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 공여 구역 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상의 공장(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 시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공장 총 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개정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승인 또는협

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제16조(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시.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토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고시, 개발.관리, 해제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1,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도는 협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대상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특례)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 할 수 있다.[개정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9.1.30.]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개정2008.2.29.]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08.2.29.] ②제1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원도시 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

사업자"라 한다) 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08.2.29.,2008.3.28.]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8.2.29.]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 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8.2.29.]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 구역의 지정 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개정2007.4.6.,2007.4.1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2."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6."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계획,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①노동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07.5.1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 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⑤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사업으로 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토지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또는 관련 시설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제24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2008.3.21.]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병원.청소년회관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과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26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직절히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①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제12조 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08.3.28.]

제29조(인.허가등의 의제) ①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유동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빛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7.“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8.“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9.“하천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

10.“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상수도 인가.

1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2.“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가

13.“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4.“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15.“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6.“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

17.“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8.“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

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9."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21."어항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22."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23."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심의.

24."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2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같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26."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27."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28."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①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양도**) ①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①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매입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의 승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 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3조(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출자의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①국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

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개정2008.2.2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제1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원도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관광.복지시설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인.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이를 면제한다.

제3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37조(자료 제출 및 출입검사) ①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제38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 ①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4. 실직적인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制定)

동두천시는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고 21세기 경기 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 탈바꿈하고 도약하기 위한 기회가 찾아왔지만, 인고의 세월은 멀기만 하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70년 세월 속에 미군이 주둔하여 도시발전 저해(沮害)와 세입(稅入) 감소, 환경오염, 기지촌 이미지 형성 등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련이 있었다. 우리 동두천시의 과제(課題)는 수도권 규제와 국가 제정지원의 한계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은 실질적 혜택이 없는 동두천의 특수성이 배려

되지 않은 미흡한 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일관된 생각이며 정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주된 이유이다.

(1) 미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미군 공여지 반환 및 활용방안 마련과 동두천 지역을 묶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국가지원 산업의 조기 시행과 산업기반 시설의 유치 등 동두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군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미군기지가 있는 땅을 생산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게 마련이다. 이런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 주어야 한다. 소파(SOFA)나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고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미군기지 주변의 실질적 지원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시급(時急)한 문제이다. 그래야 미군기지 특별법제정을 추진하는 배경이 될 것이다.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공동 대책위원회가 시작한 이 특별법 제정 추진은 일부 국회의원도 나섰으며 미군 주둔 지역 지방단체장 협의회도 특별법 초안을 2001년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20년이 다 되도록 속 시원한 대답은 없다. 국회의원 임기가 5번이나 바뀌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

(2) 공여구역 활용 계획

동두천시에 위치한 캠프케이시는 4,278,937평에 달하는 지역을 택지개발과 공원, 언어 마을, 테마파크 등으로 조성키로 했다는 것을 전면 수정(修整)해야 한다. 그곳은 산업단지가 들어와 젊은이들이 내 고향 동두천에서 살 수 있게끔 일자리를 창출(創出)해야 한다. 경기도는 활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15개 지역의 기지는 해당 지자체 행자부 발전종합계획수립 지침에 따른 단계 과제를 마련토록 권고(勸告)했다. 도(道) 관계자는 파주시의 경우 반환연도 14년이 지났는데도 11개 기지 중 캠프에드워드 등 5곳은 아직도 계획수립 중이며 차기 연도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3) 각 시·군의 공여 구역

도내(道內)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경기 북부 7개 시·군에 38곳, 경기 남부 7개 시·군에 13곳 등 모두 51개 곳으로 총면적은 5,200만 평이다. 시군별로 파주시 13곳, 의정부시 9곳, 동두천시 6곳, 포천시 4곳, 연천군 3곳, 양주시 2곳, 가평군 1곳이 북부지역이며 평택시 4곳, 하남시, 성남시, 용인

시 각각 2곳, 수원시, 화성시와 양평군이 각 1곳이 남부 지역에 편제(編制)되어 있다. 주요 기지별 활용 구상안을 보면 의정부시의 경우 2008년 이후 반환되는 캠프레드크라우드 25만 평 부지에 주거, 교육, 연구 기능으로, 캠프잭슨은 49만 평의 부지에 건강, 휴양지, 체험지구로 각각 개발키로 했다. 파주시는 월릉면에 위치한 캠프에드워드 7만여 평 부지에 대학과 병원을 유치하기로 했으나 전체 283만여 평의 면적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불수아이 #1.2는 아직 계획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캠프케이시, 캠프호비, 캠프님불, 짐볼스, 캠프캐슬, H-220 캐슬노우스 (석유 저장 부대) 헬기 포트 등 1,230만여 평에 이르는 6곳 모두 각각 택지 개발하여 주거단지와 공원 대학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으로 계획을 감정 결정했다. 나머지 반환 연도가 확정된 미군기지 가운데 15곳은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예산과 공여 구역

동두천시의 미군 공여지 문제는 충분한 예산과 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미래가 있다. 일부 미군기지의 경우 반환 시기가 불투명해 계획수립 절차가 꼬리를 무는 격이 되었으며 지연(遲延)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동두천의 희망의 땅인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는 미군 공여지 반환연도가 확실하지 않아 여전히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예산도 없이 주변 개발부터 착수하라는 행자부 지침은 앞뒤가 맞지도 않은 지침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와 관련 공여지 개발구역이 수립되어야 병원, 대학, 공원, 산업단지 등 민자 유치가 가능한데 행자부 지침대로 추진할 경우 지역 이익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챙기지 못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과 관련해 지역주민 보상은 물론 미군 철수로 인한 생존권 자영업자 도산(倒産) 및 실업자 발생 등에 따른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5.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떠난다면 어떻게 활용(活用)할 것인가

(1) 지역 경제의 공황

동두천시와 같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기지의 활용, 반환기지 주변 지역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 및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드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주한 미군이 철수한다면 지역경제의 정체와 낙후로 이어져 지

역 발전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유 또는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점유된 토지와 그 지상에 건설된 고정 자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어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보전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재정 수입액 산정 방법이 지방세 징수액에 기초하고 있어 비과세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 없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경제가 공황에 이를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중앙정부의 배려

동두천의 토지 이용에는 제한 구역이 대부분이다. 묶여있는 곳은 군사 보호구역, 군 공여지, 생태 자원도 1등급 지역 등 다양한 규제 대상 지역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미군 공여지가 반환되는 것은 동두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군공여지가 무상으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의 매각 대금으로 미군 이전 비용을 충당하게 되기 때문에 동두천시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 독자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지의 상당 부분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제한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제약 요인을 동두천시가 자체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물론 경기도 차원의 배려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

(3) 공여지와 산업단지

반환 예정인 마군 공여지에 대해서는 동두천시는 물론이고 경기도에서도 다양한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교 및 영어마을 유치, 산업단지 및 협력 단지 건설, 평화공원 조성, 리조트 및 테마파크 등 관광시설 조성, 공공시설 유치 등이 그것이다. 캠프케이시의 경우 통일시대 경원선 축선의 성장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 지역이 대규모 또는 경기 동북부의 실질적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산업단지 지정의 경우에도 동두천시는 수정법에 의해 정상관리 권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산집법의 물량 배정기준에 따른 산업단지 물량을 경기도에서 별도 배정을 받거나 경기도 성장관리 권역의 산업단지 배분 물량이 1년간 약 40만 평 정도가 할애될 수 있는데, 이 모두를 2~3년에 걸쳐 동두천시에 몰아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4) 불공평한 정부예산

동두천 시민이 절박한 심정으로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그토록 염원하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2006년 3월 3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2006년 9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공여구역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① 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지원 ② 반환공여지 중 도로 공원 하천에 대한 매입 보조비용 ③ 500m2이상의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 완화 ④ 지원도시 사업 구역의 지정개발 ⑤ 사업 추진시 인허가의 제 처리 ⑥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원 ⑦ 민간 사업자에 대한 보조융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역개발과 발전 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공여구역 등 특별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에게 제공된 공여지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의 경제 진흥과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법 제정 과정에서 법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 공여지를 규모나 여파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포함해 13개 시·도, 65개 시·군·구를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하여 불공평하고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말았다. 타지역에 비해 국가 안보로 희생한 점은 고려하지도 않고 똑같이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막대한 정부예산의 한계로 인해 지원 규모와 일정이 불투명한 것 등 주한미군과 공여지로 인해 동두천시는 그동안 국회와 중앙정부 등을 찾아다니며 지원을 호소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피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6. 해외 사례로 본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1) 도시 경제권 구상

동두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다양한 구상들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평택이나 용산기지 사례와 같은 실질적인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는 미군기지가 70년이나 주둔했던 지역에 대한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동두천시의 현실은 자족적인 도시경제권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기형적이며, 대안 없는 미군 철수 시 도시 경제의 공황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더 근본적인 경기 동북부권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구상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나 이와 병행하여 동두천시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2) 일본의 사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군사기지가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약 2000km2로 전 국토의

0.37%에 불과하다. 가운데 1/3 정도를 미군이 사용하고 있어 미군기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12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1962년 1월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섭외 관계도 도·부 현지사 연락회라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일찍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군사 기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일본의 군사기지 주변 대책은 1952년 미군정이 종식되면서 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군사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66년 7월에는 방위시설 주변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행정조치로 각종 피해를 보상하던 것을 대부분 법제화하고 시정촌이 실시한 군사시설 주변의 민생안전 사업에도 지원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1974년 6월 27일에는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1999년 12월 22일 개정하였다. 이 법은 항공기 소음대책, 주택 방음 공사, 녹지대 정비, 특정 방위시설 주변 정비 교부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기지 주변 생활환경 대책은 방위시설청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방위청 예산으로 직접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시설청이 기지 대책비로 사용하는 예산은 1979년 이후 일본 전체 방위비 예산의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오키나와 진흥법

오키나와 진흥개발 특별지원법 제정은 일본 중앙 정부의 1972년 오키나와 반환에 즈음하여 오키나와 진흥개발 특별지원법을 제정하였다. 1971년 12월 31일 동법은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오키나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의 진흥개발 10년 계획을 3차례에 걸쳐서 30년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일본 정부는 정부 조직 내에 오키나와 개발청을, 오키나와 현지에 오키나와 종합사무국을 두고 30여 년간 6조 7,159억 엔을 투입 공항, 항만, 도로 등 공공기반 시설정비에 집중하였다. 3차 계획 기간 중 발생한 미군의 12세 소녀 성폭행 사건으로 미군기지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등장하자 이를 무마하는 차원에서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의 자립형 경제 구축을 위해 오키나와 경제 진흥 21세기 플랜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을 통해 특별 자유무역 지역 제도가 만들어지고 관광리조트 산업과 정보 통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감면 조치가 마련되었다.

또 오키나와 자동차도로의 통행료와 공항 사용료 인하가 이루어져 관광 선진 8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불균형(1차 산업 2%, 2차 산업 18%, 3차 산업 80%)과 높은 청년 실업률(13% 낮은 소득 일본 전국 평균의 72%)으로 지역 간 인구 및 경제 격차는 더욱 심

화하였다. 또한 본토와의 격리에 따른 협소한 시장의 한계, 비효율적인 기반 정비, 미군 시설의 집중에 따른 기지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오키나와는 본토의 격차 시정과 자립경제구축을 위한 30년간의 진흥개발 계획을 실패로 규정하고 미군기지의 주둔을 고려한 오키나와현에 대한 보다 강화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도록 정부에 요구하였다.

(4) 오키나와 경제 진흥 21세기 플랜은 다음과 같다.

① 가공 교역형의 진흥

- 특별자유무역 지역 지정을 위한 조치
- 입지 촉진을 위한 시설정비 운영주체 기업유치 촉진 무역진흥 기업활동 지원 인프라 정비
- 오키나와 진흥개발 금융공고와 자유무역지역 등 특정 지역 진흥자금 등의 활용

② 관광외조트 산업의 새로운 전개

- 항공 운임 인하 자동차 도로 동행요금 할인 사증 수속 완화 상륙허가 관련 행동 범위 확대
- 관광 정보체계 정비 국제와의 유치 기념 공원 지구 정비 역사관 형성 쇼핑물 등 관광 촉진 사업
- 친환경적 Eco, Green, Biuetourism 추진
- 공공인프라 등 관광 시설 정비

③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는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

- 통신비용 인하
- 오키나와 국제정보특 구상의 추진
- 정보통신산업유치 컨텐츠 개발 디지털 영상 관련 시설 정비 네트워크 구축 등
- 인재 개발
- 연구 개발용 공동이용 시설

④ 농림수산업의 새로운 전개

- 특색있는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공급
-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 농림 수산업과 관광 리조트 산업의 연계

(5) 독일의 사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세계 제2차 대전의 전범국으로서 전후(戰後)미국, 영국, 프랑

스, 소련 4대 강국의 군사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서독의 경우 분단으로 말미암아 동독과의 접경 지역은 경제 침체에 처하게 되었으며 기업 이동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악화된 교통 사정으로 인한 유통 비율의 증가 등이 발생하였다. 서독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접경지원법을 제정(1971년 8월 5일)하였다. 분단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행정기관은 접경 지역의 집중개발에 시책의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포함되는 시책들은 고용 창출 및 안정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 다양한 자연 경관 조성 등 이었다.

① 접경 중점지역의 지원

접경지 지원 대상의 지정 기준 및 현황은 접경지원법 제9조에 명기된 접경지역의 범위는 동독과 경계(1,393km), 체코와의 경계(356km), 북부해안 지역(384km)이다. 총 면적은 46,800km2로 서독 면적의 20%에 해당하며 인구는 총 12%에 이르렀다. 접경 지역은 3계층에 지원 지역으로 세분화되었는데 어떤 계층이냐에 따라 지원과 투자 보조를 차별화하였다. 3계층에 지원 지역은 25%지원 중점지역, 15%지원 중점지역, 기타지역(10%) 등으로 이루어졌다.

② 국가 차원의 적극 지원

국가 차원의 지원 내용은 기업 창업과 확장 전업 및 합리화 조치 지원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일자리 하나 창출 시 기업에 25,000마르크씩을 지원하였으며, 연방정부의 보증으로 15년 상환 조건으로 300만 마르크까지 융자가 가능했다. 교통망 연계 에너지 및 상수도 공급시설 하수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공공관광 시설 확충 시에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당시 연방 정부 총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의 75%가 접경 지역에 배분되었다. 기초단체에 대해서도 도로 건설, 에너지 공급, 상하수도 건설 등을 지원하였다. 접경지 내 지자체가 인력 양성을 추진할 경우 교육기관 및 재교육기관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입지적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이 지역 기업이 특별히 높은 운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개인 주택 건설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보다 1/3 정도 더 지원을 받았다. 연방정부는 체육관 수영장, 휴양소, 양로원, 병원, 장애인 시설과 같은 복지시설의 건설도 지원하였다.

(6) 바이에른주 접경 지역의 개발사업분야

① 자연 및 녹지 : 국립공원 비오톱

② 도시주택 분야 : 도시건설 촉진 바이에른 마을정비 프로그램 주택분야

③ 농림업 분야 : 농업경제구조, 농림의 도로개설, 산림업의 조치

④ 관공업 지역 경제 구조 : 생산 및 제조업, 관광사업

⑤ 교육 및 문화시업 분야 : 유치원, 유아원, 일반교육 및 직업학교, 직업재교육, 대학 및 연구기관, 청소년 교육 및 선도, 예술 및 문화관리, 도서관 및 자료 보관 시설

⑥ 스포츠 휴양관광시설 구조 : 실내 체육관, 체육시설, 실내 수영장, 실외수영장, 자연유원지, 국립 유원지, 여타의 체육 휴양 및 관광시설

⑦ 사회보장 및 보건 분야 : 가족지원, 육아 양육, 양로원 및 통원 노약자 지원 시설, 장애자 재활 보호시설, 종합병원

⑧ 교통분야 : 대중교통, 도로교통, 민간용 항공 교통

⑨ 에너지 공급 : 가스공급, 난방공급, 에너지 재활용

⑩ 수경제 : 기초지자체 수자원 공급, 기초지자체 폐수처리, 수경제의 국가 임무 2.3급 토지이용사업체의 연관된 하천관리조치, 토지정리 시 토양 보호 및 수경제 관리

⑪ 기술적 환경보호 : 폐기물경제, 오폐수 및 대기정화의 기술지원, 소음 및 진동보호

(7) 필리핀 정부의 지원 역할

1991년 필리핀 상원의원이 미 군사기지 조약 연장을 거부하고 기지 사용 협정이 만료됨에 따라 1992년 11월에 미 해군 철수가 완료되었다. 이후 필리핀은 수빅만을 특별경제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여 1996년에는 APEC 정상회담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보인다. 수빅만은 기지 전환 개발법으로 수빅만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함으로써 총 67,500ha 규모의 동아시아 최대 수출 공단 및 자유무역항을 건설할 수 있었다 이 시설 내에는 호텔을 비롯해 휴양시설 주거시설 컨벤션센터 등이 입지할 것이며 주택의 경우 과거 미군을 위한 숙박시설을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빅만 개발은 독자적인 행정권을 갖는 수빅만 관리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필리핀 수빅의 사례는 반환구역의 활용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필리핀 정부는 미군기지 철수와 거의 동시에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지정 및 규제 해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빅만 관리청을 통해 집중적으로 개발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던 점도 수빅을 성공사례로 이끈 요소라 할 수 있다.

수빅은 활용도가 낮은 공항과 항만 미약한 고속도로 활용체계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도시 이미지 쇄신을 통한 차별화된 도시정책을 실시하고 기업 유치를 이끎으로써 성공적인 미 해군 반환 구역의 활용 사례로 꼽히고 있다.

(8) 각 나라의 실제 상황

해외 사례로 일본 오키나와를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과도한 미군기지 집중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보상책 및 각종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오키나와 진흥개발 특별법과 같이 과도한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군사 기지에 인접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지역개발 제한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두천의 경우 서울과 접해있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이중 삼중의 개발 제한이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미군기지의 이전이 확실시된다면 특별법을 마련하여 개발규제 완화를 비롯하여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키나와의 경우 오키나와 경제 진흥 플랜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의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새로이 군사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이나 군사시설이 빠져나가는 지역 모두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육성책이 마련되고 이에 국가적 재원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는 동서 냉전의 최전선에 있는 이유로 가장 대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이다. 독일 지역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는 냉전 시기 구동독 및 체코 등 공산권 지역과의 접경 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사례라 볼 수 있다. 냉전 시기 독일의 경우 구공산권 지역과의 접경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낙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적 지원으로 접경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였다. 이는 우리의 접경지역 및 군사기지 소재 지역의 지역경제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1983~1987년 기간 중 지역경제 개선 지원금 중 절반 이상을 접경지역 총면적의 20% 총인구 12%에 지출하였다. 특히 각종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을 비롯하여 기업과 교육기관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 삼중의 규제 하에 놓여있는 경기도 각 지역과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

(9) 지원 정책의 실효성

동두천시와 같이 지역 내에 대규모의 군사기지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구서독의 접경 지역 지원법과 같은 특별법 형태의 지원법을 제정하여 군사기지 소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수정법 등 다른 법률과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구제 완화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

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동두천은 앞에서 말한 미군 공여지역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아 왔다. 이에 더해 성장관리 권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아 이중 제한을 받고 있다. 규제를 풀어 난개발되어도 안되지만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풀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와 살도록 일자리 창출, 쾌적한 환경, 믿을 수 있는 공교육이 되도록 정부가 나서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좋은 직장, 좋은 이웃, 좋은 사람, 좋은 학교가 있는 곳에 가서 살고 싶기를 원한다. 무엇보다도 미군 공유지가 풀리고 기업체들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일하는 즐거움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 동두천으로 들어와 인구(人口)가 늘어나야 발전할 수 있다.

(10) 활발(活潑)히 움직이는 미군 공여지 의정부, 파주, 평택

① 의정부 캠프스탠리 공여지 도심 공항 터미널 추진

의정부 고산동 미군 공여지인 캠프스탠리 부지 일부의 도심 공항 터미널 신설이 추진된다. 의정부시는 1억5천만원의 설계비를 들여 고산동 504의 1일대 미군 공여지인 캠프스탠리 부지 일부를 활용 도심 공항 터미널 신설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나섰다고 9월 20일 밝혔다.

시(市)는 내년 3월 경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항시설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요청하는 등 신설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정부시가 이곳에 도심 공항 터미널 신설을 추진하는 데는 인천 공항에서 1시간 거리이고, 수도권 제1순환도로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뛰어난 점이 반영됐다. 반경 15km이내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양주 등 경기 동북부를 비롯해 서울 북부권 등 250만 명 정도의 배후 이용 수요가 있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특히 도심 공항터미널은 캠프스탠리와 접한 고산동 일대에 조성 중인 복합문화 융합단지를 찾는 연간 17만5천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 수요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예정지는 43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진 캠프스탠리 일부로 2만5천여m2 정도다. 이곳에 탑승 수속 및 출국 심사장, 리무진 출발 및 도착장,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갖춘 지하 2층에 지상 4층 연면적 2만m2 규모의 공항 터미널을 짓겠다는 것이다. 시(市)는 타당성 경과가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도심 공항 터미널 기본계획을 제출, 공항시설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오는 2020년 10월 서울 지방항공청에 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를 포함해 69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민자 재정사업 여부는 타당성 검토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병력 대부분이 철수하고 헬기 중간 급유시설과 관리 인력만 남은 캠프스탠리의 불확실한 반환 시기가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캠프스탠리의 반환시기가 늦어지면 사업 대상지만이라도 분리 반환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②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 개발사업

파주시는 2019년 반환 미군 공여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자 공모를 통해 ㈜티엔티공작을 선정,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고, 2016년 심사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승인 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2018년 2월 12일 청문절차를 밟았다. 2018년 시(市)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고 ㈜티앤티공작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말 1심에서 패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6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티앤티공작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 해결사항이 전제되어야만 성공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진행중인 ㈜티앤티공작과 행정소송에서 파주시가 승소해야 하고 부지(토지) 및 지역 조합 주택 민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파주시가 최종 승소하더라도 전 사업자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각종 용역의 승계 여부도 사업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티앤티공작은 교통환경 영향 평가 등 각종 용역을 수행한 상태로 신규사업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전 사업자의 내용을 승계할 경우 빠른 착공이 가능하겠지만 이를 승계하지 못 할 경우 각종 인허가 추진에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2009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라 지정된 토지소유주 모임과 2017년 시(市)의 지역 조합 주택 조합원 모집 허가에 따라 모집된 조합원 495명도 복병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단독 주택 상가 분양을 홍보했다. 당시 이 사업에 조리읍 주민과 시민 수백 명이 전 사업시행자와 분양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금으로 최대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티앤티공작과 행정소송은 소송대리로 진행하고 새 사업자와는 충분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③ 평택 미군 공여지역 주변 주민 편익 사업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라 부대 주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주거 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 편익시설 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주민 편익시설 사업은 미군 공여 지역 3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공원 도로 상하수도 설치 등 13개 분야에 대해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市)는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국방부로부터 1조1,102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지난 2008년 타당성 검토 및 국방부 승인을 받아 주민 편익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추진 실적으로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조 409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과 소공원 조성 각각 77건, 마을 진입도로 개설 47건, 하수도 18개소, 공익 상수도 공급 50개 등 미군기지 주변 낙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했다. 2020년에는 346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교 확장공사, 신장동 중앙로 확장 · 포장 공사, 방음공사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348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 편익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발표했다.

이렇듯이 의정부, 파주, 평택은 미군 공여지 지원특별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동두천은 특별하게도 말만 동두천 지원특별법이지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실질적인 동두천 지원특별법 예산이 투입되려면 어떤 경우라도 적용하고 의미와 발전을 찾아내어 잘 살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Ⅲ. 맺는말

동두천은 국가 안보를 위해 시민, 경제, 시(市) 재정(財政) 등 많은 부분에서 희생했다.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외화 획득 등에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미군 주둔으로 인한 공여 지역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게다가 성장관리 권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아 이중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상기(想起)한다면 바로 잡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동두천시에 미군이 최초로 주둔한 것은 6 · 25전쟁 때이다. 1951년 7월 미 보병 24사단이 약 8개월간 주둔한 이래, 미 보병 3사단 6연대와 미 보병 25사단 24연대가 52년부터 53년까지 주둔하였으며, 미 보병 7사단이 1952년부터 1970년까지 주둔한 후 철수하였으며, 주한미군 핵심 전력부대인 미 보병 2사단이 50년간 장기(長期)주둔하다 재배치로 침체기(沈滯期)에 접어들었다.

한미 양국은 미래 한미 정책 구상회의(FOTA)를 통한 연합 토지 관리계획(LPP)개정에 따라 주한 미군 재배치 계획을 2003년 2월에 발표하였고, 미 2사단 병력이 2004년 8월에 4천여 명이 이라크로 재 파병되어 7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평택으로 재배치되어 지금은 2천 명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동두천 시민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정신적인 피해로 70년간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다. 기지촌이라는 질시(疾視)와 냉대 속에서 미군에 의한 범죄 발생으로 좋지 않게 평가하는 열악한 교육환경, 미군기지 유출 사고로 인한 악취와 주변 지역 농작물 고사(枯死), 미군들의 잦은 군사훈련, 미군기지의 헬기 이착륙, 헬기 저공비행으로 인한 소음공해로 인한 수면장애, 전차 등 중장비 운행으로 도로 파손 및 교통체증 등 타 도시와 다른 생활환경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걸산동 주민 52세대, 150여 명은 미군이 발급하는 출입 허가증이 있어야 마을 출입이 가능한 실정으로 섬도 아닌 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미2사단 영내에 조상의 묘소가 산재해 있으나 성묘나 벌초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미군 측으로부터 사전에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민통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편과 피해를 받고 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1996년 4월 23일 오전 10시 30분경 캠프케이시 미군 사격장의 불씨로 인한 걸산동 밤나무골 화재이다. 고(故) 이강욱 산림팀장은 공익근무요원 6명과 함께 산불 진화(鎭火) 작업을 하다 순직(殉職)하고 말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지역의 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수도권 정책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무는 동두천 지역을 수도권으로 설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의 범위에서 동두천 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정책(政策)을 세우고 군 공여지 조기 반환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동두천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동두천시가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군 공여지 반환 일정을 더 미루지 말고 조속히 확정해야 할 것이며 생산(生産)적인 방안(方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동두천 향토지(鄕土誌) (1988) 동두천향토지 편집위원회
2. 동두천 시사(市史) (1998) 동두천시사 편찬위원회
3. 미군 떠나도 밟지 못하는 땅 (2005) 경인일보
4. 미군 특별법 해당 지역 (2005) 벼룩시장
5. 동두천 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여지 활용 방안 (2006) 경기향토지11집 이명수
6. 동두천 지원특별법 토론회(2008) 김성수 국회위원 경기도경제연합회
7. 미군공여지 피해주민합법보상(2008)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한국전쟁(6·25전쟁)속의 연천

이 준 용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소장)

目 次

Ⅰ. 들어가는 글

Ⅱ. 연천과 한국전쟁

1. 전쟁준비
   1) 인민군 4사단의 연천배치
   2) 토목공사와 주민 소개(疏開)
2. 개전
3. 1950년 국군의 북진과 연천진입
4. 1950년 12월 중국인민지원군의 연천진입
5. 1951년 연천을 둘러싼 공방전
   1) 유엔군의 4월 반격과 연천진입
   2) 중국군의 4월 공세와 연천진입
   3) 유엔군의 반격과 연천장악
   4) 휴전협상 중에 건립된 유엔화장장
   5) 미군과 유엔군의 민간인 지원사업
   6) 유엔군의 연천지역 주요 전투상황
6. 휴 전

Ⅲ 맺는 글

집필자

이 준 용 연천문화원장

Ⅰ. 들어가는 글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이며 가장 최근에 일어난 같은 민족 간의 처절했던 전쟁이었다. 그중에서도 경기 북부의 접경 지역은 냉전 시기 물리적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전방으로서 6·25전쟁의 역사적 시설물과 기억들이 산적한 지역이다.

휴전협정 당시 동부전선은 국군과 미군이, 서부전선은 주로 유엔군 병사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며 많은 목숨을 잃었다. 당시의 최고 접전지는 바로 연천이었다. 전쟁 당시 남한과 북한, 중공군, 미군, 유엔군 등 세계 최강국의 군인들이 이 지역에서 수년간 접전을 치렀으며 현재까지도 한국, 미국, 유엔이 관여하는 군사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접경 지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연천군처럼 전쟁 이전에는 북한에 속해 있었던 수복 지역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3년간의 처절한 전쟁 속에 정전 협상이 개시되었고 당시 상대방 군들은 서로 정전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협상 중에도 한 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뺏고 빼앗기는 일진일퇴 속에 많은 장병이 전사를 하였으며 문화재를 비롯하여 모든 건물이 피폭 소실되었다.

Ⅱ. 연천과 한국전쟁

1. 전쟁준비

한국전쟁 직전 연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당시 연천은 해방과 더불어 북한 땅으로 편입되었다. 이에 북한 지도부가 남한을 침공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38선에 가까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기 때문이다. 부대를 전진 배치하고, 전투 훈련을 하였다. 그리고 원활한 수송체계 확립을 위해 교량을 신설하는 등의 토목공사를 벌였으며, 38선 부근의 주민을 소개한 것이다.[1)]

1)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나남출판, 1996, 332쪽.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지라 저들의 행동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혀 예상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무관심 그 자체였으며 연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골 마을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난 것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에 이어 38선을 돌파하고 유엔군이 연천에 진입하고 나서야 전쟁이 일어난 것을 안 경우가 많았었다.

1) 인민군 4사단의 연천 배치

인민군은 개전에 대비하여 전력을 크게 강화하였다. 1948년 2월 창설된 인민군은 1950년 봄 4개 사단이 증편되어 모두 13개 사단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전력 증강에는 1950년 봄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한인 병사들의 북한 귀환이 결정적으로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소련으로부터 전차 · 자주포 · 항공기 등 무기 반입도 급증하였으며, 군사훈련도 강화하였다.[2] 그리고 연천지역은 전쟁이 나기 몇 해 전부터 방공호를 파는 공사가 실시되었다.[3]

개전이 임박한 1950년 5월에는 38선 이북에 인민군이 전진 배치되었으며, 연천 지역에도 인민군이 계속 증강되었다. 이때 연천에 배치된 부대는 인민군 4사단이었으며, 6월 23일까지 부대 배치가 완료되었다.[4] 연천면 상리초등학교에도 인민군이 진주하였는데, 군인들은 주민들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면서 주민들에게 상리초등학교에 들어오면 총살한다고 농담하였다 한다.[5]

인민군 4사단은 1950년 봄 신의주에서 제4독립혼성여단이 중국인민해방군 166사단 소속 한인 병력 1개 연대를 지원받아 증편된 부대이다.[6] 이 4사단은 6월 25일 인민군 남침 당시 주공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동두천, 의정부, 미아리를 거쳐 서울에 최초로 입성한 조선인민군의 최정예 부대이다.

2) 토목공사와 주민소개

군사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와 교량 공사 등의 토목공사는 1949년과 1950년도에 집중

---

2) 박명림, 위의 책, 341~343쪽.
3) 안천 『남침유도설 해부』, 교육과학사, 1993, 26쪽.
4) 앞의 윤익중 증언.
5) 앞의 허은 증언.
6) 박명림, 앞의 책, 343쪽.

등록문화재 제45호 연천역급수탑

적으로 실시되었다. 38선 부근의 도로와 교량 수리는 1950년 봄까지 끝내게 되어 있었다. 임진강과 한탄강 부근, 그리고 연천 등지에서 토목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연천에는 한탄교가 신설되었는데, 이 공사는 1949년 3월에 시작되어 1950년 6월 1일 완성목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연천군 관인면의 신천에도 신천교가 건설되었다.[7] 연천역 구내 철로 옆 지면을 높이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군수품을 비롯하여 각종 화물 하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였다. 이들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곳은 1950년 한국전쟁 개전 당시 인민군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이동한 지점들이다.[8]

한편 1950년 2월과 3월 사이에 38선 북방 3~4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개령이 내려졌다. 소개는 내무성 보안국 소속 38경비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소개 명령은 38선 부근 1만 8,000가구, 6만 5,000명의 주민에게 내려졌다. 이는 인민군의 38선 전진 배치를 앞두고, 병력 이동 비밀을 유지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하는데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3월 18일 오후에는 백학면과 군남면의 주민 200명이 강제로 트럭에 태워져 연천면으로 보내졌다가, 다음 날 오후에 다시 원산으로 보내졌다. 이보다 늦은 4월 17 · 18일에도 전곡면의 여러 마

---

7) 연천군 중심지를 관통하던 차탄천 물길을 연천읍으로 우회하도록 하는 대대적인 토목공사도 이루어졌다. 이 공사에는 연천군과 삭녕 등 이웃 지역 주민이 동원되었다. 16세 이상 주민이 자기 쌀을 가지고 작업에 교대로 참여하였다. 숙박은 천막을 쳐서 해결하였으며, 가까운데 친척이 있는 사람은 친척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 (앞의 허은 · 윤익중 증언).

8) 박명림, 앞의 책, 333~336쪽.

을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졌다. 이들 역시 트럭에 태워져 연천면을 거쳐 원산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노동당원과 그의 가족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었고 산골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에 소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9)]

2. 개전

1950년 6월 25일 13만 5,000여 명의 병력에 T-34 전차를 앞세운 인민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남침하였다. 인민군의 공격 목표는 서울 장악이었다. 그래서 공격에 투입된 인민군 2개 군단의 작전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인민군 1군단은 연천 · 운천에서 의정부를 거쳐 서울에 이르는 주공격 축선에 전투력을 집중하였고, 개성에서 문산을 거쳐 서울에 이르는 공격 축선에는 조공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2군단 역시 춘천-가평-서울로 이어지는 공격 축선에 조공을 투입하였다.[10)] 연천에 배치된 인민군 4사단과 운천에 배치된 3사단이 한국전쟁 개전 당시 인민군 주공격 축선에 배치된 인민군 최정예 부대였다.

인민군 4사단은 6월 25일 전차연대와 협공하여 38선을 돌파하고 동두천으로 남하하였다. 인민군 4사단 공격 축선에는 국군 7사단 1연대가 동두천 정면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 중 38선에 배치된 병력은 2대대였고, 나머지 연대 주력은 의정부에서 훈련 중이었다. 인민군 4사단은 전차 2개 대대가 증강된 16연대를 38선 북방의 전곡에서 38선 남방의 청산면 초성리와 동두천 방향으로 공격도록 하였고, 18연대를 서쪽 파주군 적성면 적암리에서 동두천 봉암리로 이어지는 축선에 조공으로 투입하였다.

작전을 개시한 인민군 16연대는 전곡에서 한탄강을 건너 곧바로 국군 7사단 1연대 2대대 경계진지를 돌파하고 초성리를 점령한 후 계속해서 전차를 선두로 하여 동두천으로 남하하였다. 이때 국군 1연대 2대대는 동두천 북방 소요산 일대로 철수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인민군과 전투를 벌였다.

---

9) 박명림, 위와 같음.

10) 김기옥, 『북한군의 침공과 한국군의 방어』, 『한국전쟁사』 3, 행림출판, 1992, 70~76쪽 ;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 上, 1995, 112~113쪽.

동시에 국군 1연대 1대대가 서쪽의 마차산에, 3대대가 마차산 남쪽 봉암리에 각각 투입되어 배치되었으나, 이미 인민군 17연대 1대대와 3대대 병력이 우회하여 양주군 덕정까지 진출한 이후였다. 한편 인민군 4사단은 107전차연대 소속의 전차 수십 대를 앞세우고 국군 7사단 2대대가 저항하고 있는 소요산 일대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미 탄약마저 떨어진 국군 2대대는 철수하였고, 6월 25일 저녁 해 질 무렵에 인민군은 동두천 시내까지 진입하였다.[11]

서울은 6월 28일 연천에서 남하하여 동두천을 거쳐 의정부 축선을 공격한 인민군 4사단과 운천에서 남하하여 포천을 거친 인민군 3사단, 그리고 105전차연대에 의해 점령되었다. 당초 인민군 1군단 1사단은 개성에서 문산을 거쳐, 인민군 2군단 병력은 춘천과 가평을 거쳐 각각 서울에 진입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인민군 1사단은 파주 봉일천에서 국군 1사단에 의해 진격을 저지당하였고, 특히 인민군 2군단 1사단, 12사단은 국군 6사단의 선방으로 춘천에서 진격이 매우 지연되었다. 다른 인민군 부대들이 국군의 저지로 공격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인민군 4사단과 3사단이 전차부대의 지원을 받아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단독 점령한 것이다.

한편 인민군이 남하한 이후, 38선 이북의 연천 주민들은 전쟁물자 수송을 위해 동원되기도 하였으며,[12] 개전 얼마 후 제공권을 장악한 유엔군의 폭격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다.[13]

그런데 38선 이남 연천 지역(현재의 전곡읍 양원리, 늘목리, 간파리와 미산면 삼화리 등)은 인민군이 진주한 이후 큰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인민군의 진격 속도가 빨라 주민들은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였다. 북한의 점령정책이 실시되면서 제반 개혁이 이루어졌고, 마을 내의 사회주의자들이 자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에 대한 선전이 실시되었고, 날마다 회의가 열렸다.[14] 38선 이남의 전곡면 양원리에서는 반공유격대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의용군 모집 방해, 유치장 습격, 인민군 기습 공격 등의 유격전을 펼쳤다.[15]

---

11)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 上, 113~114쪽.

12) 안천, 앞의 책, 35쪽.

13) 앞의 허은 증언.

14) 안천, 앞의 책, 35쪽.

15) 양원리 유격대는 8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초기에는 본부를 양원리에 두었으나 활동이 일부 탐지된 후, 양원리에서 6km 떨어진 마차산으로 옮겼다. 마차산으로 옮긴 이후 식량이 떨어져 고전하였으나, 유격대 활동은 활발히 전개하였다. 1950년 8월 1일에는 의용군 입대 예정인 청년들을 설득하여 피신시켰으며, 8월 14일에는 적성면

3. 1950년 10월 국군의 북진과 연천 진입

서울이 인민군에 점령되고 전세가 계속 악화하자, 미국은 7월 7일 유엔 총회의 결의를 얻어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을 구성하고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은 참전 초기에 인민군에 계속 밀려, 8월 15일경에는 마산-왜관-포항 선까지 후퇴하였다.

낙동강을 경계로 하여 유엔군과 인민군 간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으나, 9월 15일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함에 따라 전세는 역전되고 인민군은 패퇴하기 시작하였다.[16]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고, 38선까지 진격하였다. 이때 38선 남쪽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까지 진출한 병력은 국군 8사단 10연대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38선 돌파

10월 1일 국군은 38선을 넘어 북진하였다. 10월 8일 연천군 초성리에 주둔 중인 국군 8사단 10연대가 38선을 넘어 한탄강을 건너 전곡에 진입하였다. 당시 국군 8사단 전면에는 인민군 27여단이 있었으나, 국군 8사단에 밀려 북쪽으로 계속 후퇴하였다. 8사단은 계속 북상하여 10월 9일에는 연천면을 장악하였다.[17]

1945년 해방 이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소속되어 남한의 통치권 밖에 있던 38선 이북 연천 지역에 국군이 처음 발을 딛는 순간이었다.

연천에서는 인민군 후퇴 당시, 노동당원 등 핵심 세력들이 인민군을 따라 북으로 후퇴하였다. 그리고 인민군은 후퇴하면서 38선 이남 고랑포 지역 청년 13명을 쇠사슬에 묶어 고랑포 뒷산으로 끌고 가 총살하였다. 이들이 라디오를 통해 국군이 가까이 진격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방공호 속에서 태극기를 만드는 등 국군 환영 준비를 하였기 때문이다.[18]

내무서 유치장을 습격하여 감금된 청년들을 구하는 등 1950년 10월 초 국군이 연천에 진입할 때까지 활동하였다 한다. (연천군, 『연천의 맥박』, 1983, 64~66쪽).

16) 日本陸戰史硏究普及會, 『朝鮮戰爭』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譯, 『한국전쟁』 1, 1987, 128~151쪽).

17)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 上, 512쪽.

18) 권태응, 『장남면(고랑포)의 뿌리와 향토문화』, 권태응선생 희수기념문집 간행위원회, 1993, 36쪽.

필자의 가정과 6.25

6.25 당시 필자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고 당시에는 북한 땅이던 연천군 중면 중사리에 필자의 조부모님과 아버님, 어머님과 갓 태어난 필자의 형, 이렇게 다섯 식구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아버지는 인민군으로 원산에서 훈련을 받다가 6.25가 터지기 3일 전 원산의 훈련소를 탈출하여 잠깐 집에 들르셔서 남쪽으로 간다는 말을 남기고 남한으로 귀순하셨다고 한다. 이후 국방군으로 편입하셔서 분대장 임무를 맡으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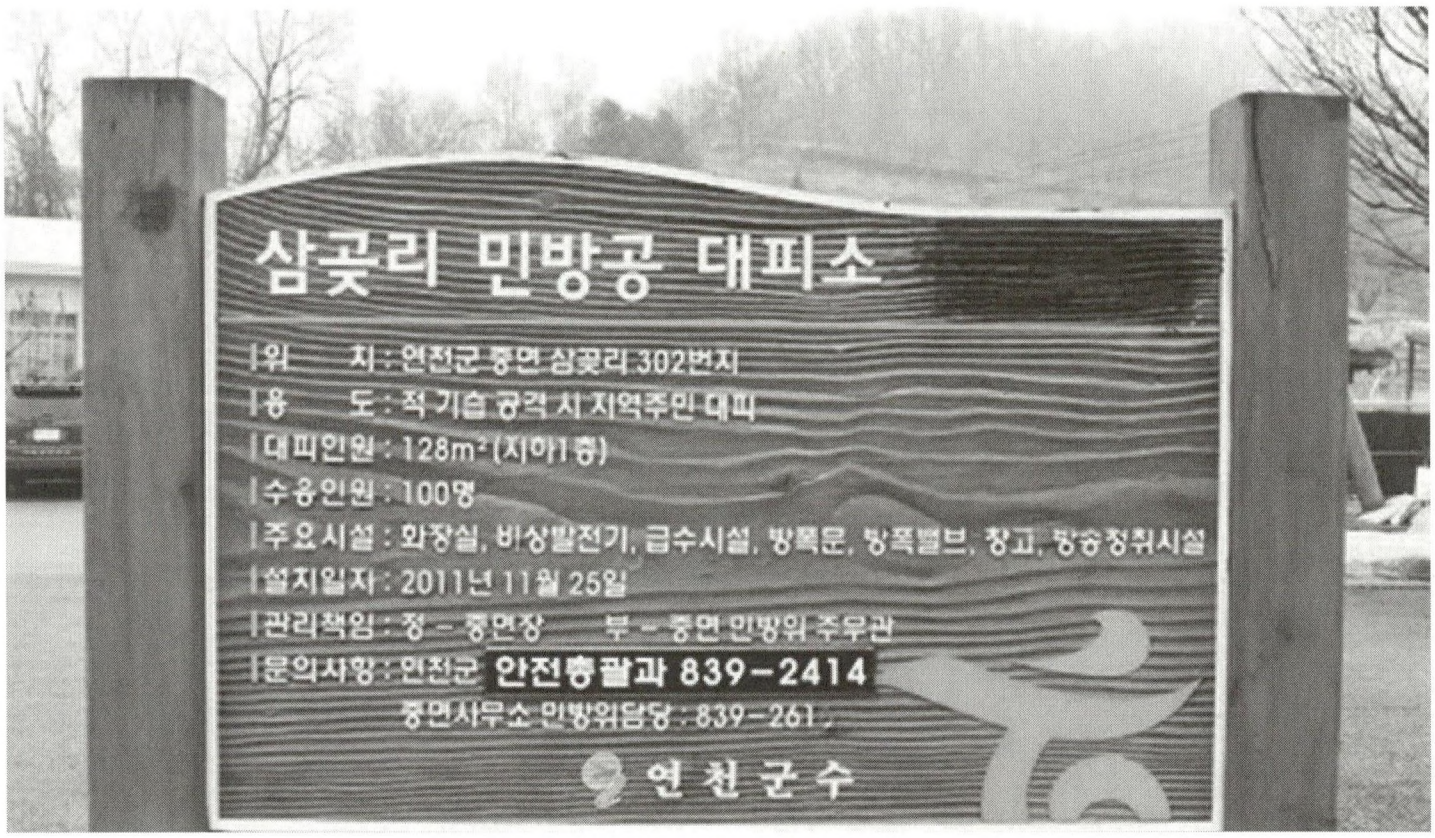
6.25 전쟁이 터지던 날은 필자의 형이 백일 날이었다고 한다. 백일 떡을 하기 위해 어머니께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절구에 빻는데 절굿공이로 쌀을 '쿵'하고 찧자 남쪽에서도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누가 또 떡방아를 찧는가 하고 의아해했는데 그것이 멀리 한탄강에서 남쪽으로 공격을 하며 포를 쏘는 소리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한다.

당시 산골 중에서도 산골인 중면 중사리(현 남방한계선 북쪽)에서 전쟁이 났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셨다고 한다. 이후 전쟁이 난 것을 아시게 된 것은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 후 서울을 탈환하고 38선을 돌격하며 북진을 하고 나서야 아셨다고 한다. 유엔군과 국군이 북진하자 인민군들은 각 마을을 돌며 "양키놈들이 쳐들어오니 살려면 빨리 북쪽으로 피난 하라우. 안 그러면 양키놈들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을 한 후 자기들은 모두 북쪽으로 도주를 하였다.

이에 당시에는 북한 사람이던 할아버님과 할머님은 북쪽으로 피난을 하기 위해 피난 짐을 꾸리면서 어머님께도 빨리 보따리를 싸서 북쪽으로 피난할 것을 종용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님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이미 남쪽으로 귀순을 했는데 시부모를 따라 북쪽으로 피난을 간다면 남편과는 영영 이별하리라 생각하니 따를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눈치만 보던 어머님께서는 "그래 내가 남편(필자의 아버님)에게 시집을 왔지, 시부모에게 시집을 온 것은 아니지 않나." 하고는 냅다 형을 둘러업고 달리기 시작하자 할머니께서 뒤쫓아오시며 "이 *아 00이(형)는 두고 가라 이 *아."라고 하며 뒤따라오셨다고 한다.

죽을힘을 다하며 달려 도착한 곳이 삼곶리(지금의 중면사무소가 소재한 곳)라는 곳이었다. 때마침 이곳에 주둔하여 전투를 준비하면서 민간인들의 소개(疏開)를 하고 있던 미군들이 민간인들



중면사무소에 있는 민방공 대피소
(이곳에 지난 2014년 10월 북한군이 쏜 고사포 총탄이 떨어졌던 곳이다)

에게 일명 띠띠약(DDT약 : 이를 퇴치하는 약. 당시엔 몸에 이가 많았다. 지금은 독성이 강해 생산 및 사용 중지되었다.)을 살포기로 뿌리고 무조건 트럭에 싣는 중이었다.

우리 어머니도 예외 없이 이 DDT를 온몸에 흠뻑 뒤집어쓰고 형과 함께 트럭에 내동댕이 처지고 뒤 따라오던 할머니도 역시 트럭에 실린 채 남쪽으로 내려와서 광나루(지금의 광진교) 다리 아래 모래사장에 내려놓게 된다. 이후부터 어머님과 할머니는 남들처럼 모진 피난살이를 하셨다.

물론 할아버지는 그대로 고향(지금은 휴전선 이북)에 머물러 있으시거나 아니면 북쪽으로 피난을 가셨겠지만, 이후의 생사는 알 방법이 없다. 130세도 넘으셨으니 당연히 돌아가셨을 것이다. 어머니를 따라 엉겁결에 남쪽으로 피난을 온 할머니는 전쟁이 끝나고 큰아들도 만나시고 딸(필자의 고모)도 만나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순간적인 어머니의 선택으로 인해 하마터면 북한 사람이 될 뻔한 나와 우리 형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오늘의 풍요로움과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

갑자기 속담 하나가 생각이 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어머니의 일생 최고의 선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필자가 너무도 다행스럽다.

4. 1950년 12월 중국인민지원군의 연천 진입

국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자, 10월 3일 중국은 미군도 북진할 경우 참전할 것임을 미국에 경고하였으나,[19]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북진하였다. 이에 중국은 10월 중순 '항미원조보가위국(抗美援朝保家衛國)'의 기치를 내걸고 중국인민지원군의 압록강 도강을 단행하여 한국전에 개입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다. 압록강까지 진출한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하였다. 12월 8일 유엔군은 임진강과 38도선을 연결하는 'B선'이라고 부르는 방어선을 편성하고, 전 병력을 'B선'까지 철수시켰다. 이 방어계획에 따라 38선 이북 연천은 포기되었다. 유엔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한강 둑에서 홍천-동해안의 양양 15마일 이남의 월포리로 이어지는 'C 방어선'과 평택-안성-장호원-원주-월포리로 이어지는 37도선 상의 'D'방어선으로의 철수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다.[20]

1950년 12월 31일 해가 지자, 이미 38선 북쪽까지 진출해 있던 중국인민지원군은 일제히 38선을 돌파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은 서울 점령을 목표로 하였기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개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서부전선, 그중에서도 연천에서 동두천 · 의정부로 이어지는 축선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

여기에는 이미 연천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중국인민지원군 38군과 고랑포 북방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인민지원군 39군이 투입되었다. 당시 연천 남쪽에는 국군 6사단이, 파주군 적성 일대에는 국군 1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 공격을 받은 국군 1사단은 큰 타격을 받고 고양리와 녹번리로 철수하였으며, 국군 6사단도 1사단보다는 몇 시간 더 진지를 지켰지만, 한밤중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두 철수하였다.[21]

유엔군사령부는 1951년 1월 3일 서울 철수를 결정하고 한강 남안(南岸) 방어선으로 철수하였다. 1월 4일 새벽 유엔군의 마지막 후위가 철수하면서 한강 부교는 폭파되었다. 곧이어 중국인민지원군 50군 및 39군, 그리고 인민군 1사단이 서울을 점령하였고 중앙청에는 인공기가 나부꼈다.

---

19) 이병주, 「중공의 한국전 개입과 그 영향」, 『한국전쟁사』 5, 1992, 35쪽.
20) 강진갑, 「한국전쟁」, 『파주군지』 상권, 1995, 584~585쪽.
21) 정토웅, 「새로운전쟁」, 『한국전쟁사』 5, 전쟁기념사업회, 1992, 99~100쪽.

1월 5일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강을 건너 남진을 계속하자, 유엔군은 'C' 선도 포기하고 1월 6일 밤부터 7일 새벽 사이 'D'선인 37도선까지 후퇴하였다.[22]

한편 인민군은 연천을 다시 장악한 후, 국군이 진주한 이후 국군에 협조한 사람들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였다. 이때 신서면 답곡리에서만 10여 명이 죽임을 당하였다.[23]

5. 1951년 연천을 둘러싼 공방전

1) 유엔군의 4월 반격과 연천 진입

1월 7일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공세가 둔화하자, 유엔군은 반격을 개시하였다. 그래서 2월 10일에는 한강 남안까지 장악하였고, 3월 15일에는 서울을 재탈환하였다. 서울 탈환 후 美 1군단은 국군 1사단을 고랑포로 진격하도록 했고, 美 3사단과 25사단을 각각 의정부와 청평으로 진출케 함으로써 38도선 회복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38선에서 유엔군은 재북진하였다. 4월 5일 유엔군은 '러기드작전'을 개시하였다. 이 작전은 임진강 하구-문산-연천군 전곡-영평천-화천저수지-남전리-한계령-양양으로 이어지는 한반도를 횡단하는 '캔자스 선' 장악이 목표였다. 작전에는 美 1군단, 美 10군단, 국군 1군단, 국군 3군단이 참여하였고,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어, 유엔군은 '캔자스 선'에 도착하였다.[24] 당시 전곡을 장악한 병력은 美 1군단 3사단이었다.

4월 21일 유엔군은 중국인민지원군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호언장담하는 철의 삼각지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작전 목표로 하는 '돈틀리스 작전'을 개시하였다. 유엔군은 작전 첫날인 4월 21일에는 목표지역인 철의 삼각지대에 거의 육박하였으며, 이날 美 3사단이 연천 일대를 장악하였다.

그런데 유엔군이 공세를 펴기 시작한 첫날인 4월 21일 중국인민지원군의 공세가 임박했음을 알

---

22) 강진갑, 「한국전쟁과 수원」, 『수원시사』 상권, 1996, 403~404쪽.
23) 앞의 허은 증언.
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투사 - 임진강전투』, 1991, 19쪽.

려주는 조짐들이 하나씩 포착되었다. 유엔군 수색대의 정찰 결과 중국인민지원군 진지가 강력하게 재편성되었음이 확인되었고, 특히 4월 22일에는 중국인민지원군 포로들이 이날 밤 중국인민지원군의 대공세가 개시될 것이라고 진술한 점이다.

2) 중국인민지원군의 4월 공세와 연천 진입

실제로 중국인민지원군은 4월 대공세를 준비 중이었고, 4월 22일 황혼 무렵부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공세 목표는 유엔군을 완전히 격멸하고 서울을 재점령하는 것이었다. 4월 공세는 한국전 참전 중국인민지원군 전 병력 7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투입된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세였다.

4월 22일 작전이 개시되자 중국인민지원군은 제3병단 소속 12 · 15 · 60군과 포병 2사단이 철원 좌측방에서 부터 연천 지구로 돌격하여 연천을 지키고 있던 美 3사단과 터키여단으로 구성된 연합군을 공격하였다. 美 3사단과 터키여단은 포병과 공중 폭격 지원을 받아 중국인민지원군의 공격을 하루 지연시킨 후 단계적으로 철수하였다. 연천은 4월 23일 오후 중국인민지원군의 점령하에 들어갔다. 4월 23일 유엔군은 문산-적성-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운천-영평-사창리로 이어지는 선까지 철수하였고, 4월 25일에는 봉일천-덕천-포천-가평선 까지 철수하였다.

당초 美 8군은 중국인민지원군이 대공세를 펼칠 시 최악의 경우 서울을 포기하고 37도선까지 철수했다가 반격한다는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신임 美 8군 사령관 밴플리트는 서울 포기를 반대하고, 새로운 서울 방어 계획을 수립하였다. 밴플리트는 서울지구의 보급시설을 다수 철수하는 것은 전력상 큰 손실이며, 수도 서울이 다시 중국인민지원군에 점령된다면 유엔군, 특히 국군의 전의에 치명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워싱턴에서 추진 중인 휴전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서울을 고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설정하고 부대를 재배치하였다. 이 방어선은 서울 북방을 반원형으로 둘러싼 선과 한강 북쪽과 청평-홍천-대포리로 이어지는 선이었다. 미군은 이 선을 '무명(無名)의 선'이라고 불렀다. 유엔군은 '무명의 선' 전면에 엄청난 양의 화력을 집중시켜 중국인민지원군의 공격을 이 선에서 저지시키고 서울을 지켰다.[25]

---

25) 정토웅, 「중공군의 4 · 5월 공세와 아군의 반격」, 『한국전쟁사』 5, 154~165쪽.

3) 유엔군의 반격과 연천 장악

1951년 중국인민지원군의 5월 공세를 막강한 화력을 동원하여 5일 만에 저지한 유엔군은 전 전선에 걸쳐 즉각적인 반격ㅍ작전을 개시하였다. 작전명은 '데토네이트작전' 이었다.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美 1군단은 5월 20일 임진강-고랑포-전곡-영평으로 이어지는 '캔자스 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격을 개시하였다.

美 1군단에 소속된 美 기병 1사단의 목표는 파주군 적성에서 연천군 전곡으로 이어지는 선이었다. 5월 23일 美 기병 1사단은 양주군 가납리까지 진출하였고, 27일을 전후하여 임진강과 전곡까지 장악하였다. 데토네이트작전 결과 유엔군은 중국인민지원군 5월 공세 이후 무너졌던 전선을 안정시키고, 중국인민지원군 4월 공세 이전의 전선이었던 캔자스 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26]

이어 유엔군은 6월3일부터 '파일드라이브작전'을 실시하였다. 작전의 목표는 캔자스 선 중앙에서 약 20km 전방 연천 읍내-연천군 신서면 천광-철원-김화-화천호로 이어지는 삼각지대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부전선에서는 고성까지 진격하는 계획이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한탄강에서 차탄천으로 이어지는 선의 이동 지역 즉, 연천군 전곡면 · 청산면 · 연천면 및 신서면 일부 지역이 유엔군의 장악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유엔군은 국군 1사단을 임진강 남쪽에, 美 기병 1사단을 전곡 남쪽에, 국군9사단을 영평 북쪽 누대리에, 美 3사단을 포천군 영북면 운천 남쪽에, 美 25사단을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일대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중 연천군 내로 진입할 부대는 美 기병 1사단과 국군 9사단이었다.

국군 1사단이 임진강 북쪽에서 정찰 활동을 펼치는 동안 1군단 주력은 6월 3일부터 공격을 개시하였다. 美 기병 1사단은 전곡에서 연천 도로를 따라 북서쪽의 임진강을, 중앙의 국군 9사단은 연천군과 포천군 경계에 위치한 향로봉-지장봉-고대산으로 연결되는 산악지대를 각각 공격하였다. 美 3사단은 운천에서 도로를 따라 철원을, 美 25사단은 도평에서 금성 도로를 따라 김화를 공격하였다.

---

26)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 中, 1996, 601~604쪽.

국군 9사단 작전 지역은 험준한 산악지대였다. 더욱이 가치항-지장봉-괘산 일대에는 중국인민지원군 1개 사단 병력이 저항하였다. 국군 9사단은 1개 연대가 향로봉을 점령하면 나머지 2개 연대도 병진 공격하는 전술을 채택하였다. 6월 5일 28연대가 한탄강변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1개대대 규모의 중국인민지원군이 저항을 하였다.

국군 9사단은 1개 연대가 향로봉을 점령하면 나머지 2개 연대도 병진 공격하는 전술을 채택하였다. 6월 5일 28연대가 한탄강변에서 공격을 대시하여 1개 대대 규모의 중국인민지원군 저항을 물리치고 향로봉을 장악하였다. 이어 7일에는 고대산 공격의 발판이 되는 지장봉을 점령하였다. 9일은 국군 9사단이 공격을 개시한 이후 최대 접전이 펼쳐진 날이다. 30연대는 수류탄과 총검으로써 근접 전투를 편친 끝에 철원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대광리 북쪽의 신서면 천광곡을 점령할 수 있었다.

한편 28연대는 우측의 美 3사단 7연대의 공격이 지연되어 우측방이 노출되자, 일시 방어로 전환하였다. 11일에야 우측의 美 3사단 7연대와 연결되자, 28연대는 美 7연대와 병진 공격하여 최종목표인 고대산을 점령하였다. 이로써 국군 9사단은 공격 개시 7일 만에 천광곡에서 철원으로 이어지는 선까지 진출하여, 철원 남쪽에서 감제고지할 수 있는 능선 위에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美 3사단과 25사단도 6월 8일까지는 기상악화로 고전하였으나, 9일부터 기상이 호전되자 항공 및 포병지원을 받아 철원과 김화를 연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다. 이로써 유엔군은 캔자스-와이오밍 선(서쪽에서부터 임진강-철원-김화-펀치 볼-고성)을 확보하였다. 유엔군은 이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진지 강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고,[27] 이후 연천군 동부 지역은 완전히 유엔군의 장악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1951년 9월 美 1군단은 와이오밍선, 즉 한강 하구-문산-연천-철원으로 이어지는 군단 방어선을 역곡천까지 10km 끌어올리는 '코만도작전'을 구상하였다. 이 작전의 목표는 장남면 고랑포 동남 임진강 제방에서, 사미천변의 사미천, 왕징면 고왕산과 마량산, 중면에 위치한 임진강변 계호동, 역곡천 남안의 고지군, 철원 북서 주토소, 중가산, 한탄강과 남대천의 합류 지점인 정연리를 연결

27) 앞의 책, 620~624쪽.

하는 '제임스타운 선'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연천군 백학면 · 왕징면 · 중면 · 신서면 서쪽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연천군의 대부분 지역이 유엔군 관할 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 작전은 군단 방어선을 역곡천까지 밀어 올림으로써 와이오민 선의 방어력을 튼튼히 하고, 연천-철원 계곡의 병참선을 적의 포병이나 관측으로부터 방호하고, 서울-철원, 철원-김화간의 철로를 개통시켜 보급품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펼쳐졌다.

8군사령부로부터 작전을 승인받은 美 1군단은 10월 2일 예하부대에 작전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 내용은 '군단 좌익인 임진강을 방어 중인 국군 1사단은 장남면 판부리 서쪽을 점령 방어할 것. 영연방 1사단은 187고지와 왕징면 고왕리 일대와 마량산, 고잔리를 점령 방어할 것. 美 기병 1사단은 346고지, 중면 덕은동 일대와 347고지, 신서면 갈현리 일대를 점령 방어할 것. 美 3사단은 철원군 중토동, 도밀리, 324고지-덕산리 일대와 대마리- 283고지-266고지-중어성 일대를 점령 방어할 것'이었다. 한편 美 9군단 25사단도 1군단 우측방을 방어하기 위해 소속 터키여단이 김화-평강 사이의 중간지점까지 진출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토록 명령이 내려졌다.

작전은 10월 3일 이른 아침 1시간에 걸친 공격 준비 사격에 이어 새벽 6시부터 시작되었다. 국군 1사단은 임진강 주진지를 확보한 가운데 적의 저항을 받지 않고 사미천 서안의 91고지를 점령함으로써 군단의 작전 목표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여타 지역은 사정이 달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으며, 美 1군단은 10일 19일에 이르러서야 군단의 작전 목표지점을 장악할 수 있었다.

작전 동안 넓지 않은 지역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은 2만 1,500여 명의 사상자와 포로가 발생하였고, 美 1군단도 4,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숫자는 1군단의 코만도작전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美 1군단의 코만도 작전으로 상실한 지역을 되찾기 위한 중국인민지원군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1951년 11월 중국인민지원군의 공격도 그중 하나였다. 그 과정에서 고왕산이 일시 중국인민지원군에 점령되었으나, 유엔군이 반격하여 되찾았다. 그러나 마량산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장악하에 들어갔다. 이후 전선은 큰 변화 없이 고착되어 끊임없는 소모 · 파괴전이 계속되었다.

이 전선은 휴전회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이후 휴전선이 되었다.[28]

4) 휴전협상 중에 건립된 유엔화장장

연천 유엔군 화장장 시설은 한국전쟁 당시 서부전선의 한창 전투가 치열하던 1951~1952년 사이에 지어졌다. 긴박한 상황이라 유해 송환이 어려웠던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유엔군 화장장은 영국군이 관리했다. 영국은 한국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다. 영국은 영연방국가들의 참전군으로 1개 사단을 편성하기도 했다. 16개 유엔 참전국 가운데 전사자가 없었던 나라는 없다. 연천 유엔 화장장 시설은 현재 굴뚝과 일부 벽체 등이 남아 있다.

설마리 전투와 금굴산 전투 외에도 유엔군은 연천과 파주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렀다. 연천 군자산 전투(미군), 연천 율동 전투(필리핀 대대와 터키여단), 장승천 전투(터키여단), 신산리 전투(필리핀 대대), 불모고지 전투(미군), 제임스타운선 진출전(영국군), 연천 313고지 전투(그리스 대대), 노리고지 전투(그리스 대대), 포크찹고지 전투(태국 대대), 후크고지 전투(영국군), 네바다 전초전(미군과 터키군), 요크 · 엉클 고지 전투(에티오피아군) 등이 전사에 기록된 전투들이다.

한국전쟁 기간에 전사한 유엔군은 미군이 5만4,246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영국군, 터키군(721명) 순이다. 캐나다군도 312명이 숨졌고, 오스트레일리아군, 캐나다군, 벨기에군, 콜롬비아군, 에티오피아군, 프랑스군, 그리스군, 네덜란드군, 필리핀군, 태국군도 100~350명의 전사자를 냈다. 16개 참전국 가운데 전사자가 없는 나라는 없다. 유엔군은 모두 5만7,933명이 이역만리 전투에서 숨을 거뒀다.

연천 유엔군 화장장 시설은 2개 동으로 건립되었다고 추정된다.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7m 높이의 화장 시설 굴뚝과 일부 벽체와 기둥 등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긴박한 상

28)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 下, 1997, 182~191쪽.

유엔화장장 터

황에서 지어져 사용됐던 화장장인데다 군사분계선에 가까운 위치로 인해 전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화장장 굴뚝은 굴뚝 받침과 불을 지펴 연소시키는 화구가 하나의 구조물처럼 남아 있다.

영국군은 1951년 7월 영연방국가들(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파견군을 통합하여 영연방 1사단을 임시 편성했다. 연천 유엔군 화장장 건립은 영연방 사단 창설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애석하게도 건립 시기와 화장장에서 처리한 전사자의 수와 국적 등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한국전쟁 종전 55주년이던 2008년 연천 유엔 화장장 시설은 등록문화재 제408호로 지정되었다.

5) 미군과 유엔군의 민간인 지원사업

① 연천읍 상리(上里)의 또 다른 이름 신망리(新望里)

연천읍 상리(上里)의 또 다른 이름은 신망리(新望里)이다.

신망리는 1954년 전쟁이 끝나고 수복이 되면서 연천의 어느 지역보다 일찍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된 지역이다. 여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다. 전쟁이 끝나고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이 정착민들을 위해 집 100채를 짓고 길을 만들면서 "새롭게 바라보는 마을",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는 마을"이라는 뜻의 (New Hope Town)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뜻을 한자로 만들어 쓰게 되니 신

망리(新望里)라는 마을 이름이 새로이 붙게 된 것이다.

또한 신망리역은 주변에 미군 부대들이 많이 주둔하면서 군수물자나 인원 수송 등을 위해 새로이 만들어진 역이다. 군인들이 많다 보니 신망리역 건너편에는 다방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다방거리가 생겼다. 이곳에서 면회객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곤 하였다. 그리고 주변에 속칭 '니나노집'이라 불리는 방석집과 윤락가도 많이 생겼었다. 이제는 그 흔적은 찾을 수가 없고 새로운 길 이름인 '다방거리'라는 곳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듯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전쟁만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삶도 챙기면서 학교도 지어 주고 다리도 지어 주면서 가난한 국가의 어려움도 어루만져 주었다. 지붕과 기본 골조로 집을 만들고 반듯하게 길도 만들어 구불구불한 우리의 옛 마을들과는 다르게 사방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다.

경원선 신망리역

② 휴전직후 캐나다군이 지어준 백학고등공민학교(현 백학중학교)

현재 연천군 백학면에 위치한 백학중학교는 1954년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캐나다 보병 25여단의 장교와 사병들이 힘을 합쳐 설립한 학교다. 최초에는 판자로 된 교실 3개와 교무실 1개로 지어져 국민(초등)학교로 개교되었다가 점차 학생 수가 늘어나자 현재의 백학초등학교로 이전을 하였

다. 1965년 연천중학교 백학분교로 되었다가 1971년 1월 현재의 위치에 새 건물을 설립하여 백학중학교로 정식인가를 받았다.

6·25전쟁 당시 휴전이 되어 백학면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캐나다군은 6.25 종전 후 수복지구인 이 지역이 휴전선 최전방에 위치하였으며 초등과정의 학교조차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상부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당시 캐나다군 보병 제25여단의 W.M 싱클레어 중령에 의해 1954년 11월 15일 착공하여 그해 12월 10일 W.H.V 매튜즈 중령에 의해 당시 초등학교 과정으로 공식 개교를 하게 된다. 이후 점차 학생 수가 늘어나자 교실 3개만으로는 부족하여 현재의 백학초등학교 자리인 두일리로 확장 이전하게 되고 이 자리는 백학고등공민학교(당시 중학 과정)로 다시 개교하게 된다.

당시 백학고등공민학교는 문교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하여도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고등학교 입학시험 자격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게끔 당시 연천에서 유일한 중학과정인 연천중학교를 모교로 삼은 백학분교로 1965년 정식 인가를 해주고 다시 1971년 3월 25일 현재의 백학중학교로 개교를 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현재의 백학중학교가 되게끔 비록 목조건물이긴 하지만 머나먼 타국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며 목숨을 걸고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건립해 배움의 길을 열어 준 캐나다 군인들의 고마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위급한 시기에 자유의 십자군으로 참전하여 하마터면 적화될 뻔한 대한민국을 누란의 위기에서 구해내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폐허가 되어 살길마저 힘들었던 열악한 환경의 최전방 학생들을 위해 외국군의 신분으로 학교를 건립하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워 준 캐나다 보병 제25여단의 장교와 사병들에게 지금이라도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역사의 중요성은 이렇듯 잊히고 사라져 가는 것을 재조명해 봄으로써 고마운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냄으로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필자도 이 학교(캐나다군이 지은 목조건물)에 1967년 입학한 이 학교 출신이다.

현 백학중학교에 있는 캐나다군의 학교 건립 기념비
아래 부분에 캐나다기와 태극기가 선명히 새겨져 있다.

6) 유엔군의 연천지역 주요 전투상황

① 고왕산 전투 (1952. 10. 23. ~ 24.)

고왕산 전투 혹은 355고지 전투는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2년 10월 23일에서 24일까지, 제25보병여단 소속 왕립 캐나다 연대가 임진강 북방 고왕산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중공군과 벌인 전투이다.

제2차 후크 고지 전투로 알려진 고왕산 전투는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2년 11월 18일부터 19일 사이에 캐나다 제 25여단이 임진강 북방 고왕산 지역을 방어하던 중 중공군과 치른 전투이다.

이 여단은 고왕산에서 중공군의 공격 준비 사격에 이어 벌어진 급습을 받고 고왕산 서측방의 무명고지를 한때 점령당했으나 다시 역습으로 이를 탈환하여 주저항선을 회복하는 개가를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캐나다군은 중공군이 공격하기 전에 미리 고지 바로 하단에 포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엄체호를 비밀리에 구축해 놓은 다음, 그 안에 돌격부대가 은신해 있다가 방심한 중공군에게 급습을 감행해 재탈환했다.

고왕산에서 전투 중인 캐나다 왕립 제25보병여단

② 마량산전투—317고지전투(코만도 작전1951년)

코만도 작전은 1951년 10월 3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에 의해 수행된 공세이다. 대한민국 제1보병사단과 제1영연방사단을 포함한 미국 제1군단은 제임스타운 선을 포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제42군, 제47군, 제64군, 제65군을 섬멸하였다. 이 공세 이후 공산군은 서울 인근의 유엔군 보급선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다.

317고지 또는 마량산(말무덤산)이라 불리는 이 산은 코만도 작전의 마지막 격전지였다. 전쟁 일자는 1951년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공세는 민덴 작전 동안 새로 형성된 와이오밍 선에서 1951년 10월 3일부터 시작되었다. 1951년 10월 8일까지 공세는 지속되었고 와이오밍 선 남쪽의 몇몇 고지가 공산군의 수중에 있었지만, 유엔군은 와이오밍 선 대부분을 수복했다. 폴차지 작전을 통해 남아있는 고지들이 포위되었고 전선도 10km 북상했지만, 미국 제1기병사단은 재기불능 상태가 되어 일본으로 철수했다.

코만도 작전의 마지막 전투는 10월 8일까지 이어졌지만, 양측 간의 공방전은 중공군 춘계공세 때와 유사하게 임진강 일대에서 벌어졌다. 이 전투 이후 중공군과 유엔군은 전면적 공세보다는

마량산 전투의 호주군과 한국인 노무자(일명 지게부대)들

지연전과 교착전에 초점을 두었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군이 참전한 전투는 제1차 마량산 전투로 역사학자 사이에 알려졌다.

③ **연천지구 율전리(栗田里)전투** (1951. 4. 22. ~ 23.)

6 · 25 당시 필리핀은 독립 이후 줄곧 공산 반란군과 교전 상태에 있어 국내정세가 매우 불안했다. 그런데도 필리핀 정부는 유엔이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결의하자 전차 17대를 포함한 5,000명 규모의 1개 연대 전투단 파견을 통보한다. 그리고 최강 전력을 보유한 제10대대 전투단을 파견키로 하고, 이들을 실은 수송선이 1950년 9월 15일 마닐라 항을 출발했다.

20일 부산항에 도착한 필리핀 대대는 시민들의 환영 속에 미국 · 영국에 이어 세 번째 지상군 참전국이 됐다. 10여 일의 적응훈련을 마친 필리핀 대대는 美 제25사단에 배속돼 10월 11일 사천으로 이동, 비행장 경비 임무를 시작으로 6 · 25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이후 유엔군이 북진을 시작하자 대대는 평양에 진출해 개성~평양 간 주보급로 경계 작전을 수행하며 북한군 게릴라를 소탕했다. 1951년 4월 22일 연천 북방 율전리에서 중공군 34사단을 맞아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며 인접 부대의 철수를 성공적으로 엄호하고, 유엔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후방으로 철수했다. 이 전투가 필리핀군이 치른 가장 큰 전투로 율전리 전투다.

④ **아스널, 이리 고지 전초전**(1952. 5. 18. ~ 21.)

美 제45사단에 배속된 필리핀 제19대대는 연천 북방 20km 지점 '티본' 고지(현재의 열쇠전망대 건너편)에서 주저항선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952년 5월 18일 밤, 중공군 제117사단이 이 지역으로 공세를 시작했다. 중공군은 강력한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2개 연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대대 또는 연대 단위로 이 양 고지를 파상공격 하였으나, 필리핀 제19대대는 사단본부의 치열한 화력지원을 받으며 백병전까지 수행한 끝에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고지를 방어하였다.

필리핀군의 전공과 전투중 산화한 125명의 전몰영령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1966.04.22일 연천군민이 건립한 필리핀 참전비이다.

⑤ **포크찹 高地 전투**(234고지 1952. 11.1~11)

한국전쟁 때 타일랜드는 유엔의 한국 지원 결의에 동의했으며 아시아에서 최초로 지원 의사를 표시하고 육군 1개 대대를 비롯해 함정 3척, 의료지원 3개 반 등 많은 장병과 장비를 파견시킨 국가이다. 타일랜드군은 1950년 부산으로 입항해 평양, 개성을 거쳐 유엔군의 철수 작전을 엄호하였다. 타일랜드 지상군 대대는 제8군의 작전 통제하에, 타일랜드 해군은 美 극동 해군사령부의 작전 통제하에 작전을 시행하였다. 타일랜드 공군은 그보다 11개월 후에 파병이 결정되어 1개 수송기 편대가 1951년 6월 23일 일본에 도착한 후 6·25전쟁에 대한 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타일랜드 지상군 대대는 약 4개월간 유엔군의 전선 후방에서 병참선 경계 및 對 게릴라 작전을 수행한 후, 1951년 3월부터 전방 지역 작전에 투입되었다. 각종 전투 및 공비 토벌, 보급 물자 수송, 전상자 치료를 담당하였고, 금화전투에 참전하는 한편 평야 지대에서 중요 보급소를 보호하였으며 유격대 소탕에도 일조하였다. 의정부에서는 여러 개의 고지를 점령하고 휴전 후에는 포천지구에서 경계 임무를 맡기도 했다.

휴전 후, 타일랜드 해군은 1955년 1월에, 공군은 1964년 11월에 철수하였으며, 지상군은 1개 중대를 잔류시키고 1954년에 철수하였다. 일부 잔류부대는 1972년 6월에 철수하였다. 한국전쟁 때 타일랜드군은 전사 129명, 전장(戰傷) 1,139명, 실종 5명의 손실을 보았다. 타일랜드군의 전력(戰歷)을 소개한다.

*연천지역 방어(1951. 7. 31. ~ 9. 7.)

타일랜드 지상군 대대는 美 제1기병 사단에 배속되어 1951년 7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연천 북방 율동 지역을 방어하였다. 이 기간에 이 대대는 주저항선 전방에 前哨(전초)를 운용하면서 적의 전초 진지에 대한 정찰전을 실시하였다. 그중에서도 8월 18일에 실시한 정찰에서는 2개 중대 규모의 중공군 부대를 발견하고 이를 기습하여 전과를 올렸다. 이 대대는 9월 7일 예비 임무로 轉化(전화)하였다.

포천시 영북면의 태국군 참전비

⑥ 금굴산 전투

금굴산은 중요 전략적 요충지이자 군사적 요새로 이곳을 적에게 내 줄 경우 38선, 즉 한탄강 이남으로 휴전선을 정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지리적 조건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고지였다. 지금의 백학면과 미산면, 왕징면, 군남면은 물론 연천과 전곡이 적의 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고지이다.

당시 영연방 29여단은 美 제3사단에 배속되어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29여단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군의 혼합대대인 베룩스대대와 푸질리어연대의 1개 대대, 올스터대대, 그로스터대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45야전포병연대, 25파운드 포대와 170밀리 박격포대대가 화력을 지원하며 센츄리언 전차 부대가 후방에 있었다.

영연방군들의 전투모습

2월 공세 때 베룩스 대대는 임진강 북쪽의 중요 감제고지(적의 활동을 살피기에 적합하도록 주변이 두루 내려다보이는 고지)인 금굴산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좌측으로는 영국군 푸질리어 대대, 우측으로는 임진강의 가파른 단애를 사이에 두고 美 제3사단 제65보병연대와 접하고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영연방군 29여단은 글로스터(Gloster)대대가 서측의 마지리 일대, 후시리어(Fusilier)대대가 동

측의 어유지리 일대에 배치하고 여단에 배속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합동대대를 경계부대로써 임진강의 북쪽 금굴산에 배치하였으며 얼스터(Ulster)대대를 예비로 구용리에 집결시켜놓고 있었다.

여단 정면에서 148고지(일명 캐슬 고지) 일대에 배치된 그로스터대대는 임진강이라는 천연장애물이 있기는 하지만 계절적으로 갈수기여서 곳곳이 도섭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이점은 크지 않았고 도리어 갈대밭으로 형성된 평지나 다름없어서 전투가 벌어지면 어떠한 상황이던 그로스터대대는 심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지형적인 불리한 점을 안고 배치되었다.

이런 중요한 전략적 지역을 모를 리 없는 중공군과 북한군은 금굴산을 차지하기 위해 완강히 저항하였고 파상적으로 달려드는 적군들로 인해 이 지역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는 필연적이었다.

결국,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금굴산을 차지한 영국군(베룩스 대대 포함)과 캐나다군, 美 제3사단은 그 여세를 몰아 금굴산으로부터 약 20키로 북쪽인 고왕산(강서리)과 마량산(고잔리)에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며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면서 휴전선을 결정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

동두천시에 있는 베룩스 참전 기념비

⑦ 네바다 전초 전투의 영웅 말 하사(馬下士) '아침해'

네바다 전초 전투란

6·25전쟁 동안 국군과 유엔군은 수많은 전투를 치르게 되지만 네바다 전초 전투는 절체절명의 수도 서울을 사수한 매우 중요한 전투로서 6·25전쟁사에 길이 남을 전투로 평가된다. 1953년 3월 정전협정을 약 4개월 남긴 상황에서 중공군은 다시 한번 수도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마지막 총력전을 치르고자 경기도 장단군 매현리(현재의 연천군 장남면 매현리)로 4개 사단 약 4만 5천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약 3년간 끌어오던 휴전협정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당시의 고지를 차지하느냐 빼앗기느냐는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만일 수도 서울을 중공군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정전협정이라도 결정이 된다면 수도 서울은 물론 서울 북쪽은 북한 수중에 떨어지는 매우 중요한 결과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인 것이다.

6·25전쟁에서 휴전은 개전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웠다. 양측 모두가 서로 자신들이 승리한 전쟁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회담은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포로 교환이었다. 한국전쟁이 점점 국제전화하면서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자 이에 휴전협정을 맺고자, UN과 공산군 사이에 휴전회담이 진행 중이었다. 휴전협정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포로교환 문제였는데, 공산군 측은 무조건 모두 교환하자는 자동송환을 주장하였고, 유엔군 측은 포로 각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자는 자유 송환을 주장하여,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였다.

다음으로 휴전선(국경선)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에서도 서로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공산군 측은 전쟁 전의 38선으로 정하자는 주장이었고 UN군 측은 현재의 전투지를 휴전선으로 정한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군의 수도 서울 침공작전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도솔산의 영웅들을 네바다 전초 전투에 투입시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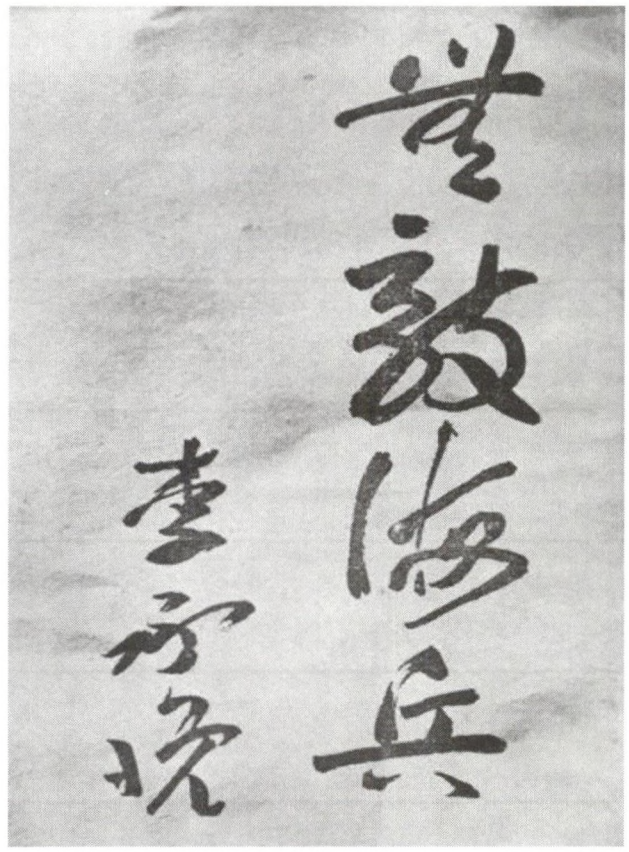
중공군은 왜 수도 서울이 더욱 가까운 문산 북쪽이 아닌 매현리 쪽을 주공격 지점으로 정한 것

일까? 바로 임진강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문산 북쪽 임진각 쪽으로는 경의선 열차가 다니던 철교와 휴전 후 '자유의 다리'라고 하는 당시 독개다리가 있었지만,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유엔군에 의해 중공군 약 4만여 명이 이 다리를 통과한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었고, 매현리 쪽으로 공격할 경우 전선이 무너지면 곧바로 호로고루와 고랑포 사이의 호로탄을 도하장비 없이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매현리 쪽을 택한 것이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강원도 양구의 도솔산 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한국 해병 1연대와 美 해병 1사단 5연대를 주력 방어부대로 정하게 한다. 도솔산 전투란 1951년 6월 초 중동부의 산악지역에서 중공군의 6차 공세(5월 공세)를 저지한 국군과 유엔군이 캔사스선(화천 저수지~양양 북방을 연하는 선) 확보를 위한 전초진지(前哨陣地)인 와이오밍선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한국해병대는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북한군을 단 세 시간 만에 야간 기습공격으로 점령하여 전쟁사를 다시 쓰게 만든 전투로, 국군 제1해병연대의 쾌거를 보고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해당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무적 해병'이라는 휘호를 하사하였으며, 이후 무적 해병이라는 말은 해병을 상징하는 구호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한 美 해병 1사단 5연대를 네바다 전초 전투에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하사한 무적해병

수도 서울을 방어하라

네바다 전초 전투는 1953년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판문점 동북방 16km 지점인 현(現) 연천군 장남면 매현리 지역인 네바다 전초(베가스 전초, 레노 전초, 카슨 전초)를 방어 중이던 美 해병 제1사단 제5해병연대가 전초진지로 침공한 중공군 제120사단을 격퇴하기 위하여 전개한 방어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美 제5해병연대는 3월 26일 밤 중공군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고 베가스 전초와 레노 전초를 상실한 후, 제7해병연대 1개 대대와 포병 및 공군의 지원으로 역습을 감행하였으나 되찾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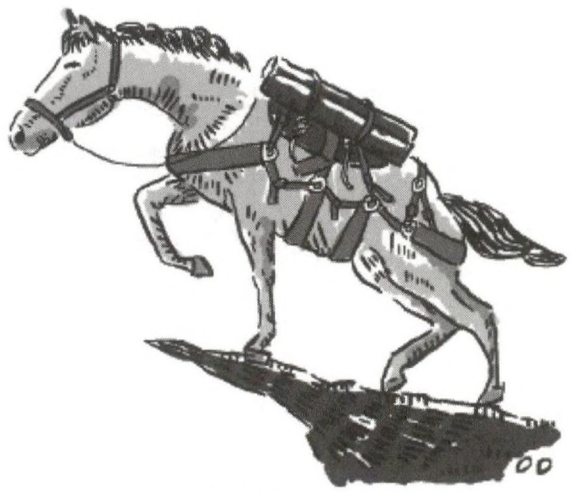
이 전투에서 중공군의 사상자 수는 1,3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美 해병 부대도 118명이 전사하고 801명 부상에 실종 98명의 손실을 보았다. 베가스 전초는 가히 피로써 지켜진 고지였다. 후에 美 제25사단은 美 해병 제1사단으로부터 책임 지역을 인수하여 터키군을 배속받아 치열한 격전 속에서도 이곳을 끝까지 사수해냈다.

말 하사(馬下士)'아침해' 일명 '레클리스'의 활약

'아침해'는 1950년 신설동의 경마장을 달렸던 말이다. 마주(馬主)인 김경문 씨는 전쟁 중에 지뢰를 밟고 한쪽 다리를 잃은 누나의 의족을 만들어 주기 위해 美 해병 제1사단 제5해병연대 무반동화기소대 에릭 피터슨 중위에게 '아침해'를 250달러에 팔았다.

이후 6·25전쟁 말기에 투입된 '아침해'는 네바다 전초 전투에서 단 한 번의 길 안내를 받은 뒤 혼자서 하루 동안 51회 고지를 왕복하며 탄약과 포탄을 실어 날랐다. 이 5일간의 전투에서 총 56km, 386회 왕복하였고, 무려 4t의 탄약을 공급하였다. 말 한 마리가 해냈다 하기엔 가히 경이로운 성과였다.

사선(死線)을 넘나든 '아침해'는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 1957년 중사로 진급하였으며, 1959년에는 상사로 진급하였다. 1960년 퇴역한 '아침해'는 1968년 20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미군에서 정식으로 군 장례식을 치렀다.



아침해(해병마 레클리스)

'아침해' 'Marine horse Reckless(해병마 레클리스)'

5일간 전투 중에 총 386회, 거리로는 56Km를 적의 총탄이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美해병대 Babbit 상사는 "암갈색 몸매에 하얀 얼굴을 한 "아침해"가 말없이 총탄을 뚫고 생명과 같은 포탄을 날라주는 모습을 보고 모두 감동해서 사기가 진작되어 적을 괴멸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아침해"의 무모하고도 용감한 활약에 의해 "레클리스" 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레클리스는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존 웨인 등과 함께 1997년 미국 라이프지(誌)가 선정한 미국의 100대 영웅에 선정된 몽골 암말이다. "아침해"는 1952년 10월 美 해병대에 입대하게 된다. 당시 미군은 산악지역 고지 전투에서의 탄약수송을 위해 말이나 당나귀를 대거 구매해 사용하고 있었다. 레클리스란 이름은 '무모할 정도(reckless)'로 용감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명성을 떨친 것은 1953년 3월 26~30일 연천군 매현리의 네바다 전초 전투, 美 해병 제1사단 제5연대가 중국군 제120사단을 격퇴하기 위한 방어 전투였다. 앞서 말한 것처럼 레클리스는 5일 동안 총 386회(56㎞)를 왕복하며 상처를 입으면서도 탄약을 실어 날랐다.

전쟁 후 레클리스는 피더슨 중위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1968년 사망할 때까지 평안한 여생을 보냈다. 레클리스는 1957년 미군 최초의 말 부사관이 됐으며, 퍼플하트 훈장 2개와 유엔 종군 기장, 美 대통령 표창, 그리고 한국 대통령 표창장 등을 받았다.

6. 휴전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휴전 이후 연천에는 美 7사단에 의해 군정이 실시되었다. 민정관이 군수를 대신하여 행정을 담당하였고, 군청에는 군청 직원 몇 명이 근무하면서 군정을 수행하였다.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연천군 연천면 등 8개 면이 한국 정부에 행정권이 이양되어, 해방 후 처음으로 연천군에서 한국 정부의 행정이 펼쳐졌다.

Ⅲ. 맺는 글

휴전 이후의 연천은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다. 그러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잠시 쉬고 있을 뿐으로 최전선인 이곳은 아직도 긴장감이 감돌며 연천군 전체의 97%가 군 작전지역으로 분류되어 군(軍)의 동의가 없이는 화장실 하나도 마음대로 증, 개축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지난 70여 년간을 안보라는 미명아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휴전 후 연천에는 주택도, 공장도, 유적지도 그 어느 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단지 과거의 김일성이 지배했던 북한 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행정 아래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평화가 보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주민은 만족할 수 있었다.

1954년 11월 수복지구 임시 행정 조치법에 의거 전곡면과 연천면을 필두로 고향으로 찾아든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이곳은 전쟁이 끝나고 곳곳이

지뢰밭이고 군사시설과 사격장 등으로 또한 북한과 접경지역이어서 북한의 대남방송이 주야로 귀를 울려대는 곳이었다.

곳곳에 있는 지뢰를 목숨을 걸고 캐낸 다음 농사를 지었는가 하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격장에 숨어 들어가 탄피와 고물을 캐서 연명하기도 하는 등 수복지구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였다. 이제 전쟁의 포화가 멎은 지 70여 년이 되어가는 요즈음 6.25에 대해서 교육이 전혀 없다. 어두운 과거를 되살리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과거와 역사를 잊고 사는 민족은 희망이 없는 민족이다.

참고문헌

國防部 發行 韓國 戰爭史 제1권~11권

國防軍史硏究所 發行 韓國戰爭 1권~3권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戰鬪史 - 臨津江戰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38도선 初期戰鬪(西部戰線篇)

漣川郡誌 (上.下)

日本陸戰史硏究普及會,『朝鮮戰爭』(陸軍本部 軍史硏究室 譯,『韓國戰爭』 1,

『韓國戰爭의 勃發과 紀元』 1, 나남출판,

『北韓軍의 侵攻과 韓國軍의 防禦』,『韓國戰爭史』 3, 행림출판

臨津江은 흐른다(38선 부근 사람들). 李鎔奎 著『圖書出版 타오름』

京畿鄕土史學(第25輯)

경기향토사학(제25집)

경기향토사학(제25집)

발 행 인 : 염상덕

편 집 인 : 최영주

기　　획 : 장세영

발 행 처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인　　쇄 : 2020년 12월 31일

발　　행 : 2020년 12월 31일

인 쇄 처 : 홍익문화사(02-2274-8110)

I S S N : 2765-2718

이 책은 2020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본 지의 내용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릉(金陵) 남공철(南公轍)에 대한 연구_백남욱
소사간이학교(素砂簡易學校)와 부천농업중학원(富川農業中學院)_양경직
안산 지역학의 연구 성과와 전망_신대광
도봉산 망월사 혜거국사 이야기_최영희
소래산 석조 마애보살입상에 관한 고찰_팽재연
장단 백학산 석각과 난정수계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_차문성
접경지역 김포의 포구문화_정현채
여주와 천주교신앙_조성문
6·25전쟁 70주년과 동두천 지원특별법 문제점_이명수
한국전쟁(6·25전쟁) 속의 연천_이준용

05
9 772765 271001
ISSN 2765-2718